

최 종 보 고 서

취 업 자 의 생 활 시 간 연 구

최종보고서

취 업 자 의 생 활 시 간 연 구

연구책임자 박재환

공동연구원 김문겸

공동연구원 김희재

공동연구원 남기성

연구보조원 양이문

연구보조원 최봉재

연구보조원 홍현욱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가. 연구의 목적	1
나.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내용 및 범위	12
가. 연구내용	12
나. 연구방법	13
 제 2 장. 취업자의 하루 24시간 활용현황과 추이변화 및 특징	 17
1. 취업인구의 추이	17
2. 취업자 하루 24시간 구성	22
가. 취업자의 하루 24시간	22
나. 취업자와 전체국민의 생활시간	23
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생활시간	25
3.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추이	27
가. 취업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변화	27
4. 취업자의 행동유형별 특성	32
가. 수면	33
나. 노동(일)	34
다. 가사노동	36
라. 이동	37
마. 미디어 이용	39
바. 적극적 여가	40
사. 소극적 여가	42
5. 소결	43
 제 3 장. 취업자 속성에 따른 생활시간 비교	 45

1. 성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비교	45
가. 성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46
나. 성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1999년, 2004년)	48
다. 성별 요일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2004년)	513
라. 성별 요일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1999년, 2004년)	53
마. 성별 주요행동별 생활시간 변화	55
바. 소결	58
2. 연령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비교	59
가. 연령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60
나. 연령별 요일별 생활시간의 변화	64
다. 연령별 성별 생활시간의 변화	69
라. 연령별 주요행동별 생활시간 변화	71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비교	74
가. 종사상 지위별 요일평균생활시간의 변화	74
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1999, 2004년)	76
다. 종사상 지위별 요일별 생활시간의 변화	80
라. 종사상 지위별 성별 생활시간의 변화	85
마. 종사상 지위별 주요 행동별 생활시간 변화	87
바. 소결	90
4. 직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비교	91
가. 직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92
나. 직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1999, 2004년)	93
다. 직업별 요일별 생활시간 변화	100
라. 직업별 요일별 생활시간 변화	108
마. 소결	126
5. 산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128
가. 2004년 산업 분류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129
나. 산업 분류별 · 성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132
다. 산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의 변화	142
라. 산업별 · 요일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146
마. 산업별 취업자의 필수생활시간	152

바. 산업별 취업자의 이동시간	154
사. 산업별 취업자의 여가시간	155
제 4 장. 취업자의 생활상태 및 생활의식의 변화	161
제 5 장. 직업별 생활시간 배분의 한일 비교	170
1. 한일 양국의 생활시간 조사의 개요	170
2. 한일 취업자 전체 생활시간 비교	172
가. 개인유지	175
나. 사회적 활동	175
다. 여가활동	178
3. 한일 직업별 생활시간 비교	179
가. 관리직 종사자의 생활시간 배분	179
나. 전문기술직	180
다. 사무직 종사자	182
라.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	183
마. 생산·노무종사자	184
바. 농림어업직 종사자	186
사. 소결	188
4. 행동유형에 따른 직업별 시간배분 비교	189
가. 노동시간	189
나. 개인유지활동	190
다. 가사 및 가정활동	191
라. 여가활동	192
마. 이동활동	193
5. 결 론	193
제6장. 결론 및 제언	197
참고문헌	204
부록	209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1) 일상생활과 시간

일상생활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 세계 그 자체이며,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공간이다. 일상생활은 개인이 생활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성되는 반복적 세계이다. 반복적이고 사소하며 의미 없이 되풀이되어지는 생활세계는 인간 삶의 형성과 재생산의 모태가 되는 공간¹⁾이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일상은 그 하찮음 속에서의 반복들로 이루어진다. 즉 노동 안에서나 노동 밖에서의 행동들, 기계적인 운동들, 시간, 나날, 주, 달, 해 선적인 반복 또는 순환적인 반복, 자연의 시간 혹은 합리성의 시간 등등이며, 보잘 것 없으면서도 견고한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분과 단편들이 하나의 일과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Lefevre, 1992: 51, 58)고 지적한다. 이렇듯 일상의 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일상생활의 세계이다. 일상생활은 일상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며, 또한 인간의 역동적인 삶이 살아나는 곳이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핵심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아그네스 헬러는 ‘일상생활은 자신뿐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재생산적 요소들의 집합체를 일컫는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재생산할 때 만 사회를 재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Heller, A., 1994: 12).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통하여 종족의 재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의 이면인 소비와 여가를 통하여 노동력의 재생산이 일어나고, 생활

1) 과거의 경우 공간이라는 개념은 수학이나 기하학, 언어학 등에서 기껏해야 지식을 연상시켰을 뿐 사회이론을 연상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간에 대한 르페브르의 지적은 사회학분야에서 중요한 인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물질적 공간과 정신적 공간 그리고 사회적 공간 사이에는 어떤 통일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공간의 모순과 공간의 이중성에 대한 그의 열정은 예를 들어 추상적 공간이 기하학적으로 측정되거나 통계적이며, 계획적인 조작들에 귀속되는 점에 있어서는 계량적이지만 양적 성질이 여가로서 소비될 때는 질적인 것으로 나타난다(Kurzweil, 1984: 82).

의 재생산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재생산이 가능해진다. 좁게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고, 나아가 사회를 재생산해 가는 것이다. 일상생활은 사회구조를 재생산하고, 전통을 복원하고, 계급을 유지시키고, 자본과 국가를 유지, 강화시키는 인간이 만들어 가는 사회적 구성의 복합화된 공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일상생활은 일과 노동, 소비와 여가라는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두 영역이 상호 교차하는 곳이다. 인간 생존의 필수요건인 노동과 여가는 단일한 의미의 사회적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인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현실에서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가능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배열 속에서 진행되고 구성된다. 아울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의식은 사회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사회과정을 산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인간이 상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행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간의 사회성은 인간의 생활양식이 일상적인 활동과 비일상적인 활동을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의 일정한 기준과 규칙에 의해서 결합된 총체인 것이다.²⁾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은 동일한 사회적 기준이나 규칙을 생산하고, 사회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생활에 대한 관념인 생활관을 만든다. 그리고 생활양식은 특정한 인간집단이 발달시킨 생활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성을 획득하게 하고, 또 그 시대의 집단구성원들 간에 공유되어 사회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에 대한 사회학적 인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시간은 단순히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회의 성격을 반영하는 사회적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³⁾

2) 이러한 의미에서 마페줄리(1994: 44)는 일상생활의 사회학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사회학이란 여러 종류의 기관(학교, 관청, 조직체 등)이나 여러 형태의 집합체(가족으로부터 결사체와 정당에 이르기까지) 또는 우리가 일이나 여가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순전히 기계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다루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

3) 시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의 기원은 프랑스적 전통에 기인한다. Emile Durkheim, Henri Hubert, Marcel Mauss, Maurice Halbwachs 등은 질적인 시간(Qualitative Time)의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생활의 능동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George Herbert

구르비치(Gurvitch)의 사회적 시간에 대한 정의를 보면 ‘사회적 시간이란 전체 사회현상들의 협동과 격리의 시간’이라고 한다. 사회적 시간은 시간의 사회적 성격이며, 구조화된 사회적 시간들에 담겨진 특수한 사회적 시간이다. 이러한 사회적 시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사회학적 관심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임문영, 1994: 18).

첫째, 사회적 시간이란 한 사회에 관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회 활동을 드러낸다. 가치체계를 드러내는 시간성의 주요 기능들에 관심을 두게 한다. 둘째, 사회적 시간의 구조는 주요 사회활동들 간의 상호관계, 그들 간의 관계 그리고 위계화, 곧 사회조직의 어떤 형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셋째, 시간의 변화는 사회변화의 동태성을 관찰하는데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노동시간, 여가시간, 생리적 필수시간 등 인간행위에 부여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사회변화의 의미를 추론하는 양적인 지표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시간이 가지는 사회성은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삶의 경로를 통해서 표출된다. 수면, 식사 등 생리적 필수시간과 노동시간, 학업시간, 업무시간 등의 공식적이고 규범적인 통제의 영역과 여가시간, 방과 후 시간 등과 같은 개인의 자율적이고 비공식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시간적 주기성의 반복은 시간의 일상화를 통해서 개인 경험의 범주에서 무의식적 구조로 자리 잡게 된다.

결국 시간의 사회성과 시간의 일상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에 의해 인간의 일상생활은 시간의 주기성과 반복성이 상호 배열되고, 교차하는 삶의 영역인 것이다.

2) 생활시간의 의미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은 24시간이고, 1년에 사용하는 일수는 365일이다. 생

Mead, Pitrim A. Sorokin, Robert Merton 등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적인 시간연구의 전통은 시간의 사회적 성격을 조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William Grossin, Rudolf Rezsosazy, William Moore, Eviatar Zerubavel 등은 실증적 조사에 기초하여 시간의 사회학적 이론의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애에 사용하는 시간은 수명으로 제약되지만, 수명이 동일하다면, 생애에 사용하는 시간은 같다. 즉 수명이 동일하다면, 개개인에게 평등하게 시간이 배분된다. 그러나 수명이 동일하더라도, 일, 주, 월, 년, 더욱이 생애에 걸친 시간배분의 상태, 더욱이 시간의 사용방법은 다르다. 같은 시간이 배분되어 있어도 사용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시간활용에 대한 자유도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일 이외에 사용하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시대나 사회가 변하면 시간배분도 변한다. 또 시간의 배분양식이 생활양식을 규정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직업노동이나 가사노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지, 여가 또는 이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지 하는 것은 생활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생활양식 또는 생활문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시간은 희소한 사회자원이다. 누구나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 희소한 자원을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노동(일), 학습, 가사, 이동(통근, 통학), 수면, 식사, 사회참여, 여가 등 활동별로 본 시간배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간은 개인에 있어서 희소한 사회자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 혹은 집단에 있어서도 희소한 자원이다. 사회나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은 구성원 수에 제약된다. 예를 들면 종업원 1인당 1일 실노동시간의 상한을 10시간으로 하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총실노동시간의 상한은 종업원 총수에 규정된다.

개인의 행동별 시간배분을 사회나 집단을 단위로 하여 집단을 단위로 하여 집계한 것이 사회전체나 집단전체에서 본 시간배분으로 된다. 그러나 개인의 시간배분의 구조와 사회전체의 시간배분 구조가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노동시간의 합계가 기업으로서의 노동시간 총수로 되지만, 어떤 개인의 노동시간이 짧아져도 기업전체로서의 노동시간수가 일정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개인의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의한다. 이러한 시간배분을 개인 혹은 사회나 집단 등을 단위로 하여 분석하고, 그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생활시간 연구의 과제이다.

시간배분의 분석단위는 1일을 단위로 하여 24시간의 배분만이 아니

라, 주, 월, 년, 생애 등도 분석단위로 된다. 개인의 시간배분을 다루면, 주를 단위로 한다면, 평일과 주말에서는 시간배분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애에 걸쳐서 보면, 노동에 할당하는 시간은 장년기에 많아지게 된다. 집단으로서 기업을 다루면, 계절에 따라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간배분을 연구할 때에는 시간을 분석하는 대상을 단위로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중요하게 된다.

개인의 시간배분에 관한 분석과제를 노동시간에 착안하여 보면, ①주 5일 근무제 등의 보급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삭감되었는가, ②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생긴 시간은 어떠한 활동으로 사용하는 가, ③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사회참여나 여가에 배분된 시간은 증가했는가, ④여성의 직장진출은 여성의 시간배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⑤맞벌이 세대의 남성의 가사시간은 증가했는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개인의 동기에 기초한 선택의 결과로서, 노동(일), 교육, 가사, 이동(통근, 통학), 수면, 식사, 사회참가, 여가 등 각각의 행동에 일정의 시간이 분배되게 된다. 동시에 개인의 선택은 사회적 조건에 제약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기혼여성이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하는 배경에는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배분되는 시간이 극히 적고, 그 결과로서 가사나 육아에로의 시간배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풀타임 근무의 일을 선택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필요로 하는 가사나 육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의 취업형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시간배분은 남편의 노동시간과 가사 시간 등에 제약되고 있다. 더욱이 부부를 단위로 한 시간배분이 남편과 아내 각각의 시간배분의 형태를 규정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여가로 보내는 시간은 개개인의 여가에 관한 선호만이 아니라, 근무처에 있어서 유급휴가 부여일수나 유급휴가 취득의 용이함 등에도 제약을 받는 것이다.

하루는 24시간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그러나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사회적으로 제약된 것도 있고, 그 결과 개개인의 시간배분은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집단마다의 시간배분의 차이로 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생애과정에서 보면, 수명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애의 생활시간은 개인마다 다르다. 수명

이 건강상태나 이용 가능한 의료수준에서 차이가 있고, 또는 건강상태나 이용 가능한 의료수준이 사회계층으로 규정된다고 한다면, 생애생활 시간은 사회계층으로 규정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3) 연구의 목적

생활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시간이다. 현재의 시간은 정태적인 현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삶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노동과 여가를 극단적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의 생활을 아주 세분화시키고 있다⁴⁾. 현대인들이 생활시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활형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하루 24시간의 생활시간은 노동생활시간과 소비생활시간으로 대별될 수 있다. 노동생활시간 가운데는 노동시간 이외에 통근시간이나 집에서의 일이나 부업, 경우에 따라서는 상사와의 교제나 구직활동 등 노동생활에 관련된 모든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생활시간 가운데는 생리적 생활시간(수면, 식사, 신변관리, 휴식, 의료 등), 가사적 생활시간(취사, 청소, 세척, 재봉, 육아 등), 사회적·문화적 생활시간(학습, 스포츠, 교양오락, 교제, 잡담, 사회적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들의 노동에 대한 이해는 노사관계, 노동시장 및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⁵⁾ 노동시간에 대한 이해도 노동과정으로서 노동시간의 길이와 그 속에서의 노동성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노사의 대립 등에서도 보여지듯이, 노동시간의 길이에 대한 관심도 무척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이

4) 현대사회에서 노동과 여가가 극명하게 분리되는 것은 자본주의화에 의한 가정과 작업장의 분리에서 기인한다. 작업장에서는 더 이상의 여가와 노동이 혼재된 활동이 용납되지 않도록 노동시간 및 작업규율을 강화시키는 노동에 대한 통제를 가속화 해왔다. 극단적으로는 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상의 기능을 뺏어가 버리고, 오로지 기계와 같이 실행만 하는 존재로 전락시켰다. 노동자들에게서 노동의 시간을 통한 생활의 만족은 급속히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소비활동과 같은 여가영역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경향이 뚜렷해 졌다.

5) 노동생활에 대한 이해는 노동생활을 외적으로 규정하는 사회·경제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문화, 종교, 윤리관 등 다면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생활 관련 지표(index)를 통해서 노동생활의 일부를 도식적이나 이해할 수 있다(김희재, 2002:114-129).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취업자들의 노동시간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여 생활하는가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자 한다. 오랫동안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 피지배계급들에게 있어서 생활은 곧 생존, 생계유지였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의 증대로 말미암아 피지배계급의 물질적 삶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활은 더 이상 생존, 생계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노동을 의미하였다. 생산활동 즉 노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었고, 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통해 삶의 양적인 문제가 해결된 지금, 노동은 더 이상 생활의 주제가 아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 노동이 아니라 여가를 의미하게 되었다. 노동자의 생활에서도 노동력 재생산 과정으로서의 소비과정이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는 IMF구제금융시대 이후 노동의 유연화 및 주5일 근무제의 확대라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1) 한국 취업자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2) 이들 취업자들의 생활시간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최근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3) 일본 취업자들과의 생활시간 및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취업자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4) 바람직한 노동시간활용 및 노동시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필요성

1) 생활시간연구사

생활시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개인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에 시간의 부호가 결합된다는 것은 ‘일상생활’ 연구의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⁶⁾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구체적

6)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해 끌로드 자보(Claude Javeau)의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박재환 외, 1994: 27-30). 첫째, 하루 24시간의 배분 둘째, 일상의 의식화와 상호작용의례 셋째, 미시적 사회학에서 거시적 사회학으로의 확대 넷째,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불안에 대한 고찰 등이다. 이중 24시간의 분배 문제는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

으로 분석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다. 시간대 기록 연구(Time budget study)는 1920년대에 이미 소련 스트루밀린(Stroumilin)과 소로킨(Sorokin)에 의해 주도되었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많이 다루었던 연구 영역이다. 1925년, 소련에서의 스트루밀린에 의한 시간연구는 노동자들의 객관적인 시간편성을 연구하여,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Lanfant, 1972: 143-144).⁷⁾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일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생활시간 조사는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의 계획 수립에도 필수적이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특히 광고나 시장조사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시간활용에 관한 논문을 1913년 미국에서 출판된 ‘일하는 남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Bevans, 1913)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이후 정부 및 연구소차원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로는 미국(1920, 코넬대학), 러시아(1924), 영국(1938, BBC) 등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69년부터 NHK⁸⁾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며, 이후 1976년 통계국에 의해서 대규모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캐나다는 1986년 전국규모의 조사를 실시한 이후 1998년까지 3차례 조사되었으며, 네덜란드는 1975년 이후 5차례, 노르웨이는 1970년 이후 1990년까지 3차례 조사되었고, 현재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통계연구소(INSEE)에 의해 프랑스인의 시간대에 대한 조사로 1974-1975년, 1985년-1986년 두 차례 실시되어 1987년 <프랑스의 시간이용>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

소이며, 근대적 시간에 의한 인간행위의 결합이라는 문제로 제기된다.

7) 소련의 시간연구는 193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다가 중단되고, 스탈린이 물러나고 흐루시초프가 등장하여 정치적 해방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1960년대 다시 부활된다(김문겸, 1993: 24).

8) 일본의 생활시간조사는 주로 NHK의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개의 저작물들이 「NHK국민생활시간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최근에 일본 총무청 통계국에서 체계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약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행하고 있다. 최근의 NHK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물은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NHK放送文化研究所編, 2002, 『日本人の生活時間2000 NHK國民生活時間調査』, 日本放送出版協會

NHK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編, 1995, 生活時間の國際比較, 大空社

리고 주로 여가 연구가들에 의해서 제기된 자유시간과 사회적 시간연구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뒤마제디에와 그의 제자들에 의한 연구가 활발하였는데 주요한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뒤마제디에의 ‘여가시간의 문화적 혁명 1968-1988’, 프로노보스트 ‘시간, 문화와 사회’, ‘자유시간과 현대성’ 니콜 사무엘의 ‘자유시간: 사회적 시간’, 그리고 로제 슈의 ‘자유시간을 향하여?’, ‘시간과 사회질서’ 등이 있다.⁹⁾ 이들 여가연구가들의 주요 관심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시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국가간 시간활용형태 비교를 위한 조사가 1960년 중반에 시도되었는데, 13개국에서 “다국가간 생활시간조사(Multinational Time Use Study)”가 동시에 실시된 바 있다. 이런 시도는 1990년대에 다시 나타났다. Harmonized European Time Use Survey(HETUS)가 EUROSTAT에 의해 주도되어 유럽 18개국에서 1997년에 시험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곧 본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통합된 행동분류체계와 조사표를 개발 중에 있다. 통계청에서 개발한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방법의 많은 부분을 HETUS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행동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손애리, 2001:16).

생활시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매스컴의 접촉과 관련하여 KBS가 1981년도부터 서울대 신문연구소의 도움으로 실시한 ‘국민생활 시간조사’가 2000년까지 7차례 실시되었다. 이는 시간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 단순한 기초자료를 넘어서 인간행위의 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과 여가, 소비생활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여가사회로의 진입을 설명 할 때 여가는 단순한 시간적

9) Dumazedier J., 1988, Révolution culturelle de temps libre 1968-1988, Paris: Meridiens Klincksieck
 Pronovost G., 1983, Temps, culture et société, Sillery: PUQ
 Pronovost G., 1993, Temps libre et modernité, Paris: L'Harmattan
 Samuel N., 1984, Le temps libre: un temps social, Paris: Librairie des Meridiens
 Sue R., 1982, Vers une société de temps libre?, Paris: PUF
 Sue R., 1994, Temps et ordre social, Paris: PUF

문제로 귀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는 하루 정해진 24시간 중 노동을 제외한 잔여시간이라는 개념으로도 정의 될 수 있으며, 여기에 생리적인 필수 시간을 제외한다면 자신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의 범주로 압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과 그것의 연속체인 일주일 중 평일과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의 시간적 배분의 문제는 한국인들의 시간배분과 배치가 한국인들의 생활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성원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는 농가주부의 생활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 조사를 1979년 이후 실시하고, 각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대별, 요일별 대중매체 이용 실태 및 여가생활의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 외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서 실시된 소규모 조사들은 가정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부들의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과 기본자료를 통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는 목적 등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시간의 유형화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유형인 시간의 주기와 시간에 일어나 행위에 바탕을 둔 유형(생활행동시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시간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생활의 리듬과 연관된 것으로 해와 달의 주기성과 반복성이 강조되는 일, 주, 월, 년으로 대별되고, 더 세분화 한다면 초, 분 시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현대인의 생활시간 활용에는 특히 주 단위와 일 단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매일의 24시간을 시간단위로 세분화하여 생활시간 활용을 유형화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생활시간에 따른 행위 또는 행동분류가표가 작성될 수 있다.

[KBS국민생활시간조사]는 개인별 행동분류를 대분류(13가지)와 중분류(32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의 행동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는 주된 행동으로 분류하고, 각 생활활동은 10분을 기본단위로 하여 정리하였다. 이 생활 시간조사는 생활행동을 수면, 식사, 신변잡일, 일, 학업, 가사, 교제, 휴양, 여가활동, 이동, 신문·잡지·책,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대분류 하고 있다.

[정신문화연구원의 생활양식연구]는 수면을 제외한 활동생활양식을 10가지로 대분류하고, 다시 52가지로 세분류하고 있다. 10가지의 활동

은 작업, 학업, 놀이, 오락, 취미, 운동, 매스컴, 종교, 모임, 이동, 생활유지, 한가담소 등이다.

[통계청의 1999년 국민생활시간조사]는 개인별 행동을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활동 등의 9가지로 대분류하고, 이를 행동을 51개로 세분화하고(중분류),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124개(소분류)로 나누었다. 이러한 행동분류에 입각하여 24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생활시간을 관찰했다.

생활시간분석에 사용된 행동분류는 대부분의 경우 아홉 가지의 대분류에 입각하여 분석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분류 및 소분류의 자료를 가져와서 노동생활시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했다.

2) 취업자 생활시간 연구의 필요성

생활이란 한 개인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의 총체이며, 살아가야 할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노동생활은 생활 그 자체의 모든 기본적인 조건들을 규명하는 가정 중요한 영역이다. 대다수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인구의 노동생활에 대한 관심은 노동영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문화적 활동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직장과 실제적인 노동이 행해진 길이로서의 노동시간에 대한 관심이 폭넓게 확산되어 왔다. 특히 하루 8시간 노동 및 주5일 근무 등과 같은 노동시간의 길이를 둔 갈등과 타협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의 길이 문제 이외에, 더욱 다양화된 생활과정 속에서 인간은 시간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생활하는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는 오랫동안 노동시간의 길이, 즉 실노동시간{(소정노동시간+시간외 노동시간 - 유급휴가}의 단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국에서는 소정노동시간 단축, 잔업의 삭감, 유급휴가일 증가 등의 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다양화와 더불어 노동생활 역시 다양화하고 있다. 정보화,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노동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노

동시간 역시 오전9시~오후5시로 고정되는 경향에서 벗어나는 노동시간 제도의 다양화와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 생활의 관심 역시 일 중심적인 생활로부터 여가와 일의 병행이라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간제도의 다양화 및 유연화와 더불어 삶의 질 중시의 생활가치의 변화에 맞추어, 2,20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의 취업자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떠한 활동으로 나누어 생활하고 있는가를 시계열적인 변화(1999년과 2004년의 비교)와 더불어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업자들의 일상생활의 특징과 바람직한 시간활용을 위한 방향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취업자들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기업측의 노동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과 일의 양립을 바라며, 노동의 방식이나 일의 진척상황에 맞추어 노동시간의 사용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가. 연구내용

취업자들이 어떤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취업시간 및 취업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직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로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지, 또 5년 전과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 1) 취업자 생활시간연구의 개요
 - 가) 취업자 생활시간 연구의 의의
 - 가) 취업인구의 추이변화
- 2) 취업자의 하루 24시간 활용현황과 추이변화 및 특징
 - 가) 요일별 평균시간 및 행위자 평균시간, 시간대
 - 나) 행동유형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 다) 취업자들이 생활배분의 특징

- 3) 취업자 속성에 따른 시간비교
 - 가) 취업자의 남녀별 비교
 - 나) 취업자의 연령별 비교
 - 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교
 - 다) 취업자의 직업별 비교
 - 마) 취업자의 산업별 비교
- 4) 취업자의 생활상태 및 생활의식의 변화
- 5) 한일 취업자 생활시간 비교
 - 가) 요일별 평균시간 및 행위자 평균시간, 시간대
 - 나) 행동유형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 다) 취업자의 직업별 비교
 - 라) 양국 취업자 생활시간 배분의 특징
- 6) 취업자 생활시간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방안

위 사항을 분석하여 한국의 취업자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혀내고, 일하는 시간 이외의 생리적 필수시간 및 여가활동시간, 이동시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다 상세히 그리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본 연구는 2004년 생활시간 조사와 1999년의 생활시간 조사의 결과 중 취업자의 생활시간을 요일별(주전체, 평일, 토요일, 일요일), 행동유형별(대, 중, 소분류), 시간대별(평균시간, 행위자 비율)로 비교 분석 및 시계열 분석한다. 또 국제비교를 위해 일본의 2001년 사회생활기본조사 중 취업자의 평균시간 및 시간대 행위자 비율을 비교분석한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 및 2004년 [생활시간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자만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한다.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통계청의 방식을 따른다.

본 연구의 대상인 **취업자**는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습니까?’의 질문에서 ‘일을 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1) 추정방법

가) 평균시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균시간은 행동의 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의 행동별 평균시간으로 주행동만을 집계하였으며, 1일 전체평균시간의 합은 24시간이다. 인구의 특성 Y의 평균시간 (\bar{Y})의 산출에 이용된 공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bar{Y}_{ghj} &= \sum_t Y_{ghji} / \sum_i X_{ghji} \\ \bar{Y}_{gh} &= \sum_j W_{ghj} * \bar{Y}_{ghj} \\ \bar{Y}_g &= \sum_h W_{gh} * \bar{Y}_{gh} \\ \bar{Y} &= \sum_g W_g * \bar{Y}_g\end{aligned}$$

여기서, \bar{Y} 는 특성 X를 갖는 인구의 특성 Y의 평균값이며, W는 가중값이다. j는 요일을 나타내는 첨자(j = 평일, 토요일, 일요일)이며, g는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g = 1, 2, 3, ..., 16)이며, h는 동부, 읍면부를 나타내는 첨자이고, i는 조사된 인구를 나타내는 첨자이고, t는 남·여를 나타내는 첨자이다.

나) 행위자 평균시간

각 행동을 하루 24시간 동안 10분 이상 한 사람들의 행동별 평균시간

$$C_{jk} = \frac{\sum_{i=1}^n X_{ijk} \cdot W_i}{\sum_{i=1}^n A_{ijk} \cdot W_i}$$

C_{jk} = j번째 요일의 k번째 행동 행위자 평균시간

다) 행위자 비율

대상자 중 하루 24시간 동안 각 행동을 10분 이상 한 사람의 비율

$$B_{jk} = \frac{\sum_{i=1}^n A_{ijk} W_i}{\sum_{i=1}^n W_i}$$

B_{jk} = j 번째 요일의 k 번째 행동 행위자비율

A_{ijk} = i 번째 사람이 j 번째 요일에 k 번째 행동을 10분 이상 했으면 1, 안했으면 0

W_i = i 번째 사람의 개인 가중치

i = 대상 인구를 나타내는 첨자 ($i = 1, 2, 3, \dots, n$, n = 대상자수)

j = 요일을 나타내는 첨자 (j = 평일, 토요일, 일요일)

k = 소분류 행동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k = 1, 2, 3, \dots, 125$)

라)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하루를 10분 간격으로 구분하여 10분 동안 각 행동을 한 사람의 해당인구 전체에 대한 비율(%)

$$D_{jkm} = \frac{\sum_{i=1}^n A_{ijk} \cdot W_i}{\sum_{i=1}^n W_i}$$

D_{jkm} = j 번째 요일의 m 번째 시간대에 k 번째 행동을 한 행위자비율

A_{ijk} = i 번째 사람이 j 번째 요일의 m 번째 시간대에 k 번째 행동을 했으면 1, 안했으면 0

m = 10분 간격 시간대를 나타내는 첨자($m = 1, 2, 3, \dots, 144$)

2) 행동분류체계

행동분류체계는 [2004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표를 참고하며, 본문에서는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필수생활시간 :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

관련 행동분류 : 개인유지(수면, 식사 및 간식, 목욕·화장 등)

의무생활시간 : 의무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

관련 행동분류 :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이동

여가생활시간 :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

관련 행동분류 :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기타

제 2 장 취업자의 하루 24시간 활용현황과 추이변화 및 특징

우리의 매일은 무수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의 구성비가 일상생활의 질을 규정한다. 그런데 일상의 활동들은 몇 가지 중요한 영역으로 묶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생활 필수활동, 노동, 그리고 여가이다. 생활 필수활동은 노동과 여가로 분류되기 이전의 더 원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면, 식사, 매일 되풀이되는 세수와 같은 신변잡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일, 가사와 같은 노동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직장에 가기 위한 통근이나 통학과 같은 이동시간도 있으며,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교체에서부터 안정, 휴식, 취미, 오락, 대중매체접촉과 같은 여가활동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집에 머무는 시간의 양이 일상생활의 특징을 가리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취업자들이 하루 24시간의 생활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며 살아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취업인구구성이 1999년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본다. 2절에서는 취업자의 2004년 하루 24시간의 구성과 전체 국민 및 비취업자와의 차이 및 1999년의 생활시간 구성의 비교를 통해 시간배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취업자의 생활시간구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행위자 평균시간 및 행위자 행동비율을 통하여 취업자들의 요일별 생활시간의 특성과 추이변화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취업자들이 주요행동 유형별 생활시간의 추이변화를 분석한다.

1. 취업인구의 추이

먼저 2004년 총인구를 살펴보면 48,082,163명으로서 1999년의 46,616,677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취업인구 및 비율도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구가 양적으로 지속적 증가를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2000년 이후 인구성장률에 있어 감

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표 2-1> 전체인구

(단위: 명)

해당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남자	23,457,837	23,666,769	23,848,450	23,980,764	24,105,667	24,228,209
여자	23,158,840	23,341,342	23,505,069	23,634,368	23,743,560	23,853,954
인구총 계	46,616,677	47,008,111	47,353,519	47,615,132	47,849,227	48,082,163

전체인구 중 취업인구의 숫자 및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2003의 경우 취업인구 감소가 (남성 취업인구비율 고정 및 여성 취업인구비율 감소) 발생하였다. 이것은 2002년 하반기 이후 이라크 전쟁 위험 등으로 장기화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었던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표 2-2> 취업인구

(단위 : 천명)

해당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남자	11,954	12,387	12,581	12,944	13,031	13,193
여자	8,337	8,769	8,991	9,225	9,108	9,364
계	20,291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남자비율 (전체인구대비)	25.6%	26.4%	26.6%	27.2%	27.2%	27.4%
여자비율 (전체인구대비)	17.9%	18.7%	19.0%	19.4%	19.0%	19.5%

연령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40대가 28%, 30대가 27%, 20대가 19%, 50대가 15%, 60세 이상이 10%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취업인구의 연령구성비율은 30~49까지의 연령대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15~19세의 연령대에서 2000년 이후, 20~39세의 연령대에서 2003년 이후 도리어 취업인구가 감소한 반면, 40 ~ 59세의 취업 인구는 소폭이지만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며, 2000년 이후 취업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취업이 늦어

지고 있으며, 20대의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4년의 취업인구 증가에서는 60대의 취업이 상당량 증가하였다. 이는 점차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노후 소득보장체제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정년은 빠르고 은퇴는 늦어지는 현상이 더욱 큰 요인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2-3> 성별 · 연령별 취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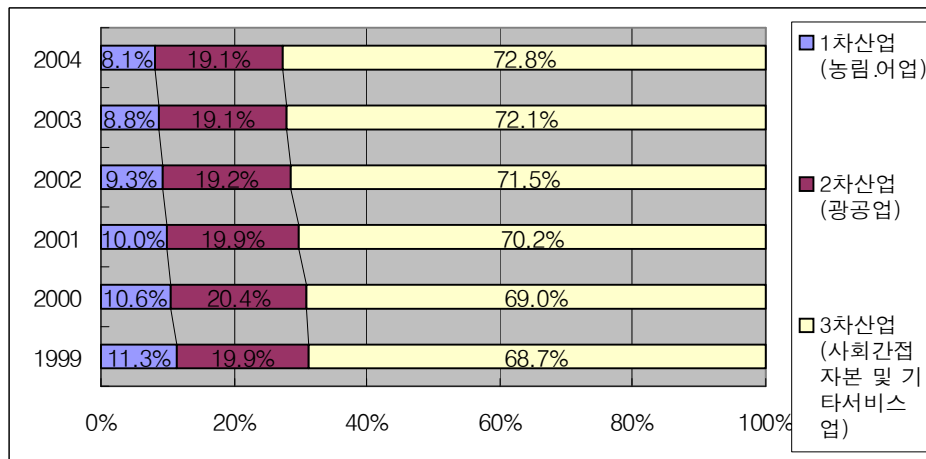
(단위 : 천명)

해당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취업인구 총계	20,291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남자	11,954	12,387	12,581	12,944	13,031	13,193
여자	8,337	8,769	8,991	9,225	9,108	9,364
15 ~ 19세	351	389	358	313	272	258
남자	163	188	166	141	117	115
여자	188	200	192	172	155	143
20 ~ 29세	4,340	4,490	4,457	4,486	4,334	4,320
남자	2,260	2,304	2,242	2,229	2,135	2,088
여자	2,080	2,186	2,215	2,257	2,199	2,233
30 ~ 39세	6,018	6,137	6,167	6,212	6,186	6,181
남자	3,887	3,951	3,954	3,986	3,996	3,966
여자	2,131	2,187	2,212	2,226	2,190	2,215
40 ~ 49세	4,888	5,277	5,561	5,856	6,031	6,206
남자	2,937	3,146	3,314	3,496	3,633	3,708
여자	1,952	2,132	2,247	2,360	2,398	2,498
50 ~ 59세	2,829	2,899	2,959	3,098	3,174	3,334
남자	1,701	1,751	1,783	1,880	1,958	2,051
여자	1,127	1,148	1,176	1,218	1,215	1,283
60세 이상	1,865	1,963	2,071	2,204	2,142	2,257
남자	1,005	1,048	1,122	1,212	1,192	1,265
여자	860	915	949	992	950	993

산업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차 산업종사인구의 감소와 3차 산업 종사인구의 증가라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이 2003년 -5.8%, 2004년 -6.4%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3차 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9~ 2002년까지 매해 4.7%, 3.7%, 4.6%로 큰 증가를 보였다.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사용된 분류코드로서 2000 ~ 2004년까지 매해 7.8%, 1.7%, 6.4%, 7.7%로 꾸준히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 사회 여가 문화의

방향성 ('소모적 여가'에서 '문화생활, 재충전 개념의 생활여가로')과도 무관하진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 산업별 인구구성비 추이(1999~2004년)



<표 2-4> 직업별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62	465	524	570	598	576
1.전문가	1,063	1,403	1,498	1,577	1,702	1,731
2.기술공 및 준전문가	2,360	2,074	2,079	2,115	2,141	2,324
3.사무 종사자	2,296	2,512	2,671	2,822	3,172	3,188
4.서비스 종사자	4,811	2,675	2,723	2,843	2,735	2,895
5.판매 종사자		2,826	2,933	2,952	2,835	2,749
6.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2,174	2,115	2,035	1,964	1,834	1,700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605	2,688	2,638	2,697	2,407	2,455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117	2,292	2,332	2,373	2,387	2,490
9.단순 노무 종사자	2,403	2,107	2,138	2,255	2,329	2,449
* 전문·기술·행정관리직	3,885	3,942	4,102	4,262	4,440	4,631
* 서비스·판매직	4,811	5,500	5,656	5,796	5,570	5,643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	7,125	7,087	7,109	7,325	7,123	7,395

* 전문·기술·행정관리직 = 의회의원,고위임직원및관리자(0) + 전문가(1) + 기술공 및 준전문가(2)

* 서비스·판매직 = 서비스 종사자(4) + 판매 종사자(5)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8) + 단순 노무 종사자(9)
 * 기타 = 사무 종사자(3) +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6)

직업별 인구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문 인력 종사자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볼 수 있다(2000~2004년 : 매해 6.8%, 5.3%, 7.9%, 1.7% 증가). 기타 부문에서 사무종사자는 1999~2004년 동안 매해 9.4%, 6.3%, 5.7%, 12.4%, 0.5%로 그 종사상 인구가 매우 증가한 반면, 1차 산업인 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1999~2004년 까지 매해 -2.7%, -3.8%, -3.5%, -6.6%, -7.3% 대폭 감소하였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전체 종사자중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 특히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35%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2000~2004년 까지 각각 매해 1.7%, 1.8%, 0.6%, 4.3% / 1.5%, 5.5%, 3.3%, 5.2%로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표 2-5>종사상 지위별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임금근로자	12,663	13,360	13,659	14,181	14,402	14,894
비임금근로자						
* 고용주	1,351	1,458	1,554	1,617	1,629	1,679
* 자영자	4,351	4,407	4,497	4,574	4,413	4,431
* 무급가족종사자	1,925	1,931	1,863	1,797	1,694	1,553
비임금근로자 총계	7,628	7,795	7,913	7,988	7,736	7,663
임금근로자 세분류						
- 상시근로자(상용+임시)	10,390	11,003	11,441	11,748	12,273	12,706
- 상용근로자	6,135	6,395	6,714	6,862	7,269	7,625
- 임시근로자	4,255	4,608	4,726	4,886	5,004	5,082
- 일용근로자	2,274	2,357	2,218	2,433	2,130	2,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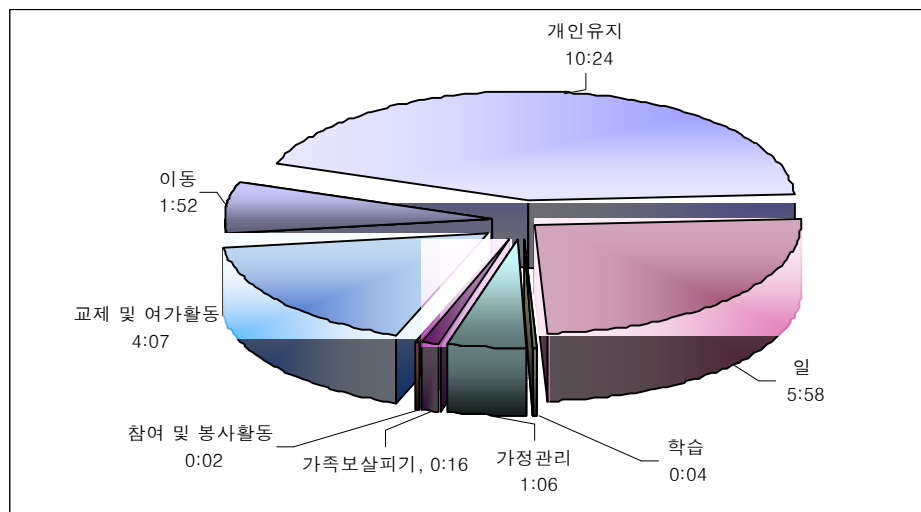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그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1999년~2004년 까지 매해 5.0%, 2.2%, 5.9%, 4.9%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통해 취업이 안정화 되어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인데, (2000년 이후 매해 -3.5%, -3.5%, -5.7%, -8.3%로 급격히 감소) 이는 여성 인구와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노년층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한 것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2. 취업자 하루 24시간 구성

가. 취업자의 하루 24시간 : 24시간 중 43%는 개인유지, 일하는 시간이 24.9%, 여가시간이 17.2%

<그림 2-2> 취업자의 하루 24시간 구성



<표 2-5> 취업자의 하루 24시간 구성 (요일평균)

(단위=시간:분)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 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요일평균	10:24	5:58	0:04	1:06	0:16	0:02	4:07	1:52

취업자의 하루 24시간 구성을 평균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유지 시간이 10시간 24분(43.3%), 일하는 시간이 5시간 58분(24.9%)이고, 학

습하는 시간은 4분, 가정을 관리하는 시간이 1시간 6분,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16분,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이 2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17.2%)이 4시간 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취업자의 24시간 구성과 국민 전체와의 비교와 미취업자의 생활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취업자 생활시간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나. 취업자와 전체국민의 생활시간 : 취업자의 일하는 시간이 전체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듬. 여가생활 중 미디어이용 시간이 취업자는 증가, 전체국민은 감소

<표 2-6> 취업자와 전체국민의 생활시간 구성추이 (요일평균)

(단위=시간:분)

	전체국민			취업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 필수생활시간	10:18	10:34	0:16	10:04	10:24	0:20
수면	7:47	7:49	0:02	7:36	7:38	0:02
식사	1:33	1:37	0:04	1:34	1:39	0:05
개인관리	0:58	1:08	0:10	0:54	1:07	0:13
▶ 의무생활시간	8:41	8:13	-0:29	9:52	9:16	-0:36
일	3:43	3:26	-0:17	6:38	5:58	-0:40
가사노동	1:56	1:52	-0:04	1:24	1:22	-0:02
학습	1:28	1:14	-0:14	0:06	0:04	-0:03
이동	1:35	1:40	0:05	1:44	1:52	0:08
▶ 여가생활시간	5:01	5:13	0:12	4:04	4:20	0:16
미디어이용	2:23	2:19	-0:04	1:58	1:59	0:01
교제	0:53	0:52	-0:01	0:46	0:47	0:01
취미 및 그외여가	0:52	0:59	0:07	0:41	0:45	0:04
기타	0:52	1:03	0:11	0:39	0:49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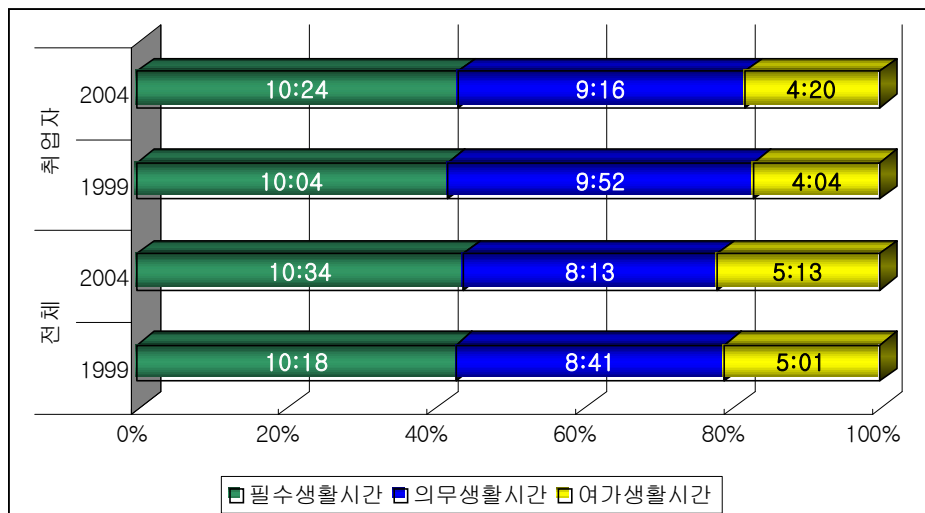
필수생활시간(수면, 식사, 개인관리)에 관련해서 국민 전체는 2004년에 10시간 34분, 취업자는 10시간 24분으로 약 10분정도 취업자가 적은 시간분포를 보인다. 이는 1999년에 조사되었던 국민 전체, 취업자 10

시간 18분, 10시간 4분에서 각각 16분, 20분 정도가 증가된 수치다.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수면으로 국민전체와 취업자간의 비교 그리고 1999년과 2004년을 비교했을 때 10분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수생활시간 중에서도 수면이나 식사시간은 각각 2~5분정도의 증가를 보인데 비해 개인관리시간이 각 10분, 1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가시간의 의무생활시간 감소가 단지 수면시간의 증가로만 이어지지 않고 개인적 건강관리나 위생에 투자하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무생활시간(일, 학습, 가사노동, 이동)에서는 2004년 국민 전체는 8시간 13분, 취업자는 9시간 16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에 국민 전체는 8시간 41분이며, 취업자는 9시간 52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에 관련된 일에 관한 시간의 경우 국민 전체가 3시간 26분이며 취업자는 5시간 59분으로 취업자가 2시간 33분(174.3%)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1999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2시간 55분(178.4%)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 취업자와 전체국민의 주요생활시간 구성

(단위=시간:분)



학습활동에 관한 평균시간에서도 2004년 국민 전체의 학습에 관련된

시간이 1시간 14분인 것에 반해 취업자는 4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999년에서 2004년으로 오면서 국민전체와 취업자는 각각 14분, 3분정도 학습활동시간이 감소함을 볼 수 있다.

가사노동부분에서는 2004년에 와서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했다. 국민전체 평균시간이 1시간 52분이며, 취업자 평균시간이 1시간 22분으로 나타났다. 1999년도 마찬가지로 국민전체와 취업자전체의 평균시간이 각각 1시간 56분, 1시간 24분으로 취업자들이 국민전체의 가사노동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국민전체는 1999년에 비해 4분, 취업자는 2분으로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이 덜 감소했다.

여가시간 부분에서는 전체국민이 1999년과 2004년에 각각 5시간 1분과 5시간 13분이며, 반면에 취업자는 1999년과 2004년은 각각 4시간 4분, 4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이 전체의 국민에 비해서 취업자가 1999년과 2004년에 각각 57분, 53분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생활시간 : 취업자는 일하는 시간이 감소, 미취업자는 가사노동시간이 감소

<표 2-7>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생활시간 구성추이

(단위=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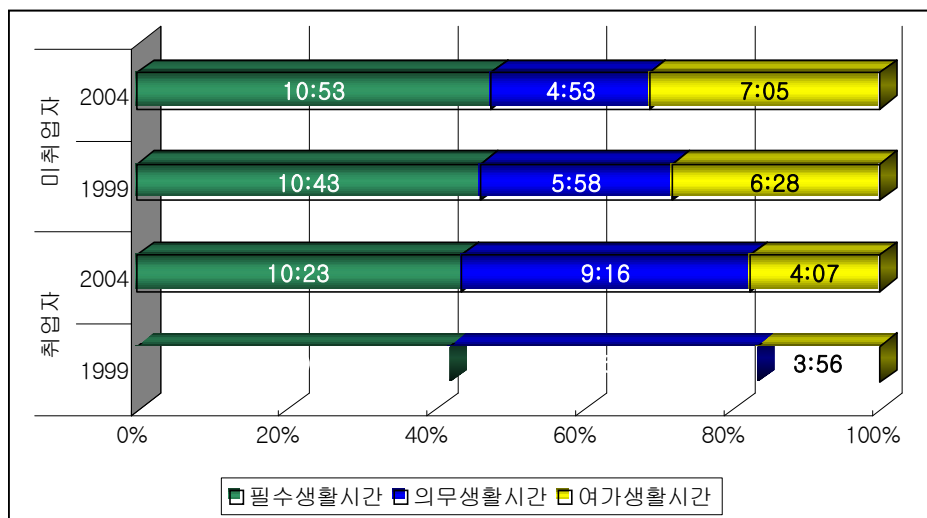
	취업자			미취업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 필수생활시간	10:01	10:23	0:22	10:43	10:53	0:10
수면	7:35	7:38	0:03	8:02	8:02	-
식사	1:33	1:39	0:06	1:36	1:38	0:02
개인관리	0:53	1:06	0:13	1:05	1:13	0:08
▶ 의무생활시간	9:51	9:16	-0:35	5:58	4:53	-1:05
일	6:40	5:59	-0:41	0:14	0:13	0:01
가사노동	1:25	1:22	-0:03	3:57	2:53	-1:04
학습	0:03	0:03	-	0:27	0:24	-0:03
이동	1:43	1:52	0:09	1:20	1:23	0:03
▶ 여가생활시간	3:56	4:07	0:11	6:28	7:05	0:37
미디어이용	1:58	1:59	0:02	3:24	3:19	-0:05
교제	0:46	0:47	0:02	1:15	1:08	-0:07
취미 및 그외여가	0:41	0:46	0:05	1:03	1:07	0:04
기타	0:31	0:35	0:04	0:46	1:31	0:45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생활시간을 비교하면 취업자의 1999년 필수생

활시간이 10시간 1분이고, 미취업자는 10시간 43분으로 미취업자가 42분 많은 시간이며, 그리고 2004년에 오면 취업자가 10시간 23분, 미취업자는 10시간 53분으로 취업자에 비해서 29분이 많은 편이다. 연도별 비교를 하면 1999년에서 2004년으로 오면서 취업자는 22분, 미취업자는 10분이 증가하였다. 중분류에서 보면 수면시간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난다. 취업자의 1999년 평균수면시간이 7시간 35분으로 나타난 반면에 미취업자는 8시간 2분으로 미취업자가 27분 더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은 취업자는 7시간 38분이고, 미취업자는 8시간 2분으로 2004년에 와서도 미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24분 정도 더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생활시간 구성

(단위=시간:분)



의무생활시간에서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평균시간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99년 취업자의 의무생활시간이 9시간 51분인데 반해 미취업자는 5시간 58분으로 취업자가 3시간 53분씩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에 와서도 유사한 차이를 보는데 취업자의 의무생활시간이 9시간 16분이며, 미취업자는 4시간 53분으로 취업자가 4시간 23분이나 많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일하는 시간

과 가사노동시간이 취업자/미취업자간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하는 시간에 관해서 1999년에 취업자가 6시간 40분인데 반해 미취업자는 14분밖에 되지 않으며, 2004년에 와서도 취업자는 5시간 59분이며, 미취업자는 13분으로 5시간 46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가사노동 시간에서는 1999년 취업자가 1시간 25분이며, 미취업자는 3시간 57분으로 2시간 32분의 차이가 있으며, 2004년에는 취업자가 1시간 22분이고, 미취업자는 2시간 53분으로 1시간 31분의 차이를 보인다.

학습시간부분에서는 취업자가 1999년, 2004년 동일하게 3분 정도인데 반해, 미취업자는 1999년이 27분, 2004년이 24분으로 미취업자가 각각 24분, 21분 정도가 많았다.

여가생활시간 전체에서 취업자는 1999년에는 3시간 56분에서 2004년에 4시간 7분으로 약 9분정도 증가하였고, 미취업자는 1999년에 6시간 28분에서 2004년에 7시간 5분으로 37분 정도 증가하였다. 취업자의 여가생활시간이 미취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늘었다. 이는 의무생활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취업자의 여가생활시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여가생활시간보다 오히려 필수생활시간이 더 늘어남을 알 수 있다.

3.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추이

가. 취업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변화 : 의무생활시간이 토·일요일에 각각 1시간 이상씩 감소

취업자의 요일별 평균시간 추이에서 필수생활시간은 평일이 1999년에 9시간 54분이고 2004년에는 10시간 9분으로 약 15분 정도 증가하였고, 토요일은 1999년이 10시간에서 2004년이 10시간 34분으로 34분 정도가 증가하였다. 일요일은 1999년이 10시간 51에서 2004년에는 11시간 27분으로 약 35분 정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필수생활시간은 평일이 가장 시간적으로 적고, 일요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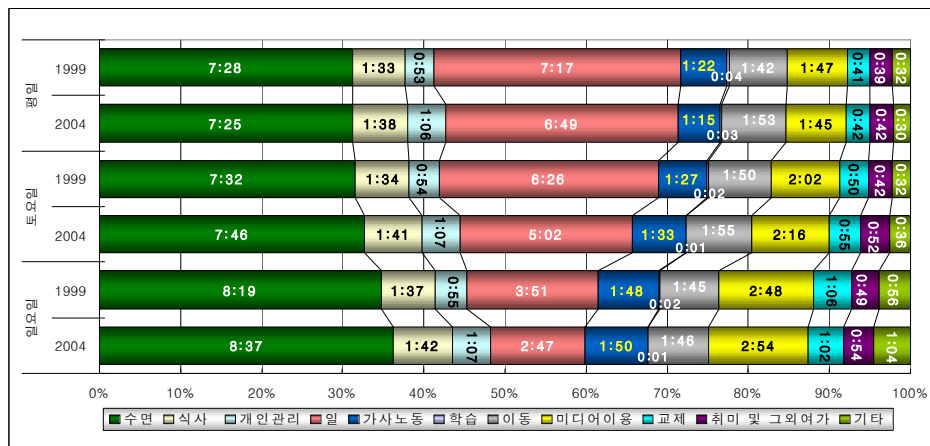
<표 2-8> 취업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구성추이

(단위=시간: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 필수생활시간	9:54	10:09	0:15	10:00	10:34	0:34	10:51	11:27	0:36
수면	7:28	7:25	-0:03	7:32	7:46	0:14	8:19	8:37	0:18
식사	1:33	1:38	0:05	1:34	1:41	0:07	1:37	1:42	0:05
개인관리	0:53	1:06	0:13	0:54	1:07	0:13	0:55	1:07	0:12
▶ 의무생활시간	10:25	10:00	-0:25	9:45	8:31	-1:14	7:26	6:24	-1:02
일	7:17	6:49	-0:28	6:26	5:02	-1:24	3:51	2:47	-1:04
가사노동	1:22	1:15	-0:07	1:27	1:33	0:06	1:48	1:50	0:02
학습	0:04	0:03	-0:01	0:02	0:01	-0:01	0:02	0:01	-0:01
이동	1:42	1:53	0:11	1:50	1:55	0:05	1:45	1:46	0:01
▶ 여가생활시간	3:39	3:39	-	4:06	4:39	0:33	5:39	5:54	0:15
미디어이용	1:47	1:45	-0:02	2:02	2:16	0:14	2:48	2:54	0:06
교제	0:41	0:42	0:01	0:50	0:55	0:05	1:06	1:02	-0:04
취미 및 그외여가	0:39	0:42	0:03	0:42	0:52	0:10	0:49	0:54	0:05
기타	0:32	0:30	-0:02	0:32	0:36	0:04	0:56	1:04	0:08

<그림 2-5> 취업자의 요일별 평균시간추이

(단위=시간:분)



수면부분에서 평일이 1999년에는 7시간 28분에서 2004년에 7시간 25분으로 약 3분정도가 감소하였고, 토요일에는 1999년에 7시간 32분에서 2004년에 7시간 46분으로 6분 정도 증가하였다. 일요일에는 1999년에 8시간 19분에서 2004년에는 8시간 37분으로 약 18분 정도가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에서 평일이 1999년에는 10시간 25분에서 2004년에는 10시간으로 25분 정도 감소하였으며, 토요일은 1999년에 9시간 45분에서 2004년에는 5시간 2분으로 약 1시간 24분이 감소하였으며, 일요일은 1999년에 7시간 26분에서 2004년에 6시간 24분으로 1시간 2분이 감소하였다. 또한 일하는 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의 반비례적인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일하는 시간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가사노동은 주말로 갈수록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시간은 토요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출·퇴근에 사용되는 시간보다 주말을 활용한 직업이 외의 다른 목적이 주말의 이동시간을 증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던 2004년을 감안한다면 평일과 토요일의 평균시간 차이가 평일과 일요일의 평균시간 차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 5일제가 확대적으로 시행된 2005년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감소하고 평일/토요일, 일요일의 차이가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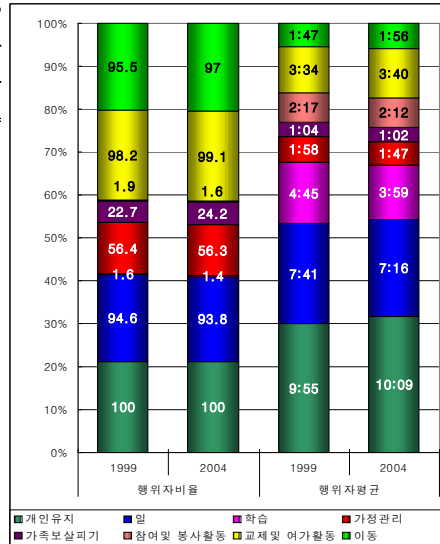
1) 평일: 평일 취업자의 행위자평균 학습시간이 46분 감소

취업자의 개인유지시간은 14분 증가하였고, 평일시간에서 일의 비율은 0.8%가 감소하였고, 행위자평균시간으로는 25분이 감소하였다. 또한 학습활동은 평일에 0.2%가 감소하였고 시간적으로 46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부분에서 비율은 0.1%가 감소하였고, 행위자평균 시간상으로는 11분이 감소하였다. 여가활동은 비율적으로 0.9%가 증가하였고, 시간상으로 약 6분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동부분도 비율이 1.5%, 시간이 9분 정도 증가하였다.

<표 2-9> 취업자 평일의 주요생활시간의
행위자비율 및 행위자평균시간

	평일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개인유지	100	100	-	9:55	10:09	0:14
일	94.6	93.8	-0.8	7:41	7:16	-0:25
학습	1.6	1.4	-0.2	4:45	3:59	-0:46
가정관리	56.4	56.3	-0.1	1:58	1:47	-0:11
가족보살피기	22.7	24.2	1.5	1:04	1:02	-0:02
참여및 봉사활동	1.9	1.6	-0.3	2:17	2:12	-0:05
교제및 여가활동	98.2	99.1	0.9	3:34	3:40	0:06
이동	95.5	97.0	1.5	1:47	1:56	0:09

<그림 2-6> 평일 그래프



2) 토요일: 일하는 비율이 10.1%나 감소하였고, 시간으로는 50분이 감소, 학습시간은 1시간 16분 감소, 참여·봉사활동 40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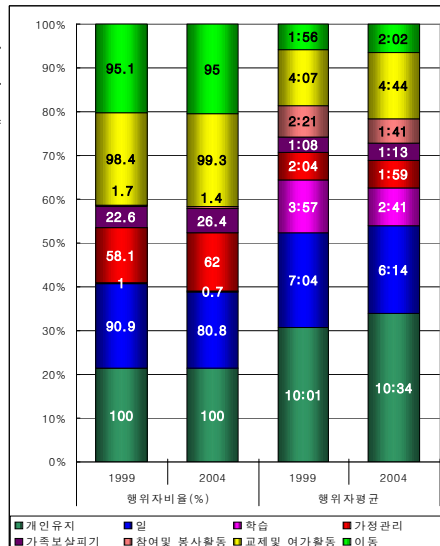
토요일에 취업자의 개인유지시간이 33분이 증가하였다. 주5일제의 부분적인 시행으로 인해서 수면시간의 증가와 개인유지시간의 증가로 인해서 토요일이 정기적인 휴일로 바뀜으로 인해 개인유지 시간이 평일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또한 토요일에 들어서 평일보다 가장 많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일하는 비율이 10.1%나 감소하고 행위자 평균시간으로 50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계적인 주5일제 시행과 토요일이 휴일화 되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하는 비율이 줄어들며, 일하는 시간 역시도 일정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0> 취업자 토요일의 주요생활시간의
행위자비율 및 행위자평균시간

	토요일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개인유지	100	100	-	10:01	10:34	0:33
일	90.9	80.8	-10.1	7:04	6:14	-0:50
학습	1.0	0.7	-0.3	3:57	2:41	-1:16
가정관리	58.1	62.0	3.9	2:04	1:59	-0:05
가족보살피기	22.6	26.4	4.2	1:08	1:13	0:05
참여및 봉사활동	1.7	1.4	-0.3	2:21	1:41	-0:40
교제및 여가활동	98.4	99.3	0.9	4:07	4:44	0:37
이동	95.1	95.0	-0.1	1:56	2:02	0:06

<그림 2-7> 토요일 그래프



그리고 취업자의 1.4%가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행위자평균 시간으로는 40분이나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여가활동시간은 37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토요일부터 이동하는 비율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 반면에 행위자평균시간은 6분 증가하고 있다. 즉 토요일에 이동하는 것은 가족과의 여행이나 관광 등의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취업자의 이동으로 예측이 된다.

취업자의 일요일의 생활시간은 개인유지시간이 다른 어떤 요일보다 많은 11시간 27분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은 수면시간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일요일에는 취업자들이 11시간이 넘도록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99년에 비해 36분 증가한 것이다.

일요일에 일하는 시간은 1999년에 비해 10%나 일을 덜 하고 있으며, 또한 일하는 시간 역시 50분 감소한 5시간 43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활동을 하는 취업자는 0.2%가 감소하고 학습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무려 2시간 5분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일요일의 여가활동비율이 0.6% 증가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약 1분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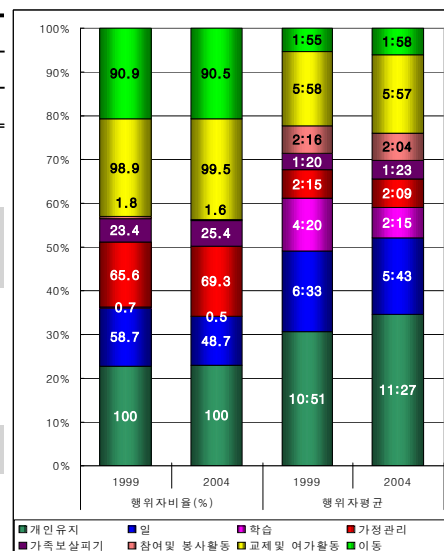
3) 일요일: 개인유지시간이 11시간 27분, 일하는 시간 50분 감소, 학습시간이 2시간 5분이나 감소, 여가활동 1분 감소

취업자의 요일별 행위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을 보면, 먼저 개인유지 시간은 평일이 가장 적고 일요일이 가장 많으며, 또한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여가시간 역시도 평일이 가장 적고 일요일이 가장 많다. 반면에 일하는 비율과 시간은 평일이 가장 많고 일요일이 가장 적고, 이동에 관한 것은 평일이 이동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가장 높으나 시간적으로는 토요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취업자 일요일의 주요생활시간의 행위자비율 및 행위자평균시간

	일요일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개인유지	100	100	-	10:51	11:27	0:36
일	58.7	48.7	-10.0	6:33	5:43	-0:50
학습	0.7	0.5	-0.2	4:20	2:15	-2:05
가정관리	65.6	69.3	3.7	2:15	2:09	-0:06
가족보살피기	23.4	25.4	2.0	1:20	1:23	0:03
참여및 봉사활동	1.8	1.6	-0.2	2:16	2:04	-0:12
교제및 여가활동	98.9	99.5	0.6	5:58	5:57	-0:01
이동	90.9	90.5	-0.4	1:55	1:58	0:03

<그림 2-8> 일요일 그래프



4. 취업자의 행동유형별 특성

주5일제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이 1주에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휴가 제도를 한국

의 상황에 맞게 개선·조정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무가 국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¹⁰⁾. 시행 시기는 업종과 규모별로 2004년 7월에 시행되어 2011년까지 확대시행 된다. 이러한 주5일제 근무환경을 통해서 취업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수적인 효과로 문화관광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여가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취업자의 생활시간의 변화는 1절에 나오는 취업자의 1999년과 2004년의 생활시간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취업자의 생활시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취업자의 행동유형별로 분석을 할 것이다. 먼저 필수생활시간에서는 수면을 시간대로 분석할 것이며, 의무생활시간에서는 노동시간(일), 가사노동, 이동 부분에서 시간대 분석과 행위자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여가생활시간에서는 미디어활용 부분과 적극적인 여가와 소극적인 여가로 분류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취업자가 행동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취업자를 위한 사회적인 기초 자료를 성립하는 것이다.

가. 수면 : 수면시간 2분 증가, 일요일에 가장 많은 8시간 37분

<표 2-12> 평균시간

1999	2004	증감
7:36	7:38	0:02

<표 2-13> 행위자평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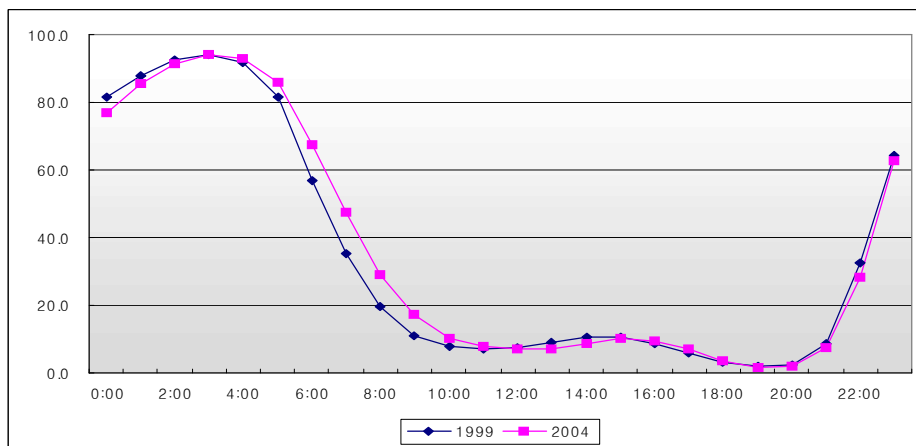
요일평균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7:38	7:25	7:46	8:37

10) 주5일제 근무 적용연도 및 대상

적용연도	적용대상
2004년 7월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300인 이상
2006년 7월	100인 이상
2007년 7월	50인 이상
2008년 7월	20인 이상
2011년	20인 미만

수면 시간은 취업자의 전체 평균에서 1999년에 비해서 2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위자평균시간을 통해서 요일별로 분석하면 수면은 요일평균적으로 7시간 38분이 나타나고 월요일에 7시간 25분, 토요일에 7시간 46분, 일요일에 8시간 37분으로 일요일에 크게 수면시간이 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다음에 나오는 시간대별 그래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9> 수면시간에 대한 시간대 그래프



취업자의 1999년에 비해서 2004년에 수면을 취하는 시간적인 비율의 변화를 보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더 늦은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7시 30분을 기점으로 1999년에는 40%가 안되는 비율이 잠을 자고 있지만 2004년에 같은 시간에는 45%에 가까운 취업자가 잠을 자고 있다. 또한 이러한 늦어지는 기상시간을 통해서도 수면시간이 2004년에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심을 먹고 난 12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 수면시간이 2004년에 와서 줄어들었으며, 즉 충분한 수면으로 인한 낮잠을 자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나. 노동(일) : 노동시간 40분 감소, 노동시간의 집중화

<표 2-14> 평균시간

1999	2004	증감
6:38	5:58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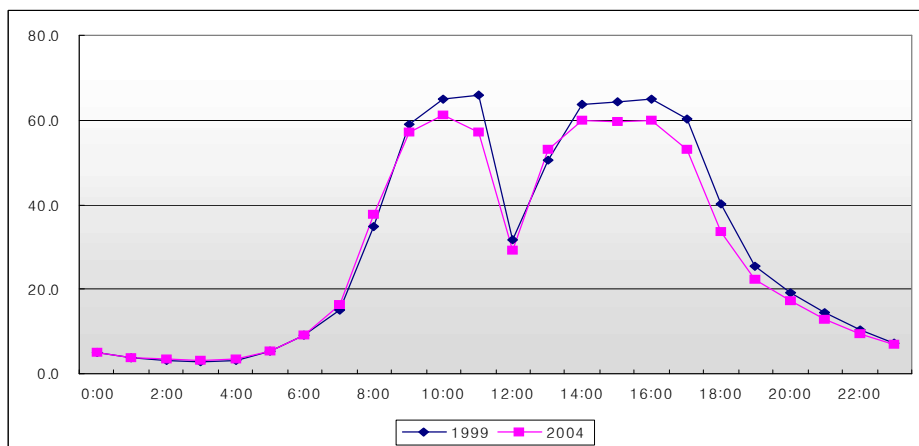
<표 2-15> 행위자평균시간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85.5	6:54	93.8	7:17	80.8	6:14	48.7	5:43

취업자의 노동시간은 1999년에 비해서 40분이 감소한 5시간 58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5일제 근무시행이 완성되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요일별로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을 보면, 평일에는 93.8%의 취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7시간 17동안 일을 하였고, 토요일은 이보다 감소한 80.8%의 취업자가 6시간 14분의 노동을 하였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급격히 감소한 48.7%의 취업자가 5시간 43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일에 대한 시간대 그래프



이와 같은 노동시간을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면 노동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2004년 그래프는 위와 같이 1999년에 비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근로시간인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그 비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은 과거 1999년에 출근해서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조금씩 높아지는 현상으로 출근해서 바로 일을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이후에도 집중적인 근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근무를 하는 전체적인 시간은 줄었으나 노동집중력이나 강도면에서는 오히려 2004년에 나타나는 결과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 가사노동 : 평균시간 감소, 일요일에 가장 많은 비율이 가장 많은 시간 사용

<표 2-16> 평균시간

1999	2004	증감
1:24	1:22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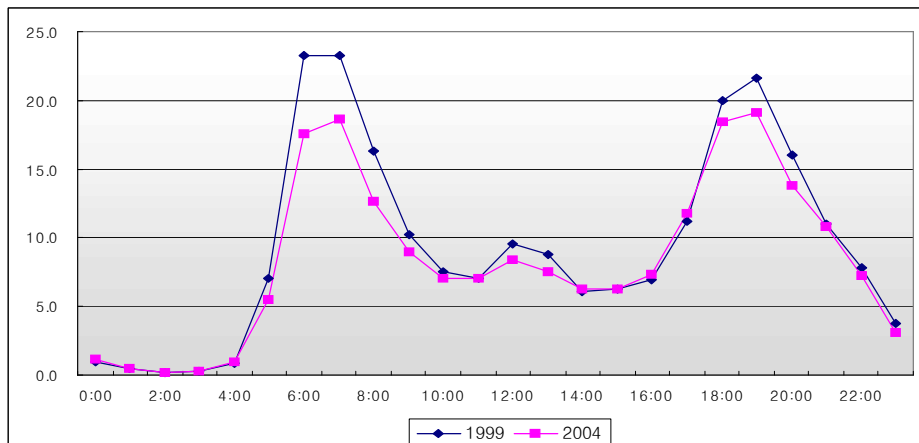
<표 2-17> 행위자평균시간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음식준비	41.3	1:19	40.2	1:17	42.3	1:23	46.0	1:27
청소 및 정리	36.3	0:39	34.2	0:37	38.2	0:42	44.9	0:44
장보기,쇼핑	17.3	0:37	15.0	0:33	21.7	0:46	24.5	0:49

가사노동시간은 1999년에 비해서 2분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평균적으로 취업자의 41.3%가 음식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시간은 1시간 19분이며, 청소 및 정리에는 36.3%의 취업자가 39분을 사용하고 장보기 및 쇼핑은 전체 17.3%의 취업자가 37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분석해보면, 평일에서 주말로 갈수록 가사노동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동비율 감소하고 남은 시간의 일부가 가사노동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요일에 가사노동비율이 가장 높고 행위자평균시간도 가장 높다. 자세하게 보면 음

식을 준비하는 인구는 취업자의 46%가 1시간 27분 동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소는 44.9%가 44분 동안 하며, 장보기 및 쇼핑은 24.5%의 취업자가 49분 동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대 그래프



다음으로 가사노동의 시간대별 분석을 살펴보면 위의 그래프와 같이 전체적으로 가사노동 비율이 시간대 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아침 식사 시간인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가사노동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1999년에 비해 가사 활동에 사용되는 가전제품이나 기기 등의 제품기술이 향상되어 음식준비나 다른 기타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이 감소한 결과임을 짐작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점심 식사 시간은 가정 내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취업자의 10%내외로 나머지는 직장이나 다른 곳에 음식을 사 먹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2004년에는 아침식사 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에 가사노동 비율이 1999년이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조금 증가하게 나타났다.

라. 이동 :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일시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전체 이동시간 비율을 증가

<표 2-19> 평균시간

1999	2004	증감
1:44	1:52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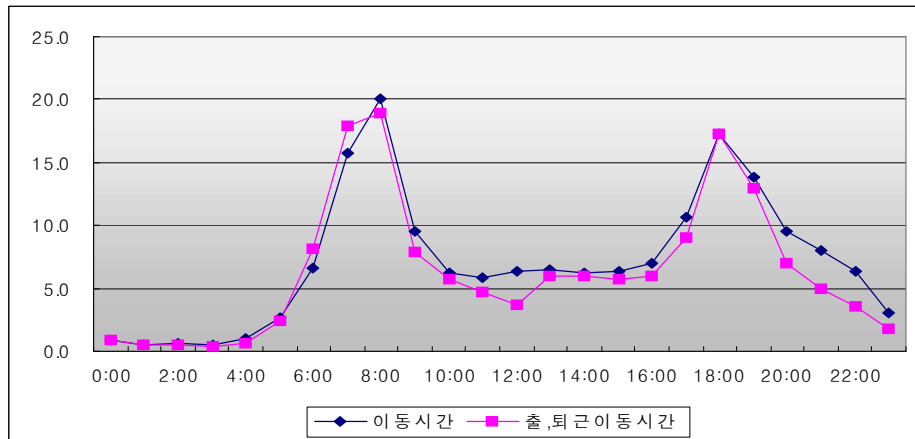
<표 2-20> 행위자평균시간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이동	95.8	1:57	94.8	1:56	89.2	2:02	70.9	1:58
출·퇴근이동	78.7	1:27	84.7	1:09	69.8	1:05	35.3	0:56

이동시간은 1999년에 비해 평균 8분이 증가한 1시간 52분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비율로 보면, 95.8%가 1시간 57분 동안 이동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중 출·퇴근 시간은 취업자의 78.7%가 1시간 27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이동시간의 변화를 보면, 평일 시간에 이동하는 비율이 94.8%로 가장 높고 일요일 70.9%로 가장 낮다. 하지만 행위자평균시간으로 보면 평일이 1시간 56분으로 가장 낮고 토요일이 2시간 2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토요일이 휴일로 바뀌게 되면서 가족여행이나 휴가로써의 이동시간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위자평균 이동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에 출·퇴근 이동시간은 주말이 되면서 비율적으로 감소하며, 시간적으로도 감소한다.

이동시간의 시간대별 분석을 해보면 아침 6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출근시간이 전체의 이동시간을 넘는 비율로 나타났다. 다른 시간대와는 달리 이 시간은 모든 취업자의 공통적인 이동시간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일시적으로 전체 이동시간의 비율을 넘어서게 되었다. 취업자의 퇴근 시간은 5시 30분부터 시작되어 8시까지 이루어지고 이 시간대 역시 출퇴근 비율이 전체 이동시간과 유사한 비율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대 그래프



마. 미디어 이용: 낮 이용률은 증가, 밤 이용률은 감소

<표 2-21> 평균시간

1999	2004	증감
1:58	1:59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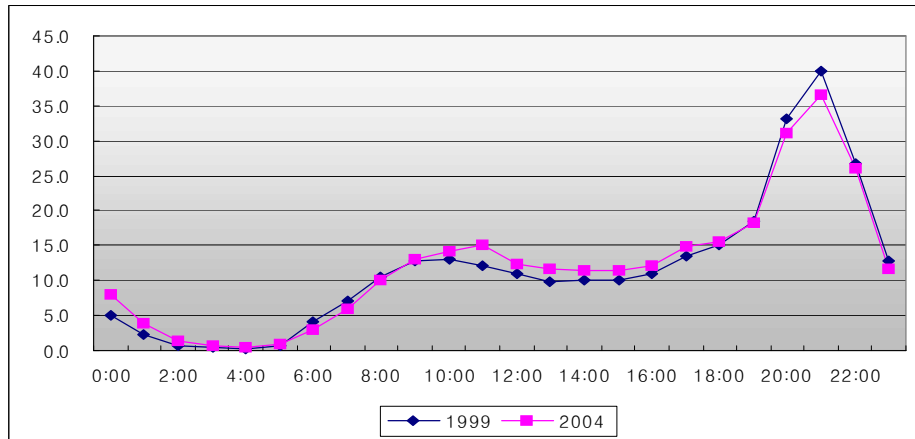
<표 2-22> 행위자평균시간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87.9	2:15	87.2	2:00	88.4	2:34	91.2	3:11

미디어 이용은 취업자 및 전체 국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가생활시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디어 이용은 전체 평균시간이 2004년에 1분이 증가한 1시간 59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위자비율로 보면 요일평균이 87.9%의 취업자가 2시간 15분 동안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이 가장 낮은 87.2%의 취업자가 2시간을 활용하고 토요일은 88.4%가 2시간 34분, 일요일은 가장 많은 91.2%가 3시간 11분 동안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말이 되면 거의 10명중에 한명을 제외한 취

업자들이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림 2-13> 미디어활용에 대한 시간대 그래프



미디어활용을 시간대별로 보면 1999년에 비해서 곡선의 형태는 거의 변한 것이 없다. 단지 10시부터 1999년의 비율을 넘어서 저녁 7시 30분까지는 2004년에 들어 더 많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1999년에 비해 비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적극적 여가¹¹⁾ : 1시 30분부터 4시 30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스포츠 및 레저활동

<표 2-23> 평균시간

1999	2004	증감
0:14	0:19	0:05

<표 2-24> 행위자평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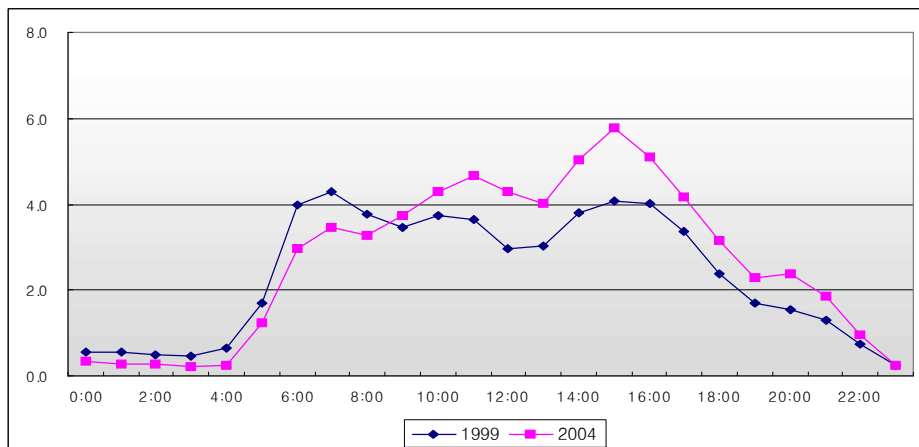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11) 적극적인 여가활동 항목은 걷기, 산책, 등산, 하이킹,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 운동, 그 외의 스포츠, 드라이브, 소풍 관광 및 구경, 그 외 집밖의 레저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24.9 1:17 | 23.9 1:10 | 25.1 1:25 | 29.4 1:41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볼 수 있는 스포츠 및 레저활동은 1999년에 비해 5분이 증가한 19분 동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19분이지만 행위자 비율과 평균으로 보면 취업자의 24.9%가 1시간 17분 동안 적극적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요일별로 분석하면 월요일은 23.9%가 1시간 10분을 하고, 토요일은 25.1%가 1시간 25분, 일요일은 29.4%가 1시간 41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자의 여가활동이 전체적인 평균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30%에 가까운 취업자가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적극적 여가에 대한 시간대 그래프



이러한 적극적 여가활동은 오전 9시까지 1999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간이 늘어난 수면시간에 포함됨으로써 1999년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0시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비율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소극적 여가¹²⁾ : 평균시간 4분 증가, 토요일에 가장 많은 비율, 집중시간이 광범함.

<표 2-25> 평균시간

1999	2004	증감
0:41	0:45	0:04

<표 2-26> 행위자평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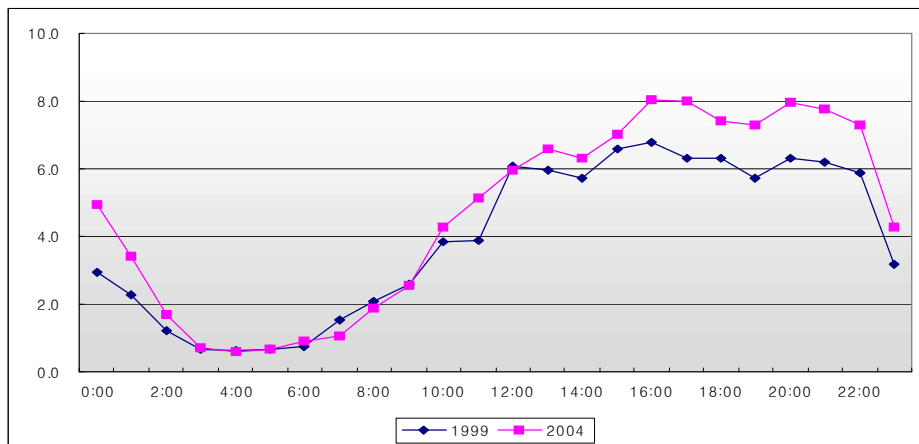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60.8	1:14	60.4	1:10	62.6	1:23	61.6	1:29

소극적 여가활동은 1999년에 비해서 4분이 늘어난 취업자 평균적으로 45분으로 나타났다. 요일평균으로는 60.8%가 1시간 14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월요일은 60.4%의 취업자가 1시간 10분으로 나타나고 토요일은 62.6%가 1시간 23분, 일요일은 61.6%가 1시간 29분 동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도 여가활동의 전체적인 요일별 흐름과 동일하게 평일의 활동비율과 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주말에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소극적 여가를 살펴보면, 새벽 2시까지 1999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잠을 일찍 자지 않고 늦게 잠을 자는 취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소극적 여가의 형태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적극적 여가의 주요시간이 활동적인 오후의 시간대라면 소극적 여가의 주요시간대는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로 적극적 여가활동이 끝난 이후와 저녁 시간의 대부분이 소극적 여가활동의 주요한 시간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소극적인 여가활동 항목은 독서, 컴퓨터 게임, 놀이, 그 외 취미활동, 유흥, 담배피우기, 아무것도 안하고 쉬므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15> 소극적 여가에 대한 시간대 그래프



5. 소결

취업자의 하루 24시간의 구성은 크게 24시간 중 43%는 개인유지, 일하는 시간이 24.9%, 여가시간이 17.2%로 되어 있다. 취업자의 이러한 생활시간의 구성은 전체국민이나 미취업자들과 구성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취업자는 전체국민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취업자 특성상 주5일제 근무제로 인한 전체 노동시간의 감소는 취업자 전체의 노동시간 감소로 이어졌고, 전체국민보다 더 많은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미디어 이용시간이 전체국민은 감소하는 반면에 취업자에서는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미취업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의무생활시간이 더 많고,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의무노동시간은 취업자가 전체적으로 많지만, 가사노동시간에서는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생활시간에 대한 요일별 변화추이를 통해서 일하는 시간이 주말로 가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수면시간이나 여가생활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가생활시간 중 미디어활용은 취업자의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요일별로는 평일에는 미디어활용이 감소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디어활용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TV 시청 역시도 평일에는 감소하고 주말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각 요일별 특징은 평일에는 개인유지시간 증가, 일하는 시간 감소, 학습활동 감소, 가사노동의 감소, 여가활동의 증가로 볼 수 있다. 토요일은 개인유지 증가, 일하는 시간 감소, 가족 보살피기 증가, 여가활동 증가, 이동시간의 증가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일요일은 토요일과 유사한 상태를 가진다.

취업자의 행동유형별 특징으로는 수면시간 1999년에 비해 2분 증가하였고, 일요일에는 가장 많은 8시간 37분을 나타났다. 일(노동)은 지속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평일에서 토요일의 비율 및 시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일 근무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집중적인 형태의 노동으로 유형화되어 있었다. 가사노동은 2004년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행위자평균시간으로 보면 한번 하면 1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말로 갈수록 더 많은 비율의 취업자가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자의 적극적, 소극적 여가활동은 공통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적인 여가생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취업자의 여가활동이 소극적 여가를 선호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적극적 여가에 비해 더 많은 비율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취업자 속성에 따른 생활시간 비교

1. 성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비교

현대사회에서 성별은 모든 현상에서 아주 중요한 독립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 행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은 남성답게 행동하기가 기대되며 여성은 여성다움을 강요받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내면화와 외압의 형태로 자신을 유지하고 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역할을 내면화한다. 남자 아이들은 슬프거나 아파도 울어서는 안되며, 언제나 어른스러움을 강요 받는다. 또 여자아이들은 화가 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어릴 때부터 가사 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교육받는다. 이러한 성역할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른들 또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을 제지당하기도 특정 행위가 중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 기대는 사회의 요구이자 반영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남성이 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노동을 했으며 여성은 이러한 남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시 말해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의 생활양식은 남성만이 노동을 통한 가치창출활동을 할 경우 남성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던 역할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더 이상 남성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회가 아니다. 여성도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얼마 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해 안으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1963년 37.0%에서 1973년(41.5%) 40%대로 올라선 이후 1980년 42.8%, 1990 47.0%, 2000년 48.8% 2001~2004년 49% 대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에 맞물려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600만 가구 중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구는 2000년 40.5%에서 올해의 경우 50.2%로 전체 가구의 50%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의 여성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를 받고 있다.¹³⁾ 노동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빨래와 청소, 음식준비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으며 아이를 돌보는 것과 집안의 대소사 역시 여성의 준비와 남성의 참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성역할 기대는 취업을 한 여성에게 더욱더 부담스럽게 작용한다. 여성은 사회에서 남성과 같이 현대사회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와도 남성들처럼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취업자의 성별 생활시간 분석은 현대사회에서 남녀 취업자의 생활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가. 성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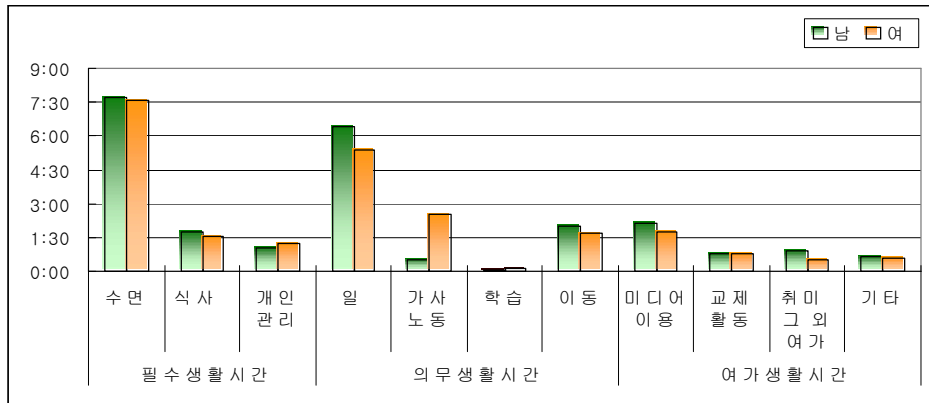
<표 3-1> 성별 취업자의 2004년 생활시간 구성

(단위=시간:분)

2004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수면	식사	개인 관리		일	가사 노동	학습	이동		미디어 이용	교제 활동	취미 그 외 여가	기타	
전체	10:24	7:39	1:39	1:07	9:16	5:58	1:22	0:04	1:52	4:09	1:59	0:47	0:46	0:36
남	10:26	7:41	1:43	1:02	8:58	6:23	0:31	0:03	2:01	4:27	2:09	0:46	0:55	0:38
여	10:21	7:35	1:34	1:13	9:42	5:23	2:33	0:06	1:40	3:43	1:45	0:48	0:33	0:36

13) 2002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함께 사는 부부 중 부인에게 가사분담 실태를 질문한 결과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8.1% 뿐이며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37.9%,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부담하는 비율은 51%로 전체의 89%가 여성이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년 조사(공평하게 부담 5.7%,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44.9%,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부담 47.1%)에서 나타난 것보다 는 나아진 결과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 성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취업자의 생활시간 중 필수생활시간은 인간이라는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배분해야하는 절대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의무생활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다. 필수생활시간은 재생산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수면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의 신체를 관리하는 시간과 건강관리 시간을 포함한 개인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수생활시간은 요일평균 남성이 10시간 26분, 여성이 10시간 21분으로 약 5분정도 남성이 많이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수면에 7시간 41분을 투여하지만 여성은 7시간 35분만을 수면에 사용하고 있으며, 식사도 남성이 여성보다 9분이 많은 1시간 43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은 남성보다 개인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으며, 1시간 13분만을 개인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1시간 13분을 사용하고 있다.

필수생활시간 못지않게 의무생활시간 역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생활시간의 중요한 부분이다. 의무생활시간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노동시간, 가정에서 노동의 재생산과 몸의 재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노동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학습시간, 또 생활을 위한 이동의 시간까지로 구성된다. 먼저 노동시간에서 남성은 6시간 23분을 사용하며, 여성은 5시간 2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으로서의 노동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이 31분

만을 사용하는데 비해서 여성은 2시간 3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무려 2시간 가까이 된다. 학습시간은 취업자의 특성상 남녀 모두 적은 시간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3분과 6분만을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은 남성이 2시간 1분, 여성이 1시간 40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1분을 더 이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과 이동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무생활시간이 여성이 작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루 24시간의 시간 구조를 생각했을 때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으며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생활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의 삶이 남성보다 더 수동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여가활동시간을 고려할 때 더욱더 그렇다.

여가생활시간은 필수생활시간과 의무생활시간처럼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필수생활시간과 의무생활시간의 배분 이후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가생활시간은 소극적 여가생활로서 미디어 이용과 적극적 여가로서 교제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나머지 하위 여가관련 행동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필수생활시간은 비슷했으나 의무생활시간에서 여성의 시간배분이 많았다는 점에서 여가생활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할 수 있다. 남성은 4시간 27분을 여가생활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44분이 작은 3시간 43분만을 여가생활에 분배하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미디어 이용에서 남성은 2시간 9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성은 1시간 45분만을 사용하고 있다. 또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서도 남성은 55분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33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도 여성보다 남성이 2분을 더 사용해 38분을 기타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나타냈다. 단지 교제활동에서만 남성이 46분 여성이 48분을 사용해 2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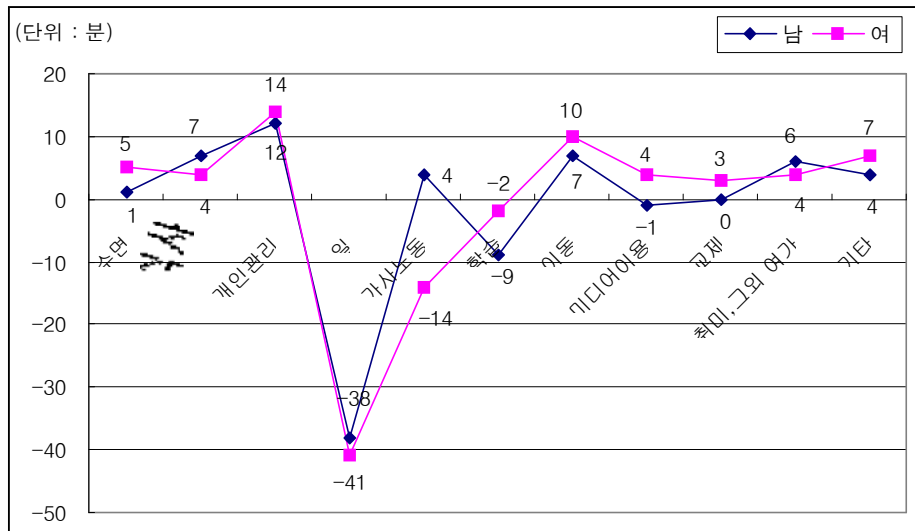
나. 성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1999년, 2004년)

<표 3-2> 취업자 남자와 여자의 생활시간 구성 추이

(단위=시간:분)

	남자			여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 필수생활시간	10:07	10:26	0:19	10:00	10:21	0:21
수면	7:40	7:41	0:01	7:30	7:35	0:05
식사	1:36	1:43	0:07	1:30	1:34	0:04
개인관리	0:50	1:02	0:12	0:59	1:13	0:14
▶ 의무생활시간	9:29	8:58	-0:31	10:29	9:42	-0:47
일	7:02	6:24	-0:38	6:04	5:23	-0:41
가사노동	0:27	0:31	0:04	2:47	2:33	-0:14
학습	0:06	0:03	-0:03	0:08	0:06	-0:02
이동	1:54	2:01	0:07	1:30	1:40	0:10
▶ 여가생활시간	4:18	4:27	0:09	3:24	3:43	0:19
미디어이용	2:10	2:09	-0:01	1:41	1:45	0:04
교제	0:46	0:46	-	0:45	0:48	0:03
취미,그외	0:49	0:55	0:06	0:29	0:33	0:04
여가 기타	0:34	0:38	0:04	0:29	0:36	0:07

<그림 3-2> 성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증감표



필수생활시간의 경우 남성의 생활시간이 1999년 보다 19분이 증가한 10시간 26분을 나타내었으며, 여성은 21분이 증가한 10시간 21분으로 나타났다. 그 중 수면시간으로 남성이 1분 증가한 7시간 41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5분이 증가한 7시간 35분을 사용하고 있다. 또 식사시간 역시 늘어났는데 남성이 1시간 43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4분이 늘어난 1시간 34분을 사용하고 있다. 필수생활시간에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것은 개인관리시간이다. 개인관리시간은 개인위생과 외모관리 이미용서비스받기부터 건강관리에 이르는 하위항목을 가진 시간범위로서 현대인의 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개인관리시간에서 남성은 10분이 증가한 1시간 2분을 그리고 여성은 14분이 증가한 1시간 1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생활시간은 남녀 모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시간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남성은 99년에 비해 31분이 줄어든 6시간 24분을 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41분이 줄어든 5시간 23분을 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의무생활시간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가사노동의 부분인데 남성의 경우 99년에 비해 3분이 늘어난 24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14분이 줄어든 2시간 33분을 사용하고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 부담시간이 늘어나고 여성의 투여시간이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취업자 남녀의 성역할 분담은 전통적 양식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자라는 특성상 학습시간은 거의 없으며 남성과 여성은 99년에 비해 각 3분과 2분이 줄어든 3분과 6분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동시간은 남녀가 모두 증가하였는데 남성은 7분이 증가한 2시간 1분을 그리고 여성은 10분이 증가한 1시간 40분을 이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이동시간이 더 큰 증가를 보이긴 했으나 여성의 이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21분이 적으며 이는 여성의 이동 반경이 남성보다 더 좁은 범위로 이루어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가생활시간은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가활동 자체에 대한 기대가 수면과 식사시간 등의 필수생활시간과 노동의 여건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이 범주의 시간은 24시간 중 필수

생활시간과 의무생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한 후 남는 잔여시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특히 취업자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시간과 생활을 위한 의무시간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시간 자체는 이 두 영역의 시간에 간섭을 받는다. 남성과 여성의 여가생활시간이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남성은 99년에 비해 9분이 늘어난 4시간 27분을 여가생활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19분이 증가한 3시간 43분을 사용하고 있다. 여성의 여가생활시간 증가 폭이 더 크기는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44분의 시간을 더 여가생활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의무생활시간이 남성보다 더 많다는데서 기인한다. 세부항목을 보면 미디어 이용에서 남성은 1분이 줄어든 2시간 9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4분이 증가한 1시간 45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교제시간에서 남성은 99년과 같은 46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3분이 증가한 48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에서 99년에 비해 남성은 6분이 증가한 55분을, 여성은 7분이 증가한 36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 성별 요일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2004년)

요일별로 남녀의 필수생활시간을 비교해보면 평일에는 남성이 7시간 28분을 그리고 여성은 7시간 21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식사에는 남성이 1시간 42분, 여성이 1시간 33분을 상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관리시간은 남성이 1시간 1분 여성이 1시간 1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에는 남성이 수면을 위해서 7시간 47분을 사용해 평일에 비해 19분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7시간 44분을 사용해 23분이 증가하였다. 식사시간은 남성이 1시간 44분, 여성이 1시간 36분을 사용해 평일보다 2~3분 정도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관리시간은 남성이 1시간 4분, 여성이 1시간 12분을 사용해 개인관리시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필수생활시간은 먼저 수면에서 남성이 평일보다 1시간 13분이 증가한 8시간 41분을 그리고 여성은 평일보다 1시간 10이 증가한 8시간 31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식사시간은 남성이 1시간 45분을 여성이 1시간 38분을 사용해 평일에 비해 3~5분정도를

더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관리시간은 역시 평일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표 3-3> 성별 요일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단위=시간:분)

2004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	여		남	여		남	여	
▶필수생활시간	10:09	10:11	10:07	10:34	10:35	10:33	11:27	11:31	11:22
수면	7:25	7:28	7:21	7:46	7:47	7:44	8:37	8:41	8:31
식사 및 간식	1:38	1:42	1:33	1:40	1:44	1:36	1:42	1:45	1:38
개인관리	1:06	1:01	1:13	1:07	1:04	1:12	1:08	1:05	1:12
▶의무생활시간	10:00	9:44	10:19	8:31	8:11	9:00	6:24	5:45	7:19
일	6:47	7:16	6:07	5:02	5:27	4:28	2:48	2:55	2:39
가사노동	1:15	0:24	2:24	1:32	0:38	2:49	1:49	0:54	3:05
학습	0:05	0:03	0:07	0:02	0:01	0:02	0:01	0:01	0:01
이동	1:53	2:01	1:41	1:55	2:05	1:41	1:46	1:55	1:34
▶여가생활시간	3:40	3:54	3:20	4:42	5:03	4:14	5:57	6:35	5:05
미디어 이용	1:45	1:53	1:34	2:16	2:27	2:00	2:54	3:14	2:27
교제활동	0:42	0:41	0:44	0:55	0:53	0:58	1:02	1:06	0:57
취미, 그 외 여가	0:43	0:50	0:32	0:52	1:03	0:38	0:55	1:07	0:38
기타	0:31	0:30	0:30	0:38	0:41	0:38	1:06	1:09	1:03

의무생활시간에서 평일의 노동시간은 남성이 7시간 16분이며 여성은 6시간 7분으로 남녀는 1시간이상의 노동시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토요일도 남성이 5시간 27분을 노동에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4시간 28분만을 사용하고 있어 평일과 비슷한 격차를 보인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남성이 2시간 55분을 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2시간 39분을 사용하고 있어 16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의 경우 평일에 남성이 24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2시간 24분을 사용하고 있다. 토요일에는 남성이 38분을 여성이 2시간 49분을 사용하며, 일요일에는 남성이 54분을 여성은 3시간 5분을 사용하고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처럼 노동에 대한 의무할당 시간이 줄어들면서 남성과 여성모두 가사노동의 시간이 증가하지만 그 절대량에서 여성이 남성의 3배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평일과 비슷한

수준의 의무생활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은 평일과 비교했을 때 토요일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일요일에만 소량 감소하여 남성이 1시간 55분을 여성이 1시간 34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가생활시간 중 미디어 이용시간에서 남성은 평일에 1시간 53분을 여성은 1시간 34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토요일에는 남성이 2시간 27분 여성은 2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요일에도 미디어이용시간은 증가하는데 남성이 3시간 14분을 여성이 2시간 27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제활동에는 평일과 토요일에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남성은 평일에 41분을 여성은 44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토요일에는 남성이 53분을 여성이 58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일요일이 되면 반전이 되는데 남성이 1시간 6분을 사용했으며 여성은 토요일과 비슷한 수준인 57분을 사용하였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에서 남성은 평일에 50분을 여성은 32분을 사용했으며, 토요일에는 남성이 1시간 3분을 여성은 38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일요일에는 남성이 1시간 7분을 여성은 38분을 사용해 여성의 경우는 요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성별 요일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1999년, 2004년)

필수생활시간에서 남성은 99년에 비해 수면시간이 5분 줄어든 7시간 28분을 사용했으며 여성은 99년과 변함없이 7시간 21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남녀 모두 수면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의 수면시간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식사시간 역시 남녀 모두 전체 요일에 걸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개인관리시간을 가지는 현상 또한 잘 유지되고 있는데 평일 남성의 개인관리시간은 11분이 증가한 1시간 1분으로, 여성은 14분이 증가한 1시간 13분으로 나타났으며 토요일 남성은 13분 늘어난 1시간 4분 여성은 12분 늘어난 1시간을 일요일에는 남성이 13분 늘어난 1시간 5분 여성은 12분 늘어난 1시간 12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3-4> 성별 요일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단위=시간: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		여		남		여		남		여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필수생활시간	9:59	10:11	9:50	10:07	10:02	10:35	10:01	10:33	10:53	11:31	10:48	11:22
수면	7:33	7:28	7:21	7:21	7:35	7:47	7:30	7:44	8:22	8:41	8:16	8:31
식사 및 간식	1:36	1:42	1:29	1:33	1:36	1:44	1:31	1:36	1:40	1:45	1:34	1:38
개인관리	0:50	1:01	0:59	1:13	0:51	1:04	1:00	1:12	0:52	1:05	1:00	1:12
의무생활시간	10:03	9:44	10:56	10:19	9:23	8:11	10:15	9:00	6:43	5:45	8:23	7:19
일	7:41	7:16	6:36	6:07	6:48	5:27	5:47	4:28	3:58	2:55	3:40	2:39
가사노동	0:23	0:24	2:41	2:24	0:29	0:38	2:41	2:49	0:45	0:54	3:13	3:05
학습	0:07	0:03	0:09	0:07	0:04	0:01	0:07	0:02	0:03	0:01	0:03	0:01
이동	1:52	2:01	1:30	1:41	2:02	2:05	1:33	1:41	1:57	1:55	1:27	1:34
여가생활시간	3:51	3:54	3:05	3:20	4:28	5:03	3:34	4:14	6:18	6:35	4:40	5:05
미디어 이용	1:57	1:53	1:32	1:34	2:14	2:27	1:46	2:00	3:08	3:14	2:20	2:27
교제활동	0:40	0:41	0:42	0:44	0:50	0:53	0:50	0:58	1:12	1:06	0:58	0:57
취미그외여가	0:47	0:50	0:28	0:32	0:52	1:03	0:30	0:38	0:57	1:07	0:32	0:38
기타	0:27	0:30	0:24	0:30	0:34	0:41	0:30	0:38	1:02	1:09	0:50	1:03

의무생활시간의 감소는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크게 일어났는데 99년의 남녀의 요일별 의무생활시간의 패턴 자체가 바뀔 만큼의 변화는 아니었다. 노동시간은 평일 남성이 99년보다 25분 줄어든 7시간 16분을 여성은 29분이 줄어든 6시간 7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토요일에는 남성이 99년보다 1시간 21분 줄어든 5시간 27분을 여성은 59분이 줄어든 4시간 28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토 일요일에는 남성이 1시간 3분이 줄어든 2시간 55분을 여성은 1시간 1분이 줄어든 2시간 39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사노동의 경우 남성은 평일에 1분이 증가한 24분을 토요일에는 9분이 증가한 38분을 또 일요일에는 9분이 증가한 54분을 사용하고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에 17분이 줄어든 2시간 24분을 사용하며 토요일에는 1분이 늘어난 2시간 49분을 그리고 일요일에는 8분이 줄어든 3시간 5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동시간은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남성이 9분 증가한 2시간 1분을 여성은 11분이 증가한 1시간 41분을 사용하며 토요일에는 남성이 3분 증가한 2시간 5분 여성은 8분이 증가한 1시간 41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남성

은 2분이 줄어든 1시간 55분을 사용했으나 여성은 7분이 늘어난 1시간 34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가생활시간은 남녀 모두에게서 늘어나는 현상을 찾을 수 있다. 평일 남성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1시간 53분으로 4분이 줄었지만 여성의 경우 1시간 34분으로 2분이 증가하였다. 토요일에는 남성이 13분 증가한 2시간 27분을, 여성은 14분이 증가한 2시간을 사용하며, 일요일에는 남성이 6분 증가한 3시간 14분을 그리고 여성은 7분이 증가한 2시간 27분을 사용하고 있다. 평일과 토요일의 남녀 교제활동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평일 남성이 1분, 여성이 2분 증가하였고 토요일 남성이 3분, 여성이 8분이 증가하였지만 일요일에는 남성이 6분이 줄어든 1시간 6분만을 그리고 여성은 1분이 줄어든 57분만을 교제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이 많으며 99년에 비해서도 3~10분가량 증가하였다.

마. 성별 주요행동별 생활시간 변화

<표 3-5> 필수생활시간 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 변화

(단위=시간:분)

	남		여	
	1999	2004	1999	2004
필수생활시간	10:07	10:26	10:00	10:21
수면	7:40	7:41	7:30	7:35
식사	1:36	1:43	1:30	1:34
개인관리	0:50	1:02	0:59	1:13
개인관리	0:48	0:59	0:55	1:08
건강관리	0:02	0:03	0:04	0:05

필수시간과 관련한 주요행동을 살펴보면 남성의 수면시간은 1분이 증가한 10시간 41분이며 여성은 5분이 증가한 7시간 35분이다. 식사시간은 남성이 7분 증가한 1시간 43분이며 여성은 4분 증가한 1시간 34분으로 나타났다. 필수생활시간 중에서 개인관리시간의 증가가 눈에 띄게 일어났는데 그 중 개인관리시간¹⁴⁾의 증가가 큰 요인이다. 개인관리

시간에서 남성은 99년에 비해 11분이 증가한 59분을 나타내었으며 여성은 13분이 증가한 1시간 8분을 나타내었다. 건강관리시간도 남성과 여성 모두 1분씩 증가해 각각 3분과 5분으로 나타났다.

<표 3-6> 노동 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 변화

(단위=시간:분)

	남		여	
	1999	2004	1999	2004
일	7:02	6:23	6:04	5:23
고용된 일 및 자영업	6:47	6:14	4:50	4:36
무급가족종사일(농림어업 제외)	0:05	0:04	0:38	0:25
농림어업의 무급가족 종사일	0:05	0:02	0:33	0:18

노동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은 노동시간이 99년에 비해 39분이 줄어들었으며, 여성은 41분이 줄어들었다. 그 중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서 남성이 33분 줄어든 6시간 14분, 여성은 14분이 줄어든 4시간 36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절대량에서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보다 많은 우위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급가족종사일에서 남성은 1분이 줄어든 4분을 투여하고 있었지만 여성은 13분이 줄어든 25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농림어업 무급가족종사일에서 남성은 3분이 줄어든 2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여성은 15분이 줄어든 18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시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소폭이었으며 그 외 무급가족종사일에서 노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통계청의 행동분류 번호 13번으로서 개인위생, 외모관리,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등을 포함한 항목.

<표 3-7> 가사노동 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 변화

(단위=시간:분)

	남		여	
	1999	2004	1999	2004
가사노동	0:27	0:31	2:47	2:33
음식준비	0:04	0:05	1:19	1:11
의류관리	0:01	0:01	0:20	0:18
청소 및 정리	0:06	0:06	0:28	0:26
집 관리	0:05	0:04	0:02	0:03
장보기	0:03	0:04	0:10	0:11
가족보살피기	0:08	0:11	0:25	0:24

가사노동과 관련한 주요행동의 생활시간을 보면 남성은 가사노동시간이 증가였고 여성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중 4분의 증가는 음식준비시간이 99년보다 1분 증가한 5분, 장보기에서 1분이 증가한 4분과 가족보살피기에서 3분이 증가한 11분이 그 요인이다. 한편 여성은 가사노동시간이 14분 줄어들었는데 이는 음식준비시간이 8분이 줄어들어 1시간 11분만을 사용하고 또 의류관리시간이 2분이 줄어들었으며 청소 및 정리시간이 2분, 가족보살피기가 1분이 감소한 결과이다. 남성과 여성의 행동별 시간배분에서 집관리를 제외한 모든 행동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소비하는 시간이 많으며 거의 모든 가사노동이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1분이지만 장보는 시간이 공통으로 늘었다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표 3-8> 이동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

(단위=시간:분)

	남		여	
	1999	2004	1999	2004
이동	1:54	2:01	1:30	1:40
출퇴근 및 일관련 이동	1:15	1:19	0:52	0:56
출퇴근	0:56	0:55	0:42	0:45
그 외 일 관련 이동	0:19	0:24	0:10	0:11

취업자의 이동과 관련한 주요행동은 출퇴근과 그 외 일관련 이동으로 압축된다. 99년에 비해 남녀 모두의 이동시간은 증가하였는데 남성은 7분 여성은 10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남성의 출퇴근 시간은 1분이 줄어든 55분으로 타나났으며 여성은 3분이 늘어난 45분으로 나타났다. 또 그 외 일관련 이동에서 남성은 5분이 증가한 24분을 그리고 여성은 1분이 증가한 11분을 나타내었다. 남성의 출퇴근 시간이 더 길며 출퇴근을 제외한 일 관련 이동에서도 남성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 소결

성별 취업자의 생활시간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무생활시간에서 노동과 가사노동의 시간일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적인 혹사일 뿐 아니라 필수생활과 의무생활시간을 제외한 여가생활시간의 상대적 감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질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 여성의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과 더불어 여가생활시간에서도 휴식과 자아실현의 시간은 남성보다 작으며, 교제활동의 시간만이 남성보다 많다는 점 역시 여성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 여성의 필수생활시간 중에서 개인관리시간이 남성보다 많다는 점 역시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요구가 더 많다는 것을 대변하는 현상이다.

성별 취업자의 생활시간에서 2004년의 여성의 삶에서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배분에 있어서 여성의 부담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생활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하지만 남성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이 현상의 정확한 해석은 어렵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은 주5일제 근무의 부분적인 실시와 고용형태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는 남녀 관계가 평등해진 것인지 아니면 가사노동의 일정부분을 가전제품으로 대체하던지 아니면 그러한 일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종에 넘겨버린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성에 비하면 아직도 적은 시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여성의 1/5 가량밖에는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취업 여성은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폭이지만 여성의 노동과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한 잔여시간의 발생은 여성의 여가생활시간이 늘어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여성의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다.

취업자 남녀의 생활시간을 요일별로 비교해보면 남녀가 모두 수면시간과 식사시간, 가사노동시간, 미디어 이용시간, 교제활동시간,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평일보다 토요일이 그리고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시간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을 비교해봤을 때 노동시간과 이동시간은 줄어들고 있으나 개인관리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구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요일의 남성은 의무생활시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작은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소폭 늘어나는데 기인한다. 또한 여가생활시간에서 남성과 여성의 요일별 차이를 보면 평일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남성과 여성의 시간 배분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 요일별 취업자의 생활시간의 변화는 필수생활시간의 증가와 의무생활시간의 감소 그리고 여가생활시간의 증가라는 전반적인 추세와 함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남녀의 성역할분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녀 모두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필수생활시간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이 더 많은 필수생활 시간을 가지며 의무생활시간의 감소도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지만 가사노동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감소하고 남성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동시간은 99년에 비해 남녀모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평일과 토요일에 강하게 나타난다. 여가생활시간은 남녀가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이 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연령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비교

사람의 인생은 흔히 계절에 비유한다. 봄에 비유할 수 있는 아동기에는 학습과 성장을 하고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며 사회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한다. 여름에 비유할 수 있는 청년기에는 아동의 몸을 벗어나 어른으로 가는 과정을 경험하며 이 시기는 성숙, 열정, 원숙 등의 말로 표현된다. 가을과 같이 수확을 하는 장년기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현실화하고 아이들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겨울에 종종 비유되는 인생의 마지막인 노년기에는 시간과 안정의 측면에서 더 많은 여가를 누리며 인생의 템포 역시 눈에 띄게 늦어진다. 이와 같이 인생을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각 시기에 사회에서 요구하거나 개인의 의지에서 나타나는 생활시간의 배분을 다르리라고 생각된다.

특정시기에 중요한 변수인 연령을 모두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의 몸은 시간이라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연령을 분석의 변수로 두는 것은 한 사회의 주요 생애주기를 바라보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학습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20대 이후에 노동전선에 뛰어들다. 20세 이전까지는 노동전선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의 단계로 주로 성장과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다. 현대 우리사회에서는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20대가 되어도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률이 낮으며, 삼팔선 사오정 등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실업자의 신세로 전락하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명예퇴직을 강요받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연장선에서 취업자의 정년자체도 많이 줄어들어 과거처럼 60대까지 일을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산업구조와 경기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인생주기는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 생활시간이다. 이렇게 연령별 생활시간의 배분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 연령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연령별 취업자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노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30대와 40대가 필수생활시간이 적게 나타났으며 노동을 포함한 의무생활시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절대량을 가진 것이어서 여가생활시간과 같이 개인의 배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생의 전반적인 구조로 연령별 생활시간을 바라보면 40대에서 50대가 사회활동 일선에서 물러나는 시기로 판단되며 60대 이상의 경우 필수생활시간의 증가와 여가활동시간의 증가 그리고 의무생활시간의 감소라는 모습에서 사회생활에서 물러나 인생을 정리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활동의 준비단계로서 10대는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학습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여가활동에서 교제와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연령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단위= 시간:분)

2004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필수생활시간	10:37	10:35	10:20	10:16	10:24	10:34
수면	8:00	7:49	7:38	7:30	7:32	7:50
식사	1:24	1:33	1:40	1:42	1:43	1:38
개인관리	1:14	1:12	1:02	1:05	1:09	1:07
의무생활시간	8:48	9:00	9:41	9:29	9:05	8:27
일(수입노동)	4:40	6:03	6:06	6:09	5:54	5:16
가사노동	0:22	0:44	1:36	1:29	1:24	1:41
학습	1:45	0:11	0:01	0:00	0:00	0:00
이동	2:01	2:02	1:58	1:51	1:47	1:30
여가생활시간	4:27	4:17	3:49	4:03	4:19	4:42
미디어 이용	1:39	1:48	1:48	1:59	2:12	2:30
교제	0:56	0:49	0:45	0:45	0:47	0:51
취미 및 그 외 여가	1:19	0:59	0:44	0:40	0:40	0:46
기타	0:31	0:41	0:33	0:39	0:40	0:36

2004년의 취업자 필수생활시간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필수생활시간은 40대가 가장 작은 10시간 16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30대 10시간

20분, 50대 10시간 24분, 60대이상 10시간 34분, 20대 10시간 35분 10대가 10시간 37분의 순서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40대가 7시간 30분으로 가장 작았으며 10대가 8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식사시간은 필수생활시간의 분포와는 달리 10대가 가장 적은 1시간 24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50대가 가장 많은 1시간 4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관리의 시간은 10대가 가장 많은 1시간 14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30대가 가장 적은 1시간 2분을 사용했다. 필수생활시간의 연령별 배분정도에 따라 각 연령대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수면시간과 개인관리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서 많이 배분하며 인생주기에서 가을에 해당하는 40~50대는 수면시간과 개인관리시간이 적지만 식사시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무생활시간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9시간 41분을 사용하며 40대가 9시간 29분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의무생활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각각 8시간 48분과 8시간 27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간과 관련이 깊은데 30대와 40대는 6시간 6분과 6시간 9분의 노동시간을 사용하며 1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4시간 40분과 5시간 16분만을 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는 가사노동의 시간이 다른 연령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22분과 44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30대는 1시간 36분을 40대는 1시간 29분을 그리고 50대는 1시간 24분을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1시간 41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은 10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시간 45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10대는 11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학습시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시간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10대와 20대는 2시간 1분과 2시간 2분을 이동에 사용하고 있으나 60대 이상은 1시간 30분만을 이동에 사용하고 있다.

여가생활시간은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4시간 42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10대인데 4시간 27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의무생활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가생활시

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각각 3시간 49분, 4시간 3분을 여가생활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디어 이용시간이 적으며 교제와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미디어이용시간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늘어나는데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평균 2시간 30분을 미디어 이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시간은 10대와 6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6~10분가량 많은 56분, 51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30대와 40대는 가장 적은 45분을 교제에 사용하고 있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40대와 50대가 40분을 30대가 44분을 사용하는 반면 10대는 1시간 19분을 그리고 20대는 59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연령별 취업자의 생활시간의 변화

(단위 = 시간:분)

요일평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필수생활시간	10:16	10:37	10:12	10:35	10:02	10:20	9:55	10:16	9:57	10:24	10:18	10:34
수면	7:49	8:00	7:40	7:49	7:35	7:38	7:26	7:30	7:30	7:32	7:56	7:50
식사	1:24	1:24	1:30	1:33	1:35	1:40	1:35	1:42	1:34	1:43	1:31	1:38
개인관리	1:02	1:14	1:01	1:12	0:51	1:02	0:53	1:05	0:52	1:09	0:50	1:07
의무생활시간	9:41	8:48	9:47	9:00	10:12	9:41	10:10	9:29	9:46	9:05	8:48	8:27
일(수입노동)	5:27	4:40	6:39	6:03	6:48	6:06	6:57	6:09	6:38	5:54	5:42	5:16
가사노동	0:23	0:22	0:53	0:44	1:35	1:36	1:29	1:29	1:29	1:24	1:44	1:41
학습	1:53	1:45	0:17	0:1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이동	1:56	2:01	1:56	2:02	1:46	1:58	1:43	1:51	1:38	1:47	1:21	1:30
여가생활시간	3:57	4:27	3:55	4:17	3:38	3:49	3:46	4:03	4:07	4:19	4:41	4:42
미디어 이용	1:44	1:39	1:48	1:48	1:51	1:48	1:53	1:59	2:08	2:12	2:25	2:30
교제	0:44	0:56	0:47	0:49	0:42	0:45	0:43	0:45	0:46	0:47	0:52	0:51
취미, 그 외 여가	0:52	1:19	0:42	0:59	0:36	0:44	0:38	0:40	0:39	0:40	0:53	0:46
기타	0:34	0:31	0:37	0:41	0:27	0:33	0:30	0:39	0:32	0:40	0:30	0:36

취업자 연령별 요일평균 생활시간을 보면 10대가 필수생활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데 99년에 비해 21분이 증가한 10시간 37분을 사용하고 있다. 10대는 수면 취하는데 8시간을 사용하며 개인관리 시간이 1시간 14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60대이상에서도 수면시간은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수면시간이 99년에 비해 6분이

줄어들었다. 식사시간은 50대가 1시간 43분을 사용해 가장 긴 식사시간을 나타내었다. 수면과 개인관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던 10대는 식사시간에서 가장 작은 1시간 24분을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의무생활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의무생활시간은 30대가 가장 높는데 99년에 비해 31분이 줄어든 9시간 41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은 40대가 가장 높는데 하루에 6시간 9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30대, 20대, 50대, 60대, 10대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경우 60대가 가장 많은 1시간 41분을 사용했으며, 30대가 1시간 36분으로 긴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의 경우 10대는 하루에 1시간 45분을 20대는 11분을 사용하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거의 학습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은 전 연령대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20대가 2시간 2분을 그리고 10대가 2시간 1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이동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 이후부터는 이동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가생활시간은 60대가 가장 많은 4시간 42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99년보다 1분이 증가하였다. 다음은 10대가 사용한 4시간 27분인데 99년에 비해 30분이 늘어났다. 여가생활시간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연령은 30대인데 3시간 49분을 사용해 60대와는 약 1시간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30대 이하의 사람들은 미디어 이용시간이 줄거나 그대로인데 40대 이상이 되면 미디어 이용시간이 늘어나 60대이상의 연령대에서는 2시간 30분을 미디어 이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시간은 10대가 56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60대이상도 51분을 교제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 및 그 외 여가도 10대가 가장 많은 1시간 19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40대와 50대의 취업자가 가장 적은 40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연령별 요일별 생활시간의 변화

1) 연령별 평일 취업자의 생활시간

<표 3-11> 평일의 연령별 생활시간 변화

(단위=시간:분)

평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필수생활시간	10:04	10:21	9:59	10:16	9:51	10:02	9:47	10:00	9:53	10:15	10:17	10:29
수면	7:35	7:45	7:28	7:31	7:25	7:21	7:19	7:16	7:27	7:26	7:55	7:45
식사	1:26	1:22	1:30	1:33	1:34	1:39	1:35	1:41	1:34	1:42	1:32	1:37
개인관리	1:03	1:14	1:01	1:12	0:52	1:02	0:53	1:04	0:52	1:08	0:50	1:06
의무생활시간	10:27	9:27	10:34	9:57	10:48	10:30	10:40	10:12	10:09	9:39	9:00	8:47
일	5:56	4:42	7:30	7:04	7:32	7:07	7:32	6:58	7:06	6:34	5:56	5:35
가사노동	0:22	0:19	0:48	0:36	1:29	1:23	1:25	1:23	1:26	1:20	1:43	1:40
학습	2:07	2:16	0:20	0:14	0:02	0:01	0:01	0:00	0:00	0:00	0:00	0:00
이동	2:02	2:10	1:56	2:03	1:45	1:59	1:42	1:51	1:37	1:45	1:21	1:32
여가생활시간	3:23	4:04	3:22	3:37	3:15	3:19	3:25	3:36	3:50	3:54	4:32	4:28
교제활동	0:42	0:55	0:41	0:44	0:38	0:40	0:39	0:41	0:42	0:41	0:49	0:47
미디어 이용	1:27	1:27	1:32	1:31	1:39	1:31	1:45	1:45	1:60	2:01	2:22	2:22
취미 및 그 외 여가	0:46	1:15	0:39	0:51	0:36	0:42	0:37	0:38	0:38	0:37	0:53	0:46
기타	0:28	0:27	0:30	0:31	0:22	0:26	0:24	0:32	0:30	0:35	0:28	0:33

평일의 연령별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필수생활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60대이상의 연령층이었다. 60대이상의 연령층은 99년보다 12분이 증가한 10시간 29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40대는 99년에 비해 13분이 증가하였지만 10시간을 필수생활에 사용해 가장 적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수면시간은 10대와 60대이상이 7시간 45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99년보다 10분이 증가한 결과이며, 60대이상은 99년보다 10분이 줄어든 결과이다. 식사시간은 50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시간 42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99년과는 조금 다른 결과이다. 개인관리시간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0대가 가장 많은 1시간 14분의 시간을 개인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다른 연령대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개인관리에 사용한다.

의무생활시간은 30대가 10시간 30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이 10시간 12분을 사용하는 40대로 나타났다. 증감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10대였는데 의무생활시간이 1시간 줄어들었다. 그러나 10대보다 60대이상이 의무생활시간이 작았으며 이는 학습시간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보인다. 평일 10대 취업자는 99년보다 9분이 증가된 2시

간 16분을 학습에 사용하지만 60대이상의 연령대에서는 학습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은 60대가 1시간 40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10대는 19분 만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동시간은 전 연령대에 걸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20대가 2시간 3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이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동시간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가생활시간은 60대가 4시간 28분으로 가장 길며 10대가 4시간 4분으로 그 다음을 이어갔다. 여가생활시간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폭은 10대가 가장 컸다. 교제활동은 10대가 99년에 비해 13분 증가한 가장 긴 55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50대는 오히려 1분이 줄어든 41분을 교제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에서 60대는 99년과 같은 2시간 22분을 사용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 있으며, 하루에 1시간 27분만을 미디어에 이용하는 10대도 있어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연령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99년에 비교해 증감의 폭을 아주 미세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29분이 증가한 1시간 15분을 기록한 1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38분을 사용하는 4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연령별 토요일 취업자의 생활시간

토요일의 연령별 생활시간을 보면 필수생활시간은 1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이 20대로 주로 젊은 층의 취업자들은 토요일에 많은 필수생활시간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수면시간은 10대가 가장 길었으며 40대가 가장 짧았다. 식사시간은 50대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 10대는 식사에 1시간 29분만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관리 시간은 전반적으로 증가해 1시간 이상을 개인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의 의무생활시간을 살펴보면 40대가 99년에 비해 1시간 8분이 줄어든 8시간 58분을 사용하고 있어 가장 많은 의무생활시간을 사용하는 연령층이었다.

<표 3-12> 토요일의 연령별 생활시간 변화

(단위=시간:분)

토요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필수생활시간	10:12	11:03	10:16	10:52	9:56	10:31	9:53	10:24	9:55	10:31	10:16	10:35
수면	7:54	8:21	7:41	8:04	7:30	7:49	7:22	7:33	7:26	7:36	7:54	7:49
식사 및 간식	1:18	1:29	1:33	1:35	1:36	1:41	1:36	1:44	1:35	1:45	1:30	1:37
개인관리	1:00	1:13	1:02	1:13	0:50	1:02	0:54	1:07	0:53	1:11	0:52	1:09
의무생활시간	9:09	8:20	9:16	7:39	10:03	8:49	10:06	8:58	9:52	8:39	8:55	8:13
일	4:49	5:06	6:04	4:33	6:28	4:52	6:48	5:26	6:38	5:17	5:53	5:03
가사노동	0:23	0:34	0:55	0:54	1:37	1:55	1:30	1:36	1:32	1:32	1:43	1:45
학습	2:00	0:43	0:10	0:04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이동	1:57	1:57	2:07	2:08	1:57	2:01	1:48	1:56	1:42	1:50	1:19	1:25
여가생활시간	4:31	4:30	4:23	5:20	3:52	4:30	3:54	4:25	4:05	4:41	4:34	4:56
교제활동	0:48	0:55	0:56	0:59	0:47	0:54	0:48	0:52	0:48	0:58	0:51	0:54
미디어 이용	2:03	1:47	1:58	2:06	1:57	2:13	1:58	2:11	2:09	2:24	2:22	2:41
취미, 그 외 여가	1:03	1:15	0:46	1:17	0:39	0:47	0:38	0:44	0:41	0:44	0:52	0:50
기타	0:37	0:33	0:43	0:58	0:29	0:36	0:30	0:38	0:27	0:35	0:29	0:31

토요일의 노동시간은 99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가장 일을 많이 하는 50대가 5시간 17분으로 1시간 21분이나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노동시간의 변화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점은 10대의 노동시간에 있다. 다른 연령대가 모두 감소할 때 10대의 토요일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가사노동에서 평일과 마찬가지로 40대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으며 10대가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학습시간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10대의 경우 평일과 거의 비슷한 학습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동시간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20대의 이동시간이 2시간 8분으로 가장 길었다. 여가생활시간은 20대에서 가장 많은 5시간 20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40대가 가장 적은 4시간 25분을 사용하고 있어 그 차이가 약 1시간가량이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활동은 50분에서~1시간 사이로 전 연령층이 비슷했다. 미디어 이용은 연령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60대이상은 2시간 41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10대가 사용하는 1시간 47분과는 54분가량 차이가 났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10대와 20대가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데 40대와 50대의 44분보다 30분정도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별 일요일 취업자의 생활시간

<표 3-13> 일요일의 연령별 생활시간 변화

(단위=시간:분)

일요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필수생활시간	11:21	11:35	11:15	11:51	11:07	11:38	10:39	11:25	10:21	11:00	10:30	10:57
수면	8:57	8:55	8:41	8:60	8:34	8:53	8:05	8:32	7:49	8:03	8:07	8:12
식사 및 간식	1:25	1:27	1:33	1:35	1:40	1:43	1:39	1:45	1:39	1:48	1:33	1:41
개인관리	0:59	1:13	1:01	1:17	0:53	1:03	0:54	1:08	0:53	1:09	0:50	1:05
의무생활시간	6:26	6:06	6:25	5:30	7:23	6:25	7:50	6:32	7:51	6:46	7:41	7:12
일	3:45	4:04	3:03	2:26	3:33	2:14	4:14	2:51	4:24	3:15	4:26	3:57
가사노동	0:33	0:29	1:22	1:12	2:04	2:20	1:48	1:55	1:44	1:40	1:50	1:48
학습	0:37	0:12	0:09	0:0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이동	1:31	1:21	1:51	1:49	1:46	1:51	1:48	1:46	1:43	1:51	1:25	1:27
여가생활시간	6:08	6:11	6:14	6:30	5:24	5:46	5:21	5:51	5:38	6:03	5:37	5:36
교제활동	0:55	1:01	1:11	1:02	1:03	1:01	1:03	1:00	1:09	1:07	1:11	1:05
미디어 이용	2:54	2:33	2:59	2:57	2:50	2:50	2:34	2:54	2:53	2:55	2:46	2:60
취미, 그 외 여가	1:13	1:40	0:54	1:21	0:38	0:52	0:43	0:46	0:45	0:48	0:58	0:44
기타	1:06	0:57	1:10	1:10	0:53	1:03	1:01	1:11	0:51	1:13	0:42	0:47

일요일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필수생활시간에 11시간 내외를 배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11시간 51분, 11시간 3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요일의 절반 정도를 필수생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9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20대의 경우 36분, 30대의 경우 31분이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40대로 46분이 증가하였으며 50대도 39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99년에도 필수생활시간을 많이 가졌던 10대는 14분 증가에 그쳤으며 60대이상은 27분이 증가하였지만 10시간 57분만을 필수생활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필수생활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수면과 개인관리시간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20대의 수면시간은 99년에 비해 19분이 증가한 9시간으로 나타났다. 30대 역시 일요일의 수면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99년에 비해 19분이 늘어난 8시간 5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생활시간의 증가이유 중 하나인 개인관리시간에서 10대는 14분이

늘어난 1시간 13분을 20대는 16분이 늘어난 1시간 17분을 사용해 가장 많은 개인관리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10분이 늘어난 1시간 3분을 사용하지만 가장 적은 개인관리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의무생활시간은 평일과는 달리 10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10대의 일요일 노동시간은 4시간 4분으로 99년에 비해 오히려 19분이 늘어났다. 또 일요일 노동시간이 많은 연령대는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인데 60대 이상의 일요일 노동시간은 99년에 비해 29분이 줄어든 3시간 57분으로 나타났으며, 50대의 일요일 노동시간은 99년에 비해 1시간 9분이 줄어든 3시간 15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요일 가사노동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이는 99년과 비슷한 현상이다. 30대는 99년에 비해 16분이 늘어난 2시간 20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40대 역시 7분이 늘어난 1시간 55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 에서는 일요일에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었으며, 20대에서 가장 높은 감소폭인 10분을 나타냈다. 이동시간에서도 10대와 20대는 99년에 비해 2~10분정도가 줄어들었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여가생활시간을 가장 많이 가지는 연령층은 20대 99년에 비해 16분이 증가한 6시간 30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은 40대로 99년에 5시간 21분을 사용했는데 2004년에는 5시간 51분을 사용해 30분의 증가를 보였다. 50대 역시 여가생활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99년에 비해 25분이 증가한 6시간 3분을 여가생활에 사용하고 있었다. 교제활동은 99년과 비교하여 10분 내외의 변화를 보였으며 미디어이용 역시 99년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은 시간을 가졌던 40대와 50에서만 조금 증가하였다. 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는 거의 대부분이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으로 분배되었는데 6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 고루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0대는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이 99년에 비해 14분이나 줄어들고 미디어 이용시간이 14분 증가한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이다.

다. 연령별 성별 생활시간의 변화

연령별 성별 생활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10대로 99년에 비해 32분이 늘어난 10시간 36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50대도 26분이 늘어난 10시간 31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 가장 많은 필수생활시간을 나타냈는데 10시간 3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연령별 성별 생활시간의 변화

(단위=시간: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필수생활시간	남	10:04	10:36	10:03	10:24	10:06	10:21	10:05	10:24	10:05	10:31	10:23	10:38
	여	10:26	10:39	10:21	10:44	9:54	10:17	9:41	10:04	9:45	10:13	10:13	10:29
수면	남	7:49	8:08	7:41	7:49	7:41	7:41	7:36	7:37	7:34	7:36	7:55	7:49
	여	7:49	7:56	7:38	7:49	7:26	7:34	7:11	7:18	7:23	7:27	7:57	7:50
식사 및 간식	남	1:23	1:24	1:31	1:35	1:37	1:41	1:38	1:46	1:39	1:48	1:35	1:43
	여	1:26	1:23	1:30	1:32	1:32	1:36	1:31	1:36	1:29	1:35	1:27	1:32
개인관리	남	0:52	1:05	0:50	1:01	0:49	0:59	0:49	1:00	0:51	1:06	0:52	1:06
	여	1:11	1:21	1:12	1:23	0:56	1:08	0:58	1:10	0:53	1:12	0:47	1:07
의무생활시간	남	9:37	8:10	9:46	9:02	9:49	9:24	9:35	9:02	9:09	8:33	8:05	7:54
	여	9:45	9:17	9:45	8:56	10:54	10:13	11:04	10:10	10:46	9:54	9:36	9:08
일	남	5:43	5:08	7:07	6:31	7:18	6:35	7:16	6:31	6:53	6:11	5:51	5:38
	여	5:11	4:18	6:09	5:37	5:53	5:12	6:27	5:37	6:17	5:27	5:32	4:51
가사노동	남	0:10	0:16	0:21	0:20	0:30	0:38	0:22	0:27	0:27	0:27	0:40	0:38
	여	0:37	0:27	1:26	1:05	3:35	3:23	3:10	3:01	3:06	2:53	2:54	2:55
학습	남	1:54	0:55	0:17	0:1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여	1:52	2:23	0:16	0:12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이동	남	1:48	1:51	1:59	2:01	1:59	2:10	1:56	2:04	1:48	1:55	1:32	1:38
	여	2:04	2:09	1:53	2:02	1:23	1:37	1:25	1:32	1:22	1:34	1:08	1:22
여가생활시간	남	4:12	5:08	4:05	4:25	3:56	4:07	4:12	4:23	4:38	4:47	5:21	5:13
	여	3:42	3:55	3:45	4:09	3:02	3:17	3:04	3:31	3:17	3:35	3:57	4:05
미디어 이용	남	1:49	1:58	1:52	1:46	2:00	1:56	2:06	2:11	2:27	2:28	2:49	2:52
	여	1:40	1:25	1:43	1:50	1:34	1:33	1:34	1:41	1:39	1:47	1:59	2:05
교제활동	남	0:42	0:48	0:43	0:46	0:43	0:45	0:44	0:45	0:47	0:47	0:56	0:51
	여	0:47	1:02	0:50	0:52	0:43	0:45	0:42	0:46	0:44	0:47	0:47	0:50
취미 그외 여가	남	1:10	1:49	0:50	1:15	0:44	0:53	0:47	0:48	0:48	0:49	1:01	0:51
	여	0:35	0:55	0:33	0:45	0:22	0:28	0:23	0:27	0:25	0:26	0:43	0:40
기타	남	0:30	0:33	0:38	0:38	0:28	0:33	0:33	0:39	0:33	0:43	0:34	0:39
	여	0:39	0:33	0:38	0:42	0:22	0:31	0:25	0:37	0:28	0:35	0:26	0:30

수면시간의 증가와 개인관리시간의 증가는 남녀 모두 전연령층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이며 개인관리시간의 증가에 있어서 남정보다는 여성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의무생활시간은 각 연령대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10대 남성의 의무생활시간 감소폭이 가장 커 1시간 27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대에서도 보이는데 남성은 주로 어린 연령층에서 감소가 많았으며 여성은 40대와 50대에서 이러한 의무생활시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동자 중에서 40대와 50대 노동자가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든 결과인데 40대와 50대 여성은 99년에 비해 노동시간이 50분이 줄어들었다. 또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도 영향을 끼쳤다. 여성의 경우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으며 20대 여성의 경우 21분이 줄어들었으며 30대의 경우 12분이 그리고 50대의 경우 13분이 줄어들었다.

여가생활시간은 10대 남성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이는 의무생활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경우이다. 10대 남성은 99년에 비해 56분의 여가생활시간을 더 누리게 되었는데 이는 다른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10~20분대의 증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여성의 경우는 40대가 가장 많이 늘어나 99년에 비해 27분이 늘어난 3시간 31분을 사용하고 있으나 24분이 증가한 20대 여성보다 38분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며, 낮은 연령층에서 절대적인 시간이 많으나 99년대비 증가폭은 남성은 낮은 연령층에서 여성은 높은 연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 연령별 주요행동별 생활시간 변화

<표 3-15>필수생활관련 주요행동별 생활시간

(단위=시간: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필수생활시간	10:16	10:37	10:12	10:35	10:02	10:20	9:55	10:16	9:57	10:24	10:18	10:34
수면	7:49	8:00	7:40	7:49	7:35	7:38	7:26	7:30	7:30	7:32	7:56	7:50
식사 및 간식	1:24	1:24	1:30	1:33	1:35	1:40	1:35	1:42	1:34	1:43	1:31	1:38
개인관리	1:01	1:14	1:00	1:12	0:51	1:02	0:52	1:05	0:51	1:09	0:50	1:07
개인관리	1:01	1:13	0:59	1:11	0:50	1:00	0:50	1:02	0:48	1:02	0:41	0:56
건강관리	0:00	0:01	0:01	0:01	0:01	0:02	0:02	0:03	0:03	0:07	0:09	0:11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수면시간은 늘어났다. 특히 10대, 20대의 수면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학습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0대~50대의 수면시간은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전반적인 노동시간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식사 및 간식 시간이 30대~60대에 걸쳐 크게 늘어난 것 역시 흥미로운 현상으로 식사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개인관리 시간이 늘어났으며 개인관리가 전 연령대에서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점차 생활의 관심이 개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관리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50대의 증가폭이 큰 것을 통해 중장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6>노동관련 주요행동별 생활시간

(단위=시간: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일	5:27	4:40	6:39	6:03	6:48	6:06	6:57	6:09	6:38	5:54	5:42	5:16
고용된 일 및 자영업	5:02	4:30	6:22	5:53	6:17	5:49	6:14	5:40	5:48	5:21	4:23	4:21
무급 가족종사 일	0:16	0:09	0:10	0:07	0:21	0:12	0:26	0:19	0:17	0:13	0:11	0:06
농림어업 무급가족종사일	0:07	0:01	0:05	0:02	0:06	0:02	0:12	0:06	0:26	0:14	0:58	0:40

전 연령대에서 노동시간이 줄었으며, 노동 적정기를 지난 60대 이외에는 그 감소 폭도 매우 컸다. 이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사회 추세와 맞물린 것이며, 무급 가족종사일의 큰 감소를 통해 비임금 노동이 줄었음 또한 알 수 있다. 특히 농림어업 무급가족종사일의 감소가 매우 컸는데 이는 단순한 비임금 노동 감소만이 아닌 순수 농림어업 취업자의 수 자체가 급감한 것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노동의 시간은 20대에서 크게 감소했다. 음식준비와 가족보살피기가 그 주요원인인데 이를 통해 20대의 가정에 대한 관심이 이전 세대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7>가사노동관련 주요행동별 생활시간

(단위=시간: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가사노동	0:23	0:22	0:53	0:44	1:35	1:36	1:29	1:29	1:29	1:24	1:44	1:41
음식준비	0:07	0:05	0:16	0:12	0:33	0:30	0:42	0:39	0:43	0:40	0:48	0:52
의류관리	0:03	0:01	0:05	0:04	0:08	0:07	0:10	0:10	0:10	0:10	0:11	0:11
청소 및 정리	0:06	0:05	0:09	0:09	0:14	0:13	0:15	0:16	0:16	0:15	0:20	0:20
집관리	0:00	0:01	0:01	0:02	0:02	0:02	0:03	0:04	0:05	0:05	0:08	0:06
장보기	0:03	0:07	0:05	0:06	0:06	0:08	0:06	0:08	0:05	0:06	0:04	0:05
가족보살피기	0:02	0:03	0:14	0:10	0:28	0:34	0:09	0:12	0:07	0:07	0:09	0:07

그러나, 30대~50대까지는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통해 현재의 부모세대에서는 가족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전 영역에서 장보기 시간이 증가한 것은 소비의 전반적인 증가와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0대의 장보기 시간이 늘었으며 이는 10대의 소비가 매우 크게 늘었음을 짐작케 한다.

<표 3-18>이동관련 주요행동별 생활시간

(단위=시간: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이동	1:56	2:01	1:56	2:02	1:46	1:58	1:43	1:51	1:38	1:47	1:21	1:30
출퇴근 및 그 외 일관련 이동	0:55	0:55	1:12	1:16	1:09	1:16	1:06	1:10	1:01	1:05	0:47	0:50
출퇴근	0:50	0:50	0:59	1:01	0:51	0:54	0:51	0:50	0:47	0:49	0:30	0:34
그 외 일관련 이동	0:05	0:05	0:13	0:15	0:17	0:22	0:15	0:20	0:14	0:16	0:16	0:16

전 연령대에 걸쳐 이동이 늘었으며 그 대부분이 출·퇴근 관련 이동이다. 이는 특히 한참 일할 나이인 20~40대에서 크게 나타나며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로는 그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전반적 취업 증가가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비교

종사상의 지위는 계급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취업자의 취업형태와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전통적인 분류법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독립적인 특정한 사회적 관계, 즉 물질적 생산력의 특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사회의 생산관계에서 나타난 소유와 통제에 관계에 따라서 “계급”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의 전통적인 계급 분류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가진 부르주아지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가는 프롤레타리아가 있으며 소생산자와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중간계급이 존재한다. 비록 마르크스가 예측한대로 이 중간계급의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러한 종사상 지위라는 범주로 묶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분석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종사상의 지위는 한 사람의 노동의 패턴을 규정하는 것이며 그에 따르는 여가생활의 차이 그리고 심지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수면, 식사, 개인관리의 형태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사상의 지위를 가지고 취업자의 생활시간을 비교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나누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잣대가 된다.

가. 종사상 지위별 요일평균생활시간의 변화

필수생활시간을 살펴보면 자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자영자는 필수생활시간에 10시간 28분을 배분하고 있으며 무급가족 종사자는 10시간 18분만을 배분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와 고용주는 각 10시간 23분씩을 사용하고 있다. 식사시간은 고용주가 가장 많은 1시간 44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는 1시간 39분을 사용하고 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1시간 36분만을 식사에 사용하고 있어서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관리시간은 임금근로자에서 가장 많은데 이는 1시간 8분을 개인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자영자는 1시

간 4분을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시간 3분을 개인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의무생활시간은 임금근로자가 가장 긴 9시간 25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용주는 9시간 21분을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9시간 19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영자는 단지 8시간 42분만을 의무생활에 사용하고 있었다. 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6시간 10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용주는 6시간 25분을 그리고 자영자는 5시간 39분을, 무급가족종사자는 4시간 41분으로 고용주가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가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3-19>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요일평균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필수생활시간	10:23	10:23	10:28	10:18
수면	7:37	7:34	7:45	7:39
식사	1:39	1:44	1:39	1:36
개인관리	1:08	1:04	1:04	1:03
의무생활시간	9:25	9:21	8:42	9:19
일	6:10	6:25	5:39	4:41
가사노동	1:13	0:43	1:20	3:14
학습	0:04	0:00	0:03	0:04
이동	1:58	2:13	1:40	1:20
여가생활시간	4:01	4:07	4:36	4:07
미디어 이용	1:53	2:01	2:16	2:06
교제활동	0:45	0:47	0:53	0:45
취미 및 그 외 여가	0:46	0:46	0:47	0:40
기타	0:37	0:33	0:40	0:36

하지만 가사노동의 경우 고용자집단은 43분만을 사용해 다른 지위집단에 비해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반대로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3시간 14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는 비슷한 수준에서 시간을 가사노동에 분배하고 있었는데 각각 1시간 13분과 1시간 20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학습시간은 취업자의 24시간 구성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10분대 미만이지만 특히 고용주의 경우 학습시간이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은 임금근로자가 1시간 58분을 고용주가 2시간 13분을, 또 자영자는 1시간 40분, 무급가족종사자는 1시간 20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에는 자영자가 가장 많은 4시간 36분을 배분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가 가장 적은 4시간 1분을 배분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4시간 7분씩을 여가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에서 임금근로자는 1시간 53분을 고용주는 2시간 1분, 자영자는 2시간 16분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시간 6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활동에 자영자가 53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용주는 47분으로 그 다음을, 그리고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45분씩을 사용하고 있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의 부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세 집단은 46~7분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슷했지만 무급가족종사자는 40분만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1999, 2004년)

필수생활시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지위집단은 자영자이다. 99년 고용주가 10시간 11분을 필수생활에 사용해 가장 높았지만 2004년에는 자영자가 10시간 28분을 사용해 가장 많은 필수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고용주는 3분이 줄어든 7시간 34분을 사용하여 가장 적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사시간은 1시간 44분을 사용하여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8분정도 오래 식사시간을 갖고 있다. 개인관리시간은 전 지위집단에서 골고루 증가하였는데 모두 10분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의무생활시간은 전 지위집단에서 다 줄어들었다. 특히 자영자의 경우는 거의 1시간 가량이 줄어들었으며 가장 적게 줄어든 무급가족종사자도 30분이나 줄어들었다. 노동시간이 가장 길던 고용주의 우위는 바뀌지 않았다. 가사노동에서 임금근로자가 2분, 자영자가 6분, 무급가족종사자가 5분 증가한 반면 고용주는 오히려 1분이 줄어들었다. 학습시간을 보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는 9분이나 줄어들어 다른 지위집단과 비슷한 4분을 학습에 투여하고 있다. 이동시간은 전반적으로 늘어났으며 고용주의 이동시간이 11분 증가한 것은 다른 집단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여가생활시간에서 자영자가 22분으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가 7분을 가장 적은 증가를 보였다. 미디어 이용에서 자영자는 99년보다 9분을 더 사용한 2시간 16분을 사용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7분을 더 사용한 2시간 6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활동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45분이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특이하게 1분이 줄어들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도 교제와 비슷하게 무급가족종사자만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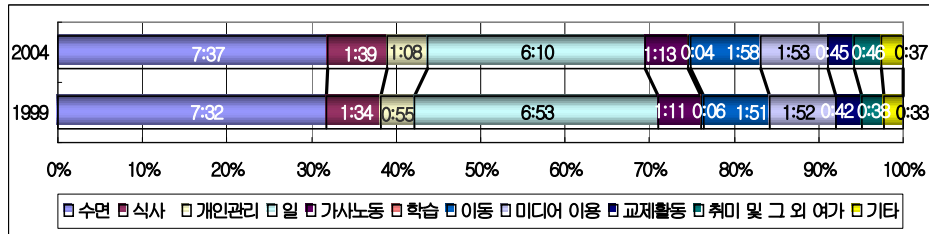
<표 3-20>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단위=시간 : 분)

요일평균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10:03	10:23	0:20	10:11	10:23	0:11	10:05	10:28	0:23	10:00	10:18	0:18
수면	7:33	7:37	0:04	7:37	7:34	-0:03	7:41	7:45	0:04	7:39	7:39	0:00
식사	1:35	1:39	0:04	1:40	1:44	0:04	1:32	1:39	0:07	1:31	1:36	0:05
개인관리	0:56	1:08	0:12	0:53	1:04	0:10	0:50	1:04	0:14	0:50	1:03	0:13
의무생활시간	10:02	9:25	-0:37	9:46	9:21	-0:25	9:30	8:42	-0:46	9:46	9:19	-0:27
일	6:53	6:10	-0:43	6:58	6:25	-0:33	6:36	5:39	-0:57	5:11	4:41	-0:30
가사노동	1:11	1:13	0:02	0:44	0:43	-0:01	1:14	1:20	0:06	3:09	3:14	0:05
학습	0:06	0:04	-0:02	0:01	0:00	-0:01	0:03	0:03	0:00	0:13	0:04	-0:09
이동	1:51	1:58	0:07	2:02	2:13	0:11	1:35	1:40	0:05	1:13	1:20	0:07
여가생활시간	3:47	4:01	0:14	3:56	4:07	0:11	4:14	4:36	0:22	4:00	4:07	0:07
미디어 이용	1:52	1:53	0:01	2:00	2:01	0:01	2:07	2:16	0:09	2:03	2:06	0:03
교제활동	0:42	0:45	0:03	0:44	0:47	0:03	0:52	0:53	0:01	0:46	0:45	-0:01
취미 및 그 외 여가	0:38	0:46	0:08	0:40	0:46	0:06	0:45	0:47	0:02	0:41	0:40	-0:01
기타	0:33	0:37	0:04	0:31	0:33	0:02	0:29	0:40	0:11	0:30	0:36	0:06

임금 근로자의 생활시간에서 99년과 비교하였을 때 필수생활시간의 소비가 20분 증가하였으며, 의무생활시간은 37분이 감소하였고, 여가활동시간은 14분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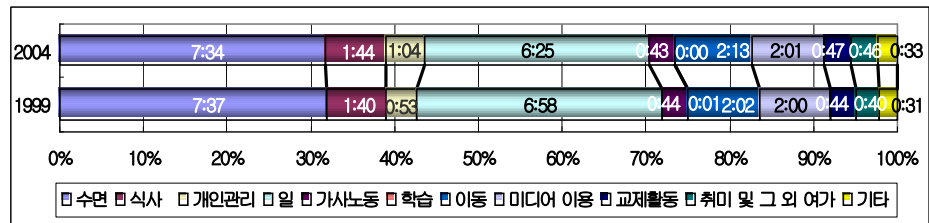
<그림 3-3> 임금근로자의 생활시간 변화



이중 필수생활시간의 영역에서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은 각각 4분씩 증가한 반면, 개인관리시간은 12분이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이 43분이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이 학습시간도 2분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의무생활시간 중에 가사노동(2분)과 이동(7분)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무생활시간의 감소로 여가생활시간이 늘어났다. 취미 및 그 외 여가가 8분, 교제가 3분 그리고 기타가 4분 증가한 반면 미디어 이용은 단지 1분의 증가만을 보였다.

<그림 3-4> 고용주의 생활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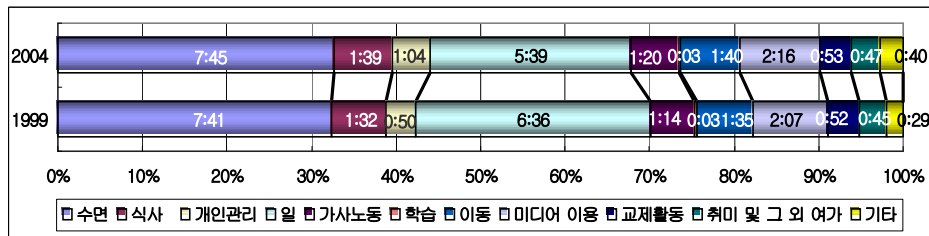


고용주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필수생활시간이 늘어나고 의무생활시간이 줄어들며 여가생활시간이 늘어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필수생활시간의 영역에서 수면시간은 99년에 비해 3분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사는 4분이 증가했지만 개인관리는 9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무생활시간에서 전체 직위별 구분 중에 의무생활시간이 단지 25분

만 줄어들어 가장 작은 시간 단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노동시간이 다른 구분들보다 적게 줄어들었으며 이동시간이 11분이나 증가한데 있다. 그리고 비록 1분이지만 다른 직위구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사노동의 감소를 발견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다른 지위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의 시간이 현저히 작는데 무급가족종사자의 1/4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가생활시간에서 미디어이용이 1분 증가, 교제활동이 3분 증가한데 비해 취미 및 그 외 여가에서 6분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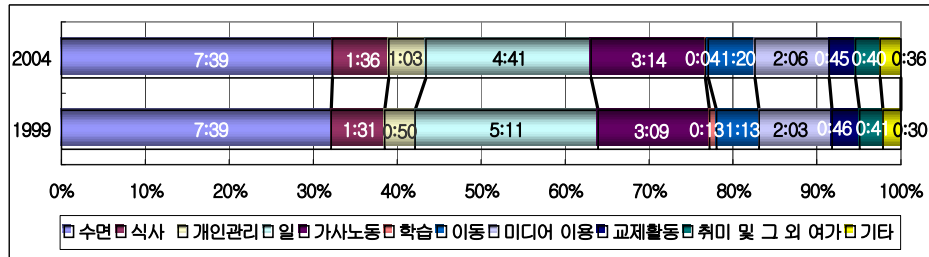
<그림 3-5> 자영자의 생활시간 변화



자영자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다른 지위집단과 같은 추세를 보이지만 그 강도는 아주 높게 나타났다.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이 각각 22분씩 늘어났으며 의무생활시간은 48분이나 줄었다. 필수 생활시간에서 수면4분, 식사 7분, 개인관리는 14분이 증가하였다. 또 의무생활시간의 세부항목을 보면 노동시간(-57분)이 다른 지위집단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며 가사노동은 6분 증가, 이동은 5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생활시간 세부항목에서 교제가 1분, 취미 및 그 외 여가가 2분 증가한데 반해 미디어 이용이 9분 증가, 기타항목이 11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무급가족 종사자의 생활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은 18분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수면시간은 변화가 없었다. 단지 식사시간이 5분, 개인관리 시간이 13분 증가하였다. 그리고 의무생활시간을 보면 27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위집단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노동시간의 경우 가장 적은 감소 폭을 나타내었는데 단지 30분의 감소만을 보여주었다.

<그림 3-6> 무급가족종사자의 생활시간 변화



가사노동의 경우 5분이 증가하였으며 이동은 7분이 증가하였지만 학습의 경우 99년에 다른 지위집단보다 많이 시간인 13분을 사용하는데 비해 04년도에는 다른 지위집단과 비슷한 4분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7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상승이 있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미디어 이용이 3분 증가 기타 항목이 6분 증가하였지만 교제활동과 취미 및 그 외 여가의 부분에서 1분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위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 종사상 지위별 요일별 생활시간의 변화

임금근로자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보면 필수생활시간이 평일에 15분, 토요일에 37분, 일요일에 29분이 증가하였다. 수면, 식사, 개인관리 전반에 걸쳐서 생활시간은 증가하였지만 평일 수면시간은 99년에 비해 1분이 줄어든 7시간 21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은 99년보다 20분이 증가된 7시간 50분을 수면에 할애하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14분 증가한 8시간 44분을 수면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식사시간은 평일 4분, 토요일 5분, 일요일 4분이 증가하였으며 식사시간에 비해 개인관리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개인관리시간은 평일 11분, 토요일 13분, 일요일 11분으로 나타났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 26분, 토요일 1시간 19분, 일요일 47분이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서 노동시간의 감소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노동시간은 평일 32분, 토요일 1시간 31분, 일요일 53분이 줄어들었으며 가사노동의 경우 평일은 1분이 줄었고 토요일은 13분, 일요일은 12분 늘어났다.

<표 3-21> 임금근로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임금근로자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9:51	10:06	0:15	10:03	10:40	0:37	11:06	11:35	0:29
수면	7:22	7:21	-0:01	7:30	7:50	0:20	8:30	8:44	0:14
식사	1:34	1:38	0:04	1:35	1:40	0:05	1:38	1:42	0:04
개인관리	0:55	1:06	0:11	0:57	1:10	0:13	0:58	1:09	0:11
의무생활시간	10:44	10:18	-0:26	9:45	8:26	-1:19	6:52	6:05	-0:47
일	7:42	7:10	-0:32	6:26	4:55	-1:31	3:17	2:24	-0:53
가사노동	1:04	1:03	-0:01	1:14	1:27	0:13	1:43	1:51	0:08
학습	0:08	0:06	-0:02	0:03	0:02	-0:01	0:02	0:01	-0:01
이동	1:50	1:59	0:09	2:02	2:02	0:00	1:50	1:49	-0:01
여가생활시간	3:18	3:26	0:08	4:05	4:45	0:40	5:55	6:09	0:14
미디어 이용	1:38	1:35	-0:03	2:00	2:15	0:15	2:59	2:59	0:00
교제활동	0:37	0:41	0:04	0:48	0:53	0:05	1:07	1:02	-0:05
취미 및 그 외 여가	0:36	0:42	0:06	0:42	0:54	0:12	0:45	0:59	0:14
기타	0:27	0:28	0:01	0:35	0:43	0:08	1:04	1:09	0:05

또 학습시간은 평일 2분,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1분씩 줄어 거의 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동시간은 평일(+9분)에는 늘어나지만 토요일은 변함이 없고 일요일(-1분)은 오히려 줄어든 형태를 나타내었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 8분, 토요일 40분, 일요일 14분이 늘어났다. 이중 미디어 이용 시간을 보면 평일에는 3분이 줄어들었지만 토요일에는 15분이 늘어났으며, 일요일은 변함이 없었다. 교제활동은 평일에 4분, 토요일에 5분이 증가하였지만 일요일에는 5분이 감소하였다. 취미 및 그 외 여가 시간은 평일 6분, 토요일 12분, 일요일 14분이 늘어났다.

고용주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이 평일에 4분, 토요일은 23분, 일요일은 37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평일 수면시간(-10분)은 줄었으며, 토요일은 5분, 일요일은 21분이 늘어났다. 식사시간은 평일에는 2분 증가로 99년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토요일은 12분 증가 일요일은 6분 증가하였다. 또 개인관리시간은 평일 11분, 토요일 7분, 일요일 10분이 늘어났다.

<표 3-22> 고용주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고용주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10:05	10:09	0:04	10:01	10:24	0:23	10:54	11:31	0:37
수면	7:33	7:23	-0:10	7:26	7:31	0:05	8:13	8:34	0:21
식사	1:40	1:42	0:02	1:37	1:49	0:12	1:43	1:49	0:06
개인관리	0:52	1:03	0:11	0:57	1:04	0:07	0:57	1:07	0:10
의무생활시간	10:18	10:00	-0:18	9:45	9:00	-0:45	7:12	6:20	-0:52
일	7:33	7:09	-0:24	6:57	5:51	-1:06	4:07	3:15	-0:52
가사노동	0:41	0:38	-0:03	0:45	0:47	0:02	1:03	1:03	0:00
학습	0:02	0:00	-0:02	0:01	0:00	-0:01	0:00	0:00	0:00
이동	2:02	2:13	0:11	2:02	2:22	0:20	2:02	2:02	0:00
여가생활시간	3:32	3:41	0:09	4:08	4:27	0:19	5:49	6:01	0:12
미디어 이용	1:52	1:50	-0:02	1:59	2:03	0:04	2:46	2:57	0:11
교제활동	0:38	0:41	0:03	0:54	0:59	0:05	1:08	1:02	-0:06
취미 및 그 외 여가	0:38	0:42	0:04	0:42	0:52	0:10	0:49	0:57	0:08
기타	0:24	0:28	0:04	0:33	0:33	0:00	1:06	1:05	-0:01

의무생활시간은 평일 18분이 줄었으며 토요일 45분, 일요일 52분이 줄어들었다.

이 중 노동시간이 의무생활시간 감소에 기여했으며, 평일은 24분, 토요일은 1시간 6분, 일요일은 52분이 줄어들었다. 평일 가사노동(-3분)은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줄어들었으며 토요일 2분 증가, 일요일은 1시간 3분으로 변함이 없었다. 또 학습의 경우도 평일 2분, 토요일 1분이 감소하였으며 일요일은 학습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다르게 이동시간은 평일 11분, 토요일은 20분이 늘어났으며 일요일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 9분, 토요일 19분, 일요일 12분이 늘어났다. 평일 미디어 이용시간이 2분 줄어든 것과 일요일 교제활동 제외하면 거의 99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미디어 이용에서 토요일은 4분, 일요일은 11분이 증가하였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평일 4분, 토요일 10분, 일요일 8분이 증가하였다.

<표 3-23> 자영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자영자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10:02	10:20	0:18	9:58	10:25	0:27	10:30	11:11	0:41
수면	7:38	7:38	0:00	7:37	7:41	0:04	8:05	8:23	0:18
식사	1:32	1:38	0:06	1:32	1:40	0:08	1:34	1:43	0:09
개인관리	0:51	1:03	0:12	0:50	1:04	0:14	0:50	1:05	0:15
업무생활시간	9:44	9:07	-0:37	9:44	8:31	-1:13	8:06	6:52	-1:14
일	6:53	6:05	-0:48	6:50	5:27	-1:23	5:01	3:42	-1:19
가사노동	1:13	1:18	0:05	1:16	1:23	0:07	1:23	1:29	0:06
학습	0:04	0:04	0:00	0:02	0:00	-0:02	0:03	0:01	0:02
이동	1:34	1:40	0:06	1:36	1:41	0:05	1:39	1:40	0:01
여가생활시간	4:04	4:20	0:16	4:06	4:51	0:45	5:16	5:47	0:31
미디어 이용	2:02	2:08	0:06	2:07	2:24	0:17	2:34	2:48	0:14
교제활동	0:49	0:49	0:00	0:51	0:60	0:09	1:09	1:07	-0:02
취미 및 그 외 여가	0:45	0:46	0:01	0:44	0:52	0:08	0:50	0:48	-0:02
기타	0:28	0:37	0:09	0:24	0:35	0:11	0:43	1:04	0:21

자영자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은 평일 18분, 토요일은 27분, 일요일은 41분이 증가하였다. 이중 평일의 수면의 수면시간은 증감이 없었으며, 토요일은 4분, 일요일은 18분이 증가하였다. 식사시간은 평일 6분, 토요일 8분, 일요일 9분이 증가하였으며 개인관리시간이 각각 12분, 14분, 15분 증가하였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 16분, 토요일 45분, 일요일 31분이 증가하였는데 평일 미디어 이용시간이 6분, 토요일 17분, 일요일에 14분 늘어났다. 교제활동은 평일에 증감이 없었으며, 토요일에는 9분이 늘었지만 일요일에는 2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평일 1분이 증가하였고 토요일에 8분이 증가하였지만 일요일에는 2분이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은 평일에 14분, 토요일에 21분, 일요일에 34분이 증가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면시간은 임금근로자나 고용주와 시간변화가 비슷한데 평일 수면시간이 4분 줄어들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2분, 13분이 증가하였다.

<표 3-24> 무급가족종사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무급가족종사자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9:57	10:11	0:14	10:00	10:21	0:21	10:21	10:55	0:34
수면	7:36	7:32	-0:04	7:39	7:41	0:02	7:60	8:13	0:13
식사	1:31	1:35	0:04	1:31	1:35	0:04	1:33	1:38	0:05
개인관리	0:51	1:04	0:13	0:51	1:04	0:13	0:47	1:03	0:16
의무생활시간	10:03	9:37	-0:26	9:40	9:04	-0:36	8:41	8:06	-0:35
일	5:24	4:57	-0:27	5:05	4:26	-0:39	4:14	3:36	-0:38
가사노동	3:13	3:14	0:01	2:56	3:20	0:24	3:05	3:07	0:02
학습	0:13	0:05	-0:08	0:23	0:01	-0:22	0:07	0:01	-0:06
이동	1:13	1:21	0:08	1:16	1:17	0:01	1:15	1:22	0:07
여가생활시간	3:50	3:57	0:07	4:08	4:21	0:13	4:47	4:43	-0:04
미디어 이용	1:59	2:01	0:02	2:04	2:10	0:06	2:24	2:23	-0:01
교제활동	0:43	0:40	-0:03	0:52	0:57	0:05	0:58	0:56	-0:02
취미 및 그 외 여가	0:40	0:41	0:01	0:44	0:42	-0:02	0:43	0:36	-0:07
기타	0:28	0:35	0:07	0:28	0:32	0:04	0:42	0:48	0:06

식사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이 각 4분씩 일요일은 5분이 증가하였다. 또 무급가족종사자도 필수생활시간에서 개인관리시간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평일과 토요일은 각 13분씩, 일요일은 16분이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 26분, 토요일 36분, 일요일 35분 감소하였는데 노동시간과 학습시간이 줄어들었다. 먼저 노동시간은 평일 27분, 토요일 39분, 일요일 38분이 줄었으며 학습시간은 평일 8분, 토요일 22분, 일요일 6분이 줄어들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1분, 토요일 24분, 일요일 2분이 증가하였다. 다른 지위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긴 무급가족종사자이지만 가사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또 이동시간도 늘어나고 있는데 평일 8분, 토요일 1분, 일요일 7분이 증가했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 7분, 토요일 13분이 증가했지만 일요일은 4분 감소하였다. 평일 미디어이용이 99년에 비해 2분이 늘었으며 토요일은 6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일요일은 1분이 줄었다. 교제활동은 토요일만 5분이 증가했으며 평일과 일요일은 각각 3분과 2분이 줄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평일 1분이 증가했지만 토요일은 2분, 일요일은 7

분이나 줄어들었다.

라. 종사상 지위별 성별 생활시간의 변화

임금근로자의 필수생활시간은 남성이 18분, 여성이 21분 증가하였다. 수면시간은 남성이 3분, 여성이 5분이 늘어났으며, 식사시간은 남성이 5분, 여성이 4분 늘어났다. 개인관리 시간은 남녀가 모두 10분씩 늘어났다. 의무생활시간은 남성이 35분, 여성이 42분이 줄어들었는데 이중 노동시간에서 남성이 43분, 여성이 39분이 줄어들었으며, 학습시간은 남녀가 모두 2분씩 줄어들었다. 이동시간은 남녀가 모두 늘어났다. 하지만 가사노동의 경우는 남성이 5분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9분이 감소하였다. 여가생활시간은 남녀가 14분씩 늘어났다. 미디어 이용은 남성이 1분이 줄었지만 여성은 2분이 늘어났다. 교제활동은 2분씩 늘어났으며,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남성이 9분, 여성이 6분 늘어났다.

고용주의 필수생활시간은 남성이 10분, 여성이 12분이 늘어났다. 하지만 수면시간에서는 남성이 3분이 여성은 2분이 줄어들었다. 식사시간은 남성이 5분 여성이 4분 늘어났으며 개인관리시간은 남녀가 모두 10분씩 늘어났다. 의무생활시간은 남성이 26분 여성이 19분이 줄어들었는데 이중 남성의 노동시간이 35분, 여성이 21분이 감소했으며 학습시간은 남성이 1분, 여성이 2분이 줄어들었다. 이동시간은 남성이 9분, 여성이 13분이 늘어났다. 가사노동은 남성이 1분이 늘어났으며 여성은 9분이 줄어들었다. 여가생활시간은 남성이 10분, 여성이 2분이 늘어났다. 미디어 이용시간은 증감이 없었으며 여성은 1분이 줄어들었다. 교제활동은 남성이 1분, 여성이 4분이 늘어났으며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남성이 6분이 증가했으며 여성은 2분이 줄어들었다. 자영자의 필수생활시간은 남성이 22분, 여성이 25분 증가하였다. 수면시간에서 남성이 2분, 여성이 6분이 늘어났으며, 식사시간에서 남성이 7분, 여성이 6분이 늘어났다. 개인관리시간은 남성이 12분, 여성은 13분이 늘어났다. 의무생활시간은 남성이 41분이 줄어들었으며 여성은 1시간 14분이 줄어 들었다. 이 중 노동시간은 남성이 44분이 줄어들었으며 여성은 1시간 19분이 줄어들었다. 가사노동은 남성이 1분 늘어난 반면 여성은 5분이 줄

어 들었다. 학습시간에서 남성은 2분이 줄어들었지만 여성은 3분이 늘어났다 이동시간은 남녀가 모두 증가하였는데 남성이 3분, 여성이 8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표 3-25> 종사상 지위별 성별 생활시간의 변화

(단위=시간 : 분)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남	10:02	10:21	0:18	10:16	10:26	0:10	10:14	10:37	0:22	10:24	10:42	0:17
	여	10:05	10:27	0:21	9:51	10:04	0:12	9:42	10:08	0:25	9:56	10:15	0:18
수면	남	7:34	7:38	0:03	7:41	7:38	-0:03	7:49	7:52	0:02	8:03	8:07	0:03
	여	7:30	7:36	0:05	7:19	7:17	-0:02	7:23	7:30	0:06	7:35	7:35	0:00
식사	남	1:36	1:42	0:05	1:43	1:46	0:02	1:35	1:43	0:07	1:27	1:33	0:05
	여	1:31	1:35	0:04	1:26	1:34	0:07	1:25	1:31	0:06	1:32	1:36	0:03
개인관리	남	0:50	1:01	0:10	0:51	1:02	0:11	0:49	1:02	0:12	0:53	1:01	0:07
	여	1:05	1:16	0:10	1:05	1:13	0:07	0:53	1:07	0:13	0:49	1:04	0:14
의무생활시간	남	9:47	9:12	-0:35	9:29	9:03	-0:26	9:03	8:22	-0:41	7:07	6:53	-0:14
	여	10:26	9:44	-0:42	11:05	10:46	-0:19	10:39	9:25	-1:14	10:20	9:40	-0:40
일	남	7:17	6:34	-0:43	6:55	6:20	-0:35	6:46	6:02	-0:44	4:18	4:34	0:15
	여	6:16	5:37	-0:39	7:09	6:48	-0:21	6:11	4:52	-1:19	5:21	4:42	-0:39
가사노동	남	0:25	0:31	0:05	0:21	0:23	0:01	0:31	0:33	0:01	0:34	0:36	0:01
	여	2:21	2:12	-0:09	2:31	2:22	-0:09	3:04	2:59	-0:05	3:40	3:36	-0:04
학습	남	0:05	0:03	-0:02	0:01	0:00	-0:01	0:03	0:01	-0:02	0:42	0:18	-0:24
	여	0:08	0:06	-0:02	0:02	0:00	-0:02	0:04	0:08	0:03	0:07	0:02	-0:05
이동	남	1:58	2:04	0:05	2:10	2:20	0:09	1:42	1:46	0:03	1:31	1:25	-0:06
	여	1:40	1:49	0:08	1:22	1:36	0:13	1:18	1:26	0:08	1:10	1:20	0:09
여가생활시간	남	4:03	4:18	0:14	4:11	4:21	0:10	4:33	4:47	0:13	6:20	6:14	-0:06
	여	3:20	3:35	0:14	2:54	2:57	0:02	3:28	4:10	0:42	3:32	3:49	0:17
미디어 이용	남	2:02	2:01	-0:01	2:09	2:10	0:00	2:19	2:27	0:07	3:05	3:17	0:12
	여	1:38	1:41	0:02	1:22	1:21	-0:01	1:36	1:53	0:16	1:50	1:56	0:06
교제활동	남	0:41	0:44	0:02	0:45	0:47	0:01	0:52	0:51	-0:01	1:00	0:48	-0:12
	여	0:44	0:47	0:02	0:40	0:45	0:04	0:53	0:56	0:02	0:43	0:44	0:01
취미, 그 외 여가	남	0:45	0:55	0:09	0:43	0:50	0:06	0:52	0:53	0:01	1:19	1:24	0:05
	여	0:26	0:33	0:06	0:25	0:23	-0:02	0:28	0:36	0:07	0:33	0:34	0:01
기타	남	0:33	0:38	0:04	0:32	0:34	0:01	0:28	0:36	0:07	0:55	0:45	-0:10
	여	0:30	0:34	0:03	0:26	0:28	0:01	0:29	0:45	0:15	0:24	0:35	0:11

여가생활시간은 남성이 13분 여성이 42분이 줄어들었다. 남성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7분 늘어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16분이 늘어났다. 교제활동시간은 남성이 1분이 줄어든 반면 여성은 2분이 늘어났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에서 남성은 1분, 여성은 7분이 늘어났다.

무급가족종사자의 필수생활시간은 남성이 17분, 여성이 18분 증가하였는데 수면시간에서 남성이 3분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변화가 없었다. 식사시간에서 남성은 5분이 여성은 3분이 늘어났으며 개인관리시간은 남성이 7분 여성이 14분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은 남성이 14분, 여성은 40분이 줄어들었다. 남성의 노동시간이 15분이 증가하였는데 다른 지위집단과는 다른 현상을 보였다. 여성은 노동시간에서 39분이 줄어들었다. 가사노동은 남성이 1분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4분이 줄어들었다. 학습시간에서 남성이 다른 집단보다 크게 변했는데 24분이나 줄어들었으며 여성은 5분이 줄어들었다. 이동시간에서도 남성은 6분이 줄어들었으며 여성은 9분이 증가하였다. 여가생활시간에서 남성은 6분이 줄어든 반면 여성은 17분이 늘어났다. 미디어 이용에서 남성은 12분이 늘어났으며 여성은 5분이 늘어났다. 교제활동에서 남성은 12분이 줄어 들었지만 여성은 1분이 늘어났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에서 남성은 5분이 여성은 1분이 증가하였다.

마. 종사상 지위별 주요 행동별 생활시간 변화

<표 3-26> 필수시간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10:03	10:23	0:19	10:11	10:23	0:11	10:05	10:28	0:22	10:00	10:19	0:18
수면	7:32	7:37	0:04	7:37	7:34	0:03	7:41	7:45	0:03	7:39	7:39	0:00
식사	1:34	1:39	0:04	1:40	1:44	0:04	1:32	1:39	0:06	1:31	1:36	0:04
개인관리	0:55	1:08	0:12	0:53	1:04	0:10	0:50	1:04	0:13	0:50	1:03	0:12
개인위생	0:40	0:50	0:09	0:42	0:50	0:08	0:38	0:48	0:09	0:35	0:44	0:09
외모관리	0:12	0:14	0:02	0:09	0:11	0:01	0:07	0:09	0:02	0:08	0:11	0:03
이미용 서비스	0:00	0:01	0:01	0:00	0:01	0:01	0:01	0:01	0:00	0:01	0:01	0:00

필수생활시간관련 하위항목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고용주의 수면시간은 3분이 줄어든 7시간 34분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개인관리시간에서 종사상지위별로 개인위생시간이 8~9분이 증가하였고 외모관리도 2~3분이 늘어났으며 이미용서비스가 1분가량 늘어났다.

<표 3-27> 노동 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일	6:53	6:10	-0:43	6:58	6:25	-0:33	6:36	5:39	-0:57	5:11	4:41	-0:30
고용된 일 및 자영업	6:48	6:07	-0:41	6:51	6:17	-0:34	6:25	5:30	-0:55	0:21	0:20	-0:01
무급가족종사 일	0:01	0:01	-	0:00	0:02	0:02	0:02	0:02	-	2:32	2:29	-0:03
농림어업 무 급가족종사일	0:01	0:01	-	0:00	0:00	-	0:01	0:01	-	2:11	1:44	-0:27

노동 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고용주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6시간 25분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가 6시간 10분으로 다음 순위였다. 하지만 자영자의 노동시간이 99년에 비해 가장 많이 줄어 57분의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무급가족종사자는 30분이 줄어든 4시간 41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된 일에서 41분이 줄어들어 6시간 7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일은 증감 없이 각 1분씩을 사용하고 있다. 고용주는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서 34분이 줄어든 6시간 17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일에서 99년에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2004년에는 2분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영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고용된 일 및 자영업 시간의 감소인데 55분이나 줄어든 5시간 30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용된 일 및 자영업의 시간이 아주 작았으며 99년에 비해 1분이 줄어든 20분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시간은 대부분 무급가족종사일과 농림어업무급가족 종사일 이었으며 여기에서 각각 3분과 27분이 줄어든 2시간 29분과 1시간 44분을 나타냈다.

가사노동의 하위항목을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지위집단은 43분을 사용하는 고용주이며 이에 반해 무급가족종사자는 3시간 14분이나 되었다.

<표 3-28> 가사노동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가사노동	1:11	1:13	0:02	0:44	0:43	0:01	1:14	1:20	0:06	3:09	3:14	0:05
음식준비	0:27	0:26	0:01	0:13	0:12	0:01	0:28	0:32	0:04	1:35	1:40	0:05
의류관리	0:07	0:07	0:00	0:03	0:03	0:00	0:07	0:07	0:00	0:21	0:22	0:01
청소 및 정리	0:12	0:12	0:00	0:07	0:08	0:01	0:14	0:14	0:00	0:31	0:32	0:01
집 관리	0:02	0:03	0:01	0:04	0:03	0:01	0:05	0:05	0:00	0:04	0:04	0:00
장보기	0:06	0:07	0:01	0:04	0:05	0:01	0:04	0:05	0:01	0:08	0:09	0:01
가족보살피기	0:14	0:16	0:02	0:09	0:11	0:02	0:12	0:14	0:02	0:26	0:25	0:01

다른 지위집단은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였지만 고용주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음식준비시간은 1분이 줄어들었으며 집관리, 장보기, 가족보살피기가 조금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자의 경우 음식준비시간이 4분이 증가한 32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족보살피기도 2분이 증가한 14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음식준비시간이 5분 증가한 1시간 40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족보살피기는 다른 지위집단과는 달리 1분의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무급가족종사자는 거의 모든 가사노동항목에서 다른 지위집단보다 시간량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사노동의 하위항목은 99년과 비교하여 증감이 거의 없었다. 이는 생활에 필요한 의무시간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표 3-29> 이동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이동	1:51	1:58	0:07	2:02	2:13	0:11	1:35	1:40	0:05	1:13	1:20	0:07
출 퇴근	1:13	1:15	0:02	1:21	1:32	0:11	0:55	0:56	0:01	0:35	0:37	0:02
그 외 이동	0:38	0:43	0:05	0:40	0:41	0:01	0:39	0:44	0:04	0:38	0:43	0:05

이동시간은 99년에 비해 약 5분에서 10분 정도가 늘어났는데 특히

고용주가 많이 11분이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자영자는 단지 5분만이 증가하였는데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면 가장 작은 이동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영자는 출퇴근 시간만이 임금근로자나 고용주에 비해 작을 뿐 그 외 일 관련 이동에서는 다른 지위집단보다 조금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이동시간에서 역시 고용주의 증가폭이 컸는데, 이는 이동시간의 증가이유가 고용주와 다른 지위집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주는 99년에 비해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 이동시간이 늘어나지만 다른 지위집단은 그 목적이 출퇴근이 아니다.

바. 소결

종사상의 지위에 상관없이 필수생활시간이 늘어나고 의무생활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여가생활시간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고 줄어드는 폭은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수생활시간이 가장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 수면시간이 다른 지위집단보다 길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필수생활시간 전체는 가장 짧으나 수면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는 식사 시간이 다른 지위집단에 비해서 길며 임금근로자는 개인관리시간이 다른 지위집단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무생활시간은 임금근로자가 가장 긴 9시간 25분을 사용하였으며 자영자가 가장 적은 8시간 42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고용주가 가장 길었으며 무급가족종사자가 가장 적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동시간에서도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을 가장 많이 가지는 지위집단은 자영자로 4시간 36분을 사용하고 있다. 자영자가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의 절대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고용주는 식사시간, 노동시간, 이동시간에서 다른 지위집단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임금근로자의 경우 개인관리시간이 많으며 시간상으로 고용주와 자영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의무생활을 많이 하며 여가생활시간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4. 직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비교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다는 말을 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을 잘 버는 직업,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업은 분명 우리사회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들은 주위에서 그 형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린학생들의 장래희망, 결혼정보회사에서 추천인물,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진학 목표학과 등 모두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계산이 포함된 기대들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 우리사회에서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부족한가라는 물음의 답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인 시간과 돈 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너도나도 시간에 쫓기고 있으며 돈만 있으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받는 임금으로 사는 취업자들은 시간은 곧 돈이요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곧 돈을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시간을 버리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이고 돈을 버리면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음에도 현대인들은 중간 기로에서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쉽게 얻는 방법으로 사행성 도박이나 로또와 같은 복권에 대한 기대를 건다. 이렇게 로또나 각종 복권들이 난무하고 경마와 도박이 판을 치는 것을 사회적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을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으로 바라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시간과 돈에 항상 시달리는 일상에서 탈주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하루하루를 살아야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직업의 선택이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과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다.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에서 각 직업이 가지는 환율과 자율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위해서 그렇

게도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취업자의 직업별 분석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더 심도 깊게 바라보기 위함이며 각 직업군에 대한 생활시간 분석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해 재고해보기 위함이다.

가. 직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필수생활시간은 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이 10시간 36분을 사용해 가장 많은 시간을 그리고 전문가가 10시간 12분으로 가장 작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생활시간의 가장 큰 부분인 수면시간도 거의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농림어업직은 하루에 7시간 57분을 사용하며, 전문가는 7시간 26분을 수면에 사용하고 있다. 식사시간은 경영관리자가 1시간 50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비스직이 1시간 31분으로 가장 작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관리시간도 전직종에서 증가하여 1시간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사무직종사자들이 1시간 11분을 개인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의무생활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서비스직이 9시간 41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경영관리자가 8시간 51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 노동시간은 장치기계조립직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하루에 7시간 19분을 노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에 반해 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은 4시간 53분만을 노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가사노동에서는 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농림어업직이 2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관리자는 이의 1/4수준인 29분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은 전체 직업군에서 줄어들고 있으며 취업자들은 직종을 불문하고 거의 학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직 종사자들은 하루에 12분의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학습시간을 나타내었다. 이동시간은 전 직업군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경영관리자가 가장 많은 이동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여가생활시간은 농림어업이 4시간 42분을 사용해 가장 많으며, 장치기계조립직 종사자들이 3시간 50분을 사용해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의 여가시간이 가장 높은 이유는 미디어 이용시간과 교제활동시간에서 나타나는데 각각 2시간

26분, 56분을 사용해 전 직업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경영관리자가 50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이 40분으로 가장 낮았다.

<표 3-30> 직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수면	식사	개인 관리		일	가사 노동	학습	이동		미디어 이용	교제 활동	취미 그 외 여가	기타	
경영관리자	10:25	7:32	1:50	1:04	8:51	5:46	0:29	0:01	2:35	4:39	2:10	0:55	0:50	0:44
전문가	10:12	7:26	1:40	1:06	9:22	6:03	1:12	0:03	2:04	4:17	1:50	0:45	0:48	0:54
기술직	10:24	7:38	1:40	1:06	8:56	5:23	1:03	0:12	2:18	4:30	1:59	0:47	0:53	0:51
사무직	10:28	7:37	1:40	1:11	9:18	5:50	1:14	0:05	2:09	4:05	1:54	0:51	0:40	0:40
서비스직	10:15	7:34	1:31	1:10	9:41	6:13	1:50	0:08	1:30	3:51	1:49	0:45	0:45	0:32
판매직	10:25	7:38	1:40	1:08	9:23	5:43	1:46	0:02	1:52	4:00	1:55	0:46	0:42	0:37
농림어업	10:36	7:57	1:37	1:02	8:27	4:53	2:00	0:01	1:33	4:42	2:26	0:56	0:47	0:33
기능원	10:31	7:45	1:45	1:01	9:11	6:18	0:53	0:00	2:00	4:06	2:04	0:45	0:48	0:29
장치기계 조립	10:21	7:38	1:40	1:02	9:39	7:19	0:44	0:00	1:36	3:50	1:54	0:42	0:48	0:26
단순노무	10:20	7:36	1:38	1:06	9:27	5:59	1:48	0:03	1:37	4:00	2:03	0:43	0:43	0:31

나. 직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1999, 2004년)

필수생활시간은 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이 10시간 36분을 사용해 가장 많은 시간을 그리고 전문가가 10시간 12분으로 가장 작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생활시간의 가장 큰 부분인 수면시간도 거의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농림어업직은 하루에 7시간 57분을 사용하며, 전문가는 7시간 26분을 수면에 사용하고 있다. 식사시간은 경영관리자가 1시간 50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비스직이 1시간 31분으로 가장 작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직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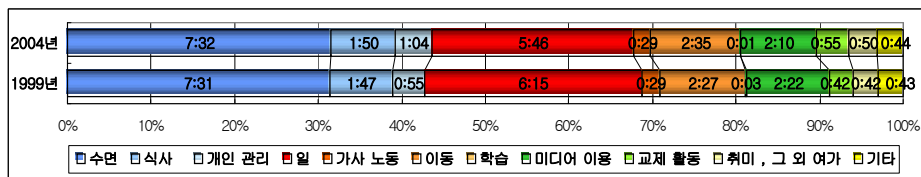
(단위=시간 : 분)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수면	식사	개인 관리		일	가사 노동	학습	이동	미디어 이용	교제 활동	취미 그 외 여가	기타	
경영관리													
1999	10:13	7:31	1:47	0:55	9:14	6:15	0:29	0:03	2:27	4:29	2:22	0:42	0:43
2004	10:25	7:32	1:50	1:04	8:51	5:46	0:29	0:01	2:35	4:39	2:10	0:55	0:44
증감	0:12	0:01	0:03	0:09	-0:23	-0:29	0:00	-0:02	0:08	0:10	-0:12	0:13	0:01
전문가													
1999	9:55	7:19	1:38	0:57	9:40	6:29	1:02	0:08	2:01	4:17	1:51	0:46	0:55
2004	10:12	7:26	1:40	1:06	9:22	6:03	1:12	0:03	2:04	4:17	1:50	0:45	0:54
증감	0:17	0:07	0:02	0:09	-0:18	-0:26	0:10	-0:05	0:03	0:00	-0:01	-0:01	0:03
기술직													
1999	10:05	7:35	1:36	0:54	9:35	6:09	0:54	0:14	2:18	4:15	1:59	0:47	0:44
2004	10:24	7:38	1:40	1:06	8:56	5:23	1:03	0:12	2:18	4:30	1:59	0:47	0:51
증감	0:19	0:03	0:04	0:12	-0:39	-0:46	0:09	-0:02	0:00	0:15	0:00	0:00	0:07
사무직													
1999	10:05	7:30	1:35	1:01	9:48	6:28	1:07	0:08	2:05	4:02	1:53	0:48	0:43
2004	10:28	7:37	1:40	1:11	9:18	5:50	1:14	0:05	2:09	4:05	1:54	0:51	0:40
증감	0:23	0:07	0:05	0:10	-0:30	-0:38	0:07	-0:03	0:04	0:03	0:01	0:03	-0:03
서비스직													
1999	9:49	7:26	1:25	0:57	10:38	7:09	1:56	0:11	1:22	3:25	1:42	0:43	0:26
2004	10:15	7:34	1:31	1:10	9:41	6:13	1:50	0:08	1:30	3:51	1:49	0:45	0:32
증감	0:26	0:08	0:06	0:13	-0:57	-0:56	-0:06	-0:03	0:08	0:26	0:07	0:02	0:06
판매직													
1999	9:58	7:29	1:33	0:56	10:17	6:41	1:46	0:08	1:42	3:38	1:47	0:48	0:30
2004	10:25	7:38	1:40	1:08	9:23	5:43	1:46	0:02	1:52	4:00	1:55	0:46	0:37
증감	0:27	0:09	0:07	0:12	-0:54	-0:58	0:00	-0:06	0:10	0:22	0:08	-0:02	0:07
농림어업													
1999	10:20	8:01	1:31	0:48	8:58	5:30	2:02	0:04	1:22	4:27	2:18	0:52	0:25
2004	10:36	7:57	1:37	1:02	8:27	4:53	2:00	0:01	1:33	4:42	2:26	0:56	0:33
증감	0:16	-0:04	0:06	0:14	-0:31	-0:37	-0:02	-0:03	0:11	0:15	0:08	0:04	-0:05
기능원													
1999	10:10	7:41	1:38	0:52	10:03	7:09	1:06	0:02	1:46	3:41	1:59	0:40	0:23
2004	10:31	7:45	1:45	1:01	9:11	6:18	0:53	0:00	2:00	4:06	2:04	0:45	0:29
증감	0:21	0:04	0:07	0:09	-0:52	-0:51	-0:13	-0:02	0:14	0:25	0:05	0:05	0:06
장치기계 조립													
1999	10:06	7:39	1:35	0:52	10:00	7:39	0:43	0:01	1:37	3:47	1:58	0:42	0:25
2004	10:21	7:38	1:40	1:02	9:39	7:19	0:44	0:00	1:36	3:50	1:54	0:42	0:26
증감	0:15	-0:01	0:05	0:10	-0:21	-0:20	0:01	-0:01	-0:01	0:03	-0:04	0:00	0:01
단순노무													
1999	10:01	7:35	1:33	0:53	9:59	6:26	1:55	0:06	1:32	3:53	2:05	0:45	0:26
2004	10:20	7:36	1:38	1:06	9:27	5:59	1:48	0:03	1:37	4:00	2:03	0:43	0:31
증감	0:19	0:01	0:05	0:13	-0:32	-0:27	-0:07	-0:03	0:05	0:07	-0:02	-0:02	0:05

개인관리시간도 전직종에서 증가하여 1시간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사무직종사자들이 1시간 11분을 개인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의무생활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서비스직이 9시간 41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경영관리자가 8시간 51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 노동시간은 장치기계조립직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하루에 7시간 19분을 노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에 반해 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은 4시간 53분만을 노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가사노동에서는 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농림어업직이 2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관리자는 이의 1/4수준인 29분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은 전체 직업군에서 줄어들고 있으며 취업자들은 직종을 불문하고 거의 학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직 종사자들은 하루에 12분의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학습시간을 나타내었다. 이동시간은 전 직업군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경영관리자가 가장 많은 이동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그림 3-7> 경영관리자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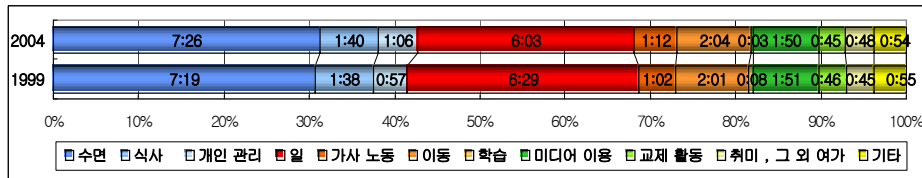


경영관리자의 생활시간 변화를 보면 필수생활시간(+12분) 중에서 수면시간은 1분이 늘어났으며, 식사시간은 3분이 증가한데 비해 개인관리시간은 9분의 증가를 보였다. 의무생활시간(-23분) 중에서 노동시간이 29분 줄어들었으며, 학습시간이 2분 줄었다.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은 변화가 없으며 이동시간은 8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10분)에서 교제활동과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각각 13분, 8분이 증가한데 비해 미디어 이용시간은 오히려 12분이 줄어들었다.

전문가의 생활시간 변화를 보면 필수생활시간이 17분 증가하였으며, 의무생활시간은 18분이 감소하다.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작은 의무생활시간 감소를 보이고 있다. 여가생활시간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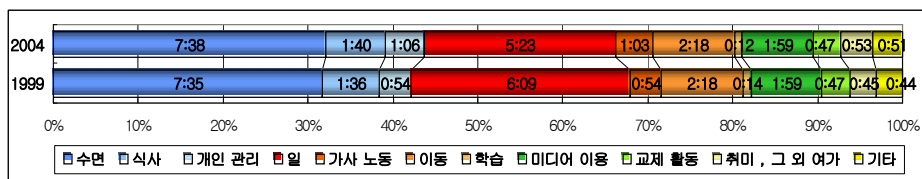
다.

<그림 3-8> 전문가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필수생활시간에서 수면시간이 7분, 식사시간은 2분, 개인관리 시간은 9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 26분, 학습 시간 5분이 줄어든 반면 가사노동이 10분, 이동이 늘어났다. 여가생활 시간에서도 미디어 이용과 교제, 기타가 각각 1분씩 줄어들었으며, 취미 및 그 외 여가가 3분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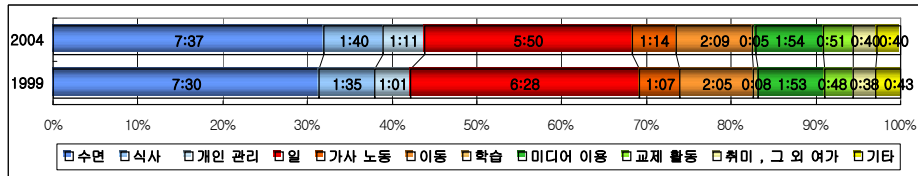
<그림 3-9> 기술직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기술직의 생활시간 변화에서 필수생활시간이 19분 증가하였다. 이중 수면시간은 3분, 식사시간은 4분, 개인관리시간이 12분이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 중 노동시간이 46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시간 역시 2분이 줄어들었다.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9분이 증가하였으며 이동시간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직의 여가생활시간은 15분 증가하였는데 이중 미디어 이용과 교제활동시간은 증감이 없었으며, 취미 및 그 외 여가가 8분, 기타 시간이 7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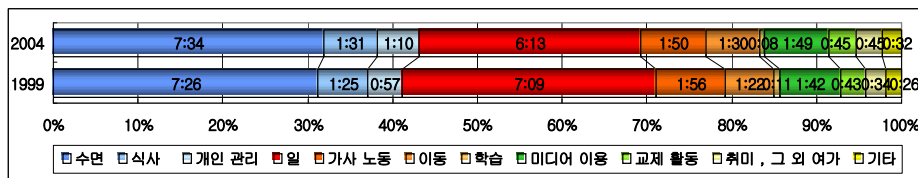
사무직의 생활시간변화를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이 19분 증가, 의무생활시간이 30분 감소, 여가생활시간이 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사무직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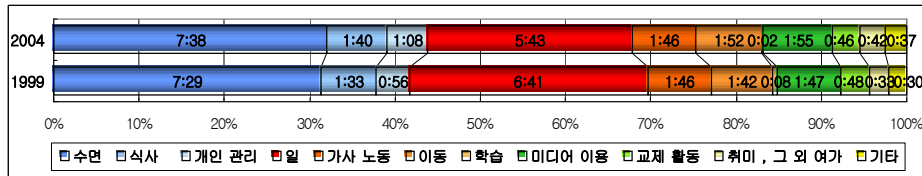
필수생활시간 중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개인관리 시간으로 10분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이 수면으로 7분, 식사시간이 5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무생활시간 중에서 노동시간은 38분이 줄어들었으며 학습시간도 3분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가사노동시간은 7분이 늘어났으며 이동시간도 4분이 늘어났다. 여가생활시간에서 미디어 이용시간이 1분 증가하였으며 교제활동이 3분,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이 2분 늘어났다. 그러나 기타 여가시간은 3분이 줄어들었다.

<그림 3-11> 서비스직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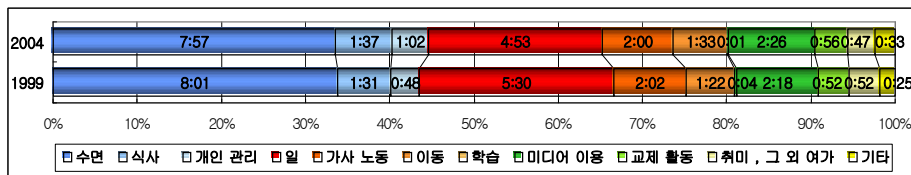
서비스직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필수 생활시간에서 26분이 늘어났으며 의무생활시간은 57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의무생활시간의 감소는 여가생활시간의 증가(+26분)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필수생활시간에서 수면은 8분 증가 식사가 6분 증가, 개인관리가 1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다. 의무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이 56분, 가사노동 6분, 학습 3분이 감소하였으며 이동만이 8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여가생활시간에서 미디어 이용이 7분, 교제활동이 2분, 취미 및 그 외 여가가 11분, 기타 여가활동시간이 6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판매직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판매직의 생활시간 변화를 보면 필수생활시간이 27분 증가, 의무생활시간이 54분 감소, 여가생활시간이 2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직 역시 의무생활시간의 감소가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판매직은 필수생활시간의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이다. 필수생활시간의 증가를 보면 수면이 9분, 식사가 7분 개인관리가 12분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이 58분 감소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으며, 학습시간이 6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동시간은 10분이 증가하였으며 가사노동시간은 변함이 없었다. 여가생활시간에서 미디어 이용이 8분 증가하였으며 취미 및 그 외 여가는 9분이 기타 여가생활시간은 7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교제활동은 2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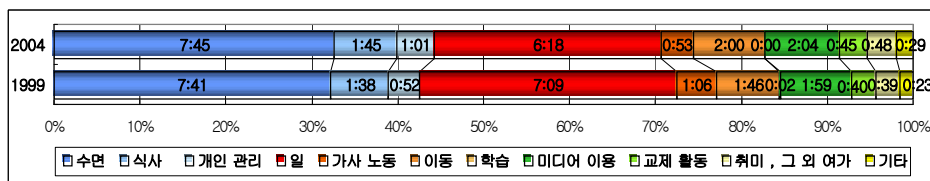
<그림 3-13> 농림어업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농림어업직의 생활시간은 필수생활시간이 16분 증가하였으며, 의무생활시간이 37분 감소, 여가생활시간이 15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사시간이 6분 증가하고 개인관리시간이 14분 증가하였다. 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은 수면시간이 4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다른 직업군보다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고 있다. 의무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은 37이 줄어들었으며 가사노동과 학습 역시 각각 2분과 3분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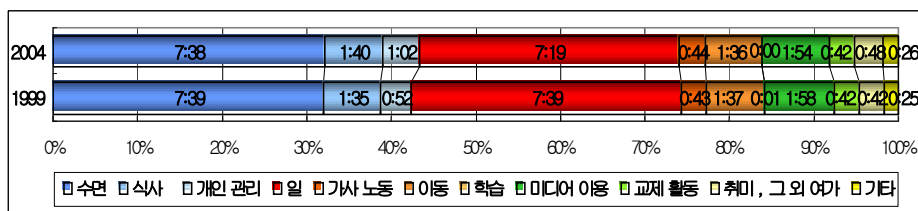
단지 이동시간만이 11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직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미디어 이용(+8분)과 기타 여가생활시간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교제활동시간에서도 4분의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다른 직업군에서 볼 수 없는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5분)의 감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3-14> 기능원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기능원의 생활시간을 보면 필수생활시간은 21분이 감소했으며, 의무 생활시간은 52분 감소, 여가생활시간은 25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생활시간에서 수면은 4분, 식사는 7분, 개인관리는 9분이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은 51분이 줄어 서비스직 다음으로 많은 노동시간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가사노동과 학습이 각각 13분과 2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시간은 역시 14분이 늘었다. 여가 생활시간에서 미디어 이용과 교제활동이 각각 5분씩 증가 하였으며,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9분, 기타 여가생활시간에서 6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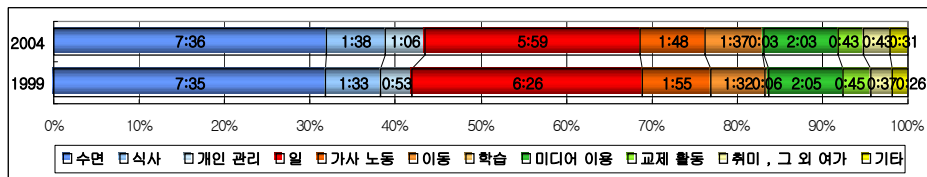
<그림 3-15> 장치·기계조립직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장치기계조립 종사자들의 생활시간에서 필수생활시간은 15분이 늘었

으며, 여가생활시간은 3분이 늘었다. 의무생활시간은 21분이 줄어 가장 작은 감소폭을 나타냈다. 장치기계조립 종사자들의 수면시간은 1분이 줄었으나, 식사시간과 개인관리시간은 각각 5분과 10분이 늘었다. 의무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이 전 직업군에서 가장 작은 20분만이 줄어들었으며, 학습과 이동에서 각각 1분씩 줄어들었다. 의무생활시간 중에서 유일하게 가사노동만 1분이 늘어났다. 그러나 장치기계조립 종사자들의 2004년 노동시간을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노동에 소비하는 직업군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생활시간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 기계조립종사자들은 미디어이용 시간이 4분 줄어든 반면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과 기타 여가생활시간이 각각 6분과 1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단순노무직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단순노무직의 생활시간은 필수생활시간이 19분 증가, 여가생활시간이 7분 증가했으며, 의무생활시간은 32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필수생활시간에서 수면시간은 1분, 식사시간은 5분, 개인관리시간은 13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생활시간 중에서 노동시간은 27분이 줄어들었으며 가사노동과 학습이 각각 7분과 3분이 줄어들었고 이동시간만이 5분 증가하였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과 같이 가사노동의 절대 시간이 많으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시간이 짧다. 여가생활시간에서 미디어와 교제활동이 각각 2분씩 줄어들었으며 취미 및 그 외 여가와 기타 여가생활시간이 각각 6분과 5분 증가하였다.

다. 직업별 요일별 생활시간 변화

1) 요일별 직업군의 생활시간

평일생활시간에서 필수시간이 농림어업직이 제일 길며 전문가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직은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 33분을 수면, 식사, 개인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9시간 50분만을 사용해 10시간 이하의 필수생활시간을 가지는 유일한 직업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3-32>평일 생활시간 변화

(단위=시간 : 분)

평일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수면	식사	개인 관리		일	가사 노동	학습	이동		미디어 이용	교제 활동	취미 그 외 여가	기타	
경영 관리자	1999	10:02	7:22	1:46	0:54	10:01	7:12	0:23	0:04	2:22	3:52	2:06	0:34	0:39	0:33
	2004	10:07	7:15	1:49	1:02	9:56	6:57	0:19	0:01	2:39	3:51	1:45	0:49	0:44	0:33
전문가	1999	9:38	7:04	1:37	0:58	10:38	7:41	0:50	0:10	1:57	3:38	1:32	0:40	0:43	0:43
	2004	9:50	7:05	1:39	1:06	10:30	7:21	1:00	0:04	2:05	3:30	1:26	0:41	0:41	0:42
기술직	1999	9:48	7:20	1:34	0:54	10:32	7:09	0:45	0:17	2:21	3:35	1:36	0:42	0:42	0:35
	2004	10:03	7:20	1:38	1:05	9:58	6:28	0:53	0:16	2:21	3:49	1:37	0:42	0:48	0:42
사무직	1999	9:46	7:13	1:33	1:00	10:44	7:35	0:56	0:09	2:04	3:23	1:36	0:40	0:35	0:32
	2004	10:03	7:14	1:40	1:10	10:27	7:11	0:59	0:06	2:11	3:20	1:30	0:46	0:35	0:29
서비스 직	1999	9:45	7:22	1:24	0:59	10:51	7:18	1:57	0:13	1:23	3:17	1:38	0:41	0:34	0:24
	2004	10:06	7:26	1:29	1:10	10:00	6:34	1:47	0:10	1:29	3:42	1:44	0:43	0:45	0:30
판매직	1999	9:51	7:22	1:33	0:57	10:38	7:04	1:44	0:09	1:41	3:25	1:41	0:45	0:33	0:26
	2004	10:14	7:28	1:40	1:07	9:52	6:15	1:40	0:02	1:55	3:41	1:48	0:42	0:40	0:31
농림어 업	1999	10:20	8:01	1:31	0:48	9:06	5:37	2:03	0:04	1:22	4:20	2:15	0:49	0:52	0:24
	2004	10:33	7:54	1:36	1:03	8:40	5:06	1:59	0:01	1:34	4:30	2:20	0:50	0:47	0:33
기능원	1999	10:02	7:33	1:37	0:51	10:35	7:48	1:03	0:02	1:42	3:16	1:48	0:35	0:37	0:16
	2004	10:18	7:34	1:43	1:01	9:55	7:10	0:47	0:00	1:58	3:36	1:49	0:39	0:44	0:24
장치·기 제조업	1999	9:58	7:32	1:35	0:51	10:34	8:20	0:39	0:01	1:34	3:20	1:45	0:35	0:41	0:19
	2004	10:08	7:27	1:39	1:02	10:21	8:11	0:37	0:01	1:32	3:21	1:40	0:36	0:44	0:21
단순노 무	1999	9:55	7:30	1:33	0:51	10:27	7:00	1:49	0:07	1:31	3:30	1:54	0:39	0:36	0:21
	2004	10:09	7:26	1:37	1:05	10:00	6:39	1:40	0:04	1:37	3:39	1:53	0:39	0:41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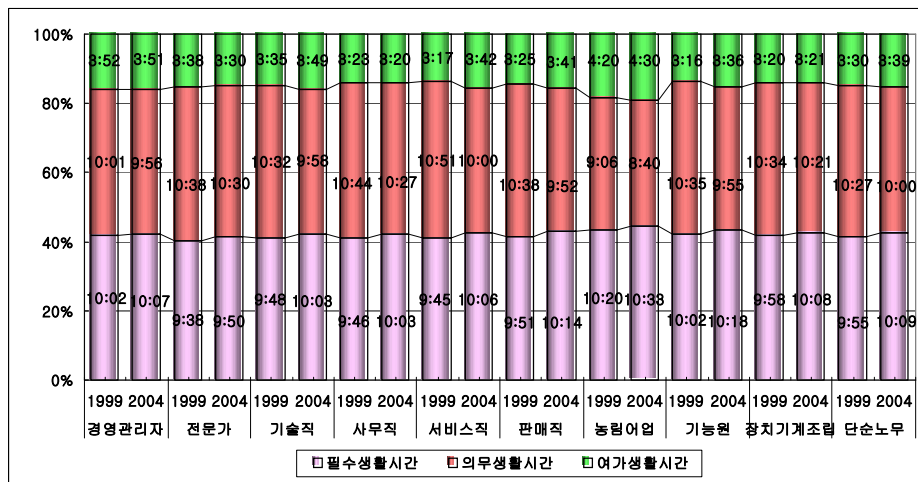
이러한 시간 차이의 원인은 수면시간에 있는데 농림어업직은 7시간 54분을 수면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문가는 7시간 5분만을 수면에 사용하고 있다. 의무생활시간이 줄어들면서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이 늘어나는데 경영관리자와 농림어업직만이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식사시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집단은 경영관리자 집단으로 1시간 49분을 사용했으며, 서비스직이 가장 작은 1시간 29분을 사용했다. 개인관리시간은 99년에 모든 집단이 1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했지만 04년에는 1시간 이상을 개인관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무생활시간은 전문가가 가장 많은 10시간 30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농림어업직이 가장 작은 8시간 40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시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집단은 장치기계조립직으로 하루에 8시간 11분을 노동에 투입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농림어업직은 하루에 5시간 6분만을 노동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노동시간의 차이가 무려 3시간 5분이 차이가 났다. 가사노동의 경우 대부분의 직업군이 줄어드는 반면 전문가, 기술직, 사무직은 늘어났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은 1시간 59분을 사용하는 농림어업직이고, 가장 적게 사용하는 집단은 19분만을 사용하는 경영관리자였다. 학습시간은 99년에 비해 거의 모든 직종이 줄어들어 거의 학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술직 종사자들은 1분이 줄어든 16분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은 기술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증가하였는데 경영관리자가 17분 증가로 가장 많은 이동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여가생활시간은 하루 4시간 30분을 사용하는 농림어업직이 가장 많은 여가생활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3시간 20분만을 여가생활에 사용하는 사무직 종사자가 가장 낮은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직은 비록 여가생활시간은 많지만 대부분인 2시간 20분을 미디어 이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99년보다 5분이 늘어난 시간이다. 이에 반해 전문가가 가장 작은 1시간 26분을 미디어 이용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99년보다 6분이 줄어든 결과이다. 교제활동에서도 농림어업직이 가장 많은 50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치·기계조립직 종사자들이 가장 작은 36분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기술직 종사자가 가장 많은 4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이 가장 작은 35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취업자의 직업별 평일 평균시간



2) 직업별 토요일의 생활시간

토요일 생활시간에서 필수생활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사무직 종사자이다. 사무직은 99년에 비해 46분이 증가한 11시간 1분을 필수생활에 사용하고 있다. 서비스직과 장치기계조립직이 가장 적은 10시간 18분을 필수생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면시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사무직은 토요일에 수면을 위해 8시간 7분을 사용하는데 반해 서비스직은 7시간 35분만을 사용하고 있다. 식사시간은 경영관리자가 1시간 54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서비스직은 1시간 32분만을 식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종사자들은 개인관리에 1시간 11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직이 개인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1시간 2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생활시간은 서비스직이 가장 많은 9시간 32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가장 작은 7시간 25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기계조립종사자와 판매직종사자도 각각 9시간 24분과 9시간 15분으로

많은 시간을 의무생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토요일 생활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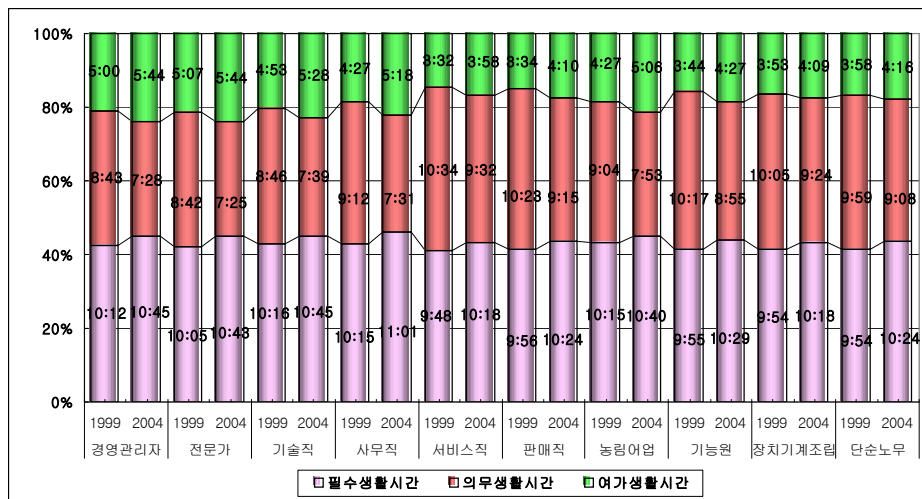
(단위=시간 : 분)

토요일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수면	식사	개인 관리		일	가사 노동	학습	이동		미디어 이용	교제 활동	취미 그 외 여가	기타		
경영관리자	1999	10:12	7:26	1:47	0:59	8:43	5:22	0:32	0:00	2:49	5:00	2:26	0:54	0:50	0:50
	2004	10:45	7:48	1:54	1:04	7:28	4:03	0:47	0:00	2:38	5:44	2:47	1:09	0:55	0:53
전문가	1999	10:05	7:25	1:42	0:58	8:42	4:60	1:19	0:04	2:19	5:07	2:18	0:57	0:49	1:03
	2004	10:43	7:53	1:40	1:09	7:25	3:50	1:30	0:01	2:04	5:44	2:33	0:54	1:04	1:13
기술직	1999	10:16	7:43	1:37	0:55	8:46	5:14	1:03	0:07	2:22	4:53	2:24	0:53	0:49	0:47
	2004	10:45	7:51	1:44	1:09	7:39	3:54	1:14	0:04	2:27	5:28	2:28	0:57	1:05	0:58
사무직	1999	10:15	7:33	1:36	1:04	9:12	5:32	1:16	0:05	2:19	4:27	2:01	0:57	0:45	0:44
	2004	11:01	8:07	1:42	1:11	7:31	3:32	1:40	0:03	2:16	5:18	2:29	1:02	0:51	0:56
서비스직	1999	9:48	7:25	1:26	0:57	10:34	7:16	1:53	0:06	1:19	3:32	1:45	0:48	0:36	0:23
	2004	10:18	7:35	1:32	1:10	9:32	6:04	1:54	0:04	1:30	3:58	1:52	0:50	0:46	0:30
판매직	1999	9:56	7:27	1:33	0:55	10:23	6:50	1:42	0:07	1:44	3:34	1:47	0:47	0:33	0:27
	2004	10:24	7:36	1:39	1:10	9:15	5:32	1:51	0:01	1:51	4:10	1:56	0:53	0:45	0:36
농림어업	1999	10:15	7:58	1:31	0:46	9:04	5:31	2:00	0:07	1:26	4:27	2:18	0:56	0:52	0:21
	2004	10:40	8:01	1:37	1:02	7:53	4:23	2:04	0:00	1:26	5:06	2:45	1:06	0:50	0:25
기능원	1999	9:55	7:28	1:37	0:50	10:17	7:21	0:57	0:04	1:55	3:44	1:53	0:42	0:43	0:26
	2004	10:29	7:38	1:48	1:03	8:55	5:51	0:56	0:00	2:08	4:27	2:12	0:53	0:56	0:26
장치·기계조립	1999	9:54	7:27	1:35	0:51	10:05	7:34	0:43	0:02	1:46	3:53	1:59	0:44	0:42	0:28
	2004	10:18	7:36	1:40	1:03	9:24	6:54	0:48	0:00	1:42	4:09	1:59	0:46	0:55	0:29
단순노동	1999	9:54	7:27	1:31	0:56	9:59	6:21	1:56	0:04	1:38	3:58	2:07	0:46	0:39	0:26
	2004	10:24	7:37	1:39	1:08	9:08	5:23	2:02	0:02	1:41	4:16	2:12	0:50	0:45	0:29

특이할 만한 점은 사무직종사자의 의무생활시간이 무려 1시간 41분이 줄어든 것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시행된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노동시간의 감소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사무직종사자의 99년 토요일 평균노동시간이 5시간 32분이었는데 04년에는 2시간이 줄어든 3시간 32분만을 사용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장치기계조립직 종사자는 99년에 비해 40분이 줄어든 6시간 54을 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무직과는 3시간 22분이의 노동시간차이를 보였다. 가사노동은 농림어업직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2시간 4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치기계조립직종사자는 48분을 그리고 경영관리자는 47분을 사용해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학습시간은 평일보다 훨씬 줄어들어 거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시간은 경영관리자가 2시간 3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시간을 이동에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으며, 농림어업종사자는 1시간 26분을 사용해 거의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8> 취업자의 직업별 토요일 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은 경영관리자와 전문가가 가장 많은 5시간 44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직업군은 미디어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농림어업종사자들도 미디어 이용시간이 2시간 45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활동도 경영관리자가 1시간 9분을 사용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토요일 교제활동시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가는 오히려 3분이 줄어들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기술직종사자들이 1시간 5분을 사용해 가장 높았으

며, 판매직과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이 45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업별 일요일의 생활시간

<표 3-34> 취업자의 직업별 일요일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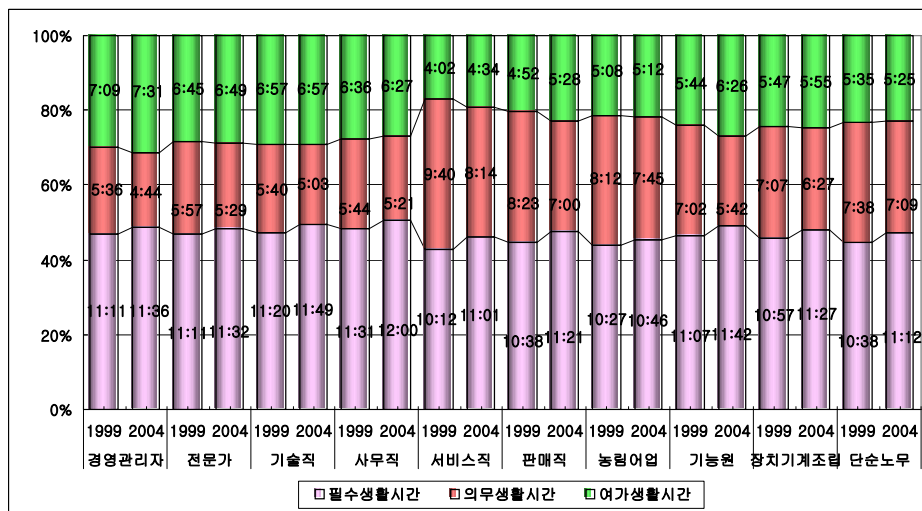
일요일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수면	식사	개인 관리		일	가사 노동	학습	이동		미디어 이용	교제 활동	취미 그 외 여가	기타		
경영관리자	1999	11:11	8:19	1:55	0:57	5:36	2:18	0:52	0:00	2:26	7:09	3:40	1:12	0:50	1:27
	2004	11:36	8:38	1:52	1:05	4:44	1:33	1:00	0:00	2:11	7:31	3:36	1:10	1:14	1:31
전문가	1999	11:11	8:31	1:43	0:58	5:57	2:03	1:50	0:03	2:01	6:45	3:02	1:10	0:50	1:43
	2004	11:32	8:42	1:42	1:08	5:29	1:41	1:52	0:01	1:55	6:49	3:04	0:58	1:06	1:41
기술직	1999	11:20	8:44	1:42	0:53	5:40	2:02	1:30	0:10	1:58	6:57	3:24	1:04	0:57	1:32
	2004	11:49	8:58	1:42	1:08	5:03	1:22	1:44	0:01	1:56	6:57	3:19	1:03	1:06	1:29
사무직	1999	11:31	8:49	1:39	1:02	5:44	1:47	1:53	0:05	1:59	6:36	3:14	1:15	0:46	1:21
	2004	12:00	9:02	1:42	1:16	5:21	1:26	2:03	0:01	1:51	6:27	3:17	1:04	0:52	1:14
서비스직	1999	10:12	7:46	1:27	0:58	9:40	6:17	1:58	0:01	1:24	4:02	2:01	0:53	0:36	0:32
	2004	11:01	8:13	1:37	1:11	8:14	4:39	2:01	0:01	1:33	4:34	2:08	0:50	0:48	0:48
판매직	1999	10:38	8:07	1:36	0:55	8:23	4:36	2:02	0:03	1:42	4:52	2:20	1:04	0:36	0:52
	2004	11:21	8:28	1:41	1:11	7:00	3:13	2:06	0:00	1:41	5:28	2:29	0:59	0:52	1:08
농림어업	1999	10:27	8:07	1:32	0:47	8:12	4:50	2:00	0:02	1:20	5:08	2:36	1:06	0:55	0:31
	2004	10:46	8:08	1:40	0:58	7:45	4:18	1:57	0:00	1:30	5:12	2:36	1:16	0:42	0:38
기능원	1999	11:07	8:31	1:42	0:54	7:02	3:38	1:28	0:00	1:56	5:44	3:01	1:03	0:47	0:53
	2004	11:42	8:48	1:47	1:06	5:42	2:23	1:19	0:00	1:60	6:26	3:13	1:10	1:03	1:00
장치·기계조립	1999	10:57	8:24	1:39	0:53	7:07	4:16	1:02	0:01	1:48	5:47	2:59	1:13	0:50	0:45
	2004	11:27	8:37	1:44	1:05	6:27	3:25	1:12	0:00	1:50	5:55	2:59	1:07	0:57	0:52
단순노무	1999	10:38	8:10	1:35	0:53	7:38	3:42	2:18	0:02	1:36	5:35	2:53	1:11	0:45	0:46
	2004	11:12	8:26	1:41	1:06	7:09	3:14	2:19	0:02	1:34	5:25	2:48	0:54	0:46	0:57

일요일 생활시간에서 사무직은 필수생활을 12시간이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9년에 비해 필수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반적인 경향은 있지만 농림어업직 종사자가 10시간 46분만을 사용하는 것을

불 때 아주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면시간의 양과 관련이 있는데 일요일에 사무직 종사자는 9시간 2분을 자는데 사용하지만 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은 8시간 8분을 수면에 사용하고 있다. 또 수면시간이 짧은 직업군은 서비스직인데 단지 8시간 13분만을 수면에 사용하고 있다. 식사시간은 경영관리자가 1시간 52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직은 평일과 비슷한 1시간 37분만을 식사에 사용하였다. 개인관리는 사무직이 가장 많은 1시간 16분을 사용했다.

일요일 의무생활시간에서 서비스직이 8시간 14분을 사용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다.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일요일에도 4시간 39분을 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은 4시간 18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기술직종사자는 일요일에 1시간 22분만을 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무직은 1시간 26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노동시간을 볼 때 전문가, 기술직, 사무직, 경영관리자에서 노동시간의 집중이 잘 나타나고 있다. 가사노동은 판매직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2시간 6분을 사용하고 있다. 일요일의 학습시간은 거의 없으며 이동시간은 경영관리자가 가장 많은 2시간 11분이 걸린다.

<그림 3-19> 취업자의 직업별 일요일 생활시간



일요일 여가생활시간은 경영관리자가 가장 많은 7시간 31분이 사용했으며, 서비스직은 4시간 34분을 사용했다. 이러한 차이는 미디어 이용시간의 차이로 보이는데 경영관리자는 99년에 비해 4분이 줄어든 3시간 36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비스직종사자는 2시간 8분만을 미디어이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활동은 평일과 토요일처럼 농림어업직 종사자가 가장 많은 1시간 16분을 사용하는데 99년에 비해 10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는 12분이 줄어든 58분만을 교제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에서 경영관리자는 99년에 비해 24분이 늘어난 1시간 14분을 사용해 46분을 사용하는 단순노무직과의 차이가 28분이나 났다.

라. 직업별 요일별 생활시간 변화

1) 경영관리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표 3-35> 경영관리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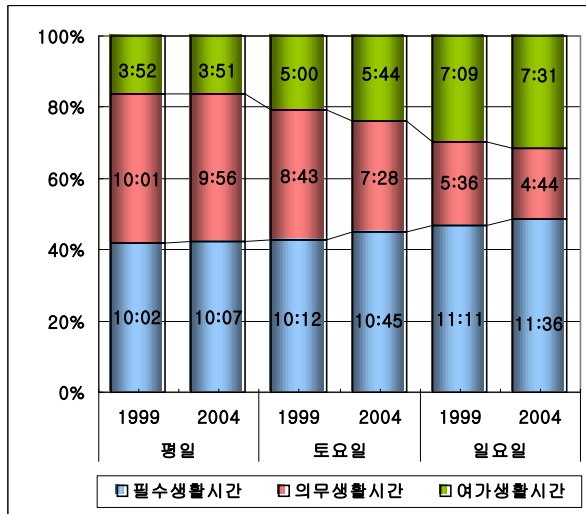
(단위=시간 : 분)

경영관리자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10:02	10:07	0:05	10:12	10:45	0:33	11:11	11:36	0:25
수면	7:22	7:15	-0:07	7:26	7:48	0:22	8:19	8:38	0:19
식사 및 간식	1:46	1:49	0:03	1:47	1:54	0:07	1:55	1:52	-0:03
개인관리	0:54	1:02	0:08	0:59	1:04	0:05	0:57	1:05	0:08
의무생활시간	10:01	9:56	-0:05	8:43	7:28	-1:15	5:36	4:44	-0:52
일	7:12	6:57	-0:15	5:22	4:03	-1:19	2:18	1:33	-0:45
가사노동	0:23	0:19	-0:04	0:32	0:47	0:15	0:52	1:00	0:08
학습	0:04	0:01	-0:03	0:00	0:00	0:00	0:00	0:00	0:00
이동	2:22	2:39	0:17	2:49	2:38	-0:11	2:26	2:11	-0:15
여가생활시간	3:52	3:51	-0:01	5:00	5:44	0:44	7:09	7:31	0:22
미디어 이용	2:06	1:45	-0:21	2:26	2:47	0:21	3:40	3:36	-0:04
교제활동	0:34	0:49	0:15	0:54	1:09	0:15	1:12	1:10	-0:02
취미 및 그 외 여가	0:39	0:44	0:05	0:50	0:55	0:05	0:50	1:14	0:24
기타	0:33	0:33	0:00	0:50	0:53	0:03	1:27	1:31	0:04

경영관리자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보면 평일 필수생활시간은 5분이 증가하였으며, 토요일은 33분, 일요일은 25분이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이 5분 감소하였으며, 토요일이 1시간 15분, 일요일이 52분

감소하였다.

<그림 3- 20> 경영관리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은 평일에 1분이 감소하였지만 토요일은 44분, 일요일은 22분 증가하였다.

필수생활시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영관리자의 평일 수면시간은 7분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경향과는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22분과 19분이 증가하여 요일평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일요일 식사시간이 99년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인관리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무생활시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평일에 노동(-15분), 가사(-4분), 학습(-3분)시간이 모두 줄어들었으며, 이동시간만이 17분 증가하였다. 하지만 토요일은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노동시간(-1시간19분)과 이동시간(-11분)이 줄어들고 가사노동시간(+15분)은 늘어난다. 또 일요일에도 노동시간(-45분)과 이동시간(-15분)은 줄어들었으며 가사노동시간(+8분)은 늘었다.

여가생활시간의 세부항목을 보면 평일 여가생활에서 교제활동(+15분)과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5분)은 늘어났지만 미디어 이용시간은 21분이나 감소하였다. 토요일은 모든 여가활동이 증가하는데, 미디어이용 21분, 교제활동 15분, 취미 및 그 외 여가 5분, 기타 여가활동이 3분 증가하였다. 일요일의 여가활동에서 미디어 이용과 교제활동이 각각 4분과 2분 감소한데 반해 기타 여가활동은 4분, 취미 및 그 외 여가는 22분이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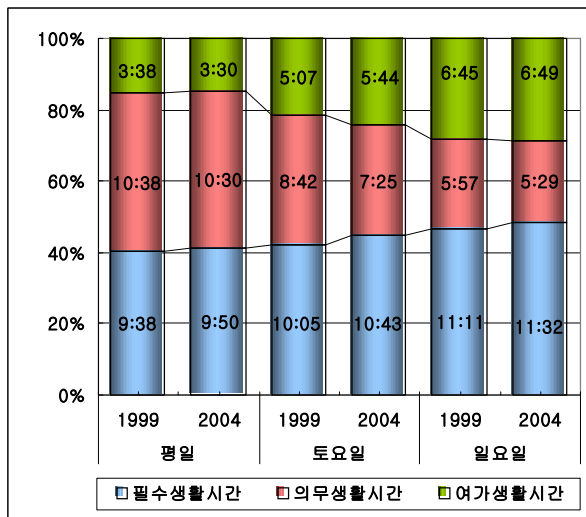
2) 전문가의 요일별 생활시간

<표 3-36> 전문가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전문가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9:38	9:50	0:12	10:05	10:43	0:38	11:11	11:32	0:21
수면	7:04	7:05	0:01	7:25	7:53	0:28	8:31	8:42	0:11
식사 및 간식	1:37	1:39	0:02	1:42	1:40	-0:02	1:43	1:42	-0:01
개인관리	0:58	1:06	0:08	0:58	1:09	0:11	0:58	1:08	0:10
의무생활시간	10:38	10:30	-0:08	8:42	7:25	-1:17	5:57	5:29	-0:28
일	7:41	7:21	-0:20	4:60	3:50	-1:10	2:03	1:41	-0:22
가사노동	0:50	1:00	0:10	1:19	1:30	0:11	1:50	1:52	0:02
학습	0:10	0:04	-0:06	0:04	0:01	-0:03	0:03	0:01	-0:02
이동	1:57	2:05	0:08	2:19	2:04	-0:15	2:01	1:55	-0:06
여가생활시간	3:38	3:30	-0:08	5:07	5:44	0:37	6:45	6:49	0:04
미디어 이용	1:32	1:26	-0:06	2:18	2:33	0:15	3:02	3:04	0:02
교제활동	0:40	0:41	0:01	0:57	0:54	-0:03	1:10	0:58	-0:12
취미 및 그 외 여가	0:43	0:41	-0:02	0:49	1:04	0:15	0:50	1:06	0:16
기타	0:43	0:42	-0:01	1:03	1:13	0:10	1:43	1:41	-0:02

<그림 3-21 >전문가의 요일별 생활시간



전문가의 요일별 생활 시간을 보면 필수생활시간에서 평일이 12분 증가하였으며, 토요일은 38분, 일요일은 21분이 증가하였다. 이중 수면시간은 평일이 1분, 토요일이 28분 일요일이 11분으로 모두 증가하였다. 식사시간은 평일 2분이 증가하였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2분과 1분이 감소하였다.

개인관리 시간은 평일(+8분), 토요일(+11분) 일요일(+10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 8분이 줄었으며 토요일 1시간 17분, 일요일이 28분 감소했다. 이중 노동시간은 평일 20분, 토요일 1시간 10분, 일요일 28분이 줄어들었다. 학습시간도 평일 6분, 토요일 3분, 일요일 2분이 줄었다. 하지만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10분, 토요일 11분 일요일 2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과 관련해서 평일은 8분이 증가하였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15분과 6분이 줄어들었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 8분이 줄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37분과 4분이 증가하였다. 미디어 이용은 평일 6분이 감소하였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15분, 2분이 증가하였다. 교제활동에서 전문가의 평일 교제활동시간이 1분 증가하였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3분, 12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평일 2분이 줄었지만 토요일은 15분, 일요일은 16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여가활동시간을 살펴보면 토요일은 10분이 증가했지만 평일과 일요일은 1분, 2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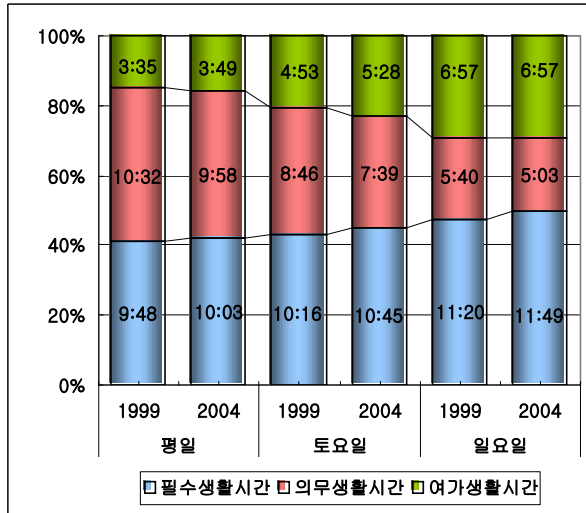
3)기술직의 요일별 평균시간

<표 3-37> 기술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기술직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9:48	10:03	0:15	10:16	10:45	0:29	11:20	11:49	0:29
수면	7:20	7:20	0:00	7:43	7:51	0:08	8:44	8:58	0:14
식사 및 간식	1:34	1:38	0:04	1:37	1:44	0:07	1:42	1:42	0:00
개인관리	0:54	1:05	0:11	0:55	1:09	0:14	0:53	1:08	0:15
의무생활시간	10:32	9:58	-0:34	8:46	7:39	-1:07	5:40	5:03	-0:37
일	7:09	6:28	-0:41	5:14	3:54	-1:20	2:02	1:22	-0:40
가사노동	0:45	0:53	0:08	1:03	1:14	0:11	1:30	1:44	0:14
학습	0:17	0:16	-0:01	0:07	0:04	-0:03	0:10	0:01	-0:09
이동	2:21	2:21	0:00	2:22	2:27	0:05	1:58	1:56	-0:02
여가생활시간	3:35	3:49	0:14	4:53	5:28	0:35	6:57	6:57	0:00
미디어 이용	1:36	1:37	0:01	2:24	2:28	0:04	3:24	3:19	-0:05
교제활동	0:42	0:42	0:00	0:53	0:57	0:04	1:04	1:03	-0:01
취미 및 그 외 여가	0:42	0:48	0:06	0:49	1:05	0:16	0:57	1:06	0:09
기타	0:35	0:42	0:07	0:47	0:58	0:11	1:32	1:29	-0:03

<그림 3-22> 기술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기술직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이 15분 증가하였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29분씩 증가하였다. 평일에 수면시간은 증감이 없었으며 토요일에 8분이 증가, 일요일에는 14분이 증가하였다. 또 식사시간은 평일 4분, 토요일 7분이 증가하였는데 일요일은 증감이 없었다. 그러나

개인관리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증가하였는데 각각 11분, 14분, 15분이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줄어들었다. 평일은 34분, 토요일은 1시간 7분, 일요일은 37분이 감소하였다. 이는 노동시간의 감소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평일은 41분, 토요일은 1시간 20분, 일요일은 40분의 시간이 줄어들었다.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학습시간 역시 감소하였는데 평일 1분, 토요일 3분, 일요일 9분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추세와는 달리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였는데 평일이 8분, 토요일이 11분, 일요일이 14분 증가하였다. 이동시간은 평일에 증감이 없었으며 토요일에는 5분이 늘었지만 일요일에는 2분이 줄어들었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 14분 토요일은 35분이 늘어났으며 일요일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미디어 이용시간은 1분이 증가했으며 토요일에도 4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5분이 줄어들었다. 교제활동은 평일에 변화가 없었으며 토요일은 4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일요일의 교제활동은 5분이 줄어들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증가하였는데 각각 6분, 16분, 9분이 증가하였다. 또 기타 여가활동시간에서 평일 7분, 토요일 11분의 증가와는 달리 일요일에는 3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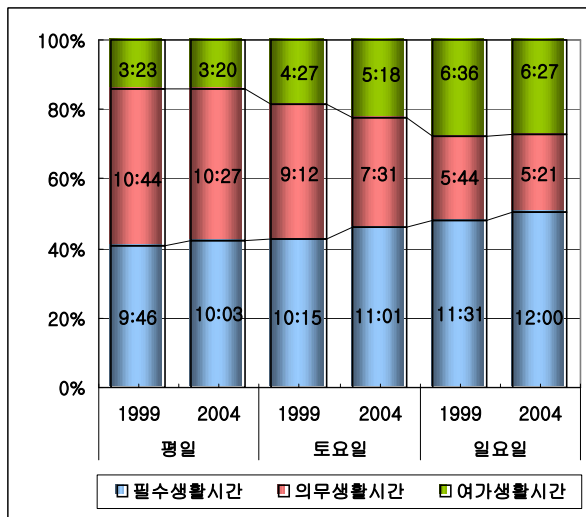
4) 사무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표 3-38> 사무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사무직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9:46	10:03	0:17	10:15	11:01	0:46	11:31	12:00	0:29
수면	7:13	7:14	0:01	7:33	8:07	0:34	8:49	9:02	0:13
식사 및 간식	1:33	1:40	0:07	1:36	1:42	0:06	1:39	1:42	0:03
개인관리	1:00	1:10	0:10	1:04	1:11	0:07	1:02	1:16	0:14
의무생활시간	10:44	10:27	-0:17	9:12	7:31	-1:41	5:44	5:21	-0:23
일	7:35	7:11	-0:24	5:32	3:32	-2:00	1:47	1:26	-0:21
가사노동	0:56	0:59	0:03	1:16	1:40	0:24	1:53	2:03	0:10
학습	0:09	0:06	-0:03	0:05	0:03	-0:02	0:05	0:01	-0:04
이동	2:04	2:11	0:07	2:19	2:16	-0:03	1:59	1:51	-0:08
여가생활시간	3:23	3:20	-0:03	4:27	5:18	0:51	6:36	6:27	-0:09
미디어 이용	1:36	1:30	-0:06	2:01	2:29	0:28	3:14	3:17	0:03
교제활동	0:40	0:46	0:06	0:57	1:02	0:05	1:15	1:04	-0:11
취미 및 그 외 여가	0:35	0:35	0:00	0:45	0:51	0:06	0:46	0:52	0:06
기타	0:32	0:29	-0:03	0:44	0:56	0:12	1:21	1:14	-0:07

<그림 3-23 > 사무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사무직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에서 평일 17분, 토요일 46분, 일요일 29분이 증가하였다. 이중 수면시간을 보면 평일에 1분이 증가하였으며 토요일이 34분, 일요일이 13분 증가하였다. 또 식사시간 역시 평일 7분, 토요일 6분, 일요일 3분이 증가하였다. 개인관리시간이 평일에 10분, 토요일에 7분, 일요일에 14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 17분이 감소했으며 토요일 1시간 41분이 감소했고 일요일은 23분이 감소했다. 이중 노동시간은 평일에 24분이 감소, 토요일에는 2시간, 일요일에는 21분이 감소했다.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3분, 토요일 24분, 일요일 10분이 증가하였다. 학습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3분, 2분, 4분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무직의 이동시간 추이는 다른 직업군과는 다르게 평일에 7분이 늘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3분과 8분이 줄어들었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에 3분이 일요일에는 9분이 줄어들었지만 토요일은 51분이 늘어났다. 이중 평일 미디어 이용이 6분 줄어들었는데 반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28분과 3분이 늘어났다. 교제활동은 평일에 6분이 증가, 토요일에 5분이 증가하였지만, 일요일에는 11분이 감소하였다. 또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평일에 변함이 없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6분씩 증가하였다. 기타 여가시간은 평일에 3분이 줄었고 일요일에 7분이 줄었지만 토요일에는 12분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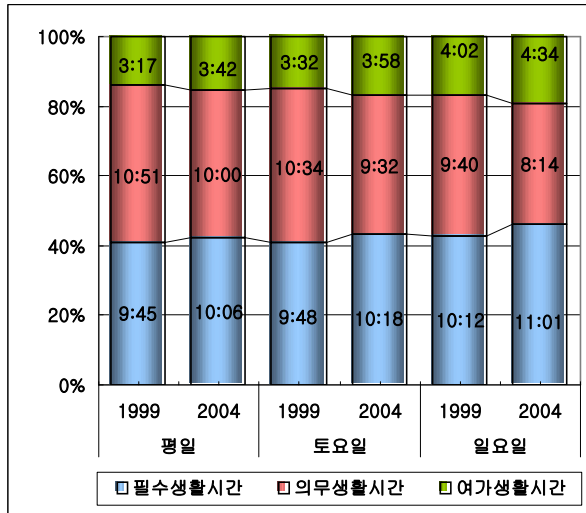
5)서비스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표 3-39> 서비스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서비스직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9:45	10:06	0:21	9:48	10:18	0:30	10:12	11:01	0:49
수면	7:22	7:26	0:04	7:25	7:35	0:10	7:46	8:13	0:27
식사 및 간식	1:24	1:29	0:05	1:26	1:32	0:06	1:27	1:37	0:10
개인관리	0:59	1:10	0:11	0:57	1:10	0:13	0:58	1:11	0:13
의무생활시간	10:51	10:00	-0:51	10:34	9:32	-1:02	9:40	8:14	-1:26
일	7:18	6:34	-0:44	7:16	6:04	-1:12	6:17	4:39	-1:38
가사노동	1:57	1:47	-0:10	1:53	1:54	0:01	1:58	2:01	0:03
학습	0:13	0:10	-0:03	0:06	0:04	-0:02	0:01	0:01	0:00
이동	1:23	1:29	0:06	1:19	1:30	0:11	1:24	1:33	0:09
여가생활시간	3:17	3:42	0:25	3:32	3:58	0:26	4:02	4:34	0:32
미디어 이용	1:38	1:44	0:06	1:45	1:52	0:07	2:01	2:08	0:07
교제활동	0:41	0:43	0:02	0:48	0:50	0:02	0:53	0:50	-0:03
취미 및 그 외 여가	0:34	0:45	0:11	0:36	0:46	0:10	0:36	0:48	0:12
기타	0:24	0:30	0:06	0:23	0:30	0:07	0:32	0:48	0:16

<그림 3-24> 서비스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서비스직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이 평일에 23분, 토요일에 28분, 일요일에 43분이 늘어났다. 수면시간은 평일 4분, 토요일 10분, 일요일에 27분이 늘어났으며, 식사시간은 평일에 5분, 토요일에 6분, 일요일 10분이 늘어났다. 개인관리 시간은 평일 11분, 토요일 13분,

일요일 13분이 각각 늘어났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 51분, 토요일 1시간 2분, 일요일 1시간 26분이 줄어들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일요일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노동시간이 평일 44분 줄었으며, 토요일은 1시간 12분, 일요일은 1시간 38분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노동시간이 길던 서비스직에서 다른 직업군과 비슷한 노동시간 분포로 수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은 평일 10분이 줄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1분과 3분 늘어났다. 학습시간은 평일 3분이 줄었고 토요일 2분이 줄었으나 절대시간이 작은 일요일은 변함이 없었다. 이동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6분, 11분, 9분이 늘어났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 25분, 토요일 26분, 일요일 32분이 늘어났는데 미디어이용에서 평일 6분, 토요일 7분, 일요일 7분이 늘었으며,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도 평일 11분, 토요일 10분, 일요일 12분이 증가하였다. 또 기타 여가시간에서도 평일 6분, 토요일 7분, 일요일 16분이 늘었다. 다만 교제활동에서 평일과 토요일은 각각 2분씩 증가하지만 일요일은 3분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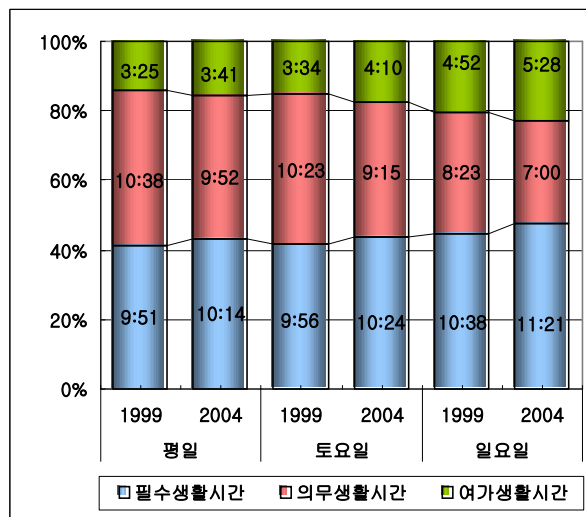
6) 판매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표 3-40> 판매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판매직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9:51	10:14	0:23	9:56	10:24	0:28	10:38	11:21	0:43
수면	7:22	7:28	0:06	7:27	7:36	0:09	8:07	8:28	0:21
식사 및 간식	1:33	1:40	0:07	1:33	1:39	0:06	1:36	1:41	0:05
개인관리	0:57	1:07	0:10	0:55	1:10	0:15	0:55	1:11	0:16
의무생활시간	10:38	9:52	-0:46	10:23	9:15	-1:08	8:23	7:00	-1:23
일	7:04	6:15	-0:49	6:50	5:32	-1:18	4:36	3:13	-1:23
가사노동	1:44	1:40	-0:04	1:42	1:51	0:09	2:02	2:06	0:04
학습	0:09	0:02	-0:07	0:07	0:01	-0:06	0:03	0:00	-0:03
이동	1:41	1:55	0:14	1:44	1:51	0:07	1:42	1:41	-0:01
여가생활시간	3:25	3:41	0:16	3:34	4:10	0:36	4:52	5:28	0:36
미디어 이용	1:41	1:48	0:07	1:47	1:56	0:09	2:20	2:29	0:09
교제활동	0:45	0:42	-0:03	0:47	0:53	0:06	1:04	0:59	-0:05
취미 및 그 외 여가	0:33	0:40	0:07	0:33	0:45	0:12	0:36	0:52	0:16
기타	0:26	0:31	0:05	0:27	0:36	0:09	0:52	1:08	0:16

<그림 3-25> 판매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판매직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보면 필수생활시간에서 평일이 23분, 토요일 28분, 일요일 43분이 증가하였다. 수면과 식사, 개인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수면 평일 6분, 토요일 9분, 일요일 21분이 증가하였으며, 식사는 평일 7분, 토요일 6분, 일요일 5분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개인관리는 평일 10분, 토요일 15분, 일요일 16분이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 46분, 토요일 1시간 8분, 일요일은 1시간 23분이

감소하였다. 그 중 노동시간과 학습시간이 요일전체에서 감소하였는데 먼저 노동시간은 평일 9분, 토요일 1시간 18분, 일요일 1시간 23분이 감소하였다. 또 학습시간은 평일 7분, 토요일 6분 일요일 3분이 감소해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생활시간 중 학습시간이 사라졌다.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에 4분이 감소하였지만 토요일은 9분이 일요일은 4분이 증가하였다. 이동시간은 평일 14분, 토요일 7분이 증가하였지만 일요일은 1분이 감소하였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 16분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36분씩 증가하였다. 이 중 미디어 이용시간이 평일에 7분, 토요일에 9분, 일요일에 9분이 증가하였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이 평일 7분, 토요일 12분, 일요일 16분 증가하였고, 기타 여가시간이 평일 5분, 토요일 9분, 일요일 16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판매직 종사자들의 교제시간은 토요일만 6분 증가하였고 평일과 일요일은 각각 3분과 5분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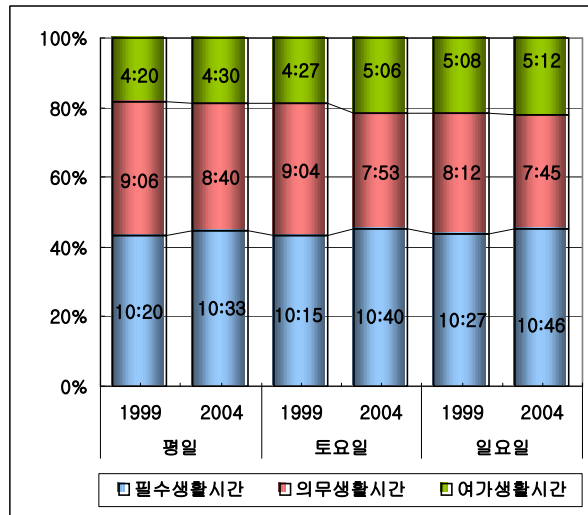
7) 농림어업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표 3-41> 농림어업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농림어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10:20	10:33	0:13	10:15	10:40	0:25	10:27	10:46	0:19
수면	8:01	7:54	-0:07	7:58	8:01	0:03	8:07	8:08	0:01
식사 및 간식	1:31	1:36	0:05	1:31	1:37	0:06	1:32	1:40	0:08
개인관리	0:48	1:03	0:15	0:46	1:02	0:16	0:47	0:58	0:11
의무생활시간	9:06	8:40	-0:26	9:04	7:53	-1:11	8:12	7:45	-0:27
일	5:37	5:06	-0:31	5:31	4:23	-1:08	4:50	4:18	-0:32
가사노동	2:03	1:59	-0:04	2:00	2:04	0:04	2:00	1:57	-0:03
학습	0:04	0:01	-0:03	0:07	0:00	-0:07	0:02	0:00	-0:02
이동	1:22	1:34	0:12	1:26	1:26	0:00	1:20	1:30	0:10
여가생활시간	4:20	4:30	0:10	4:27	5:06	0:39	5:08	5:12	0:04
미디어 이용	2:15	2:20	0:05	2:18	2:45	0:27	2:36	2:36	0:00
교제활동	0:49	0:50	0:01	0:56	1:06	0:10	1:06	1:16	0:10
취미 및 그 외 여가	0:52	0:47	-0:05	0:52	0:50	-0:02	0:55	0:42	-0:13
기타	0:24	0:33	0:09	0:21	0:25	0:04	0:31	0:38	0:07

<그림 3-26> 농림어업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농림어업직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보면 필수생활시간에서 평일이 13분 증가 토요일은 25분 증가, 일요일은 19분이 증가하였다. 이중 수면시간에서 평일이 7분 감소한 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3분과 1분이 증가하였다. 99년은 평일 수면시간이 토요일보다 길었지만 2004년에는 토요일

수면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다른 직업군과 비슷한 유형을 띄게 되었다. 식사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이 각각 5분, 6분, 8분 증가하였으며 개인관리 시간도 각각 15분, 16분, 11분이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 26분, 토요일 1시간 11분 일요일 27분이 줄어 들었다. 노동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이 각각 31분, 1시간 8분, 32분이 줄었다. 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노동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대신 전체 노동시간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4분, 일요일이 3분이 줄었지만 토요일은 4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은 주 전반에 걸쳐 줄어들었는데 평일 3분, 토요일 7분, 일요일 2분이 줄어들어 학습시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늘어 평일 12분, 일요일 10분의 증가를 보였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 10분이 증가하였으며 토요일 34분, 일요일 4분이 늘어났다. 이중 미디어 이용에서 평일에 5분이 토요일에 27분이 증가하였으며, 일요일은 변화가 없었다. 교제활동은 평일 1분, 토요일 10분, 일요일 10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에서 다른 직업군과는 달리 감소하였는데 평일 5분, 토요일 2분, 일요일 13분이 줄어들었다. 기타 여가시간은 평일 9분, 토요일 4분, 일요일 7분이 증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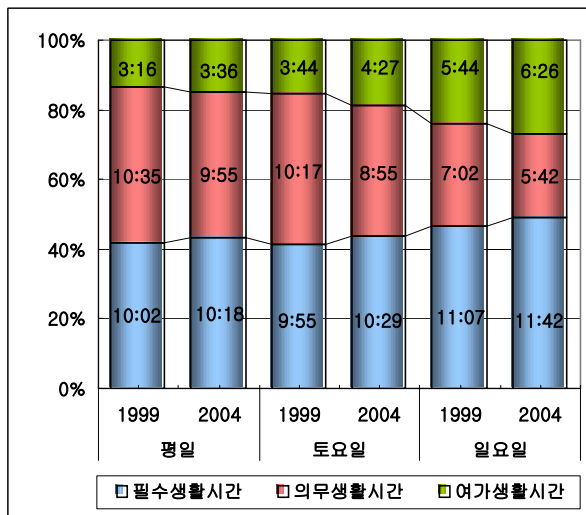
8) 기능원의 요일별 생활시간

<표 3-42> 기능원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기능원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10:02	10:18	0:16	9:55	10:29	0:34	11:07	11:42	0:35
수면	7:33	7:34	0:01	7:28	7:38	0:10	8:31	8:48	0:17
식사 및 간식	1:37	1:43	0:06	1:37	1:48	0:11	1:42	1:47	0:05
개인관리	0:51	1:01	0:10	0:50	1:03	0:13	0:54	1:06	0:12
의무생활시간	10:35	9:55	-0:40	10:17	8:55	-1:22	7:02	5:42	-1:20
일	7:48	7:10	-0:38	7:21	5:51	-1:30	3:38	2:23	-1:15
가사노동	1:03	0:47	-0:16	0:57	0:56	-0:01	1:28	1:19	-0:09
학습	0:02	0:00	-0:02	0:04	0:00	-0:04	0:00	0:00	0:00
이동	1:42	1:58	0:16	1:55	2:08	0:13	1:56	1:60	0:04
여가생활시간	3:16	3:36	0:20	3:44	4:27	0:43	5:44	6:26	0:42
미디어 이용	1:48	1:49	0:01	1:53	2:12	0:19	3:01	3:13	0:12
교제활동	0:35	0:39	0:04	0:42	0:53	0:11	1:03	1:10	0:07
취미 및 그 외 여가	0:37	0:44	0:07	0:43	0:56	0:13	0:47	1:03	0:16
기타	0:16	0:24	0:08	0:26	0:26	0:00	0:53	1:00	0:07

<그림 3-27 > 기능원의 요일별 생활시간



기능원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보면 필수생활시간이 평일 16분, 토요일 34분, 일요일 35분 증가하였다. 수면시간은 평일이 1분, 토요일은 10분, 일요일은 17분이 증가하였으며, 식사시간은 평일 6분, 토요일은 11분, 일요일은 5분이 증가하였다. 개인관리시간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는데 평

일, 토요일, 일요일이 각각 10분, 13분, 12분이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 40분, 토요일 1시간 22분, 일요일 1시간 20분이 감소하였다. 노동시간에서 가장 큰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평일 38분, 토요일 1시간 30분, 일요일 1시간 15분이 줄어들었다. 또 다른 직업군과는 다르게 가사노동이 전 주에 걸쳐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평일이 16분, 토요일이 1분, 일요일이 9분 줄어들었다. 또 학습시간도 평일 2분, 토요일 4분이 줄어들어 거의 학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동시간은 평일 16분, 토요일 13분, 일요일 4분이 늘어났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 20분, 토요일, 43분, 일요일 42분이 늘어났는데 평일 미디어 이용시간은 1분, 토요일은 19분, 일요일은 12분이 증가하였다. 교제활동에서 평일 4분, 토요일 11분, 일요일 12분이 늘어났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도 평일 7분, 토요일 13분, 일요일 16분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여가시간도 평일 8분, 일요일 7분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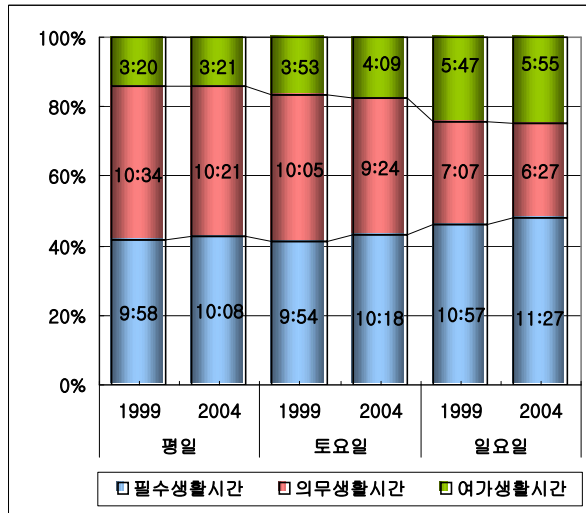
9) 장치기계조립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표 3-43> 장치기계조립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장치기계조립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9:58	10:08	0:10	9:54	10:18	0:24	10:57	11:27	0:30
수면	7:32	7:27	-0:05	7:27	7:36	0:09	8:24	8:37	0:13
식사 및 간식	1:35	1:39	0:04	1:35	1:40	0:05	1:39	1:44	0:05
개인관리	0:51	1:02	0:11	0:51	1:03	0:12	0:53	1:05	0:12
의무생활시간	10:34	10:21	-0:13	10:05	9:24	-0:41	7:07	6:27	-0:40
일	8:20	8:11	-0:09	7:34	6:54	-0:40	4:16	3:25	-0:51
가사노동	0:39	0:37	-0:02	0:43	0:48	0:05	1:02	1:12	0:10
학습	0:01	0:01	0:00	0:02	0:00	-0:02	0:01	0:00	-0:01
이동	1:34	1:32	-0:02	1:46	1:42	-0:04	1:48	1:50	0:02
여가생활시간	3:20	3:21	0:01	3:53	4:09	0:16	5:47	5:55	0:08
미디어 이용	1:45	1:40	-0:05	1:59	1:59	0:00	2:59	2:59	0:00
교제활동	0:35	0:36	0:01	0:44	0:46	0:02	1:13	1:07	-0:06
취미 및 그 외 여가	0:41	0:44	0:03	0:42	0:55	0:13	0:50	0:57	0:07
기타	0:19	0:21	0:02	0:28	0:29	0:01	0:45	0:52	0:07

<그림 3-28> 장치기계조립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장치기계조립직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보면 필수생활시간이 평일에 10분, 토요일 24분, 일요일 13분 증가하여서 가장 작은 증가폭을 나타내었다. 특히 평일 수면시간이 5분이 줄어들어 다른 직업군과는 다른 시간변화를 보였다. 식사시간은 평일 4분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5분씩 증가하였다. 필

수생활시간에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것은 개인관리인데 평일 11분,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12분씩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 13분, 토요일 41분 일요일 40분이 줄어 가장 작은 감소폭을 보였다. 이것은 노동시간의 감소폭이 가장 작은데 기인하는데 평일 노동시간이 9분, 토요일이 40분, 일요일이 51분의 감소를 보였다. 또 가사노동에서는 평일 2분이 줄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5분과 10분이 늘어났다. 학습시간은 평일은 1분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토요일은 2분이 일요일은 1분이 감소해 거의 학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이할만한 점은 이동시간인데 다른 직업군에서 볼 수 없는 평일(-2분)과 토요일(-4분)의 이동시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 1분, 토요일 16분, 일요일 8분이 증가하여서 소폭의 증가가 있었다. 미디어 이용은 평일에 5분만 감소했을 뿐 토요일과 일요일은 변화가 없었다. 또 교제활동에서 평일과 토요일은 각각 1분과 2분 증가했지만 일요일은 6분이나 감소하였다. 하지만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평일 3분, 토요일 13분, 일요일 7분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여가시간도 평일 2분, 토요일 1분 일요일 7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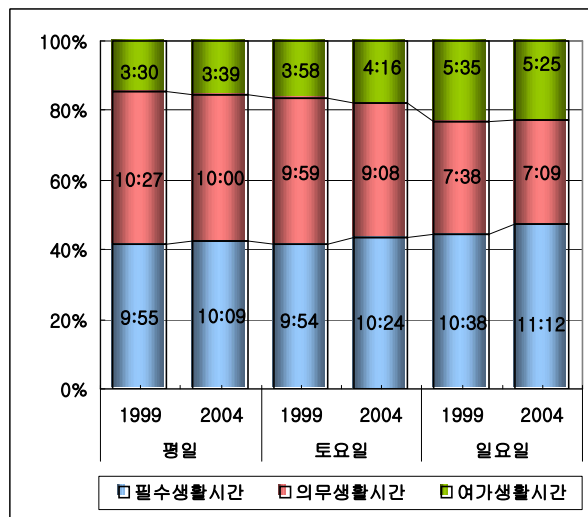
10) 단순노무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변화

<표 3-44> 단순노무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단순노무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1999	2004	증감
필수생활시간	9:55	10:09	0:14	9:54	10:24	0:30	10:38	11:12	0:34
수면	7:30	7:26	-0:04	7:27	7:37	0:10	8:10	8:26	0:16
식사 및 간식	1:33	1:37	0:04	1:31	1:39	0:08	1:35	1:41	0:06
개인관리	0:51	1:05	0:14	0:56	1:08	0:12	0:53	1:06	0:13
의무생활시간	10:27	10:00	-0:27	9:59	9:08	-0:51	7:38	7:09	-0:29
일	7:00	6:39	-0:21	6:21	5:23	-0:58	3:42	3:14	-0:28
가사노동	1:49	1:40	-0:09	1:56	2:02	0:06	2:18	2:19	0:01
학습	0:07	0:04	-0:03	0:04	0:02	-0:02	0:02	0:02	0:00
이동	1:31	1:37	0:06	1:38	1:41	0:03	1:36	1:34	-0:02
여가생활시간	3:30	3:39	0:09	3:58	4:16	0:18	5:35	5:25	-0:10
미디어 이용	1:54	1:53	-0:01	2:07	2:12	0:05	2:53	2:48	-0:05
교제활동	0:39	0:39	0:00	0:46	0:50	0:04	1:11	0:54	-0:17
취미 및 그 외 여가	0:36	0:41	0:05	0:39	0:45	0:06	0:45	0:46	0:01
기타	0:21	0:26	0:05	0:26	0:29	0:03	0:46	0:57	0:11

<그림 3-29> 단순노무직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순노무직의 요일별 생활시간변화를 보면 필수생활시간은 평일 14분이 토요일은 30분이 일요일은 34분이 증가하였다. 이중 수면시간은 평일 4분이 줄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10분과 16분이 늘었다. 식사시간은 평일 4분, 토요일 8분, 일요일 6분이 늘어났다. 또 개인관리는 평일 14분,

토요일 12분, 일요일이 13분 늘어났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 27분이 토요일 51분, 일요일 29분이 각각 줄어들

었다. 이중 노동시간을 보면 평일에 21분, 토요일 58분, 일요일 28분이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단순노무직의 가사노동은 평일 9분이 줄어들었지만 토요일은 6분, 일요일은 1분이 늘어났다. 학습시간은 다른 직업군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평일 3분, 토요일 2분이 감소하였으며 일요일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에서 평일과 토요일은 각각 6분과 3분이 증가하였지만 일요일의 이동시간은 2분이 줄어 들었다.

여가생활시간은 평일 9분, 토요일 18분이 늘었지만 일요일은 오히려 10분이 줄어들었다. 미디어 이용에서 평일과 일요일은 각각 9분과 5분이 줄어들었으며 토요일만 5분이 늘어났다. 교제활동은 토요일이 4분 증가하였으며 평일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일요일의 교제활동은 무려 17분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평일 5분, 토요일 6분, 일요일 1분이 늘어났다. 또 기타 여가시간은 평일 5분, 토요일 3분, 일요일 11분이 늘어났다.

마) 직업별 주요행동별 생활시간 변화

<표 3-45> 필수생활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필수생활시간		수면		식사		개인관리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경영관리자	10:13	10:25	7:31	7:32	1:47	1:50	0:55	1:04
전문가	9:55	10:12	7:19	7:26	1:38	1:40	0:57	1:06
기술직	10:05	10:24	7:35	7:38	1:36	1:40	0:54	1:06
사무직	10:05	10:28	7:30	7:37	1:35	1:40	1:01	1:11
서비스직	9:49	10:15	7:26	7:34	1:25	1:31	0:57	1:10
판매직	9:58	10:25	7:29	7:38	1:33	1:40	0:56	1:08
농림어업	10:20	10:36	8:01	7:57	1:31	1:37	0:48	1:02
기능원	10:10	10:31	7:41	7:45	1:38	1:45	0:52	1:01
장치기계	10:06	10:21	7:39	7:38	1:35	1:40	0:52	1:02
단순노무	10:01	10:20	7:35	7:36	1:33	1:38	0:53	1:06

직업별 주요행동을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이 가장 긴 직업은 농림어업직으로 나타났다 이는 99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없다. 필수생활

시간이 가장 작은 직업군은 전문가인데 하루에 10시간 12분만을 필수 생활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수면시간에서 기능원은 99년에 비해 수면시간이 4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시간을 수면에 할애하고 있다. 전문가집단이 가장 작은 수면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99년과 같은 분포이다. 식사시간은 경영관리자들이 가장 긴 1시간 50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직이 1시간 31분으로 가장 적은 식사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노동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일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		농림어업 무급가족종사일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경영관리자	6:15	5:46	6:07	5:41	0:01	0:01	0:02	0:00
전문가	6:29	6:03	6:25	6:00	0:03	0:02	0:00	0:00
기술직	6:09	5:23	6:03	5:18	0:04	0:03	0:01	0:00
사무직	6:28	5:50	6:15	5:41	0:11	0:08	0:01	0:00
서비스직	7:09	6:13	6:15	5:28	0:47	0:38	0:01	0:01
판매직	6:41	5:43	5:35	5:00	0:58	0:35	0:01	0:02
농림어업직	5:30	4:53	3:22	3:12	0:03	0:02	1:57	1:30
기능원	7:09	6:18	6:48	6:06	0:17	0:08	0:02	0:01
장치기계조립직	7:39	7:19	7:28	7:12	0:07	0:04	0:02	0:01
단순노무직	6:26	5:59	6:07	5:44	0:07	0:07	0:06	0:03

직업별 노동관련 주요행동 생활시간을 보면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직업은 장치기계조립직으로 99년에 비해 20분이 줄어들었지만 7시간 19분을 노동에 사용하고 있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직업은 경영관리직으로서 5시간 46분만을 노동에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 고용된 일 및 자영업의 시간이 가장 적은 직업은 농림어업직으로 3시간 12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치기계조립직은 7시간 12분으로 거의 모든 노동시간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일에서는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많은 hrs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림어업과 관련한 무급가족종사일에는 농림어업직이 1시간 30분을 사용해 다른 직업군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 3-47> 가사노동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가사노동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장보기		가족 보살피기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경영관리자	0:29	0:29	0:05	0:05	0:01	0:01	0:05	0:05	0:05	0:03	0:04	0:05	0:07	0:09
전문가	1:02	1:12	0:20	0:21	0:05	0:06	0:11	0:11	0:03	0:02	0:07	0:07	0:16	0:24
기술직	0:54	1:03	0:15	0:18	0:04	0:04	0:10	0:11	0:03	0:02	0:06	0:07	0:15	0:20
사무직	1:07	1:14	0:23	0:23	0:07	0:07	0:11	0:12	0:02	0:02	0:07	0:08	0:16	0:21
서비스직	1:56	1:50	0:50	0:48	0:15	0:13	0:22	0:21	0:02	0:03	0:08	0:08	0:18	0:16
판매직	1:46	1:46	0:46	0:44	0:11	0:11	0:18	0:18	0:03	0:03	0:07	0:08	0:20	0:20
농림어업	2:02	2:00	1:00	1:04	0:14	0:12	0:23	0:21	0:09	0:06	0:04	0:05	0:11	0:11
기능원	1:06	0:53	0:26	0:20	0:06	0:04	0:11	0:09	0:03	0:03	0:05	0:05	0:14	0:11
장치기계	0:43	0:44	0:14	0:13	0:03	0:04	0:07	0:07	0:04	0:04	0:04	0:05	0:10	0:10
단순노무	1:55	1:48	0:52	0:49	0:13	0:12	0:19	0:19	0:04	0:04	0:07	0:08	0:18	0:15

가사노동에 기능원이 가장 많은 2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99년 기능원이 가사노동에 투입하던 2시간 2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다. 경영관리자는 가사노동에 29분을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44분만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준비시간도 기능원이 1시간 4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영관리자는 5분을 단순노무직은 13분, 기술직은 18분을 그리고 장치기계조립직은 20분만을 음식준비에 사용하고 있다. 의류관리는 판매직이 사용하는 13분이 가장 긴 시간이며 기능원 12분, 농림어업직 11분이 그 뒤를 이었다. 경영관리자는 단지 1분만을 의류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및 정리는 판매직과 기능원이 21분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관리자와 단순노무직은 각각 5분과 7분만을 청소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관리에는 기능원이 6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보기에는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이 가장 많은 8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영관리직, 기능원, 장치기계조립직, 단순노무직이 5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보살피기에서 전문가가 가

장 많은 24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술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이 20분대로 가족보살피기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으며, 경영관리, 단순노무, 장치기계조립, 기능원 등은 각각 9분, 10분, 11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8> 이동관련 주요행동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이동		출퇴근		그 외 이동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경영관리자	2:27	2:35	1:39	1:46	0:47	0:48
전문가	2:01	2:04	1:13	1:16	0:49	0:47
기술직	2:18	2:18	1:30	1:28	0:49	0:51
사무직	2:05	2:09	1:20	1:22	0:45	0:46
서비스직	1:22	1:30	0:49	0:51	0:34	0:39
판매직	1:42	1:52	1:03	1:11	0:38	0:41
농림어업	1:22	1:33	0:44	0:46	0:39	0:47
기능원	1:46	2:00	1:12	1:21	0:34	0:40
장치기계	1:37	1:36	1:04	1:01	0:33	0:35
단순노무	1:32	1:37	0:57	0:59	0:35	0:38

이동시간은 경영관리자가 2시간 35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판매직이 1시간 30분으로 가장 작았다. 출퇴근 시간도 전체 이동시간과 마찬가지로 경영관리자가 1시간 46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술직, 서비스직, 장치기계조립직 등이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출퇴근 이동에 사용한 있다. 그 외 이동은 전체 이동에서 출퇴근을 뺀 것인데, 기술직이 51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영관리, 전문가, 서비스직, 기능원 등이 하루에 40분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소결

직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농림어업직이며 기능원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전문가와 서비스직이 가장 적은 필수생활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거의 수면시간의 차이로 보인다. 식사시간은 직업별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

만 경영관리자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조금 길며 농림어업직과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이 조금 작게 나타났다. 의무생활시간은 서비스직과 장치기계조립직 종사자들이 길며 이는 노동시간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긴 것에 기인한다. 경영관리자는 가사노동시간이 짧으며 농림어업직과 단순노무직 그리고 서비스직 판매직 노동자들이 가사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영관리자와 기술직 그리고 기능원들이 이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에서는 농림어업직과 경영관리직 그리고 기술직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길게 나타났는데 농림어업직과 경영관리직은 미디어 이용시간과 교제활동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길며 기술직은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의 증가는 의무생활시간 감소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비율과 배분은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에서 농림어업직이 가장 길게 나타났으나 농림어업직의 경우 노동시간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작고 가사노동의 비율이 높으며 미디어 등의 소극적 여가시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경영관리자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식사와 이동시간이 길며 가사노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기계조립직 종사자들은 순수노동시간이 가장 길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1시간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노동시간이 가장 긴 장치기계조립직 종사자들은 8시간 11분을 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직이 가장 작은 6시간 15분을 사용해 거의 2시간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거의 모든 직종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였지만 절대량의 우위는 변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감소 중에서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노동시간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99년에 비해 토요일의 의무생활시간이 줄어들고 필수, 여가생활시간이 늘어났다. 하지만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장치기계조립직과 판매직은 소폭 감소했다. 일요일의 경우 의무생활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도 서비스직과 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은 여전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이에 비해 경영관리직, 전문가, 기술직, 사무직 종사자의 일요일은 휴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

5. 산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라 그 비중이 커지게 되며 1보다 낮은 산업은 그 비중이 작아진다(페티-클라크의 법칙).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자연에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1차산업이 그 주된 것이 되며, 수요의 측면에서는 의식주와 같은 필수품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점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잉여가 축적될수록 “우회적 생산(roundabout production)”으로 경제의 중심이 옮겨가고 2, 3차산업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¹⁵⁾

산업 구조와 경제 성장이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산업 추세는 특히 중요한 경제, 사회학적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각 국가들은 경제 발전의 단계에서 필히 노동력 구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직업 구조와 산업 구조의 두 가지 면에 현저하게 반영된다.

또한, 직업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신분이나 명예 혹은 사회적 계급 같은 측면들을 직접 그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력의 직업구조와 산업구조 사이에서 존재하는 밀접한 상호 관련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 변화의 연구 측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더해준다(싱켈만, 1993).

특히, 한국에서 산업 발전과정 속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은 주목해볼만한 것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한국은 가장 늦게 산업화 물결에 합류한 국가 중 하나였고,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쳐 정작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다.

15) 현대에 있어서는 4차산업 즉,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 선진국의 경우 2차산업 空洞化(de-industrialization)와 함께 발전 - 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1차산업에서도 고도의 시설을 도입한 공업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가공에 의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활발해져 이를 1차산업과 2차산업의 중간적인 1.5차산업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1차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도가 담긴 호칭이기도 하다).

사실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노동시장 변화는 국가 주도의 근대화 계획에 의해 진행된 산업화 과정을 따라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산업 구조의 변화 양상 또한 흥미로운 관찰점이 된다.

또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산업 구조에 따른 각 산업별 취업자들의 생활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극명하게 부각되는데, 산업 구조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생활 변화와 개인의 생활시간 활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산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활용을 통하여 산업 구조 변화를 관찰하며 이를 통해 국민 경제에서 산업별 구성의 진행을 유추하여 추후 산업정책의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 2004년 산업 분류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각 산업 분류는 통계청(www.nso.go.kr)의 통계표준분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¹⁶⁾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분석한 산업분류는 다음과 같다. 농업 및 임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사업서비스(통계청 분석시 부동산 및 임대업과 사업서비스는 같은 항목으로 묶여 처리되었다), 교육서비스업, 그 외 기타(앞의 7분류를 제외한 나머지 총 항목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앞의 8가지 산업분류 취업자들의 생활시간은 필수 생활시간의 수면과 노동, 의무생활시간의 노동과 이동, 여가생활시간의 미디어이용에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과 미디어 이용시간의 정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를 통해 각 분류의 노동 형태와 환경, 여가의 소모와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16) **한국표준산업분류** :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것. 2000년 3월 1일자 시행되었으며, UN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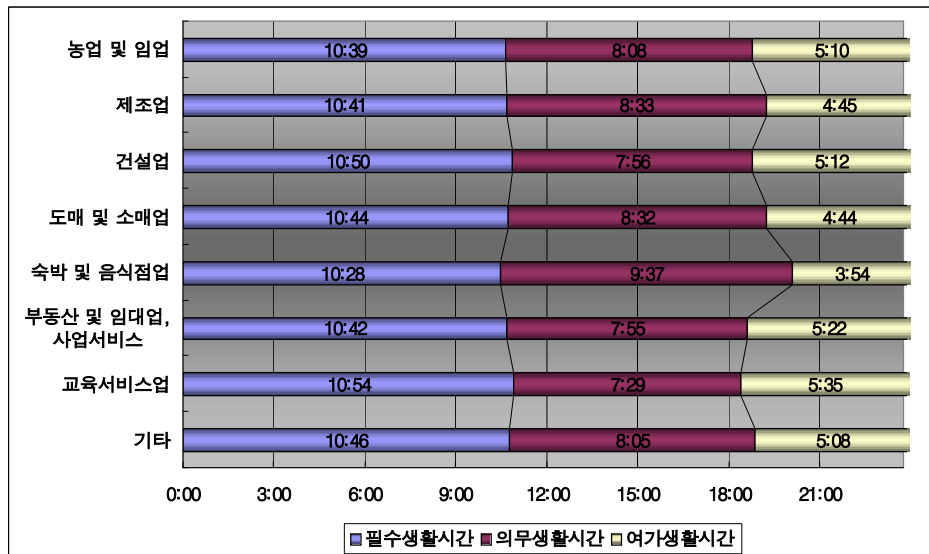
A. 농업 및 임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 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표 3-50>산업 분류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수면	식사	개인관리	일	가사	학습	이동	미디어	교제	취미 그 외 여가	기타			
농업및임업	10:39	8:01	1:37	1:01	8:08	4:36	2:02	0:00	1:29	5:10	2:33	1:03	0:46	0:48
제조업	10:41	7:55	1:41	1:04	8:33	5:12	1:27	0:00	1:53	4:45	2:17	0:50	0:48	0:49
건설업	10:50	7:59	1:47	1:03	7:56	4:56	0:45	0:01	2:13	5:12	2:31	0:54	1:00	0:46
도매및소매업	10:44	7:55	1:39	1:09	8:32	5:00	1:35	0:01	1:54	4:44	2:07	0:50	0:50	0:56
숙박및음식점업	10:28	7:45	1:30	1:12	9:37	6:17	1:45	0:06	1:29	3:54	1:45	0:45	0:44	0:39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	10:42	7:53	1:43	1:05	7:55	4:34	1:16	0:01	2:02	5:22	2:30	0:53	0:52	1:06
교육서비스업	10:54	8:06	1:36	1:12	7:29	3:21	2:02	0:11	1:55	5:35	2:19	0:59	0:55	1:21
기타	10:46	7:55	1:42	1:08	8:05	4:41	1:29	0:02	1:52	5:08	2:22	0:53	0:48	1:03

<그림 3-30> 산업 분류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필수생활시간의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특히 수면시간(8시간6분)이 타 산업 취업자에 비하여

많았다.

의무생활시간 중 일하는 시간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길었고(6시간17분), 교육서비스업은 가장 짧은 시간을 일 하였다(3시간21분). 또한 교육서비스업은 그 학습시간이 가장 길어(11분) 타 산업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의무생활시간에서 가사에 사용한 시간이 가장 작은 대신(45분), 이동에 사용한 시간은 가장 많아서(2시간13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여가생활시간에선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며(5시간 35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이와 대조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을 사용 하였다(3시간54분).

특히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제조,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의 노동시간이 길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의 취업자 노동시간은 특히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평균 5시간 내외).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시간이 매우 긴 이유는(6시간17분),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급속히 증가했던 당 산업 종사자 수¹⁷⁾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당 산업체의 수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건설업에서 이동시간의 강세를(2시간12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산업 성격상 잦은 이동이 호황을 말해주는 것이므로(이동성의 극대), 건축 및 건설 사업이 2004년 상당히 활발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주목할만한 변화는 그 이전까지 감소하던 당 산업 취업자의 수가 2002년을 기점으로 5.5%의 급속한 증가를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두드러진 성장세가 보였는데, 이 중 교육서비스업은 특이하게도 노동시간보다는 학습시간(0:11)이 타 산업보다 높았고 이는 산업 특성상 학습이 노동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결론적으로 필수생활시간에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의 수면시간이 가

17) 당해연도 사이 매년 증가율이 7.1%, 6.5%, 4.4%에 달했다. 출처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장 많았으며(8시간6분), 노동시간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3시간21분). 또한 개인관리시간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더불어 가장 길었다(1시간 12분). 물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들이 개인위생에 그 시간을 더 투자하는 반면, 교육서비스업 관리자들은 외모관리에 더 투자한다는 등의 세부적 차이는 존재했다.

농업 및 임업은 이동시간이 가장 적었는데(1시간29분), 그 이동의 대부분이 출퇴근임을 감안하면 농업 및 임업 취업자의 주거지와 노동지는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작게 받는 범위(근접성)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가생활 시간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이 바로 미디어 이용시간의 양상과 변화이다. 즉, 어느 산업 혹은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여가생활 시간은 대부분 미디어이용에 투자되고 있었다(평균 46%, 범위 41~49%). 이는 그 여가생활시간이 결코 적지 않은 것임에도 대부분 별다른 효용성 없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나. 산업 분류별·성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1) 농업 및 임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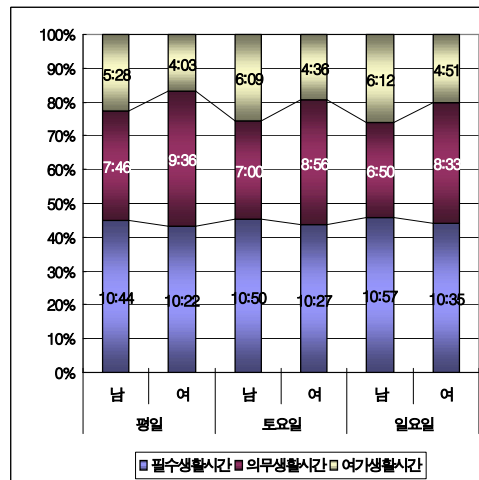
농업 및 임업 취업자 요일별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의무생활시간에서 노동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평균 4~5시간 정도로서 매우 적다. 매년 농업 및 임업 취업자가 소폭이나마 증가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이 부문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을 통해 이러한 노동시간 부족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미디어와 수면도 한 몫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미디어이용시간을 가지며 수면시간도 상당히 높은 것(평균 8시간1분)이 그 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여가생활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1시간 이상 더 사용하였음에도 이는 결국 미디어 이용 시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가생활시간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표 3-51> 농업 및 임업 취업자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농업및임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필수생활시간	10:44	10:22	10:34	10:50	10:27	10:39	10:57	10:35	10:46
수면	8:02	7:47	7:55	8:06	7:53	7:60	8:14	8:04	8:09
식사	1:40	1:32	1:36	1:40	1:34	1:37	1:43	1:35	1:39
개인관리	1:02	1:03	1:03	1:04	1:00	1:02	1:00	0:56	0:58
의무생활시간	7:46	9:36	8:43	7:00	8:56	7:58	6:50	8:33	7:43
일	5:18	4:56	5:07	4:42	4:12	4:27	4:34	3:55	4:14
가사	0:41	3:17	2:01	0:40	3:30	2:05	0:36	3:20	2:00
학습	0:01	0:02	0:02	0:00	0:00	0:00	0:00	0:01	0:00
이동	1:46	1:21	1:33	1:38	1:14	1:26	1:40	1:17	1:29
여가생활시간	5:28	4:03	4:45	6:09	4:36	5:22	6:12	4:51	5:31
미디어	2:47	1:53	2:19	3:14	2:13	2:43	3:04	2:11	2:37
교제활동	0:54	0:45	0:49	1:08	1:02	1:05	1:25	1:07	1:15
취미및그외여가활동	0:55	0:39	0:47	1:03	0:39	0:51	0:50	0:34	0:42
기타	0:52	0:46	0:49	0:44	0:42	0:43	0:53	0:59	0:56

< 그림 3-31 농업 및 임업 생활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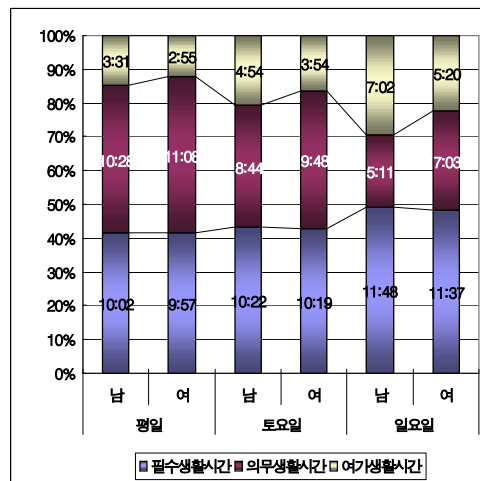
2) 제조업

<표 3-52> 제조업 취업자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제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필수생활시간	10:02	9:57	9:59	10:22	10:19	10:20	11:48	11:37	11:42
수면	7:22	7:11	7:16	7:36	7:32	7:34	8:57	8:49	8:53
식사	1:41	1:35	1:38	1:44	1:39	1:41	1:45	1:40	1:42
개인관리	0:59	1:11	1:05	1:02	1:08	1:05	1:06	1:08	1:07
의무생활시간	10:28	11:08	10:48	8:44	9:48	9:16	5:11	7:03	6:07
일	8:07	7:16	7:41	5:57	5:17	5:37	2:17	1:47	2:02
가사	0:19	2:19	1:19	0:36	2:51	1:43	0:55	3:46	2:20
학습	0:01	0:02	0:01	0:00	0:00	0:00	0:00	0:00	0:00
이동	2:01	1:31	1:46	2:11	1:40	1:55	1:59	1:30	1:44
여가생활시간	3:31	2:55	3:13	4:54	3:54	4:24	7:02	5:20	6:11
미디어이용	1:37	1:20	1:28	2:21	1:47	2:04	3:28	2:41	3:04
교제활동	0:37	0:37	0:37	0:50	0:51	0:50	1:10	0:56	1:03
취미및그외여가활동	0:46	0:21	0:33	1:02	0:31	0:46	1:07	0:34	0:50
기타	0:31	0:37	0:34	0:41	0:45	0:43	1:17	1:09	1:13

< 그림 3-32 제조업 생활시간 >



제조업 취업자의 각 요일별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 중 수면이 일요일의 경우 남·녀 모두 1시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일요일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이런 노동시간 감소는 또한 바로 여가생활시간 중 미디어 이용으로 이어졌다(남·녀 모두 1시간 이상 크게 증가,)

또한 의무생활시간 중 노동시간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평일 7시간41분, 토요일 5시간37분, 일요일 2시간2분). 결국 이런 노동시간의 감소는(토요일 2시간4분 감소, 일요일 5시간 39분 감소) 미디어이용시간의 증가로 이어지는 양상을 통해 여가

생활이 제대로 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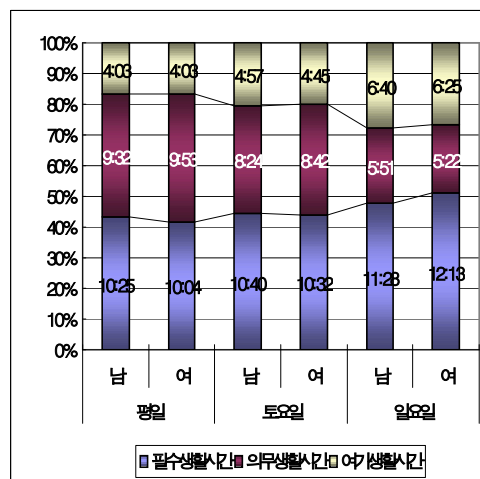
3) 건설업

<표 3-53> 건설업 취업자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건설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필수생활시간	10:25	10:04	10:14	10:40	10:32	10:36	11:28	12:13	11:50
수면	7:37	7:17	7:27	7:48	7:38	7:43	8:34	9:14	8:54
식사	1:48	1:34	1:41	1:49	1:39	1:44	1:49	1:41	1:45
개인관리	1:00	1:13	1:06	1:03	1:15	1:09	1:05	1:18	1:11
의무생활시간	9:32	9:53	9:42	8:24	8:42	8:33	5:51	5:22	5:36
일	6:57	5:44	6:20	5:25	4:02	4:43	2:49	1:09	1:59
가사	0:22	2:09	1:15	0:33	2:33	1:33	0:51	2:49	1:50
학습	0:00	0:00	0:00	0:00	0:06	0:03	0:02	0:03	0:02
이동	2:13	2:00	2:06	2:26	2:01	2:13	2:09	1:21	1:45
여가생활시간	4:03	4:03	4:03	4:57	4:45	4:51	6:40	6:25	6:32
미디어이용	2:01	1:50	1:55	2:22	2:04	2:13	3:13	3:25	3:19
교제활동	0:40	0:58	0:49	0:51	1:00	0:55	1:08	1:11	1:09
취미및그외여가활동	0:54	0:32	0:43	1:02	0:40	0:51	1:11	0:50	1:00
기타	0:28	0:43	0:35	0:42	1:01	0:51	1:08	0:59	1:03

<그림 3-33 건설업 생활시간>



건설업 취업자의 각 요일별 생활시간에서도 필수생활시간은 여타 직종 취업자들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의무생활시간 중에서 이동시간이 남·여 모두 2시간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건설업의 직종 성격상 이동성 및 현장성과 연관된 것으로 즉, 건설업의 경우 이동 자체가 그 노동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는 남·여 노동시간의 차이가 곧 가사시간으로 환

원되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 노동시간은 전 요일에 걸쳐 남자가 높았으며(평일 1시간13분, 토요일 1시간23분, 일요일 1시간30분), 여가생활시간은 남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역시 여가생활시간에선 미디어의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4) 도매 및 소매업

<표 3-54>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의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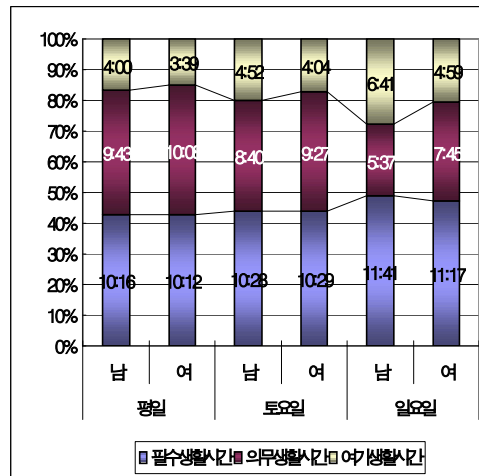
(단위=시간 : 분)

도매및소매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필수생활시간	10:16	10:12	10:14	10:28	10:29	10:28	11:41	11:17	11:29
수면	7:35	7:22	7:28	7:42	7:36	7:39	8:51	8:25	8:38
식사	1:41	1:36	1:38	1:44	1:36	1:40	1:43	1:37	1:40
개인관리	1:00	1:14	1:07	1:02	1:17	1:09	1:07	1:15	1:11
의무생활시간	9:43	10:08	9:55	8:40	9:27	9:03	5:37	7:45	6:41
일	7:03	5:43	6:23	5:58	4:57	5:27	2:54	3:14	3:04
가사	0:24	2:41	1:32	0:24	2:47	1:35	0:48	2:56	1:52
학습	0:03	0:03	0:03	0:01	0:01	0:01	0:00	0:01	0:00
이동	2:13	1:41	1:57	2:17	1:42	1:59	1:55	1:34	1:44
여가생활시간	4:00	3:39	3:49	4:52	4:04	4:28	6:41	4:59	5:50
미디어이용	1:56	1:39	1:47	2:06	1:46	1:56	3:03	2:08	2:35
교제활동	0:37	0:46	0:41	0:52	0:54	0:53	1:01	0:53	0:57
취미및그외여가활동	0:51	0:31	0:41	1:03	0:38	0:50	1:21	0:34	0:57
기타	0:36	0:43	0:39	0:51	0:46	0:48	1:16	1:24	1:20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의 각 요일별 생활시간에선 큰 변화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의무생활에서 일의 경우 평일, 토요일은 남자가 평균 1시간 이상씩 더 일하지만 일요일의 경우 여자가 20분 더 일한다는 것이 특이한 경우였다. 그러나, 일요일 노동의 경우 그리 큰 변수가 되지 못하므로 도매 및 제조업 분야에선 남자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많다고 말할 수 있다(일요일 남자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노동시간 감소에서 대체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동시간의 경우 일요일 감소하는 양상을(평균 15분 내외) 보임으로서 이동의 대부분이 일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역시 여가생활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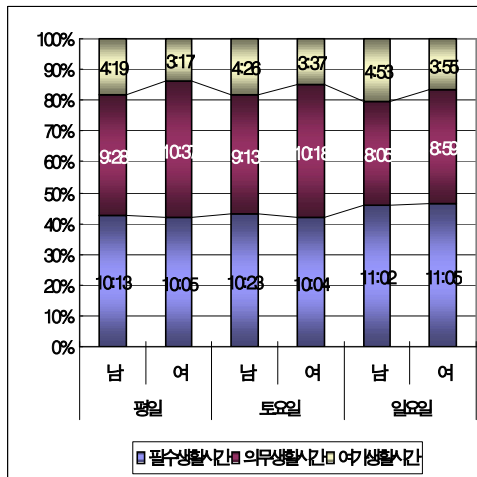
미디어 이용에 많이 사용됨을(평일 1시간47분, 토요일 1시간56분), 일요일(2시간35분) 알 수 있다.

<그림 3-34 도매 및 소매업 생활시간>



5)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림 3-35 숙박 및 음식점업 생활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요일별 생활시간에선 노동시간 비중이 컸다(평일 6시간54분).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물론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었으나 그림에도 여전히 노동시간이 많으며 또, 일요일의 노동 감소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평일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산업이 바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의무생활시간에선 평, 토,

일요일 없이 여자의 가사노동 시간이 더 많았다(2시간 내외).

그리고, 이러한 남·녀간 시간차이는 남자가 노동과 취미 및 그 외 여

가에 각각 시간을 더 투자하는 형태로 대체되었다.(노동 1시간 내외,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30분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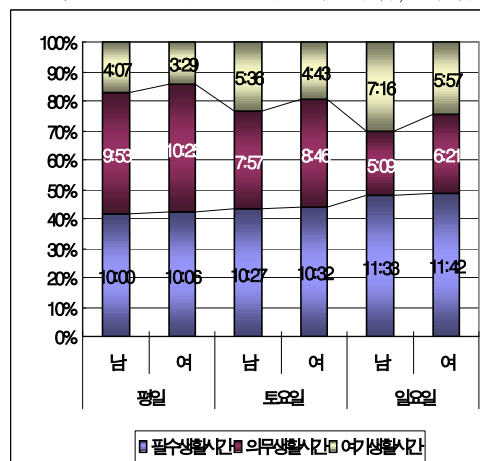
<표 3-55>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숙박및음식점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필수생활시간	10:13	10:05	10:09	10:23	10:04	10:13	11:02	11:05	11:03
수면	7:36	7:24	7:30	7:47	7:22	7:34	8:19	8:18	8:18
식사	1:33	1:25	1:29	1:31	1:28	1:29	1:37	1:33	1:35
개인관리	1:04	1:16	1:10	1:05	1:14	1:09	1:06	1:14	1:10
의무생활시간	9:28	10:37	10:02	9:13	10:18	9:45	8:05	8:59	8:32
일	7:21	6:41	7:01	7:01	6:18	6:39	6:08	5:05	5:36
가사	0:24	2:17	1:20	0:33	2:26	1:29	0:31	2:22	1:26
학습	0:09	0:14	0:11	0:06	0:06	0:06	0:02	0:01	0:01
이동	1:34	1:25	1:29	1:33	1:28	1:30	1:24	1:31	1:27
여가생활시간	4:19	3:17	3:48	4:26	3:37	4:01	4:53	3:55	4:24
미디어이용	1:52	1:30	1:41	1:50	1:40	1:45	2:15	1:49	2:02
교제활동	0:43	0:41	0:42	0:48	0:49	0:48	0:44	0:47	0:45
취미및그외여가활동	1:09	0:32	0:50	1:09	0:31	0:50	1:10	0:34	0:52
기타	0:35	0:34	0:34	0:38	0:37	0:37	0:44	0:45	0:44

6)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

<그림 3-36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 생활시간>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 취업자의 경우 필수생활시간 및 의무생활시간에서 타 취업자와 비교해 특기할만한 것은 이동 시간의 상대적인 높은 비중이다.

즉, 부동산 및 임대업이나 각종 사업서비스의 산업별 특성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평일 2시간8분, 토요일 2시간 7

분, 일요일 1시간48분).

그 외에는 별반 큰 차이가 없었으나, 노동시간 자체는 매우 적은 특징을 보였다(평균 4시간34분).

이를 통해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의 노동과 이동 사이의 연관성이 유추되며, 또한 이는 건설업과의 공통분모이기도 하다.

<표 3-56>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 취업자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필수생활시간	10:00	10:06	10:03	10:27	10:32	10:29	11:33	11:42	11:37
수면	7:15	7:10	7:12	7:39	7:43	7:41	8:48	8:40	8:44
식사	1:45	1:41	1:43	1:47	1:34	1:40	1:45	1:43	1:44
개인관리	1:00	1:15	1:07	1:01	1:15	1:08	1:00	1:19	1:09
의무생활시간	9:53	10:25	10:09	7:57	8:46	8:21	5:09	6:21	5:45
일	7:14	6:19	6:46	5:02	4:12	4:37	2:09	1:34	1:51
가사	0:23	1:57	1:10	0:47	2:27	1:37	1:07	3:04	2:05
학습	0:02	0:06	0:04	0:01	0:00	0:00	0:00	0:00	0:00
이동	2:14	2:03	2:08	2:07	2:07	2:07	1:53	1:43	1:48
여가생활시간	4:07	3:29	3:48	5:36	4:43	5:09	7:16	5:57	6:36
미디어이용	1:48	1:38	1:43	2:40	2:06	2:23	3:26	2:52	3:09
교제활동	0:40	0:43	0:41	0:53	1:04	0:58	1:08	0:52	1:00
취미및그외여가활동	0:54	0:33	0:43	0:58	0:38	0:48	1:05	0:44	0:54
기타	0:45	0:35	0:40	1:05	0:55	1:00	1:37	1:29	1:33

7)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취업자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가장 적은 특징을 보였다(평일 6시간5분, 토요일 2시간58분, 일요일 1시간 1분). 그러나, 학습 시간은 여타 어느 산업보다 높았는데 산업 특성상 교육과 관련된 학습임을 유추할 수 있다(평일 24분, 토요일 5분, 일요일 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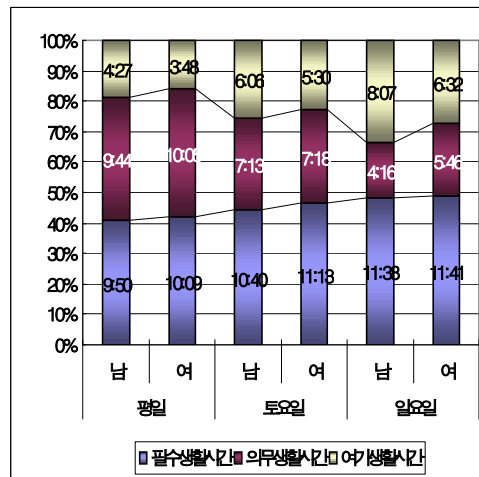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서비스업의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교육서비스업에 지속적으로 몰리는 취업자들을 생각할 때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이다.

<표 3-57> 교육서비스업 취업자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교육서비스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필수생활시간	9:50	10:09	9:59	10:40	10:19	11:01	11:38	11:41	11:39
수면	7:12	7:24	7:18	7:52	8:15	12:01	8:48	8:52	8:50
식사	1:38	1:31	1:34	1:42	1:38	13:01	1:43	1:36	1:39
개인관리	1:00	1:14	1:07	1:06	1:20	14:01	1:07	1:13	1:10
의무생활시간	9:44	10:05	9:54	7:13	7:18	16:01	4:16	5:46	5:01
일	7:03	5:37	6:20	4:05	2:26	17:01	1:16	0:52	1:04
가사	0:28	2:03	1:15	0:52	2:48	18:01	1:09	3:06	2:07
학습	0:19	0:27	0:23	0:06	0:04	19:01	0:02	0:05	0:03
이동	1:54	1:58	1:56	2:10	2:00	20:01	1:49	1:43	1:46
여가생활시간	4:27	3:48	4:07	6:06	5:30	22:01	8:07	6:32	7:19
미디어이용	1:50	1:22	1:36	2:54	2:10	23:01	3:35	2:47	3:11
교제활동	0:43	0:48	0:45	0:56	1:09	0:01	1:04	1:06	1:05
취미및그외여가활동	0:46	0:39	0:42	1:09	0:54	1:01	1:28	0:53	1:10
기타	1:08	0:59	1:03	1:07	1:17	2:01	2:00	1:46	1:53

<그림 3-37 교육서비스업 생활시간>



8)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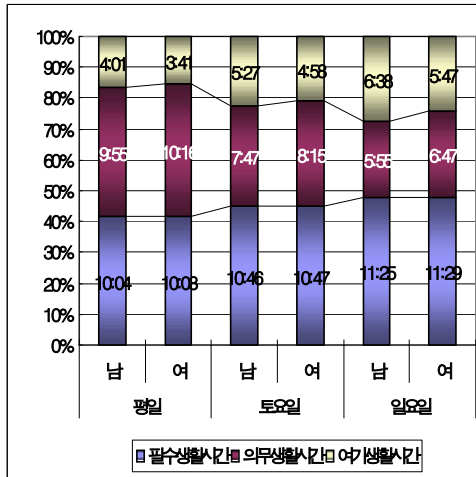
새로운 분류법에 의해 기타 산업으로 묶여진 그 외의 산업들은 사실 별반 특이한 점이 보이질 않는다.

<표 3-58> 기타 취업자의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기타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필수생활시간	10:04	10:03	10:03	10:46	10:47	10:46	11:25	11:29	11:27
수면	7:21	7:16	7:18	7:56	7:54	7:55	8:33	8:30	8:31
식사	1:42	1:33	1:37	1:44	1:39	1:41	1:47	1:41	1:44
개인관리	1:01	1:14	1:07	1:06	1:14	1:10	1:05	1:18	1:11
의무생활시간	9:55	10:16	10:05	7:47	8:15	8:01	5:55	6:47	6:21
일	7:31	6:07	6:49	5:05	3:36	4:20	3:01	2:02	2:31
가사	0:25	2:11	1:18	0:44	2:50	1:47	0:58	3:02	2:00
학습	0:05	0:05	0:05	0:01	0:02	0:01	0:00	0:02	0:01
이동	1:54	1:53	1:53	1:57	1:47	1:52	1:56	1:41	1:48
여가생활시간	4:01	3:41	3:51	5:27	4:58	5:12	6:38	5:47	6:12
미디어이용	1:46	1:34	1:40	2:30	2:19	2:24	3:12	2:40	2:56
교제활동	0:42	0:47	0:44	0:52	1:03	0:57	1:03	0:57	1:00
취미및그외여가활동	0:47	0:31	0:39	1:03	0:38	0:50	0:59	0:40	0:49
기타	0:46	0:49	0:47	1:02	0:58	1:00	1:24	1:30	1:27

<그림 3-38 기타 생활시간>



필수생활시간에 있어서는 일요일 수면시간 증가(30분 이상), 의무생활시간에서는 토요일 및 일요일 노동시간 감소(토요일 2시간4분, 일요일 3시간44분), 노동시간에서 나타나는 남·녀 종사시간의 차이(평균 1시간 내외), 여가생활에 있어 미디어 이용시간의 큰 비중(평일 1시간40분, 토요일 2시간24분, 일요일 2시간56분), 노동시간의 감소가 곧 수면시간과 미디어

이용시간의 증대로 이어지는 현상 등의 지극히 일반적인 양상만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각 산업 분류별 분석을 마치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교육서비스업의 노동시간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3시간21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들을 감안할 때 이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며, 완전고용의 형태보단 불완전고용 형태의 취업자들이 더 많은 것이 원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시간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6시간17분), 이는 필히 당 산업분야의 지속적 고용증대와 사업체 증가와 연계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업 및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의 이동시간이 많았다. 물론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각종 건축 및 건설의 활성화라 볼 수 도 있으나, 또한 투기과잉 및 정부의 미온적 투기대책과 연관성 역시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무생활시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가사활동시간은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남성 취업인구 수가 여성보다 더 많은 현실과 사회통념적으로 아직까지 가사를 여성이 전담하고 있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의 감소는 전 산업 분류를 막론하고 필수생활시간의 수면과 여가생활시간의 미디어이용시간으로 대체된다. 피로의 회복을 위한 수면이야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으나, 미디어이용으로 여가생활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대안이 필요한 바를 할 것이다.

다. 산업별 취업자의 생활시간의 변화

이 단락에선 각 산업을 다시 1·2·3차산업별로¹⁸⁾ 각각 정리하여 5년전(1999년) 자료와 2004년 현재의 자료를 대조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이는 경제 진보과정에 따라 1차산업에서 2차산업, 2차산업에서 3차산업

18) 동일하게 통계청 공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1차산업(농림.어업), 2차산업(광공업), 3차산업(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진다.

(서비스산업)으로 자본·노동 및 소득의 비중이 추이(推移)해가는 경향을 세계적 규모의 통계적 뒷받침으로 실증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¹⁹⁾.

이러한 경향의 분석을 통해 각 산업별 취업자들의 사회, 경제적 위치 및 경제 발전 기여도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각 산업변화 및 사회구조 변화 등을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산업을 막론하고 필수생활시간에선 개인관리시간이 증가하였고, 의무생활시간에선 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여가생활시간에선 미디어 이용시간 증가가 특히 두드러졌다.

<표 3-59>산업별 취업자 생활시간 변화

(단위=시간 : 분)

산업/년도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수면	식사	개인관리		일	가사	학습	이동		미디어	교제	취미 그 외 여가	기타	
1차산업														
1999년	10:19	8:00	1:31	0:47	9:02	5:32	2:02	0:04	1:23	4:38	2:17	0:51	0:51	0:37
2004년	10:35	7:57	1:36	1:02	8:29	4:54	2:02	0:01	1:32	4:57	2:25	0:56	0:46	0:50
증감	0:15	-0:03	0:04	0:14	-0:33	-0:38	-0:00	-0:03	0:09	0:19	0:07	0:04	-0:05	0:12
2차산업														
1999년	10:03	7:34	1:36	0:51	10:05	7:06	1:05	0:02	1:52	3:50	1:57	0:41	0:37	0:33
2004년	10:22	7:37	1:42	1:03	9:30	6:29	1:01	0:01	1:58	4:07	1:57	0:44	0:45	0:39
증감	0:18	0:02	0:05	0:11	-0:35	-0:37	-0:04	-0:01	0:06	0:16	0:00	0:02	0:07	0:05
3차산업														
1999년	10:00	7:30	1:32	0:56	9:58	6:39	1:24	0:08	1:45	4:00	1:53	0:46	0:39	0:41
2004년	10:22	7:36	1:38	1:08	9:17	5:54	1:25	0:05	1:52	4:19	1:55	0:46	0:45	0:51
증감	0:22	0:05	0:05	0:11	-0:41	-0:44	0:00	-0:03	0:06	0:19	0:02	0:00	0:06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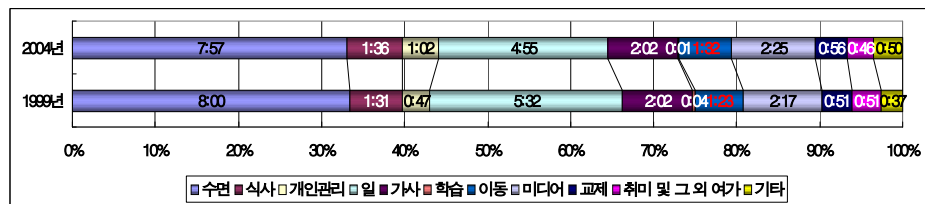
1) 1차산업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1차산업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를 보면 필수생활시간(+16분) 중에서 수면시간은 3분이 줄었으며, 식사시간은 4분이 증가한데 비해 개인관리 시간은 14분의 증가를 보였다. 의무생활시간(-33분) 중에서 노동시간이

19) C.G.클라크, 경제진보의 제조건 :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1940)

38분 줄어들었으며, 가사시간은 변동없고, 학습시간이 3분 줄었다. 이에 반해 이동시간은 9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19분)에서 교제활동은 4분, 미디어이용시간은 7분, 기타 시간이 12분 증가한 반면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도리어 5분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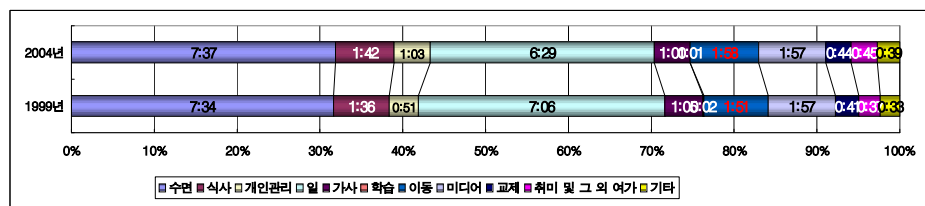
<그림 3-39> 1차산업 생활시간



2) 2차산업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2차산업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를 보면 필수생활시간(+18분) 중에서 수면시간은 2분이 늘었으며, 식사시간은 5분, 개인관리시간은 11분의 증가를 보였다. 의무생활시간(-35) 중에서 노동시간이 37분 줄어들었으며, 가사시간이 4분, 학습시간이 1분 줄었으나, 이동시간은 6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16)에서 교제활동은 2분,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7분, 기타 시간이 5분 증가했지만 미디어 이용시간은 변화가 없었다.

<그림 3-40> 2차산업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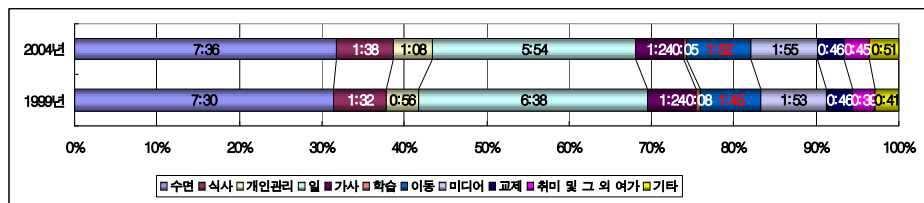


3) 3차산업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

3차산업 취업자의 생활시간 변화를 보면 필수생활시간(+22분) 중에서 수면시간은 5분이 늘었으며, 식사시간은 5분, 개인관리시간은 11분의

증가를 보였다. 의무생활시간(-41) 중에서 노동시간이 44분 줄어들었으며, 가사시간은 변화가 없었고 학습시간이 3분 줄었으며, 이동시간은 6분이 증가했다. 여가생활시간(+14)에서 미디어 이용은 2분,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6분, 기타 시간이 10분 증가했지만 교제 시간은 변화가 없었다.

<그림 3-41> 3차산업 생활시간



1차 산업 취업자의 필수생활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필수생활시간 중 수면시간의 경우 1차산업 취업자가 2004년 7시간57분으로 다른 산업 취업자에 비하여 20분 이상 많았는데, 이는 1차산업 특성상 출·퇴근의 개념이 모호하며, 노동지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출·퇴근 이동시간이 적은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노동의 경우 2004년 2차산업 취업자가 6시간29분을 기록한 가운데, 1차산업은 4시간55분으로 가장 작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1차산업 자체 특성과 전체적으로 적은 1차산업 취업자 수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여가생활시간은 1차산업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미디어이용시간의 비중이 가장 컸다. 즉, 2004년 2시간 25분을 사용함으로써 타 산업 취업자보다 25분 이상을 더 미디어이용에 사용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시간은 각 산업 취업자들이 비슷했으나, 1차산업 취업자들이 2004년 교제에 56분을 사용함으로써 타 산업 취업자들보다 10분 이상을 더 교제에 보냈고, 2차 산업 취업자들은 기타 여가에 타 산업 취업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12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필수생활시간 중 수면시간 양상 및 변화는 1차

산업에서 감소했으나, 2·3차산업에서 증가했다. 1차산업 취업자의 필수생활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필수생활시간 중 수면시간의 경우 2·3차산업 취업자 수면시간은 1999년보다 늘어났으나 1차산업 취업자의 수면시간은 도리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수면시간 평균이 7시간57분으로 다른 산업 취업자에 비해 20분 이상 많았다.

필수생활시간에서 개인관리 시간의 양상과 변화는 증가하였다. 즉, 전체 산업별 취업자를 통해 개인관리 시간이 (개인위생, 옷 갈아입기, 외모관리, 이미용관련 서비스받기) 10분 이상씩 증가하였고, 개인관리 시간 가운데 개인위생과 옷 갈아입기, 외모관리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증가는 노동시간 감소와 건강 및 외모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의무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의 양상은 2004년 2차산업 취업자가 6시간 29분을 기록한 가운데, 1차산업이 가장 적은 노동시간을(4시간 54분) 보였다. 이는 앞서도 기술했듯이 노동시간 자체보다 부족한 1차산업 취업자의 수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할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노동시간 변화로서는 전체 산업별 취업자를 통하여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1차산업 : -37분, 2차산업 : -38분, 3차산업 : -44분). 이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추세임을 알게 해주는 지표가 된다.

여가생활시간에서는 미디어이용시간의 양상과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차산업 취업자가 미디어 이용 시간의 비중이 가장 크고, 2004년 2시간25분을 사용함으로써 타 산업 취업자보다 25분 이상 미디어이용에 사용하였으며 각 산업별 취업자의 미디어이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차산업 : 7분, 2차산업 : 불변, 3차산업 : 2분). 미디어이용이 여가에서 가지는 가장 높은 비중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 산업별·요일별 취업자의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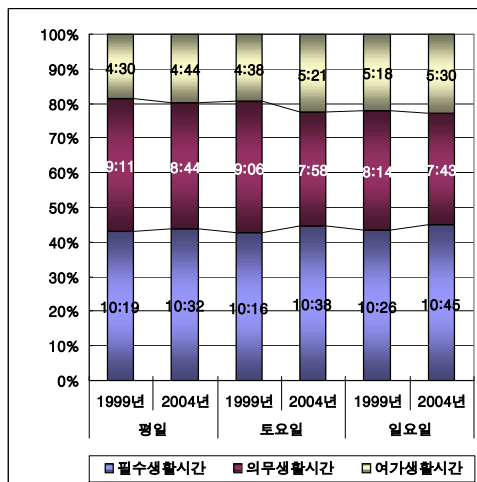
각 산업별 취업자의 요일별 차이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요일별 각 산업별 취업자들의 생활변화 양상과 사회구조 실태 파악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필수생활시간에서 수면의 경우 1차산업은 평, 토, 일 이 모두 비슷한 양상을 띠었으나, 2차·3차산업은 일요일 급증하였고, 의무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의 양상도 1차산업은 평, 토, 일 비슷한 노동시간을 유지하는데 반해 2차·3차산업의 노동시간은 토요일 감소하여 일요일 급감한다.

여가생활시간에서 미디어 이용시간 양상은 1차산업은 역시 평, 토, 일 비슷한 양상이나, 2차·3차산업은 토요일 증가, 일요일 급증하는 추세였고 이를 통해 각 산업별 노동 및 휴일, 여가 활용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다.

1) 1차산업 취업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 그림 3-42 1차산업 생활시간 >



1차산업 취업자 요일별 생활 시간을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에서 평일 14분, 토요일 21분, 일요일 19분이 증가하였다. 필수생활시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차산업 취업자의 평일 수면 시간은 6분이 줄어들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2분과 1분이 증가하였으나 요일평균 감소하여 전반적인 경향과 대치된다. 식사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은 5분, 일요일은 7분이 증

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개인관리 시간은 요일별로 15분, 14분, 11분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무생활시간 세부항목은 평일에 노동(-33분), 가사(-1분), 학습(-3분)시간이 모두 줄어들었으며, 이동시간만이 11분 증가하였다.

<표 3-60> 1차산업 취업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1차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99년	'04년	증감	'99년	'04년	증감	'99년	'04년	증감
필수생활시간	10:19	10:32	0:13	10:16	10:38	0:22	10:27	10:45	0:18
수면	7:60	7:54	-0:06	7:57	7:59	0:02	8:07	8:08	0:01
식사	1:31	1:36	0:05	1:32	1:37	0:05	1:32	1:39	0:07
개인관리	0:48	1:03	0:15	0:48	1:02	0:14	0:47	0:58	0:11
의무생활시간	9:11	8:44	-0:27	9:06	7:58	-1:08	8:14	7:43	-0:31
일	5:41	5:07	-0:34	5:34	4:26	-1:08	4:50	4:16	-0:34
가사	2:03	2:01	-0:02	1:59	2:05	0:06	2:02	1:59	-0:03
학습	0:04	0:02	-0:02	0:07	0:00	-0:07	0:02	0:00	-0:02
이동	1:23	1:34	0:11	1:26	1:27	0:01	1:20	1:28	0:08
여가생활시간	4:30	4:44	0:14	4:38	5:21	0:43	5:18	5:30	0:12
미디어	2:14	2:19	0:05	2:16	2:43	0:27	2:34	2:37	0:03
교제	0:48	0:50	0:02	0:55	1:05	0:10	1:06	1:15	0:09
취미및그외여가활동	0:51	0:47	-0:04	0:51	0:50	-0:01	0:55	0:42	-0:13
기타	0:37	0:48	0:11	0:36	0:43	0:07	0:43	0:56	0:13

토요일은 특이하게도 노동시간(-1시간10분)과 학습(-6분) 시간이 줄어들었으나 가사노동(+8분)시간이 늘어났으며, 이동만은 변화가 없었다. 일요일에는 노동시간(-34분)과 가사(-5분), 학습(-2분) 시간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이동(+9분)시간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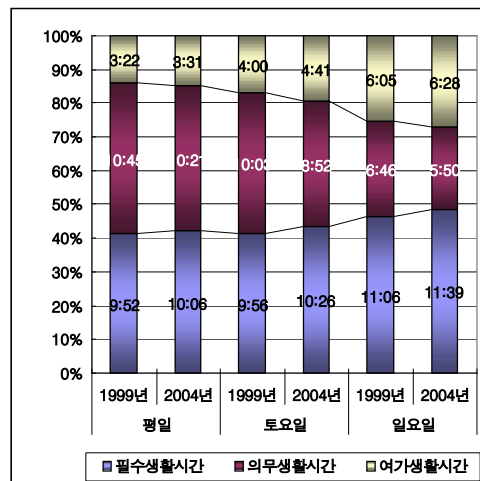
여가생활시간의 세부항목을 보면 평일 여가생활에서의 미디어 이용(+5분)과 교제활동(+2분), 기타 여가(9분)시간은 늘어났지만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4분)시간은 감소하였다. 토요일에도 역시 동일한 양상이지만 특이하게 미디어 이용(+27분), 교제(+10분)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 여가(+3분) 시간의 증가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1분) 시간의 감소가 있었다. 일요일은 미디어 이용 3분, 교제활동 9분, 기타 여가 활동 10분이 증가하였고 여전히 취미 및 그 외 여가 활동(-13분) 시간은 감소했다.

2) 2차산업 취업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표 3-61> 2차 산업 취업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2차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99년	'04년	증감	'99년	'04년	증감	'99년	'04년	증감
필수생활시간	9:52	10:06	0:13	9:56	10:26	0:30	11:06	11:39	0:33
수면	7:25	7:22	-0:02	7:26	7:38	0:11	8:32	8:49	0:16
식사	1:35	1:40	0:05	1:36	1:43	0:06	1:40	1:44	0:03
개인관리	0:51	1:03	0:11	0:52	1:04	0:12	0:53	1:06	0:12
의무생활시간	10:45	10:21	-0:24	10:03	8:52	-1:11	6:46	5:50	-0:55
일	7:55	7:31	-0:23	6:53	5:33	-1:19	3:17	2:16	-1:00
가사	0:59	0:52	-0:07	1:04	1:12	0:07	1:35	1:39	0:04
학습	0:02	0:00	-0:01	0:02	0:00	-0:02	0:00	0:00	-0:00
이동	1:48	1:57	0:09	2:03	2:06	0:03	1:53	1:53	0:00
여가생활시간	3:22	3:31	0:09	4:00	4:41	0:40	6:05	6:28	0:22
미디어	1:43	1:39	-0:03	1:59	2:12	0:13	3:07	3:12	0:05
교제	0:35	0:38	0:02	0:45	0:51	0:05	1:06	1:05	-0:00
취미및그외여가활동	0:35	0:41	0:05	0:39	0:53	0:14	0:46	0:59	0:13
기타	0:27	0:31	0:04	0:35	0:43	0:07	1:06	1:11	0:05



<그림 3-43 2차산업 생활시간>

2차산업 취업자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보면 필수생활시간에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14분, 29분, 33분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평일 수면 시간은 2분 줄었으나, 토요일 11분, 일요일 16분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식사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5분, 6분, 3분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개인관리시간은 평일 11분, 토요일 12분, 일요일 12분 증가했다.

노동시간은 평일 (-23분), 토요일 (-1시간21분), 일요일 (-1시간1분) 감소했고 가사는 평일 (-7분) 감소했으나, 토요일 7분, 일요일 3분 증가했

다. 또한 여가생활시간 세부항목에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볼 수 있다. 미디어의 경우 평일 이용시간만 (-3분) 감소했으나, 토요일 13분 증가, 일요일 5분 증가하였다

교제는 평일 2분, 토요일 5분, 일요일 6분 증가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평일 5분, 토요일 14분, 일요일 13분으로 전반적 증가했고, 기타 여가 시간은 평일 1분, 토요일 4분, 일요일 1분 증가하였다.

3) 3차산업 취업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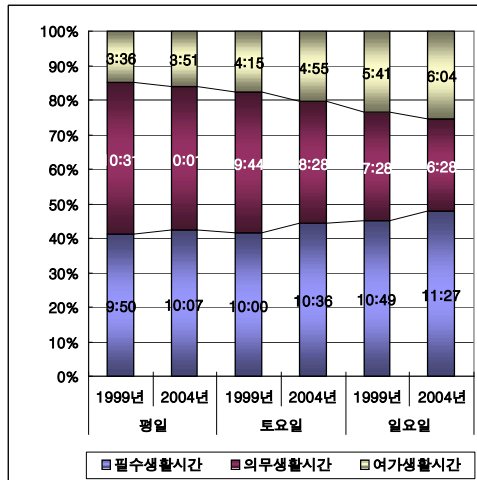
<표 3-62> 3차 산업 취업자의 요일별 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3차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99년	'04년	증감	'99년	'04년	증감	'99년	'04년	증감
필수생활시간	9:50	10:07	0:16	10:00	10:36	0:35	10:49	11:27	0:37
수면	7:21	7:22	0:00	7:29	7:46	0:17	8:16	8:35	0:19
식사	1:32	1:37	0:05	1:33	1:39	0:06	1:36	1:41	0:04
개인관리	0:56	1:07	0:10	0:57	1:09	0:12	0:56	1:10	0:13
의무생활시간	10:31	10:01	0:30	9:44	8:28	1:16	7:28	6:28	1:00
일	7:16	6:43	0:32	6:19	4:54	1:25	3:52	2:50	1:02
가사	1:19	1:17	0:02	1:28	1:36	0:08	1:46	1:51	0:05
학습	0:10	0:07	0:03	0:06	0:02	0:03	0:03	0:00	0:02
이동	1:44	1:53	0:08	1:50	1:54	0:04	1:45	1:45	0:00
여가생활시간	3:36	3:51	0:14	4:15	4:55	0:40	5:41	6:04	0:23
미디어	1:41	1:41	0:00	2:00	2:12	0:12	2:42	2:47	0:05
교제	0:41	0:42	0:01	0:50	0:55	0:04	1:06	0:59	0:07
취미및그외여가활동	0:37	0:42	0:04	0:42	0:51	0:09	0:44	0:55	0:10
기타	0:36	0:45	0:09	0:42	0:55	0:13	1:08	1:22	0:14

3차산업 취업자의 요일별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 에서 평일 16분, 토요일 36분, 일요일 37분이 증가하였다. 필수생활시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수면은 평일 1분, 토요일 17분, 일요일 19분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식사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5분, 6분, 4분 씩으로 비슷하게 증가했으며, 개인관리 시간은 평일 10분, 토요일 12분, 일요일 13분 증가했다.

<그림 3-44 3차산업 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세부항목은 노동은 평일 (-33분), 토요일 (-1시간 24분), 일요일 (-1시간2분) 감소하였으며 가사는 평일 (-2분) 감소했으나, 토요일 8분, 일요일 3분 증가하여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였다. 학습은 평일 (-3분), 토요일 (-3분) 일요일 (-2분)으로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가생활시간의 세부항목을 보면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일 미디어 이용 시간은 변동이 없으나, 토요일 12분 증가, 일요일 5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교제 활동 시간만이 특이하게 평일 1분, 토요일 4분 증가 이후, 일요일 7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시간은 평일 4분, 토요일 9분, 일요일 10분 증가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기타 여가 시간은 평일 4분, 토요일 8분, 일요일 10분 증가하였다.

1·2·3차 산업별 취업자의 요일별 생활시간의 추이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필수생활 시간에서 수면은 1차산업의 평일 (-6분) 감소와 2차산업 평일 (-2분) 감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있어서 1차산업은 변화가 크지 않으나, 2, 3차 산업은 토요일 소폭 증가, 일요일 급증 (각 산업별 1시간 이상)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면이 토, 일요일 감소하는 노동시간을 일부 대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의무생활시간에선 1차산업의 경우 평, 토, 일 비슷한 노동시간을 보였으나, 2차·3차산업은 토요일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일요일은 급감하여 이를 통해 출, 퇴근 및 오전근무, 일요일 휴무의 영향을 알 수 있다.

여가생활시간에선 미디어이용시간의 양상이 두드러졌는데, 1차산업에

선 평, 토, 일요일 각각 비슷한 정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차·3차산업에선 토요일 미디어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일요일에는 급증하여 2·3차 산업에서 토, 일요일 감소하는 노동시간을 대체하는 여가 생활시간은 주로 미디어 이용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산업의 경우는 그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수면시간 및 노동시간, 기타 여가시간에 있어 요일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극히 작은 변화를 보인다.

마. 산업별 취업자의 필수생활시간

1) 1차산업 취업자의 필수생활시간

<표 3-63> 요일별 1차산업 취업자의 필수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1차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수면	8:00	7:54	7:57	7:59	8:07	8:08
식사	1:31	1:36	1:32	1:37	1:32	1:39
개인관리	0:40	0:52	0:42	0:51	0:40	0:53
건강관리	0:08	0:11	0:06	0:11	0:07	0:05

1차산업 취업자의 수면시간이 평일 6분 감소했으나 토요일 2분, 일요일 1분이 각각 증가하였고, 1차산업 취업자의 식사시간은 평일, 토요일 5분, 일요일 7분 증가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개인관리 시간은 평일 12분, 토요일 9분, 일요일 13분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건강관리 시간의 경우는 평일 3분, 토요일 5분이 증가했으나 일요일은 도리어 2분이 감소하여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2) 2차산업 취업자의 필수생활시간

<표 3-64> 요일별 2차산업 취업자의 필수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2차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수면	7:25	7:22	7:26	7:38	8:32	8:49
식사	1:35	1:40	1:36	1:43	1:40	1:44
개인관리	0:49	1:00	0:50	1:01	0:51	1:04
건강관리	0:02	0:02	0:02	0:03	0:02	0:01

2차산업 취업자의 수면시간은 평일 3분 감소했으나 토요일은 12분, 일요일은 17분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식사시간은 평일 5분, 토요일 7분, 일요일 4분 증가로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개인관리 시간은 평일 11분, 토요일 11분, 일요일 13분으로 전반적 증가를 보였다.

2차산업 취업자의 건강관리 시간은 평일은 변동이 없었으나, 토요일 1분이 증가했으며 일요일은 1분이 감소하여 그 변동 폭이 작았다.

3) 3차산업 취업자의 필수생활시간

<표 3-65> 요일별 3차산업 취업자의 필수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3차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1999년	2004년
수면	7:21	7:22	7:29	7:46	8:16	8:35
식사	1:32	1:37	1:33	1:39	1:36	1:41
개인관리	0:53	1:04	0:54	1:05	0:55	1:08
건강관리	0:02	0:02	0:02	0:03	0:01	0:02

3차산업 취업자의 수면시간은 평일 1분, 토요일 17분, 일요일 19분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식사시간은 평일 5분, 토요일 6분, 일요일 5분 증가로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개인관리 시간은 평일 11분, 토요일 11분, 일요일 13분 증가하였고, 건강관리 시간은 평일은 변동이 없었으나, 토요일 1분, 일요일 1분이 각각 증가하였다.

바. 산업별 취업자의 이동시간

1) 요일별 1차산업 취업자의 이동시간

<표 3-66> 요일별 1차 산업 취업자의 이동시간

(단위=시간 : 분)

1차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		전체평균		전체평균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이동	1:23	1:34	1:26	1:27	1:20	1:28
출·퇴근이동	0:47	0:49	0:46	0:41	0:39	0:38

1차산업 취업자의 이동시간에서 평일에는 이동 및 출·퇴근 이동이 모두 증가하나(이동/출·퇴근이동 : 각각 9분)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 출·퇴근 이동이 도리어 감소했다(토,일 : 각각 -8분).

2) 요일별 2차산업 취업자의 이동시간

<표 3-67> 요일별 2차 산업 취업자의 이동시간

(단위=시간 : 분)

2차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		전체평균		전체평균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이동	1:48	1:57	2:03	2:06	1:53	1:53
출·퇴근이동	1:22	1:31	1:19	1:11	0:33	0:25

2차산업 취업자의 이동시간에서 평일에는 이동 및 출·퇴근 이동이 증가하였으며(이동, 출·퇴근 이동 : 각각 9분),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에는 역시 출·퇴근 이동은 감소하였다(토, 일요일 : 각각 8분).

3) 요일별 3차산업 취업자의 이동시간

<표 3-68> 요일별 3차 산업 취업자의 이동시간

(단위=시간 : 분)

3차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		전체평균		전체평균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이동	1:44	1:53	1:50	1:54	1:45	1:45
출·퇴근이동	1:12	1:19	1:02	0:56	0:31	0:26

3차산업 취업자 역시도 평일에는 이동 및 출·퇴근 이동이 증가하였으며(이동 : 9분, 출·퇴근 이동 : 7분),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에는 역시 출·퇴근 이동이 감소하였다(토요일 : 6분, 일요일 : 5분).

이동시간에서 보이는 토요일 및 일요일 이동과 출퇴근 이동의 감소는 토요일 오전근무 및 일요일 휴무 등과 관련한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 산업별 취업자의 여가시간

1) 요일별 1차산업 취업자의 여가생활시간

1차산업 취업자의 여가에서 여가시간은 전반적으로 요일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가행위는 미디어 이용이며(2시간 이상), 특히 TV시청이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 취업자에 걸쳐 TV시청이 감소하는 추세임에 반해 1차산업에선 도리어 증가를 하였다(평일 : 7분, 토요일 : 25분, 일요일 : 5분).

<표 3-69> 요일별 1차산업 취업자의 여가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1차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		전체평균		전체평균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교제활동	0:48	0:50	0:55	1:05	1:06	1:15
일반인의 학습	0:02	0:02	0:01	0:01	0:01	0:01
미디어이용	2:14	2:19	2:16	2:43	2:34	2:37
신문	0:03	0:03	0:03	0:04	0:02	0:02
TV	2:05	2:12	2:10	2:35	2:25	2:30
인터넷	0:00	0:02	0:00	0:02	0:00	0:02
종교활동	0:03	0:05	0:03	0:05	0:10	0:14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0	0:01	0:02	0:01	0:02	0:01
스포츠및집밖의레저활동	0:09	0:15	0:09	0:11	0:08	0:16

또한, 인터넷의 경우 1차산업 취업자에서는 그 사용 시간이 크게 많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인 증가를 하여(평, 토, 일요일 : 각각 2분),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종교활동 및 기타 관람, 문화 행사 등도 큰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으나 소폭 증가하였으며(1~4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의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평일 : 7분, 토요일 : 2분, 일요일 : 8분) 특성을 보였으나 정작 사용된 시간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았다(15분 내외).

2) 요일별 2차산업 취업자의 여가생활시간

2차산업 취업자의 여가생활시간 中 미디어이용에서 신문이용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평일 : -2분, 토요일 : -1분, 일요일 : -3분), 평일 이용시간의 감소로 전반적인 감소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TV시청이 미디어이용시간의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시청이 감소한만큼 인터넷의 이용이 크게 증가했으며(평일 : 9분, 토요일 : 7분, 일요일 : 10분), 이를 통해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이 이루어졌음과 여전

히 수동적 여가생활이 여가생활의 주를 이룸을 알 수 있다.

<표 3-70> 요일별 2차산업 취업자의 여가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2차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		전체평균		전체평균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교제활동	0:35	0:38	0:45	0:51	1:06	1:05
일반인의 학습	0:04	0:02	0:02	0:02	0:04	0:03
미디어이용	1:43	1:39	1:59	2:12	3:07	3:12
신문	0:08	0:06	0:07	0:06	0:07	0:04
TV	1:29	1:23	1:44	1:52	2:50	2:52
인터넷	0:02	0:08	0:01	0:09	0:02	0:10
종교활동	0:03	0:02	0:05	0:02	0:17	0:16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0	0:00	0:01	0:03	0:02	0:04
스포츠및집밖의 레저활동	0:10	0:14	0:16	0:21	0:29	0:31

종교활동은 도리어 감소하였고,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도 그리 많이 하지 않으나, 주말의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이 그나마 증가하는(평일 : 4분, 토요일 : 5분, 일요일 2분) 양상을 보였고 주말의 경우 활용시간도 상당한 특성을 보였다(토요일 : 21분, 일요일 : 31분).

3) 요일별 3차산업 취업자의 여가생활시간

3차산업 취업자의 여가에선 미디어이용의 주 대상인 TV시청의 경우도 일요일에만 2시간 이상 사용하였으며(2시간 25분), 전체적으로 전 산업별 취업자 가운데 가장 그 시간이 적었다. 인터넷 정보검색의 경우는 역시 크게 증가하였으며(평일 : 8분, 토요일 : 9분, 일요일 : 10분), 특히 3차산업 취업자들의 인터넷 활용시간이 전 산업별 취업자들 中 가장 높았다. 또한 신문의 이용 시간도 비록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전 산업별 취업자들 중에 가장 많았는데(평일 : 7분, 토요일 : 7분, 일요일

일 : 4분), 이를 통해 3차산업 취업자들이 정보에 매우 민감한 동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1> 요일별 3차산업 취업자의 여가생활시간

(단위=시간 : 분)

3차산업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		전체평균		전체평균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교제활동	0:41	0:42	0:50	0:55	1:06	0:59
일반인의 학습	0:06	0:06	0:04	0:07	0:05	0:05
미디어이용	1:41	1:41	2:00	2:12	2:42	2:47
신문	0:09	0:07	0:10	0:07	0:07	0:04
TV	1:24	1:20	1:41	1:49	2:22	2:25
인터넷	0:02	0:10	0:02	0:11	0:03	0:13
종교활동	0:05	0:05	0:06	0:05	0:23	0:25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0	0:01	0:02	0:05	0:03	0:05
스포츠및집밖의 레저활동	0:13	0:17	0:17	0:22	0:23	0:30

종교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에도 큰 관심을 가졌고(토요일 : 5분, 일요일 : 5분), 또한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평일 : 4분, 토요일 : 5분, 일요일 : 7분), 특성을 보였다.

이 단락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즉,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은 전 산업부문에서 증가하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의무생활시간은 전 산업부문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필수생활시간에서 전 산업부문에 걸쳐서 개인관리 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증가 시간은 대부분 외모와 건강관리에 사용되었다.

요일별 시간의 구성비로 볼 때는, (1차산업을 제외한) 토, 일요일 노동시간의 감소는 수면, 미디어 이용의 증가로 대체됨을 알 수 있고 결국 여가생활시간이 수동적 여가 활용 이외에 별반 유용하게 활용되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을 제외한) 의무생활시간에서 가사 시간은 전체적으로 줄어 들고 있으며(1차산업 : -0분, 2차산업 : - 4분, 3차산업, 0분) 이는 (특히 40대 이상 중년) 여성의 사회 진출 및 맞벌이 가정이 증가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시간의 경우는 1차산업에선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2차·3차 산업에선 토, 일요일 노동시간이 급격히 감소하였다(토요일 : -37분, 일요일 : -44분).

- 1차산업의 경우 그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수면시간 및 노동시간, 기타 여가시간에 있어 요일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극히 작은 변화를 보였다(노동지의 지리적 근접성). -

이동시간의 경우 전 산업부문에서 증가하였고, 그 중 대부분이 출·퇴근 및 기타 일 관련 이동에 소비되었으며, 여가생활시간의 경우 50% 가까이가 미디어이용에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생활시간 증가가 미디어이용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각 산업부문의 비중을 나타내기 위해 흔히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산업구조란 국민경제를 단위로 하는 여러 산업의 구성비율을 주로 문제 삼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생산력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산업구조와 사회·경제 변화는 실질적인 취업자들의 활동과 연관된 부분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 즉, 노동의 실질적 시간과 질,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동과 이와 연계된 각종 활동들, 그리고 생활의 관계가 중요하고 효율적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더 나은 삶의 질(Quality)과 여가의 관계가 상호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업자의 노동과 삶, 여가 등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이 또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발생하고 이를 위해 그 생활시간의 활용 양상과 변화 추이 등을 좀 더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 4 장 취업자의 생활상태 및 생활의식의 변화

이 장에서는 시간조사와 함께 실시한 생활상태 및 생활의식조사의 결과를 직업구조에 따라 주거환경 및 주당노동시간, 여유시간에 대한 의식, 정기휴일의 실태, 시간부족에 대한 태도 및 업무의 과중함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한다²⁰⁾.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61.4%, 고용주가 6.3%, 자영업자 22.7%, 무급가족종사자 및 고용주가 9.6%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 취업자들의 직업분포는 전문관리직이 8.7%, 사무기술직이 21.7%, 판매서비스직이 23.9%, 농림어업직이 13.5%, 생산노무직이 32.1%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별 연령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40대(29%), 30대(25.2%), 50대(15.6%), 20대(14.9%)의 순이며, 경영관리직의 경우 40대-30대-20대, 사무기술직은 30대-40대-20대 순이며, 판매서비스직 및 생산노무직은 40대-30대-50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직은 60대 이상이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이 47.9%, 아파트 37.5%, 연립주택이 7.6%, 다세대주택이 4.0%의 순이었다. 이는 1999²¹⁾년의 단독주택 주거(60.3%), 연립주택주거(8.3%)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아파트 주거유형(99년 25.0%)이 늘어났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이 62.3%, 사무기술직이 55.2%로 99년의 50.7%, 39.1%에 비해 각각 11.6% 및 16.1% 늘어났으며 다른 직종에서도 아파트 거주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입주형태를 살펴보면 취업자 중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99년의 65.6%에 비해 1.36% 증가한 66.9%이며 직종별로는 생산노무직

20) 직업에 대한 분류는 통계청 직업분류를 사용하였으며, 부가적으로 통계청에서 분류한 직업을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경영관리, 전문가(3068명)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732명)+ 전문가(2336명)

사무기술직(7608명) = 기술공 및 준전문가(3050명)+ 사무종사자(4550명)

판매서비스직(2353명) = 서비스종사자(4370명)+판매종사자(4014명)

농림어업자 =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4744명)

생산노무직(11260명)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3560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3776명)+ 단순노무 종사자(3924명)

군인은 제외

21) 1999년의 자료는 부표를 참고할 것.

및 판매서비스직이 99년 대비 각각 4.5%, 3.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를 사는 비중은 99년 22.5%에 비해 5.3% 낮아진 17.2%로서 전문관리직이나 사무기술직이 판매서비스직이나 생산노무직에 비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월세 및 사글세에 사는 비중은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 직업별 주거형태

(단위 : 명, %)

		단독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타	전체
전문관리직	빈도	810	1,910	164	90	94	3,068
	%	26.4	62.3	5.3	2.9	3.1	100
사무기술직	빈도	2,306	4,200	644	326	132	7,608
	%	30.3	55.2	8.5	4.3	1.7	100
판매서비스직	빈도	3,734	2,992	672	392	594	8,384
	%	44.5	35.7	8.0	4.7	7.1	100
농림어업직	빈도	4,508	130	32	12	62	4,744
	%	95.0	2.7	0.7	0.3	1.3	100
생산노무직	빈도	5,446	3,902	1,138	566	208	11,260
	%	48.4	34.7	10.1	5.0	1.8	100
전체	빈도	16,804	13,134	2,650	1,386	,1090	35,064
	%	47.9	37.5	7.6	4.0	3.1	100

<표 4-2> 직업별 입주형태

(단위 : 명, %)

		자가	전세	월세	무상주택 사택	전체
전문관리직	빈도	1,984	712	228	144	3,068
	%	64.7	23.2	7.4	4.7	100.0
사무기술직	빈도	4,758	1,778	754	318	7,608
	%	62.5	23.4	9.9	4.2	100.0
판매서비스직	빈도	5,118	1,586	1,438	242	8,384
	%	61.0	18.9	17.2	2.9	100.0
농림어업직	빈도	4,504	66	54	120	4,744
	%	94.9	1.4	1.1	2.5	100.0
생산노무직	빈도	7,094	1,900	1,758	508	11,260
	%	63.0	16.9	15.6	4.5	100.0
전체	빈도	23,458	6,042	4,232	1,332	35,064
	%	66.9	17.2	12.1	3.8	100.0

직업별 주거면적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의 52.3%가 20~30평의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44.6%가 20평 미만의 주거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직업별 주거면적

		20평 미만	20~39평	40평 이상	전체
전문관리직	빈도	984	1,836	248	3,068
	%	32.1	59.8	8.1	100
사무기술직	빈도	3,216	4,158	234	7,608
	%	42.3	54.7	3.1	100
판매서비스직	빈도	3,960	4,198	226	8,384
	%	47.2	50.1	2.7	100
농림어업직	빈도	1,372	3,182	190	4,744
	%	28.9	67.1	4.0	100
생산노무직	빈도	6,122	4,956	182	11,260
	%	54.4	44.0	1.6	100
전체	빈도	15,654	18,330	1,080	35,064
	%	44.6	52.3	3.1	100

이는 99년에 비해서 20평 미만을 주거공간으로 하는 비율은 3.0%감소, 20-39평을 주거공간으로 하는 비율은 3.4%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은 40평 이상 주거공간자의 비율이 0.7%감소하였으며,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은 20-39평 공간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99년에 비해 보다 넓은 주거공간으로의 이동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취업자의 직업별 주당 노동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40-59시간이 52.7%, 60-79시간이 22.2%로 대부분이며, 전문관리직 및 사무기술직의 경우는 40-59시간의 비율이 99년에 비해 각각 11.8%, 12.5% 증가한 70.7%, 70.6%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생산노무직이 52.2%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판매서비스직은 40-59시간이 36.4%, 60-79시간이 34.2%로 직업별로 가장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취업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1999년에 비해 40-59시간의 비율은 늘어나고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4> 직업별 주당 노동시간

		20시간 미만	20-39시간	40-59시간	60-79시간	80시간 이상	전체
전문관리직	빈도	186	248	2,168	408	58	3,068
	%	6.1	8.1	70.7	13.3	1.9	100
사무기술직	빈도	608	598	5,370	938	94	7,608
	%	8.0	7.9	70.6	12.3	1.2	100
판매서비스직	빈도	630	1,072	3,050	2,866	766	8,384
	%	7.5	12.8	36.4	34.2	9.1	100
농림어업직	빈도	666	1,240	2,030	736	72	4,744
	%	14.0	26.1	42.8	15.5	1.5	100
생산노무직	빈도	900	1,224	5,874	2,852	410	11,260
	%	8.0	10.9	52.2	25.3	3.6	100
전체	빈도	2,990	4,382	18,492	7,800	1,400	35,064
	%	8.5	12.5	52.7	22.2	4.0	100

<표 4-5> 직업별 정기휴일 실태

		하루	토요 격주휴무	이틀	매 2주에 한번씩	수시로	기타	전체
전문관리직	빈도	1,670	378	604	36	268	94	3,050
	%	54.8	12.4	19.8	1.2	8.8	3.1	100
사무기술직	빈도	2,786	1,580	1,984	198	558	262	7,368
	%	37.8	21.4	26.9	2.7	7.6	3.6	100
판매서비스직	빈도	2,676	206	716	766	2,132	826	7,322
	%	36.5	2.8	9.8	10.5	29.1	11.3	100
농림어업직	빈도	52	2	16	14	2,894	42	3,020
	%	1.7	0.1	0.5	0.5	95.8	1.4	100
생산노무직	빈도	4,554	598	1,002	650	3,250	868	10,922
	%	41.7	5.5	9.2	6.0	29.8	7.9	100
전체	빈도	11,738	2,764	4,322	1,664	9,102	2,092	31,682
	%	37.0	8.7	13.6	5.3	28.7	6.6	100

주당 노동시간과 더불어 정기휴일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99년에 비해서 휴일실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하루 휴무가 99년 43.8%에서 2004년 37%로 줄어든데 비해 주 이틀 휴무, 토요격주 휴

무, 수시로 휴무 등의 비율이 99년에 비해 증가했다. 주 이틀 휴무의 경우 직업 중에서 사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판매서비스직이나 생산노무직의 경우는 주에 하루 비율과 수시로 휴무 비율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융권이나 대규모 사업장에서 시행된 주5일 근무제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직종의 성격상 정해진 휴일 없이 수시로 쉬는 유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취업자들의 일반적인 생활실태와 더불어 일이나 여가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시간조사와 병행된 취업자의 태도 및 의식조사의 내용은 (1) 업무 후 피곤함을 느끼는가와 그 피곤함의 이유, (2) 시간부족을 느끼는 정도와 시간부족에 대한 이유, (3)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이다.

<표 4-6> 업무 후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

		예, 항상	예, 가끔	아니오, 거의	아니오 전혀	전체
전문관리직	빈도	1,022	1,712	296	38	3,068
	%	33.3	55.8	9.6	1.2	100
사무기술직	빈도	2,362	4,152	982	112	7,608
	%	31.0	54.6	12.9	1.5	100
판매서비스직	빈도	3,888	3,606	788	102	8,384
	%	46.4	43.0	9.4	1.2	100
농림어업직	빈도	2,158	1,984	528	74	4,744
	%	45.5	41.8	11.1	1.6	100
생산노무직	빈도	4,750	5,472	928	110	11,260
	%	42.2	48.6	8.2	1.0	100
전체	빈도	14,180	16,926	3,522	436	35,064
	%	40.4	48.3	10.0	1.2	100

먼저 업무 후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를 통해 일의 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항상 느끼는 편이 40.4%, 가끔 느낀다는 48.3%로서 88.7%가 업무 후 피곤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농림어업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의 순으로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왔으며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약한 전문관리직 및 사무기술직은 가끔 피곤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았다. 직종별로 피곤함을 느끼는 비

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생산노무직으로서 90.6%가 피곤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99년의 87.0%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생산노무직의 노동 강도가 99년에 비해 훨씬 강해졌다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7>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

		업무량과 다	일이 힘들어서	근무여건	인간관계	건강이 나빠서	기타	전체
전문관리직	빈도	1,482	638	152	172	172	118	2,734
	%	54.2	23.3	5.6	6.3	6.3	4.3	100
사무기술직	빈도	3,100	1,638	558	470	450	298	6,514
	%	47.6	25.1	8.6	7.2	6.9	4.6	100
판매서비스직	빈도	1,486	4,064	602	204	906	232	7,494
	%	19.8	54.2	8.0	2.7	12.1	3.1	100
농림어업직	빈도	406	2,824	38	6	838	30	4,142
	%	9.8	68.2	0.9	0.1	20.2	0.7	100
생산노무직	빈도	2,244	5,574	1,108	196	922	178	10,222
	%	22.0	54.5	10.8	1.9	9.0	1.7	100
전체	빈도	8,718	14,738	2,458	1,048	3,288	856	31,106
	%	28.0	47.4	7.9	3.4	10.6	2.8	100

업무 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일 자체가 힘이 들어서 47.4%, 업무량의 과다 28.0%, 건강이 나빠서 10.6%, 근무여건 7.9%,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 3.4% 등의 순이나 전문관리직, 및 사무기술직은 99년에 비해 피곤함의 이유로 업무량의 과다는 줄어든 반면 일이 힘들어서의 비율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 피곤함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직종은 전문관리직 및 사무기술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판매서비스직, 농림어업직, 생산노무직이었다.

전반적으로 취업자들은 대다수가 업무가 끝난 뒤에 피곤함을 느끼며, 전문관리직 및 사무기술직의 경우는 가끔 느끼는 비중이 큰 반면, 생산노무, 농림어업 및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업무 후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또 그 이유로서는 전문관리직 및 사무기술직의 경우 업무량의 과다에 기인하고 있다면, 생산노무 및 판매서비스직은 일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99년에 비해 피곤함을

느끼는 비중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업무량의 과다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일 그 자체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직업별 시간부족에 대한 태도

		예, 항상	예, 가끔	아니오, 거의	아니오 전혀	전체
전문관리직	빈도	1,206	1,490	344	28	3,068
	%	39.3	48.6	11.2	0.9	100
사무기술직	빈도	2,494	3,996	966	152	7,608
	%	32.8	52.5	12.7	2.0	100
판매서비스직	빈도	2,910	3,816	1,310	348	8,384
	%	34.7	45.5	15.6	4.2	100
농림어업직	빈도	1,488	1,782	1,148	326	4,744
	%	31.4	37.6	24.2	6.9	100
생산노무직	빈도	3,242	5,356	2,206	456	11,260
	%	28.8	47.6	19.6	4.0	100
전체	빈도	11,340	16,440	5,974	1,310	35,064
	%	32.3	46.9	17.0	3.7	100

다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 부족을 느끼는 정도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시간부족을 느낀다는 응답이 시간부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99년에 비해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중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별로는 항상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중이 전문관리직, 판매서비스직, 사무기술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타의 직종보다도 전문관리직 및 사무기술직의 시간부족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시간부족에 대한 이유로서 일 때문이라는 비중이 70.1%로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99년 67.2%에 비해 2.6% 상승된 수치이다. 그 다음이 자녀양육 10.5%, 교제 및 사회활동 7.7%, 시간관리를 못해서 6.4%, 이동시간 때문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대체로 일 때문이라는 비율은 농림어업직, 생산노무직, 전문관리직 등의 순이었으며,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이라는 비율은 판매서비스직, 사무기술직, 생산노무직, 전문관리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시간부족에 대한 이유

		일 때문에	자녀양육	시간관리 잘못해서	교제활동 사회활동	이동시간 때문에	기타	전체
전문관리직	빈도	1,868	248	140	300	104	36	3,068
	%	69.3	9.2	5.2	11.1	3.9	1.3	100
사무기술직	빈도	4,298	674	518	690	268	42	7,608
	%	66.2	10.4	8.0	10.6	4.1	0.6	100
판매서비스직	빈도	4,468	962	488	502	230	76	8,384
	%	66.4	14.3	7.3	7.5	3.4	1.1	100
농림어업직	빈도	2,848	188	78	84	50	22	4,744
	%	87.1	5.7	2.4	2.6	1.5	0.7	100
생산노무직	빈도	5,992	846	554	572	560	74	11,260
	%	69.7	9.8	6.4	6.7	6.5	0.9	100
전체	빈도	19,474	2,918	1,778	2,148	1,212	250	35,064
	%	70.1	10.5	6.4	7.7	4.4	0.9	100

<표 4-10 >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데 대한 생각

		매우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반대	전체
전문관리직	빈도	120	1,028	1,580	340	3,068
	%	3.9	33.5	51.5	11.1	100
사무기술직	빈도	280	2,688	3,998	642	7,608
	%	3.7	35.3	52.5	8.4	100
판매서비스직	빈도	364	3,044	4,508	468	8,384
	%	4.3	36.3	53.8	5.6	100
농림어업직	빈도	424	1,968	2,190	162	4,744
	%	8.9	41.5	46.2	3.4	100
생산노무직	빈도	690	4,900	5,238	432	11,260
	%	6.1	43.5	46.5	3.8	100
전체	빈도	1,878	13,628	17,514	2,044	35,064
	%	5.4	38.9	49.9	5.8	100

마지막으로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전통적으로 일은 남자가, 가정유지와 관련된 가사노동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의견은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에 비해 많았다. 직업별로는 찬성하는 의견이 평균이상인 직종으로서 는 농림어업직 및 생산노무직이며, 반대하는 의견이 평균이상인 직종은

전문관리직,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직 등이었다. 이는 전통적이 1차 산업 및 2차 산업에 속하는 직종의 취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전통의 일 및 가정질서에 찬성하는 반면 3차 산업에 속하는 직종의 취업자들은 기존의 질서를 반대하고 여성의 일과 남성의 가사노동에의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사대상이 된 취업자들의 생활 상태는 생활공간으로서 주거형태 및 거주면적에서는 99년에 비해 아파트주거 및 자가 거주 형태 증가, 거주면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주당 노동시간의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40-59시간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휴일의 형태 역시 부분적인 실시이지만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99년에 비해서 휴일일수가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 역시 99년에 비해 완화되는 추세이며, 그 이유로서 업무량의 과다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일 그 자체가 힘들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노동 강도가 99년에 비해 강화되지 않았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간의 관념에 대해서 99년에 비해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이 다소 높아졌는데, 특히 전문관리직, 판매서비스직에서 이 경향이 강했다. 시간부족을 느끼는 이유로서는 대체적으로 일 때문이라는 비중이 99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직업별 생활시간 배분의 한일 비교

1. 한일 양국의 생활시간 조사의 개요

한국의 생활시간 기본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된 것으로서 2004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에 걸쳐 10세 이상 가구원(전국 12,750가구, 약 32,000명)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을 10분 단위로 48시간을 스스로 기록하게 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에는 시간에 대한 기록 이외에도 생활 상태에 대한 의식조사가 병행되었다.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의 목적과 유용성을 보면,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파악, 노동력 분석, 사회변화의 파악 및 대처, 삶의 질 파악, 여가 생활 및 이동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손애리, 2001).

일본의 조사는 사회생활기본조사²²⁾로서 1976년 제 1회 조사 이래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2001년 제 6회 조사의 결과물이다. 조사대상은 일본 전국 6,400 조사구 중에서 선정한 약 7만 7천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약 21만 명이다. 조사 시기, 특히 생활시간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9일간 가운데, 조사구 마다 지정한 연속하는 2일間に 대해서 조사했다.

본 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직업별 종사자들이 생활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상세한 생활행동의 분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제한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24시간이라는 생활시간의 배분을 아홉 가지의 행동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3년 5월 30일 발표된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행동의 유형은 1차 활동으로서 수면, 신변을 위한 용무, 식사 2차 활동으로서 통근, 통학, 일, 학업, 가사, 개호(介護)·간호, 육아, 쇼핑, 3차 활동으로서 이동(통학, 통근을 제외한), 매스미디어, 휴양·느긋하게 쉼, 학습·연구(학업이외), 취미, 오락, 스포츠, 사회적 활동, 교제, 요양, 기타 등이다. 일본의 행동유형을 한국의 통계청에서 행한 행동분류(대분류)로 재조정하면 대체로 다음의

22) 일본의 사회생활 기본 조사는 생활시간의 배분 및 자유시간 등에서 주된 활동(인터넷, 학습·연구, 스포츠, 취미·오락, 자원봉사 활동, 여행·행락)에 대해 조사해서 일본 국민의 사회 생활의 실태를 분명히 하고, 각종 정책의 시행의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5-1>과 같이 재편성되어 한일 양국의 생활시간 배분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의 직업분류가 상이한 까닭에 유사한 직업으로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균시간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²³⁾ 즉 직업별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가 제공되지 않은 까닭에 인구분포의 비율을 통해 통합한 직업별 평균시간을 계산함으로써 오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 통계국에서 제공된 자료에서는 직업별 총인구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직업별 인구와 관련하여 비교하는 수밖에 없다. 다음은 한일 양국의 직업별 인구수 및 비율을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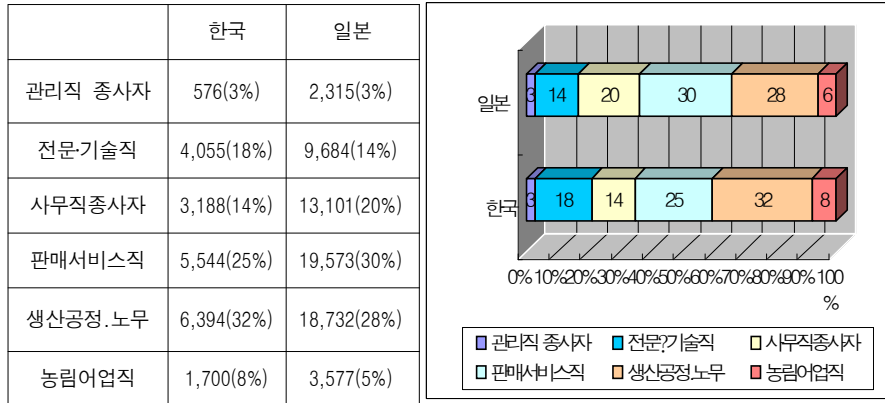
<표 5-1> 한일 생활행동 분류 비교

한국(행동대분류)	일본(행동분류)
개인유지	수면, 신변의 용무, 식사
일	일
학습	학업
가정관리	가사, 쇼핑
가족 보살피기	개호·간호, 육아
참여 봉사	사회적 활동
교제 여가	매스미디어, 휴양, 느긋하게 씬, 학습, 연구(학업 이외), 취미, 오락, 스포츠, 교제, 요양
이동	통근, 통학, 이동(통근, 통학을 제외한)
기타	기타

한일 양국의 인구분포는 직업별 분류의 상이성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래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농림어업직, 생산공정 및 노무직, 전문기술직에서 한국의 비율이 높고,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의 경우는 일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직업별 생활시간 배분을 비교하기 위해 양국의 직업분류를 다음과 같이 행했다. 1) 관리직 종사자 2) 전문기술직 종사자 3) 사무직 종사자 4)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5) 생산노무직 종사자 6) 농림어업직 종사자로 나누고 각국의 유사한 직업을 위의 분류에 따라 재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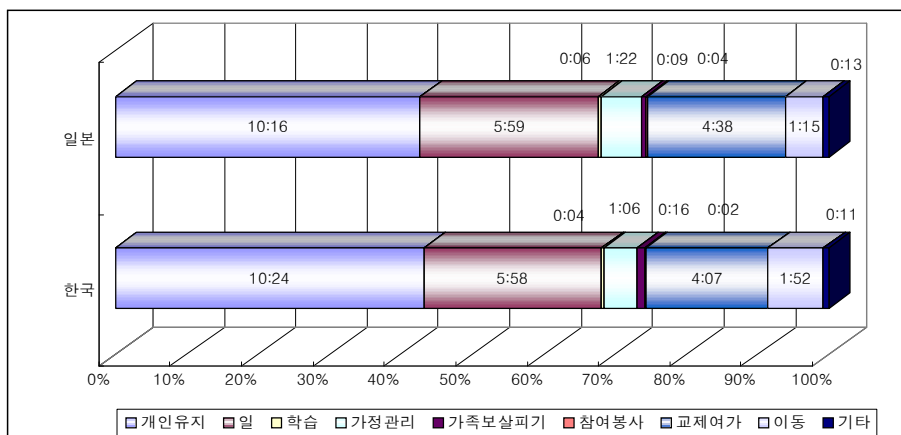
<그림 5- 1> 한일 양국 직업별 인구 및 비율 (단위, 천명, %)



2. 한일 취업자 전체 생활시간 비교

한일 양국의 생활시간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기초필수인 개인유지시간, 가족보살피기, 이동시간이, 일본은 가정관리, 교제 및 여가 등에서 상대국에 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평균 길이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 한일 취업자의 1일 생활시간 - 요일평균



남자의 경우 한국은 개인유지 가족보살피기, 이동에서, 일본은 노동, 학습, 가정관리, 교제 및 여가 등이 긴 생활시간을 배분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한국은 개인유지, 일, 가족보살피기, 이동 등에서, 일본은 학습, 가정관리, 참여 및 봉사, 교제 및 여가 등에 많은 생활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표 5-2> 한일 취업자의 1일 생활시간 - 요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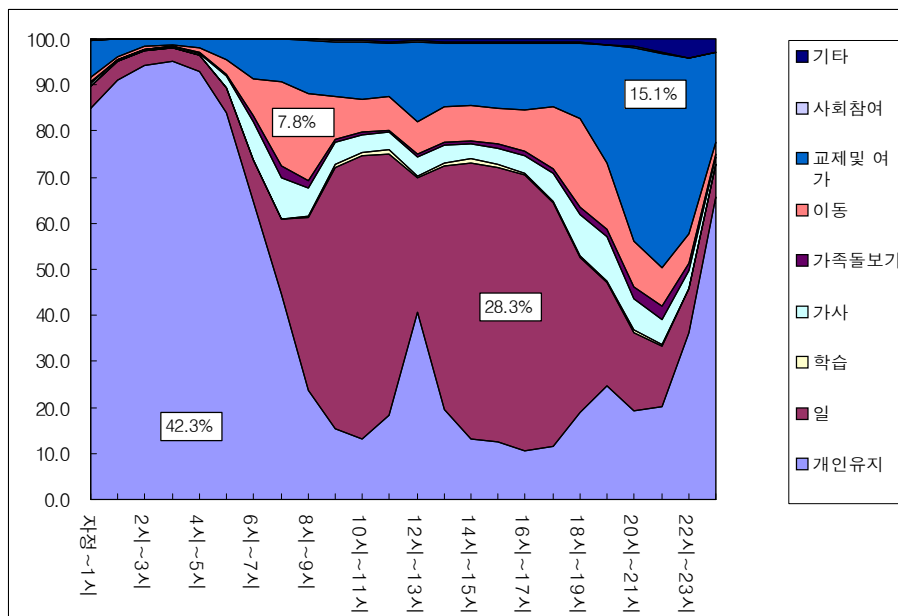
(단위=시간:분)

		개인 유지	일	학습	가정 관리	가족보 살피기	참여 봉사	교제 여가	이동	기타
한국	전체	10:24	5:58	0:04	1:06	0:16	0:02	4:07	1:52	0:11
	남	10:26	6:23	0:03	0:20	0:11	0:02	4:25	2:01	0:10
	여	10:21	5:23	0:06	2:09	0:24	0:02	3:41	1:40	0:13
일본	전체	10:16	5:59	0:06	1:22	0:09	0:04	4:38	1:15	0:13
	남	10:13	6:48	0:06	0:22	0:05	0:04	4:50	1:20	0:11
	여	10:19	4:51	0:07	2:44	0:16	0:04	4:17	1:06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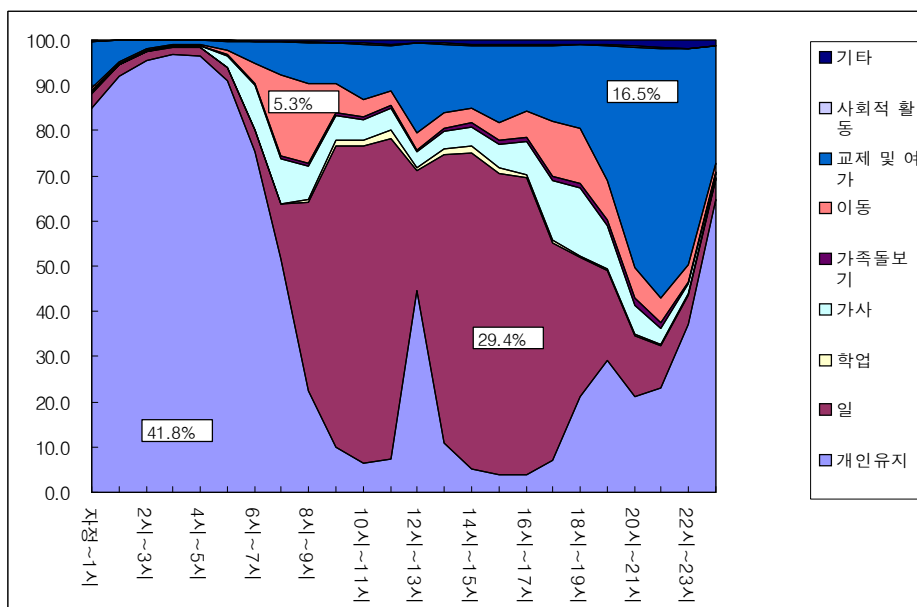
<그림 5-3, 5-4>에 나타난 평일의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취업자 중 행위자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특정시간대에 이루어진 행위자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 우선 개인유지활동의 전체비율은 한국이 42.3%로서 일본의 4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유지활동 중 수면시간인 22시에서 6시까지의 분포는 비슷하나 출근 이후 시간인 8시에서 21시에 이르는 시간의 분포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넓게 퍼져있다. 특히 점심 및 저녁시간의 경우에는 일본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식사시간이 보다 집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일의 노동시간 역시 한국에 비해 일본의 노동시간이 주된 노동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9시에서 12시, 13시에서 17시사이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야간노동시간의 경우를 면적분포로 보면 한국의 경우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사활동의 경우 일본의 비율이 높는데, 특히 17시~20시 사이의 가사관련 활동의 비율이 일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3> 한국 취업자 시간대(평일 전체)



〈그림5-4〉일본취업자시간대(평일전체)



이동시간의 경우 한국(7.8%)이 일본(5.3%)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으며, 출퇴근 시간인 6시~9시, 17시~20시를 제외한 이동시간에서 한국의 이동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 개인유지 : 한국이 일본에 비해 수면, 식사 시간은 길고
개인관리시간은 짧다.**

개인 유지 활동 중 수면 및 식사시간은 한국이, 개인관리시간은 일본이 길다. 식사시간의 경우 일본여성의 식사시간이 한국여성에 비해 총평균 및 행위자 평균에서 길게 나타났다. 개인위생과 관련된 개인관리시간은 총평균 및 행위자 평균시간에서도 일본이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행위자 비율의 경우 한국이 거의 100%인 것에 비해 일본의 행위자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3> 취업자의 기초필수활동 비교

(단위=시간:분, %)

		전체			남			여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수면	한국	7:39	7:39	100	7:41	7:41	100	7:35	7:35	100
	일본	7:31	7:31	99.9	7:39	7:39	99.9	7:20	7:20	100
식사	한국	1:39	1:39	100	1:43	1:43	100	1:34	1:34	100
	일본	1:35	1:36	99.1	1:34	1:34	99.0	1:36	1:37	99.1
개인 관리	한국	1:03	1:03	99.5	0:59	0:59	99.7	1:08	1:08	99.2
	일본	1:10	1:16	92.7	1:00	1:06	91.2	1:23	1:28	94.7

**나. 사회적 활동 : 노동의 행위자 평균시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길며, 가정관리활동은 일본이, 가족보
살피는 시간은 한국이 길다.**

노동시간의 경위 전체평균시간은 한일 양국이 각각 5시간 58분 및 5시간 59분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나 남녀별로는 일본의 남성과 한국의

여성이 더 긴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의 행위자 평균시간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훨씬 길게 나타났으며, 행위자 비율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행위자 평균시간은 짧고 행위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에서의 집중도가 일본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에 다름 아니다. 이는 취업자의 구성상 노동시간이 짧은 임시직 노동이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노동 등에 의한 것이 아닌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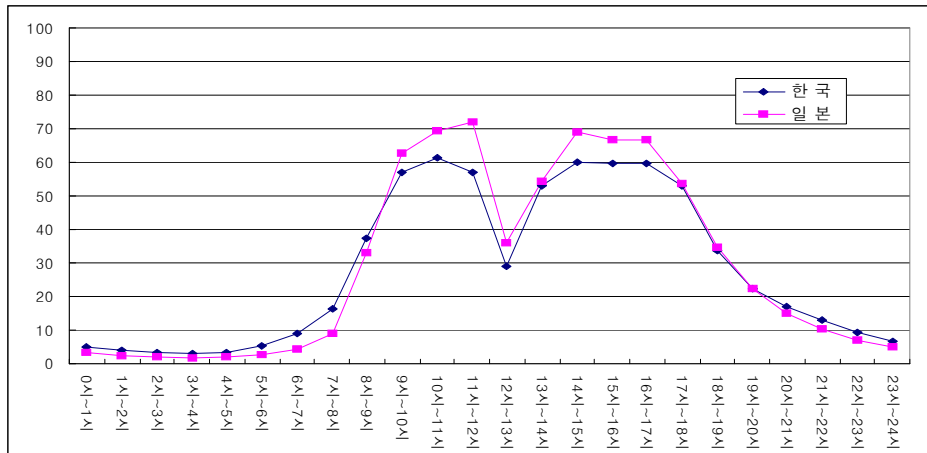
<표 5- 4> 취업자의 의무필수활동 비교

(단위=시간:분, %)

		전체			남			여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일	한국	5:58	6:53	85.5	6:23	7:15	86.9	5:23	6:23	83.5
	일본	5:59	7:54	74.5	6:48	8:38	77.3	4:51	6:48	70.7
통근, 통학	한국	1:06	1:51	78.4	1:20	1:34	82.5	0:58	1:15	73.5
	일본	0:42	1:10	58.3	0:48	1:16	62.3	0:33	1:02	52.8
가사	한국	1:06	1:51	58.9	0:20	0:51	38.0	2:09	2:28	88.1
가사	일본	1:01	2:45	37	0:09	1:18	11.1	2:13	3:04	72.5
쇼평		0:21	1:05	30.3	0:13	1:08	17.3	0:31	1:03	48.3
가족보 살피기	한국	0:16	1:06	24.7	0:11	1:00	17.2	0:24	1:10	35.1
육아	일본	0:07	1:57	6.2	0:04	1:32	4.2	0:12	2:11	8.8
간호,개 호		0:02	1:56	1.9	0:01	1:49	0.9	0:04	1:5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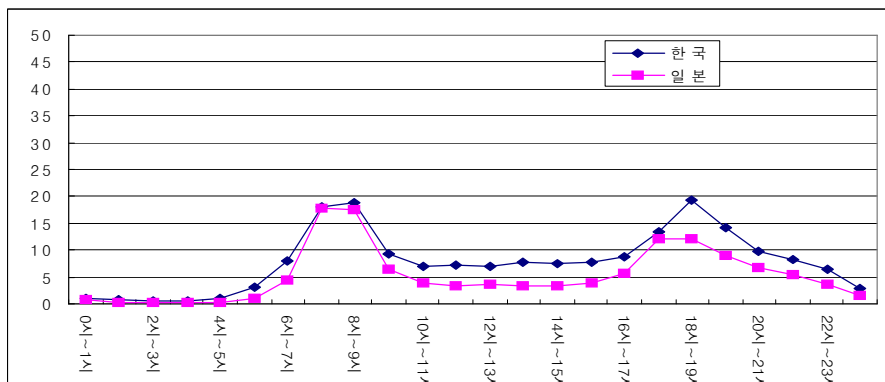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평일의 노동시간의 집중도가 한국에 비해 일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전9시~ 정오, 오후 1시~오후 5시 사이의 노동행위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 비해 일본의 행위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후 9시 이후의 야간 시간대의 노동비율을 보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5-5> 취업자의 노동 시간대 비율(평일)



출퇴근 및 통학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행위자 평균시간 및 행위자 비율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모두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업장과 가정과의 평균거리 및 교통망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양국의 차이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일이동 시간을 시대대별 행위비율로 보면 한일 양국이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오전9시, 오후 6시~오후 9시 등에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오전 및 오후 노동시간대에도 일본에 비해 이동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5-6> 취업자의 이동 시간대 비율(평일)



가정관리와 관련된 가사 및 쇼핑(한국의 경우 가사활동안에 쇼핑이 포함되어 있음)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평균시간 및 행위자 평균시간이 모두 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비율은 일본에 비해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보살피는 시간 및 비율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높았다. 일본의 경우 가사노동 및 쇼핑과 같은 가정관리 시간이, 한국은 가족보살피는 시간이 일본에 비해 긴 것으로 보아 양국에서의 가정에서의 시간활용의 뚜렷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우가 가족성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자녀, 부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가사나 쇼핑과 같은 가족을 위한 가족운영을 위한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여가활동 : 여가활동은 전체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길다. 교제활동은 한국이 길며, 매스미디어 이용은 일본이 길다.

〈표 5- 5〉 취업자의 자유여가활동 비교 - 총평균,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단위=시간:분, %)

		전체			남			여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행위자 비율	
교제	한국	0:47	1:07	69.4	0:46	1:08	67.7	0:48	1:07	71.8
	일본	0:26	2:45	15.0	0:25	2:55	13.7	0:26	2:34	16.6
매스미 디어	한국	1:59	2:15	87.9	2:09	2:25	89.0	1:45	2:01	86.5
	일본	2:07	2:45	76.7	2:14	2:55	76.4	1:57	2:32	77.2
학습(학 업외)	한국	0:05	2:09	3.8	0:05	2:12	3.8	0:05	2:04	3.9
	일본	0:08	2:08	6.2	0:08	2:10	6.0	0:08	2:04	6.4
스포츠	한국	0:19	1:17	42.9	0:23	1:20	53.5	0:04	1:10	38.6
	일본	0:09	1:49	7.5	0:10	1:55	8.0	0:07	1:37	6.7
취미,오 락	한국	0:46	1:15	64.8	0:55	1:20	80.2	0:33	1:05	54.8
	일본	0:35	2:35	21.3	0:40	2:49	22.3	0:27	2:13	19.9

여가 가운데서도 교제활동은 한국이 평균 및 행위자 평균시간 및 행

위자 비율에서도 일본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소극적 여가라고 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주로 TV시청) 활용시간을 보면 일본 평균 2시간 7분으로 한국의 1시간 59분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위자 평균시간 역시 일본이 한국에 비해 30분 정도 길었다.

적극적 여가라고 할 수 있는 학업외 학습은 일본이 옥외활동인 스포츠, 취미 오락에서는 한국이 긴 평균시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적극적 여가활동의 행위자 평균은 일본의 경우가 한국에 비해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행동분류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일본의 행위자 비율은 한국에 비해 낮지만 적극적 여가활동의 행위자 평균시간은 한국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3.한일 직업별 생활시간 비교

가. 관리직 종사자의 생활시간 배분

관리직 종사자란 한국 통계청 분류의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직업으로서는 의회의원 및 기업의 고위임원, 행정 및 경영관리자, 일반관리자 등이다. 일본의 경우 관리직 종사자에는 의회의원을 비롯한 관리직 공무원, 회사 단체 등의 임원, 회사 단체 등의 관리직 사원, 기타 관리직 직업종사자 등이 이에 속한다.

관리직 종사자의 생활시간의 배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면을 비롯하여 식사 등의 개인유지와 관련된 활동시간은 일본의 관리직 종사자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간의 길이는 요일평균으로 본다면 한국의 경우가 17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은 일본 관리직 종사자의 노동시간 길이가 긴(+28분) 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본이 각각 14분, 9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나 가족 보살피기와 같은 가사활동의 경우에는 한국의 관리직 종사자의 시간이 전체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일의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와 같은 활동시간의 차이가 각각 5분과 13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관리직 종사자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일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토, 일요일의 경우 일본은 가정관리활

동의 증가는 한국과 비슷하나 가족보살피는 시간은 평일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참여봉사활동은 일본의 관리직 종사자들의 경우가 한국보다 더 긴 것(평일 +3분, 토요일 +8분, 일요일 +13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은 주 전체로 보아서 일본의 관리직 종사자들이 평균 28분,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그 차이가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평일 +20분, 토요일 +1시간 8분, 일요일 +1시간 1분).

이동시간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우가 일본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리직 종사자의 생활시간의 배분의 특성은 수면을 포함한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과 노동시간, 참여 및 봉사활동, 사회적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일본이 긴 반면, 이동을 위한 시간, 가사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국의 경우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일본이 평균 28분 정도 긴 것으로 보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의 노동시간은 한국의 경우가 긴 것과 여가활동시간의 길이를 보아 한국에 비해 일본이 주중과 주말의 구분이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관리직 종사자의 생활시간 배분

(단위=시간:분)

관리직종사자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개인유지	10:15	10:19	9:54	10:03	10:43	10:40	11:33	11:17
일	5:59	6:16	7:16	7:44	3:53	3:39	1:39	1:30
학습	0:02	0:00	0:03	0:00	0:01	0:00	0:01	0:00
가정관리	0:41	0:36	0:32	0:27	0:55	0:50	1:12	1:02
가족보살피기	0:20	0:05	0:18	0:05	0:24	0:06	0:28	0:06
참여봉사	0:02	0:07	0:02	0:05	0:01	0:09	0:03	0:16
교제여가	4:21	4:55	3:34	3:54	5:43	6:51	6:56	8:06
이동	2:11	1:33	2:13	1:36	2:12	1:30	1:59	1:22
기타	0:08	0:10	0:08	0:07	0:08	0:16	0:09	0:20

나. 전문기술직

전문기술직에 속해 있는 집단을 비교하면 먼저 한국의 경우, 전문가 집단으로서는 과학전문가, 컴퓨터관련 전문가, 공학전문가, 보건의료 전문가, 교육 전문가,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문화, 예술 및 방송 관련 전문가가 여기에 속해 있다.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에 속하는 직업으로서 과학관련 기술 종사자, 컴퓨터 관련 준 전문가, 공학관련 기술 종사자, 보건의료 준전문가, 교육 준전문가,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기타 준전문가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과학 전문가, 농림수산업·식품기술자, 기계·전기기술자, 광업기술자, 건축·토목·측량기술자, 정보처리 기술자,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술자, 기타 보건의료 종사자, 사회복지 전문직종 종사자, 법무종사자, 경영전문직종 종사자, 교원, 종교가, 문예가, 기자, 편집자, 미술가, 사진가, 디자이너, 음악가, 무대예술가, 기타 전문직 직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표 5-7>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생활시간 배분

(단위=시간:분)

전문기술직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개인유지	10:24	10:01	10:03	9:42	10:45	10:30	11:48	11:11
일	5:25	6:14	6:32	7:38	3:35	3:44	1:21	1:45
학습	0:10	0:06	0:13	0:08	0:04	0:02	0:01	0:02
가정관리	0:43	1:15	0:36	1:03	0:48	1:39	1:13	1:53
가족보살피기	0:20	0:13	0:17	0:11	0:26	0:17	0:31	0:18
참여봉사	0:01	0:04	0:01	0:02	0:01	0:07	0:01	0:10
교제여가	4:29	4:27	3:48	3:39	5:28	5:57	6:59	7:00
이동	2:18	1:27	2:21	1:28	2:27	1:27	1:56	1:19
기타	0:09	0:12	0:09	0:09	0:10	0:16	0:10	0:21

전문기술직의 노동생활시간을 비교하면, 먼저 **개인유지시간의 배분은 한국이 일본의 전문기술직보다 평일 21분, 토요일 15분, 일요일 37**

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은 일본이 평일에는 1시간 6분,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9분과 24분정도가 한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의 경우에는 일본의 전문기술직 종사자(평일 +27, 토요일 +51분, 일요일 +40분)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보살피기 시간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길며 특히 한국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참여 및 봉사활동의 경우 양국의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의 평균 시간이 아주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한국 평일에는 9분 일본에 비해 길지만, 토요일 29분, 일요일 1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우가 일본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사무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에 포함되는 직업으로서 먼저 한국은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와 고객센터 사무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일반사무종사자, 회계사무종사자, 생산관련 사무종사자, 영업·판매사무 종사자, 외근사무종사자, 운수·통신사무종사자, 사무용 기기 조작원 등의 직업이 포함되어 있다.

<표 5-8> 사무직 종사자의 생활시간 배분

(단위=시간:분)

사무종사자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개인유지	10:28	10:15	10:03	9:53	11:00	10:51	11:59	11:25
일	5:51	5:32	7:13	7:02	3:31	2:22	1:23	1:08
학습	0:03	0:04	0:04	0:05	0:03	0:02	0:01	0:01
가정관리	0:54	1:48	0:42	1:32	1:12	2:23	1:32	2:28
가족 보살피기	0:21	0:13	0:17	0:11	0:28	0:16	0:31	0:14
참여봉사	0:01	0:04	0:01	0:02	0:01	0:07	0:01	0:11
교제여가	4:03	4:29	3:19	3:03	5:19	6:17	6:29	6:58
이동	2:09	1:23	2:11	1:26	2:16	1:21	1:52	1:11
기타	0:10	0:13	0:10	0:09	0:09	0:20	0:11	0:24

한일 양국 사무직 종사자들의 경우 개인유지시간, 노동시간은 한국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평균 노동시간에서의 차이는 19분 정도 한국의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가 길며 특히 토요일의 경우에는 1시간 9분의 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국에 비해 일본의 사무직 종사자들의 경우가 토요 휴무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직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가정관리와 관련된 시간에서 일본이 한국의 경우보다 가사노동에의 참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및 봉사활동 시간은 평균 1분과 4분으로 짧은 편이지만, 일본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러한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일본은 평일 여가시간이 한국에 비해 짧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의 여가시간은 한국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는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보안 서비스 종사자, 도소매 판매 종사자, 통신 판매 종사자, 모텔 및 홍보 종사자 등이 이 직업집단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 집단에 속하는 직업으로서 상품판매 종사자, 판매 유사직업 종사자, 가정생활지원 서비스 직업 종사자, 생활위생 서비스 직업 종사자, 음식물 조리 종사자, 접객·급식 직업 종사자, 거주시설, 빌딩 등 관리인, 기타 서비스 직업 종사자 등이 이에 속한다.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의 개인유지 시간을 비교하면 한국의 판매 서비스직 노동자가 일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주평균 +6분)을 개인유지에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의 길이는 한국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졌으며, 일본에서도 노동시간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직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요일(5시간 50분), 일요일(3시간 56분)의 노동시간으로 보아 판매 서비스직이 가지는 직업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직종에서는 평일(+34)에는 일본이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지만 토요일(+25분)과 일요일(+14분)은 한국

의 판매 서비스업 종사자가 더 많은 시간동안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종에서는 상대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여가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고 가정관리를 비롯하여 가사노동이 점하는 시간의 비중이 타 직종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경우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일본의 경우가 한국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직종들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판매서비스직의 여가시간이 주 전체적으로 보아도 짧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5-9>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의 생활시간 배분

(단위=시간:분)

판매서비스직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개인유지	10:19	10:12	10:09	9:53	10:20	10:22	11:10	10:55
일	6:01	6:13	6:28	7:02	5:50	5:24	3:56	3:41
학습	0:02	0:12	0:03	0:05	0:01	0:05	0:00	0:02
가정관리	1:32	1:18	1:28	1:32	1:37	1:27	1:47	1:30
가족 보살피기	0:18	0:08	0:18	0:11	0:18	0:09	0:20	0:10
참여봉사	0:02	0:03	0:02	0:02	0:01	0:05	0:01	0:08
교제여가	3:54	4:27	3:40	3:39	4:01	5:03	4:57	6:05
이동	1:40	1:12	1:40	1:26	1:40	1:07	1:30	1:05
기타	0:12	0:11	0:12	0:09	0:12	0:13	0:12	0:19

마. 생산·노무종사자

생산·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집단으로서 먼저 한국의 경우를 보면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속하는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금속, 기계 및 기능 종사자,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조사자,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속하는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기계 조작용 및 관련 종사자, 조립 종사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3) 단순노무 종사자에 속하는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광

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표 5-10> 생산·노무종사자의 생활시간 배분

(단위=시간:분)

생산·노무종사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개인유지	10:24	10:17	10:09	10:03	10:34	10:23	11:27	11:12
일	5:58	6:04	6:47	7:13	5:02	4:43	2:48	1:43
학습	0:04	0:03	0:05	0:04	0:02	0:02	0:01	0:01
가정관리	1:06	1:14	0:60	1:05	1:13	1:30	1:28	1:47
가족 보살피기	0:16	0:08	0:15	0:07	0:19	0:09	0:21	0:11
참여봉사	0:02	0:04	0:02	0:02	0:01	0:05	0:02	0:10
교제여가	4:07	4:46	3:38	4:05	4:41	5:39	5:55	7:26
이동	1:52	1:10	1:53	1:11	1:55	1:11	1:46	1:05
기타	0:11	0:13	0:11	0:10	0:11	0:16	0:12	0:23

일본은 1) 제조·제작 작업자로서 금속재료 제조작업자, 화학재료 제조작업자, 토석제품 제조 작업자, 금속가공 작업자, 금속용접·절단 작업자, 전기기계기구 조립·수리 작업자 등, 2) 정치기계운전·건설기계운전·전기작업자로서 정치기계·기계 및 건설기계운전 작업자, 전기작업자 3) 채굴·건설·노무 작업자로서 채굴작업자, 건설공사 작업자, 토목작업 종사자, 운반노무 작업자, 기타 노무 작업자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생산·노무종사자의 생활시간을 비교하면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개인유지의 경우에는 한국이 길며, 노동시간 역시 평일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긴(+26분) 반면, 토요일, 일요일의 노동시간은 한국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종은 판매서비스직 다음으로 토요일, 일요일의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주5일 근무제가 아직 두 직종에서는 아직 확산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생산·노무종사자 역시 평일의 노동시간(7시간 13분)과 토요일(4시간 45분)은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일요일은 각 1시간 43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을 가진다. 역으로 여가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일본이

토요일 및 일요일 각 5시간 39분과 7시간 8분으로 한국(토요일 4시간 41분, 일요일 5시간 55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와 같은 가사노동시간의 배분을 보면 일본의 생산·노무종사자가 평일(+5분), 토요일(+17분), 일요일(+19분) 모두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 역시 한국이 일본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짐, 한국의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바. 농림어업직 종사자

농림어업직 종사자는 한일 양국이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림어업직 종사자(<표 5-11>)는 한일 양국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긴 개인 유지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시간 역시 5시간을 전후하여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평일과 일요일의 노동시간은 한국의 농림어업직 종사자에 비해 6분과 2분 만이 긴 것으로 나왔지만 토요일의 경우는 약 53분 정도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및 여가시간에서 한 주일 동안 한국의 농림어업직 종사자가 토요일의 제외하고는 일본의 경우보다 적은 교제여가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점은 이동시간인데 한일 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동시간을 보면 일본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30분인데 비해 한국은 평균 1시간 33분으로 일본에 비해 무려 1시간이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농림어업직 종사자의 생활시간 배분

(단위=시간:분)

농림어업직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개인유지	10:36	11:04	10:33	11:02	10:39	11:02	10:46	11:13
일	4:53	5:06	5:06	5:12	4:24	5:17	4:18	4:20
학습	0:00	0:01	0:01	0:01	0:00	0:00	-	0:00
가정관리	1:49	1:38	1:48	1:38	1:54	1:40	1:47	1:39
가족보살피기	0:11	0:09	0:11	0:09	0:11	0:09	0:10	0:07
참여봉사	0:08	0:07	0:09	0:05	0:06	0:08	0:07	0:13
교제여가	4:32	5:10	4:20	5:09	5:00	4:58	5:05	5:57
이동	1:33	0:30	1:34	0:30	1:27	0:30	1:30	0:30
기타	0:17	0:16	0:17	0:15	0:18	0:15	0:17	0:20

<표 5-1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한국은 개인유지, 가족보살피기, 이동 활동시간이 일본에 비해 긴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일, 가정관리, 참여봉사 및 교제 여가시간에서 한국에 비해 긴 시간배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평일 노동시간의 경우 한국의 사무직 종사자를 제외하고 전 직종에서 일본에 비해 짧은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주말 노동시간의 경우 전문기술직 및 농림어업종사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활동 중 가정관리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관리직 및 판매서비스직,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다른 직종에서는 일본에 비해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나타냈다.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 시간 등도 거의 모든 직종에서 평, 토, 일 모두 일본에 비해 짧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출퇴근을 포함한 이동시간의 경우 한국이 일본에 비해 모든 직종에서 길게 나타났다.

<표 5-12> 직종업별 요일별 생활시간 배분 차이

(단위=시간:분)

		개인 유지	일	학습	가정관 리	가족보 살피기	참여 봉사	교제 여가	이동	기타
관리직 종사자	요일평균	-0:04	-0:17	0:02	0:05	0:15	-0:05	-0:34	0:38	-0:02
	평일	-0:09	-0:28	0:03	0:05	0:13	-0:03	-0:20	0:37	0:01
	토요일	0:03	0:14	0:01	0:05	0:18	-0:08	-1:08	0:42	-0:08
	일요일	0:16	0:09	0:01	0:10	0:22	-0:13	-1:10	0:37	-0:11
전문 기술	요일평균	0:23	-0:49	0:04	-0:32	0:07	-0:03	0:02	0:51	-0:03
	평일	0:21	-1:06	0:05	-0:27	0:06	-0:01	0:09	0:53	0:00
	토요일	0:15	-0:09	0:02	-0:51	0:09	-0:06	-0:29	1:00	-0:06
	일요일	0:37	-0:24	-0:01	-0:40	0:13	-0:09	-0:01	0:37	-0:11
사무 종사자	요일평균	0:13	0:19	-0:01	-0:54	0:08	-0:03	-0:26	0:46	-0:03
	평일	0:10	0:11	-0:01	-0:50	0:06	-0:01	0:16	0:45	0:01
	토요일	0:09	1:09	0:01	-1:11	0:12	-0:06	-0:58	0:55	-0:11
	일요일	0:34	0:15	0:00	-0:56	0:17	-0:10	-0:29	0:41	-0:13
판매 서비스	요일평균	0:06	-0:12	-0:10	0:13	0:09	-0:01	-0:33	0:27	0:00
	평일	0:16	-0:34	-0:02	-0:05	0:07	0:00	0:01	0:14	0:03
	토요일	-0:02	0:25	-0:04	0:09	0:08	-0:04	-1:02	0:32	-0:01
	일요일	0:14	0:14	-0:02	0:16	0:09	-0:07	-1:08	0:24	-0:07
생산 노무 종사자	요일평균	0:07	-0:06	0:01	-0:08	0:08	-0:02	-0:44	0:42	-0:02
	평일	0:06	-0:26	0:01	-0:05	0:08	0:00	-0:27	0:42	0:01
	토요일	0:11	0:17	0:00	-0:17	0:10	-0:04	-0:58	0:44	-0:05
	일요일	0:15	1:05	0:00	-0:19	0:10	-0:08	-1:31	0:41	-0:11
농림 어업 종사자	요일평균	-0:28	-0:13	-0:01	0:11	0:02	0:01	-0:38	1:03	0:01
	평일	-0:28	-0:13	-0:01	0:11	0:02	0:01	-0:38	1:03	0:01
	토요일	-0:29	-0:06	0:00	0:10	0:02	0:04	-0:49	1:04	0:02
	일요일	-0:23	-0:53	0:00	0:14	0:02	-0:02	0:02	0:57	0:03

(주 : 한국을 기준으로 함(양수는 한국, 음수는 일본의 생활시간이 긴 것을 표시)

사. 소결

직업별 생활시간 배분의 결과를 요일평균 자료를 토대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직 종사자의 경우 일본은 개인유지, 일, 참여봉사, 교제 및 여가에서, 한국은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이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문기술직 종사자는 일본의 경우 노동, 가정관리, 참여봉사, 교제 및 여가에서 그리고 한국은 개인유지, 학습, 가족보살피기, 이동시간은 한국이 배분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3) 사무종사자는 개인유지, 일, 가족보살피기, 이동은 한국이 길며 학습, 가정관리, 참여봉사, 교제 및 여가의 경우 일본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났다.

(4)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는 일본이 일, 참여봉사, 교제여가, 한국은 개인유지,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이동에서 긴 생활시간을 갖고 있다. 판매서비스직은 직종의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노동시간이 공통적으로 길며, 여가시간은 주 전체로 보더라도 다른 직종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생산·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한국은 개인유지, 가족보살피기, 이동에서, 일본은 일, 가정관리, 참여봉사, 교제여가에서 긴 생활시간을 갖고 있었다.

(6) 농림어업 종사자는 일본이 개인유지, 교제여가, 일, 학습을 그리고 한국은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이동 등에서 긴 생활시간을 배분하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행동유형에 따른 직업별 시간배분 비교

앞 절에서는 직업별 행동유형에 따른 한일 양국의 생활시간 배분을 비교하였다. 이 장에서는 주요 행동을 분석축으로 하여 직업별 양국의 시간 배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앞에서도 밝혔듯이 행동 유형은 한국 통계청의 행동분류를 기준으로 재조정했다.

일반적으로 생활을 구성하는 행동에는 ① 수면이나 식사와 같은 개인의 생리적 활동을 규정하는 시간(생리적 시간), ② 일, 학습과 같은 노동 및 학습시간, ③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순수한 여가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 생산활동의 기초로서 노동 및 학습시간, 기본적인 생물학적 기능을 위한 생리적 시간으로서 개인유지활동시간, 집단적 생활의 토대로서 가사활동시간, 생활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으로서 여가활동시간,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분리의 표현으로서 이동시간을 비교하고자 한다.

가. 노동시간

하루 24시간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생산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일 것이다. 한일 양국의 직업별 노동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표

5-13>)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평일의 노동시간이 일본이 한국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한국은 토요일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판매서비스직이나 생산·노무직종의 노동시간이 관리직, 전문기술직, 사무직에 비해 1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도 평균적으로도 한국의 노동시간이 일본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3> 직종별 노동 및 학습 활동 한일비교

(단위=시간:분)

		관리직		전문기술		사무직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농림어업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일	평일	7:16	7:44	6:32	7:38	7:13	7:02	6:28	7:02	6:47	7:13	5:06	5:12
	토요일	3:53	3:39	3:35	3:44	3:31	2:22	5:50	5:24	5:02	4:45	4:24	5:17
	일요일	1:39	1:30	1:21	1:45	1:23	1:08	3:56	3:41	2:48	1:43	4:18	4:20
학습	평일	0:03	0:00	0:13	0:08	0:04	0:05	0:03	0:05	0:05	0:04	0:01	0:01
	토요일	0:01	0:00	0:04	0:02	0:03	0:02	0:01	0:05	0:02	0:02	0:00	0:00
	일요일	0:01	0:01	0:01	0:02	0:01	0:01	0:00	0:02	0:01	0:01	-	0:00

다음으로 직업별 정규교육과정과 관련된 학습시간에의 배분을 살펴보면, 한국은 관리직, 전문기술직에서 일본의 판매서비스 및 생산·노무직에서 상대에 비해 약간 긴 생활시간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인유지활동

개인유지활동은 하루생활 중 반드시 필요한 생리적 시간으로서 주로 수면, 식사 및 개인관리 시간을 대별될 수 있다(<표 5-14>). 수면시간은 관리직, 농림어업 종사자의 평일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한국 노동자가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 모두 평일보다 토요일 일요일의 수면시간이 늘어나는데 평일에서 토요일의 증가보다 토요일에서 일요일의 증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식사시간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변정리와 같은 개인 관리시간은 대체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직종별 수면, 식사 및 개인관리 활동 한일비교

(단위=시간:분)

		관리직		전문기술		사무직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농림어업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수면	평일	7:07	7:21	7:20	7:02	7:14	7:05	7:26	7:21	7:25	7:26	7:54	8:04
	토	7:52	7:42	7:51	7:42	8:07	7:53	7:34	7:39	7:46	7:41	8:01	8:04
	일	8:41	8:14	8:58	8:14	9:02	8:21	8:20	8:11	8:37	8:24	8:07	8:12
식사	평일	1:42	1:39	1:39	1:29	1:40	1:33	1:35	1:30	1:38	1:34	1:36	1:49
	토	1:44	1:48	1:44	1:35	1:42	1:39	1:36	1:32	1:40	1:37	1:37	1:49
	일	1:45	1:51	1:42	1:17	1:43	1:42	1:39	1:25	1:42	1:04	1:40	1:49
개인관리	평일	1:03	1:03	1:02	1:11	1:08	1:15	1:05	1:10	1:02	1:03	1:09	1:09
	토	1:05	1:10	1:05	1:13	1:08	1:19	1:06	1:10	1:03	1:05	0:51	1:09
	일	1:06	1:10	1:07	1:13	1:12	1:19	1:08	1:10	1:06	1:05	0:53	1:09

다. 가사 및 가정활동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바탕으로 노동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가정이 갖는 의미는 세대에 따라 다르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또한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가정과 작업장이 분리된 결과 가정은 단순히 소비의 단위로 전락하였으며, 탐욕적 자본가에 의해 부녀자 및 아동들이 가정으로부터 작업장으로 생활공간의 많은 부분을 이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의 가정에서의 활동은 주로 가정을 운영하는 가사노동시간과 가족성원을 보살피는 시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가사 및 가정활동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취업자들의 가족 보살피기는 시간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투여는 사무직 및 생산노무직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시간 점유가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의 경우 한국의 관리직, 전문기술직, 사무직은 일요일에 평일의 2배가량의 시간을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관리직, 전문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역시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에 가사노동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5> 직종별 가사 및 가족 보살피기 활동 한일비교

(단위=시간:분)

		관리직		전문기술		사무직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농림어업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가사 쇼평	평일	0:32	0:27	0:36	1:03	0:42	1:32	1:28	1:13	1:00	1:05	1:48	1:38
	토	0:55	0:50	0:48	1:39	1:12	2:23	1:37	1:05	1:13	1:47	1:54	1:39
	일	1:12	1:02	1:13	1:53	1:32	2:28	1:47	1:14	1:28	1:47	1:47	1:27
가족 보살피기	평일	0:18	0:05	0:17	0:11	0:17	0:11	0:18	0:07	0:15	0:07	0:11	0:09
	토	0:24	0:06	0:26	0:17	0:28	0:16	0:18	0:08	0:19	0:11	0:11	0:07
	일	0:28	0:06	0:31	0:18	0:31	0:14	0:20	0:09	0:21	0:11	0:10	0:02

라. 여가활동

여가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한일 양국의 여가활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TV시청과 같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리직이나 전문기술직, 사무직 그리고 생산노무직은 일요일의 여가활동에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경향도 단순한 휴양, 휴식과 같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이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6> 직종별 매체 및 여가활동 한일비교

(단위=시간:분)

		관리직		전문기술		사무직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농림어업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대중매체 이용	평일	1:31	1:45	1:38	1:30	1:30	1:40	1:47	1:51	1:45	2:08	1:49	2:45
	토	2:37	2:53	2:28	2:13	2:30	2:27	1:54	2:11	2:12	2:38	2:16	2:32
	일	3:11	3:44	3:19	2:41	3:18	2:53	2:18	2:41	3:13	3:26	2:54	2:45
적극적 여가활동	평일	1:22	1:15	1:22	1:07	1:14	1:00	1:13	1:03	1:11	0:49	1:52	0:54
	토	2:01	2:40	1:52	2:27	1:53	2:28	1:23	1:41	1:36	1:49	1:59	1:10
	일	2:37	3:02	2:28	2:55	2:15	2:42	1:50	2:09	1:47	2:42	1:36	1:36
소극적 여가활동	평일	2:14	2:44	2:27	2:34	2:06	2:41	2:29	2:59	2:29	3:18	2:37	4:20
	토	3:43	4:20	3:37	3:37	3:27	3:10	2:39	3:55	3:06	3:55	3:07	3:56
	일	4:22	5:20	4:32	4:15	4:15	4:27	3:08	4:05	4:10	4:54	3:36	4:14

일본의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직 농림어업직, 생산노무직의 여가활동이 한국에 비해 훨씬 소극적인 여가활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만, 전체 시간에서 여가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이 한국에 비해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가시간배분의 경향은 한일 양국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마. 이동활동

한일 양국의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관리직, 전문기술, 사무직에 비해 판매서비스, 농림어업, 생산노무직의 이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직종별 이동활동 한일비교

(단위=시간:분)

		관리직		전문기술		사무직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농림어업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통근 통학	평일	1:41	0:57	1:49	1:01	1:41	1:01	1:08	0:46	1:22	0:50	0:49	0:10
	토	0:57	0:23	1:14	0:28	0:57	0:18	0:57	0:29	0:59	0:31	0:40	0:08
	일	0:21	0:08	0:20	0:09	0:18	0:08	0:33	0:19	0:27	0:10	0:39	0:05
기타 이동시간	평일	0:32	0:39	0:32	0:27	0:30	0:25	0:32	0:28	0:31	0:21	0:45	0:20
	토	1:15	1:07	1:13	0:59	1:19	1:03	0:43	0:45	0:56	0:40	0:47	0:22
	일	1:38	1:14	1:36	1:10	1:34	1:03	1:04	0:31	1:19	0:55	0:51	0:25

통학통근에 있어서 평균이동시간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학통근을 제외한 기타활동을 위한 이동시간도 전반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학통근시간은 평일에서 토요일, 일요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과 반대로 기타활동과 관련된 이동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결 론

노동시간은 그 길이의 길고 짧음만이 아니라 휴식, 휴양과 같은 여가 시간, 가정에서의 시간,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으로서의 개인유지 시간 등과 유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노동과정에서의 시간 그 자체만이 강조되던 시기로부터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소비과정으로서의 여가 시간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대량생산시스템의 시대에는

노동자들의 행복은 기업의 발전에 좌우되었지만, 지금부터는 노동자들의 생활만족에 기업의 번영이 좌우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생활의 주체가 생산, 노동으로부터 소비, 여가로 이행하는 사회이며, 생산자가 상품의 사이클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소비자인 노동자가 상품의 사이클을 결정하는 시대로 변화되었다. 현재의 노동과정에 위치하는 노동자들은 단순화·획일화된 노동자가 아니라 다양하고 개별화된 욕구를 가진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과정에서의 생활 못지않게 소비 및 여가과정에서의 생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취업자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하는가를 비교했다. 하루 24시간 속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한국통계청의 행동분류에 입각하여 아홉 가지 정도로 분류하여 재구성하였다.²⁴⁾

각 직업별 생활시간 배분의 비교·고찰에서 나타난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당노동시간의 비교에서도 확연히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길이는 한국과 일본의 취업자 생활시간 비교 결과는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길이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평일의 노동시간이 사무직을 제외하고는 전 직종에서 일본의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이다. 반면 토요일의 노동시간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농림어업 종사자들에게서는 한국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의 시간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이 판매 서비스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학습에 투여하는 평균시간이 일본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현 직장의 지위로부터 상승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정가사와 관련된 시간은 가사노동의 경우는 사무직과 생산노무직의 일본인이 동종에 종사하는 한국인에 비해 평일에 투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관리직이

24)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원자료를 직접 가공·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업분류와 행동분류상의 몇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또 현시점에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생활시간 배분의 변화와 같은 역동적인 과정들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추후의 연구는 양국의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특정행동이 일어나는 시간대 비교, 임금노동자들만의 생활시간분석 등의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나 전문기술직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일본인은 평일에 거의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보살피기와 같은 가족구성원의 양육, 교육 및 개호(介護)에 대한 시간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길었다. 이는 한국의 보육 및 교육, 개호시설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전 직종에 걸쳐 여가시간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의 내용을 보면 양국이 모두 소극적 여가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길며, 주로 TV시청과 같은 대중매체의 이용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근·통학과 같은 이동시간은 전반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가정과 작업장의 거리가 한국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근·통학시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직업별 한일 양국의 생활시간 배분의 결과 좀 더 세밀한 관심이 요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일의 노동시간이 한국에 비해 일본이 긴 것으로 나왔다는 사실에서 한일 양국의 평일 노동생활에 대한 폭넓은 관찰이 요구되며, 현재 노동자와 자본가 양측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주5일제 근무의 전개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작업장까지의 이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수면시간이나 여가시간의 부분을 침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연구를 통해서 생활시간의 중요한 부분을 이동에 낭비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면, 휴식·휴양,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등을 늘림으로써 인적자원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한일 양국에 공통되는 것이지만, 여가활동의 경향이 대중매체이용과 같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인데, 특히 한국이 일본에 비해 전 직종을 통해서 참여봉사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서 정부는 여가활동의 종목을 확대·개선하고, 여가활동을 조직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해 자신의 소중한 여가시간을 투여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여가운리를

확산시키고 사회의 통합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모두 같지 않고,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가족관계에 있으며,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다. 전산업사회에서는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했지만,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출현은 다양한 시간활용방식들을 가져왔다.

국민의 생활시간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은 국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 고양이라는 목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회의 생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절대인구인 취업자의 하루 24시간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입안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취업자의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5년 전과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비교분석하였다. 2004년 현재 한국의 취업자들이 하루 24시간분석을 통해 발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취업자들의 생활상태 및 생활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공간으로서 주거형태 및 거주면적에서는 99년에 비해 아파트주거 및 자가 거주 형태의 증가, 거주면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주당 노동시간의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40-59시간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휴일의 형태 역시 부분적인 실시이지만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99년에 비해서 휴일일수가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 업무와 관련하여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 역시 99년에 비해 완화되는 추세이며, 그 이유로서 업무량의 과다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일 그 자체가 힘들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노동 강도가 99년에 비해 강화되지 않았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간의 관념에 대해서 99년에 비해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이 다소 높아졌는데, 특히 전문관리직, 판매서비스직에서 이 경향이 강했다. 시간부족을 느끼는 이유로서는 대체적으로 일 때문이라는 비중이 99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자들은 전체적으로 99년에 비해 필수생활시간 및 여가생활

시간은 증가하고 의무활동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민전체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으며, 여가생활 중에서도 미디어 이용에서는 국민전체는 감소하는 데 비해 취업자는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 남성의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는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이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은 조금씩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음식준비와 집안청소하는 행위자비율이 취업자는 일요일, 미취업자는 평일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가생활시간은 9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변화의 폭은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가 훨씬 컸다. 취업자의 여가생활 중에서 여전히 미디어 이용 비율이 가장 높고, 미디어 이용 중에서도 TV가 아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주중에 감소하고 주말과 일요일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직업별 생활시간 배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생활에는 농림어업직이, 줄어드는 의무생활에는 서비스직이 가장 긴 생활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생활시간은 직업별로 9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서비스직이 9시간 41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경영관리자가 8시간 51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시간의 경우 장치기계조립직 종사자가 하루 7시간 19분을 노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요일별로 보면 평일은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의 증가가 의무생활시간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과 배분은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토요일은 99년에 비해 토요일의 의무생활시간이 줄어들고, 여가생활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장치기계조립직과 판매직은 소폭 감소했다. 일요일은 의무생활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도 서비스직과 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은 여전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이에 비해 경영관리직, 전문가, 기술직, 사무직 종사자들의 일요일은 휴일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다. 또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필수생활시간은 99년 고용주가 10시간 11분으로 가장 높았지만, 04년은 자영업자가 10시간 28분으로 가장 긴 필수시간을 가지고 있다. 수면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고용주는 99년에 비해 3분이 7시간 34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쓰고 있다. 노동시간은 여전히 고용주

가 가장 길었으며, 여가생활시간은 가장 큰 증가폭(22분)을 보였으며, 교제활동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거의 45분 이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필수생활시간을 99년에 비해 무려 21분이나 증가된 10시간 37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노동시간은 6시간 9분으로 40대가 가장 길며, 그 다음으로 30대, 20대, 50대, 60대 10순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경우 60대가 가장 긴 1시간 41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0대가 1시간 36분이었다. 여가생활시간은 60대, 10대가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가생활시간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연령은 30대로 3시간 49분을 사용해 60대와 1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산업별 생활시간 배분의 특징 역시 99년에 비해 다른 속성과 비슷하게 필수생활시간, 여가생활의 증가, 의무활동시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1차 산업종사자를 제외하고는 토, 일요일 노동시간의 감소는 수면, 미디어 이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간은 1차 산업은 평, 토, 일 비슷하지만, 2, 3차 산업은 토요일 감소, 일요일 급감하였다. 이동시간은 전 산업부문의 종사자들에게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취업자 생활시간 비교 결과는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길이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일의 노동시간이 사무직을 제외하고는 전 직종에서 일본의 시간이 긴 반면 토요일의 노동시간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농림어업 종사자들에게서는 한국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의 시간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가사와 관련된 시간은 가사노동의 경우는 사무직과 생산노무직의 일본인이 동종에 종사하는 한국인에 비해 평일에 투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관리직이나 전문기술직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일본인은 평일에 거의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보살피기와 같은 가족구성원의 양육, 교육 및 개호(介護)에 대한 시간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길었다. 전 직종에 걸쳐 여가시간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의 내용을 보면 양국이 모두 소극적 여가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길며, 주로 TV시청과 같은 대중매체의 이용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근·통학과 같은 이동시간은 전반

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들의 생활시간 배분의 추이는 대체로 노동시간의 감소라는 추세와 상대적으로 늘어난 개인유지 및 여가시간의 확대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2005년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와 급속한 정보화에 따른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를 예상한다면 취업자들이 생활이 급속하게 변화해 가지라는 사실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변화된 생활시간구조를 바탕으로 보다 취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취업자의 생활시간 추이변화에서도 보았듯이 노동시간의 감소, 여가시간의 증대라는 추세는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사회전반적인 노동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집중근무시간제(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시 30분~3시30분과 같이)를 도입하여 노동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여가시간의 확대, 특히 토, 일요일의 여가시간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TV시청·인터넷이용 등과 같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으로부터 벗어나 활동적이고 미래지향적, 자기계발적 여가(봉사활동, 전문기술획득, 외국어 학습, DIY여가)로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가시간의 확대경향은 가정생활의 비중을 가족중심적 여가가 증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정생활의 안정은 직장에서의 생산력 증대와 매우 관련이 높고, 또 가정생활의 만족이 직장조직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장조직의 지원이나 공적 서비스 시설의 확대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취업자생활시간을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취업자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하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본에 비해 아주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이를 보다 효율적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 아래 주거지와 직장간의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의 확산은 생활시간 구조를 변화시켜 기존의 여가문화, 노동문화 등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가는 감소되는 노동시간 속에서 노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증가된 여가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한 생활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시간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다양한 국민의 생활시간을 파악하여 국민계정에 가계부문 생산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국민의 삶과 연계된 기초생활부문인 노동, 복지, 문화, 교육, 교통 관련 정책수립 및 학문적 연구활동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이후 국민생활시간조사에 필요한 과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생활시간 조사 및 분석의 시기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의 국민생활시간조사는 법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5년에 한 번씩 시행되고 있다. 물론 생활패턴 변화의 속도에 입각하여 5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졌겠지만, 최근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더불어 정보기술의 변화는 5년이라는 조사 및 분석주기가 짧게 여겨질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조사시기 및 분석시기 역시 단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국민의 생활시간을 적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시행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특히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표본의 배 이상의 조사확대가 필요하다. 생활시간조사는 법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시행하는 국가적 조사이다. 따라서 이 조사의 결과를 현재와 같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국가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이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정책을 입안하는 데에도 역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표본의 크기로는 지자체나 표본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조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크기로 생활시간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생활시간조사를 위한 조직의 규모와 조사비용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국민생활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1년 중 특정 달의 행위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어느 때라도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 국민의 시간활용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시점은 1999년에는 9월 2일~14일, 2004년에는 9월 2일~13일에 행해진 것처럼 특정 계절의 특정 달에만 이루어짐으로 해서 각 계절의 특성에 따른 평균행위시간 및 비율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동·하절기의 수면시간과 기상 및 취침시간, 여가활동 유형 등에서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생활시간 조사시기의 단축과 더불어 생활시간조사시점의 다양화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하루 24시간의 활동을 시간량으로 나타낸 정량적인 조사이다. 따라서 생활의 질적인 측면이나 생활의식의 측면에 대한 질적인 분석으로 나아가기까지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타조사(사회통계조사, 경제활동조사 등)와의 Data Maching 방법을 통해 같은 조사대상에 대한 생활상태 및 의식을 찾아냄으로서 국민생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생활시간조사의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시간 조사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시간의 활용은 매체나 소수 연구자에 국한되어 있다.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분야(교육, 노동, 산업, 복지, 여가, 스포츠, 가족, 여성, 교통 및 통신, 일상생활 등)에서의 전문연구자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는 연구자 집단을 조직하고 이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결과물을 발표할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 행정,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활시간조사의 결과물을 활용을 위해서 각 영역에 적합한 형태로 결과물을 재가공하여 판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생활시간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되는 조사방법의 개선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일부층(연로자층)에의 적용에는 문제가 있지만, 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시간 국민생활시간조사 분석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의 기술력이나 기반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지방 역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구축 및 활용방안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이 가능한 시기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실시간 국민생활조사 분석시스템은 조사가 필요한 시기에 언제라도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목적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어 이전의 연필과 펜에 의한 조사 및 자료수집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용도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문겸. 1993. 『여가사회학』. 한울.
- 김문겸. 1996. 『현대사회와 여가』. 부산대학교 출판부.
- 김진균·정근식·공제욱, 1999, 『근대적 시공간의 사회 이론을 위하여』, 경제와 사회 41, 한울.
- 김희재, 2002a. “노동생활과 노동정책”, 『한국과 일본의 일상생활』, 부산대학교 출판부.
- 김희재, 2002b, “직업별 생활시간 배분과 노동자 생활상태”, 『연대와 실천』, 영남노동사회연구소. 100호.
- 김희재, 2002c, “직업별 생활시간 한일비교”, 『연대와 실천』, 영남노동사회연구소. 101호.
- 박재환, 2004, “주5일 근무제 실시가 가져올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 및 실행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박재환 외, 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 박재환. 김문겸. 1997. 『근대사회의 여가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울노동정책연구소, 1994, 『일본적 생산방식과 작업장체제』, 셋길.
- 손애리, 2001, “생활시간조사 개발현황과 전망”, 『1999 생활시간조사 중합분석사업 결과』, 통계청
- 원용진, 1995, “문화연구와 맑스주의”,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언론』, 한울).
- 이광주, 1992. 『유럽사회-풍속산책』. 까치.
- 이기영, 2001,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1999 생활시간조사 중합분석사업 결과』, 통계청
- 이기영, 이연숙, 김외숙 외, 2001,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은진, 2001. “직업별 노동시간의 변화”, 『사회연구』 14집,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 이진경, 1997,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 이창익, 2002, “근대적 시간과 일상의 표준화”, 『역사비평』 59호, 역사문

제연구소, 역사비평사

임문영, 1994, “프랑스의 여가연구의 최근 동향”, 동아대 관광레저연구소, 『관광레저』 창간호

정근식, 2000, “한국의 근대적 시간 체제의 형성과 일상생활의 변화 I”, 『사회와 역사』 제 58집, 문학과 지성사

통계청, 2001,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편 생활시간량편.

통계청, 2001.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결과보고』.

통계청, 2001.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편 생활시간량 편.

통계청, 2001.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2편 시간간격별 행위자 비율.

농촌진흥청, 1966, 1984, 1988, 1994, 1999, 『농촌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 시간 분석보고서』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平成13年 第1卷 その1, 日本統計協會, : 全國 生活時間編 , 總務省統計局 편, 日本統計協會, 2003년 03월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平成13年 第1卷 その2, 日本統計協會, 日本統計協會, : 全國 生活時間編 , 總務省統計局 편, 日本統計協會, 2003년 03월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平成13年 第2卷, 日本統計協會, 日本統計協會, : 全國 生活時間編 , 總務省統計局 편, 日本統計協會, 2003년 03월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平成13年 第3卷, 日本統計協會, 日本統計協會, : 全國 生活時間編 , 總務省統計局 편, 日本統計協會, 2003년 03월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平成13年 第4卷 その1, 日本統計協會, 日本統計協會, : 全國 生活時間編 , 總務省統計局 편, 日本統計協會, 2003년 03월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平成13年 第4卷 その2, 日本統計協會, 日本統計協會, : 全國 生活時間編 , 總務省統計局 편, 日本統計協會, 2003년 03월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平成13年 第4卷 その3, 日本統計協會, 日本統計協會, : 全國 生活時間編 , 總務省統計局 편, 日本統計協會, 2003년 03월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平成13年 第5卷, 日本統計協會, 日本統計協會, : 全國 生活時間編, 總務省統計局 편, 日本統計協會, 2003년 03월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平成13年 第6卷, 日本統計協會, 日本統計協會, : 全國 生活時間編, 總務省統計局 편, 日本統計協會, 2003년 03월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平成13年 第7卷, 日本統計協會, 日本統計協會, : 全國 生活時間編, 總務省統計局 편, 日本統計協會, 2003년 03월

日本總務省統計局, 社會生活基本調査, 2002,
<http://.stat.go.jp/data/shakai/index.htm>.

日本能率協會總合研究所, 2005, 『ニッポン人の生活時間データ總覽』, 生活情報センター

日本勞動組合總連合會, 1995, 『女性の勞動・勞動生活時間 フルタイムで働く女性1万人に聞く』, 勞動科學研究所出版部

松原治郎, 山本英治, 1982. 『人間生活の社會學』, 垣内出版株式會社.

松村祥子, 1987, 『現代生活論』, 有斐閣.

佐藤博樹, 佐藤 厚, 2004, 『仕事の社會學』, 有斐閣.

米田清治, 1992. 『非勞動時間の生活史』. 明和印刷.

NHK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編, 1995, 『生活時間の國際比較』, 大空社
 矢野眞和, 2001, 『生活時間の國際比較』 文部省科學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NHK放送文化研究所編, 2002, 『日本人の生活時間・2000 NHK國民生活時間調査』, 日本放送出版協會.

總務廳統計局, 2000, 『生活時間とライフスタイル』, 日本統計協會.

伊藤 セツ; 天野寛子; 李基榮; 水野谷武志, 2001, 『生活時間と生活意識 東京・ソウルのサラリーマン夫妻の調査から』, 光生館

伊藤セツ; 天野寛子, 1989, 『生活時間と生活様式』, 光生館

伊藤 セツ, 2001, 『生活時間と生活意識 : 東京.ソウルのサラリーマン夫妻の調査から』, 光生館

矢野眞和, 1995, 『生活時間の社會學 : 社會の時間・個人の時間』, 東京

大出出版會

- 天野晴子, 2005, 『生活時間と生活福祉』, 光生館
- 天野寛子, 1994, 『生活時間と生活文化』, 光生館
- 大木一訓, 1987, 『現代の 労働と生活』, 學習の友社
- 小代順治, 1999, 『労働時間・休日・休暇』, 生産性出版
- 山本吉人, 1995, 『労働時間』, 有斐閣
- 内田弘, 1993, 『自由時間 : 眞の<豊かさ>を求めて』, 有斐閣
- 藤本武, 1990, 『國際比較 日本の労働者 : 賃金・労働時間と労働組合』,
新日本出版社
- 藺田碩哉, 1993, 『デザインする時間』, 中央法規出版
- 荒井良雄, 1996, 『都市の空間と時間 : 生活活動の時間地理學』, 古今書院
- 熊谷苑子, 1998, 『現代日本農村家族の生活時間 : 經濟成長と家族農業經營の危機』, 學文社
- 井上俊 外, 1995, 『任事と遊びの社會學』, 岩波書店
- 安藤喜久雄, 1984, 『生活の社會學』, 學文社
- 中田照子, 2005, 『國際比較 ハタラクく父母の生活時間 : 育兒休業と保育所』, 御茶の水書房
- Attali, J., 1982, 『Histoires Tempes』 (特不三也 譯, 『時間の歴史』, 原書房).
- Caceres, Benigno. 1973. 『Loisir et Travail: Du Moyen Age A Nos fours, Paris: Seuil.
- D' Epinay, Christian J. 1991. "Beyond the Antinomy: Work versus Leisure". 『Society and Leisure』 Vol. 14. n 2. Fall. University of Quebec.
- Dumazedier, Joffre. 1960. 『Current Problems of the Sociology of Leisur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4』.
- Dumazedier, Joffre. 1974. 『The Sociology of Leisure』. Amsterdam: Elsevier.
- Dumazedier, Joffre.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Y. Free Press.

- Dunning, Eric. 1986. 『The Dynamics of Modern Sport: Notes on Achivement-Striving and the social significance of Sport』. edited by Elias, N. and E. Dunning. Quest For Excitement. Oxford: Basil Blackwell.
- Hassard, J.(ed), 1990, 『The Sociology of Time』, St. Martin's Press.
- Heller, A., 1994, "The Abstract Concept of everyday life", (박재환 외,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 Kurzweil, E., 1984, 이광래 역, 『구조주의의 시대』, 종로서적.
- Le Goff, J., 1980, 『Time, Work and Culture in the Middle Ages』, Chicago Univ. Press.
- Lefebvre, H., 1992, 『La Vie Quotienne dans le Monde Moderne』,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세계일보사.
- Malcolmson, Robert W, 1973. 『Populer Recreation in English Society, 1700~1850』.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son, Tony, 1989, 『Sport in Birtain: A Social History』. Cambridge Untversity Press.
- Meakin, David. P. C. 1963. 『Sport in Society』. London: C. H. Watts.
- Medick, Hans., 1982. "Plebeian culture in the transition to capitalism,". 『In Culture, Ideology and Politics』. edited by r.S. Samuel and G.S. Jon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ronovost, Gilles. 1989. 『Current Sociology: The Sociology of Time』. vol. 37. Num. 3. Winter. Sage Publications.
- Robert, Kenneth. 1978.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growth of leisure』. NY. Longman.
- Rojek, Chris. 1985. 『Capitalism and Leisure Theory』. NY. Tavistock Publication.
- Touchard, j. 1975. 『Histore des Ideas Policique』. Paris, PUF.
- Urry, J., 1995, 『Consuming Places』, Routledge.
- Walvin, James. 1975. 『The People's Game: a Social History of British Football』. London: Allen Lane.

<부 록>

1. 취업자 생활상태 및 의식(1999년)

부록은 첫째, 제2장 2절 취업자의 생활상태 및 의식의 분석을 위한 1999년도 취업자들의 직업별 생활상태 및 생활의식조사의 결과임.

둘째, 표본이 된 1999년과 2004년의 취업자의 구성표

<부표 1-1> 직업별 주거형태(1999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타	전체
전문관리	647	932	155	49	55	1,838
%	35.2	50.7	8.4	2.7	3.0	100.0
사무기술	1,848	1,595	401	152	85	4,081
%	45.3	39.1	9.8	3.7	2.1	100.0
판매서비스	3,187	1,401	586	207	431	5,812
%	54.8	24.1	10.1	3.6	7.4	100.0
농림어업	3,969	79	21	9	28	4,106
%	96.7	1.9	0.5	0.2	0.7	100.0
생산노무	4,584	1,895	801	306	169	7,755
%	59.1	24.4	10.3	3.9	2.2	100.0
전체	14,235	5,902	1,964	723	768	23,592
%	60.3	25.0	8.3	3.1	3.3	100.0

<부표 1-2> 직업별 입주형태(1999년)

입주형태	자기집	전세	월세,사글세	무상 및 사택	전체
전문관리	1,187	465	70	116	1,838
%	64.6	25.3	3.8	6.3	100.0
사무기술	2,438	1,213	312	118	4,081
%	59.7	29.7	7.6	2.9	100.0
판매서비스	3,366	1,555	776	115	5,812
%	57.9	26.8	13.4	2.0	100.0
농림어업	3,947	60	39	60	4,106
%	96.1	1.5	0.9	1.5	100.0
생산노무	4,537	2,005	1,012	201	7,755
%	58.5	25.9	13.0	2.6	100.0
전체	15,475	5,298	2,209	610	23,592
%	65.6	22.5	9.4	2.6	100.0

<부표 1-3> 직업별 주거면적(1999년)

전용면적리코드	20평 미만	20-39평	40평 이상	전체
전문관리	584	1,092	162	1,838
%	31.8	59.4	8.8	100.0
사무기술	1,917	2,015	149	4,081
%	47.0	49.4	3.7	100.0
판매서비스	3,047	2,567	198	5,812
%	52.4	44.2	3.4	100.0
농림어업	1,166	2,793	147	4,106
%	28.4	68.0	3.6	100.0
생산노무	4,511	3,078	166	7,755
%	58.2	39.7	2.1	100.0
전체	11,225	11,545	822	23,592
%	47.6	48.9	3.5	100.0

〈부표 1-4〉 직업별 주당 노동시간(1999년)

노동시간리 코드	20시간 미만	20-39시간	40-59시간	60-79시간	80시간 이상	전체
전문관리	87	153	1,081	426	88	1,835
%	4.7	8.3	58.9	23.2	4.8	100.0
사무기술	208	328	2,367	978	194	4,075
%	5.1	8.0	58.1	24.0	4.8	100.0
판매서비스	380	698	1,632	1,976	1,122	5,808
%	6.5	12.0	28.1	34.0	19.3	100.0
농림어업	450	1,091	1,541	837	186	4,105
%	11.0	26.6	37.5	20.4	4.5	100.0
생산노무	422	885	3,503	2,367	570	7,747
%	5.4	11.4	45.2	30.6	7.4	100.0
전체	1,547	3,155	10,124	6,584	2,160	23,570
%	6.6	13.4	43.0	27.9	9.2	100.0

<부표 1-5> 직업별 정기휴일 실태(1999년)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 격주휴무	일주일에 이틀	매 2주에 하루만	정해진 휴일없이 수시로 쉽	기타	전체
전문관리	1,244	153	150	50	195	32	1,824
%	68.2	8.4	8.2	2.7	10.7	1.8	100.0
사무기술	2,603	379	301	124	418	98	3,923
%	66.4	9.7	7.7	3.2	10.7	2.5	100.0
판매서비스	1,657	68	175	641	1,990	230	4,761
%	34.8	1.4	3.7	13.5	41.8	4.8	100.0
농림어업	31	0	2	8	2,257	4	2,302
%	1.3	0.0	0.1	0.3	98.0	0.2	100.0
생산노무	3,339	379	415	473	2,481	375	7,462
%	44.7	5.1	5.6	6.3	33.2	5.0	100.0
전체	8,874	979	1,043	1,296	7,341	739	20,272
%	43.8	4.8	5.1	6.4	36.2	3.6	100.0

<부표 1-5> 업무 후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1999년)

피곤함	예. 항상	예. 가끔	아니오, 거의	아니오, 전혀	전체
전문관리	570	1,004	237	27	1,838
%	31.0	54.6	12.9	1.5	100.0
사무기술	1,199	2,190	603	89	4,081
%	29.4	53.7	14.8	2.2	100.0
판매서비스	2,586	2,246	815	165	5,812
%	44.5	38.6	14.0	2.8	100.0
농림어업	1,706	1,716	577	107	4,106
%	41.5	41.8	14.1	2.6	100.0
생산노무	3,333	3,488	779	155	7,755
%	43.0	45.0	10.0	2.0	100.0
전체	9,394	10,644	3,011	543	23,592
%	39.8	45.1	12.8	2.3	100.0

<부표 1-6>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1999년)

	업무량 많아서	일자제가 힘들어서	근무여건(시 설, 환경)이 나빠서	직장내 인간관계 때문에	기타	전체
전문관리	874	360	97	109	134	1,574
%	55.5	22.9	6.2	6.9	8.5	100.0
사무기술	1,743	772	300	228	346	3,389
%	51.4	22.8	8.9	6.7	10.2	100.0
판매서비스	1,099	2,726	468	122	417	4,832
%	22.7	56.4	9.7	2.5	8.6	100.0
농림어업	521	2,705	41	1	154	3,422
%	15.2	79.0	1.2	0.0	4.5	100.0
생산노무	1,490	4,154	745	114	318	6,821
%	21.8	60.9	10.9	1.7	4.7	100.0
전체	5,727	10,717	1,651	574	1,369	20,038
%	28.6	53.5	8.2	2.9	6.8	100.0

<부표 1-7> 직업별 시간부족에 대한 태도(1999년)

	예, 항상	예, 가끔	아니오, 거의	아니오, 전혀	전체
전문관리	690	922	188	38	1,838
%	37.5	50.2	10.2	2.1	100.0
사무기술	1,353	2,142	489	97	4,081
%	33.2	52.5	12.0	2.4	100.0
판매서비스	2,066	2,536	951	259	5,812
%	35.5	43.6	16.4	4.5	100.0
농림어업	1,339	1,561	870	336	4,106
%	32.6	38.0	21.2	8.2	100.0
생산노무	2,352	3,558	1,422	423	7,755
%	30.3	45.9	18.3	5.5	100.0
전체	7,800	10,719	3,920	1,153	23,592
%	33.1	45.4	16.6	4.9	100.0

<부표 1-8>시간부족에 대한 이유(1999년)

	일(학습)때 문에	자녀양육	시간관리를 못해서	교제 및 사회활동	피곤하거나 아파서	기타	전체
전문관리	1,139	117	67	200	75	14	1,612
%	70.7	7.3	4.2	12.4	4.7	0.9	100.0
사무기술	2,241	299	280	492	151	32	3,495
%	64.1	8.6	8.0	14.1	4.3	0.9	100.0
판매서비스	2,845	809	307	385	209	47	4,602
%	61.8	17.6	6.7	8.4	4.5	1.0	100.0
농림어업	2,352	372	67	39	52	18	2,900
%	81.1	12.8	2.3	1.3	1.8	0.6	100.0
생산노무	3,859	771	361	483	386	50	5,910
%	65.3	13.0	6.1	8.2	6.5	0.8	100.0
전체	12,436	2,368	1,082	1,599	873	161	18,519
%	67.2	12.8	5.8	8.6	4.7	0.9	100.0

2. 조사대상(취업자) 표본의 특성

<부표 2-1> 조사대상 인구의 남녀별 구성

		전체	남	녀
1999년	빈도	47,241	26,285	20,956
	%	100	55.6	44.4
2004년	빈도	35,116	19,424	15,692
	%	100	55.3	44.7

<부표 2-2> 조사대상 인구의 연령별 구성

		1999년			2004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0대	빈도	1221	570	651	418	182	236
	%	2.6	2.2	3.1	1.2	0.9	1.5
20대	빈도	8,519	4,204	4,315	5,252	2,306	2,946
	%	18.0	16.0	20.6	15.0	11.9	18.8
30대	빈도	12,738	7,902	4,836	8,864	5,446	3,418
	%	27.0	30.1	23.1	25.2	28.0	21.8
40대	빈도	11,306	6,531	4,775	10,194	5,858	4,336
	%	23.9	24.8	22.8	29.0	30.2	27.6
50대	빈도	7,204	4,075	3,129	5,474	3,132	2,342
	%	15.2	15.5	14.9	15.6	16.1	14.9
60대이상	빈도	6,253	3,003	3,250	4,914	2,500	2,414
	%	13.2	11.4	15.5	14.0	12.9	15.4
합계	빈도	47,241	26,285	20,956	35,116	19,424	15,692
	%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2-3> 조사대상 인구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1999			2004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임금근로자	빈도	27,112	15,742	11,370	21,570	12,036	9,534
	%	57.4	59.9	54.3	61.4	62.0	60.8
고용주	빈도	1,855	1,462	393	2,208	1,776	432
	%	3.9	5.6	1.9	6.3	9.1	2.8
자영자	빈도	11,636	8,021	3,615	7,956	5,274	2,682
	%	24.6	30.5	17.3	22.7	27.2	17.1
무급가족종사자	빈도	6,638	1,060	5,578	3,382	338	3,044
	%	14.1	4.0	26.6	9.6	1.7	19.4
합계	빈도	47,241	26,285	20,956	35,116	19,424	15,692
	%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2-4> 조사대상 인구의 직업별 구성

		1999			2004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경영관리자	빈도	822	784	38	732	692	40
	%	1.7	3.0	0.2	2.1	3.6	0.3
전문가	빈도	2,852	1,677	1,175	2,336	1,200	1,136
	%	6.0	6.4	5.6	6.7	6.2	7.2
기술직	빈도	3,362	2,370	992	3,058	1,984	1,074
	%	7.1	9.0	4.7	8.7	10.2	6.8
사무직	빈도	4,793	2,269	2,524	4,550	2,262	2,288
	%	10.1	8.6	12.0	13.0	11.6	14.6
서비스직	빈도	5,280	1,605	3,675	4,370	1,266	3,104
	%	11.2	6.1	17.5	12.4	6.5	19.8
판매직	빈도	6,337	2,765	3,572	4,014	1,680	2,334
	%	13.4	10.5	17.0	11.4	8.6	14.9
농림어업직	빈도	8,211	4,001	4,210	4,744	2,332	2,412
	%	17.4	15.2	20.1	13.5	12.0	15.4
기능원	빈도	5,335	3,962	1,373	3,560	2,916	644
	%	11.3	15.1	6.6	10.1	15.0	4.1
장치기계조립직	빈도	5,142	4,356	786	3,776	3,178	598
	%	10.9	16.6	3.8	10.8	16.4	3.8
단순노무직	빈도	5,027	2,416	2,611	3,924	1,862	2,062
	%	10.6	9.2	12.5	11.2	9.6	13.1
군인	빈도	-	-	-	52	52	0
	%	-	-	-	0.1	0.3	0
합계	빈도	47,161	26,205	20,956	35,116	19,424	15,692
	%	99.8	99.7	100	100	100	100

<부표 2-5> 조사대상 인구의 산업별 구성

2004년		전체	남	여
농업 및 임업	빈도	4,938	2,310	2,628
	%	14.1	11.9	16.7
제조업	빈도	6,110	3,866	2,244
	%	17.4	19.9	14.3
건설업	빈도	2,584	2,338	246
	%	7.4	12.0	1.6
도매및 소매업	빈도	5,308	2,638	2,670
	%	15.1	13.6	17.0
숙박 및 음식점업	빈도	2,950	844	2,106
	%	8.4	4.3	13.4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	빈도	2,550	1,718	832
	%	7.3	8.8	5.3
교육서비스업	빈도	2,314	758	1,556
	%	6.6	3.9	9.9
기타	빈도	8,360	4,950	3,410
	%	23.8	25.5	21.7
합계	빈도	35,114	19,422	15,692
	%	100	100	100